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투퀴디데스의 『역사』에서의
연설문 연구

2016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장 시 은

투퀴디데스의 『역사』에서의 연설문 연구

지도 교수 김 덕 수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 년 10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장 시 은

장시은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 년 1 월

위 원 장 _____(인)

부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목 차(국문초록)

본 논문은 투퀴디데스의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연설문들의 분석을 통해, 아테네 지도자들의 이념과 비전, 아테네 민주정의 이상과 실제 사이의 충돌, 그것에 대응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쇠락 과정을 투퀴디데스가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적 행태 및 행보의 관계의 변화가 잘 잘 드러나는 연설들을 선택해서, 각 연설문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연설문들의 배치 전략과 연설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페리클레스의 세 개의 연설 (기원전 432-430년)은, 전쟁 직전과 초기에 행해진 연설들로,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정의 이상과 제국주의의 현실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모순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페리클레스 자신은 이 긴장과 모순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은 채, 아테네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면서 데모스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그가 거듭 강조하는 힘(*dynamis*)개념의 애매성은 이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과 역병 서사의 병렬 배치와 마지막 연설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짜 넣음으로써, 페리클레스를 통해 제시된, 데모스(*dēmos*)가 받아들이는 아테네의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조화되었다가 분리되는지를 보여준다. 투퀴디데스는 또한 역병 서사와 페리클레스의 마지막 연설의 비극적 어조를 통해, 역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페리클레스와 그의 죽음에서 예고된, 아테네의 필연적인 쇠망을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논전(기원전 427년)은 반란을 일으킨 뮈틸레네인들에 대한 처벌을 놓고 벌어진 논전으로, 투퀴디데스는 이를 논리적으로 대칭을 이루는 ‘말의 경연(*logōn agōn*)’으로 제시한다. 그는 이들의 말의 경연을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의 상호 관계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삼는다. 클레온은 페리클레스가 교묘하게 매우 신중하게 균형을 유지했던 민주정과 제국주의 사이의 긴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디오도토스는 아테네가 철저히 이해관계 중심의 현실정치를 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제국의 논리는 아테네인들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이용한다. 둘 사이의 팽팽한 논전을 통해서 투퀴디데스는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의 어두운 현실이 존재함을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켈리아 원정에 앞서 행해진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기원전 415년)을 투퀴디데스는 두 인물의 캐릭터에 초점을 맞춰 구성한다. 그는 여러 어휘 대응(verbal echoes)을 통해 페리클레스와 대비되는 한계를 지닌 두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투퀴디데스는 또한 니키아스의 편지와 철수과정에서의 연설을 니키아스의 캐릭터에 맞게 정교하게 재구성해 넣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원정 이후의 아테네가 정치 지도자들의 무력함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머리 없는 폴리스’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투퀴디데스는 아테네의 동력인 정치가와 민중의 상호 작용을 연설들을 매개로 끊임없이 드러낸다. 정치가들의 연설들은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적 행태와 행보가 점차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 수단이 된다. 이 연설문들과 그 맥락과의 관계가 가진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특징들을 통해 투퀴디데스는 일어난 사건들을 단지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역사성을 넘어 보다 보편적인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있다.

주요어 : 그리스 역사서술과 레토릭,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 민회 연설, 지배권, 민중, 말의 경연

학 번 : 2005-30047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사.....	5
3. 투퀴디데스의 역사서술 방법과 ta deonta.....	15
4. 논문의 구성	20
II 아테네의 이상과 현실: 페리클레스의 연설	25
1. 첫 번째 민회 연설.....	27
2. 장례식 추모 연설	38
3. 역병	52
4. 두 번째 민회 연설	58
5. 소결론	76
III. 제국의 논리: 뮈틸레네 논전.....	82
1. 클레온의 연설	85
2. 디오도토스의 연설.....	107
3. 소결론.....	126
IV. 로고스와 욕망: 시켈리아 원정.....	129
1. 니키아스의 첫 번째 연설	131
2.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150
3. 니키아스의 두 번째 연설.....	171
4. 시켈리아 원정과 니키아스	179
5. 소결론.....	189
IV. 결론	192
참고문헌	199
Abstract	22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투퀴디데스의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그 안에서 연설문들이 중심적 내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¹ 작품 안에 연설문을 포함시킨 저자가 투퀴디데스 뿐이었던 것은 아니다.²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그리스 비극에서도 연설문들이 발견되고, 헤로도토스의 『역사』 역시 많은 연설문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연설문의 삽입은 그리스 문학과 역사 서술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³ 하지만 고대의 어떤 저자도 투퀴디데스가

¹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투퀴디데스 『역사』 안에 들어 있는 연설문들을 41개로 헤아린다. Jebb, "The Speeches of Thucydides", in Harding (ed.), *The Speeches of Thucydides* (Coronado Press, 1973). 이 경우 간접 연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West는 연설만이 아닌 대화, 편지, 조언 등을 모두 *logoi*에 포함시킨다. 그는 총 141개의 *logoi* 중 직접 담화 형태로 된 것을 52개로 헤아린다. 이 논문에서는 West를 따르지 않고, Jebb과 마찬가지로 직접화법(*oratio recta*)으로 들어 있는 연설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West, "The Speeches in Thucydides: A Description and Listing", in Stadter (ed.), *The Speeches in Thucydides* (Chapel Hill, 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3).

² 『일리아스』는 역사가 없던 시대, 그리스인들의 역사인식과 과거에 대한 집단 기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경현, '그리스 역사(서술)의 기원', 서양고전학연구 25, 38). 이 작품에서의 연설문들은 역사라는 장르의 태동과 서사시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Walbank는 투퀴디데스와 폴뤼비우스의 문헌 안의 연설문들을 비교하며, 그리스 역사 안에서의 연설문의 전통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Walbank, "Speeches in Greek Historians", *Selected Papers* (Blackwell, 1965), 216-234.

³ 서사시와 비극 등에서 등장 인물들이 직접 화법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장르적 특성상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일리아스』에서 투퀴디데스 연설과 연관해서 작품 전반에 걸쳐 나오는, 서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영웅들의 회의 장면과, 아가멤논과의 불화로 인해 전쟁 참여를 거부한 아킬레스를 찾아간 세 명의 사절, 아이아스, 오뒷세우스, 포이닉스의 연설(ix.225-655)을 주목해 볼만하다. 투퀴디

『역사』에서 그랬던 것만큼 연설문을 의식적으로, 광범위하고 비중 있게 활용하지 않았다. 투퀴디데스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선 헤로도토스 역시 그의 『역사』에 많은 연설문들을 삽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연설문을 사용하는 방식은 투퀴디데스와는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 중 하나는 연설문 서술 원칙을 투퀴디데스만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헤로도토스가 연설문의 서술 원칙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연설문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나 반성이 없이 그것들을 포함시켰음을 시사한다.⁴ 호메로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의 연설문들은,⁵ 대개 길이가 짧고, 공적이지 않은 연설들이다. 이런 연설들은 정형화된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개 전투장면과 같은 결정적인 사건들에서 발견되며, 특히 발언자의 성격을 그려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⁶

데스와 동시대 작가인 에우리피데스의 경우, 특히 많은 연설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소피스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⁴ "Although it was Herodotus who introduced the direct oration into history... our proper point of departure is the well-considered decision of Thucydides to continue with its use." Fornara, *The Nature of History in Ancient Greece and Rome* (Univ of California Press, 1988), 143.

⁵ 호메로스와 헤로도토스의 연설문에 대한 일반적인 비교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만하다. Bakker, "Speeches and Authority in Herodotus' Histories" (Ph.D. Thesis, Universiteit van Amsterdam, 2007) 14-15 ; Jong, "Herodotus", in Jong, Nünlist and Bowie (eds.), *Narrators, Narratees, and Narratives in Ancient Greek Literature: Studies in Ancient Greek Narrative, Volume One* (Brill, 2004), 101-110.

⁶ 마르켈리누스는 투퀴디데스와 헤로도토스의 연설을 비교하면서, 투퀴디데스의 연설들은 공적 연설인 'δημηγορίαι', 헤로도토스의 연설은 극화된 연설 'προσωποποιία'로 구분한다(Marc. Vit. Thuc. 3). 이와 유사하게 쿼틸리아누스는 전자를 'contiones', 후자를 'sermones'로 구분하고 있다(Quint. 10.1.73). 그러나 이런 구분에 대해서 Bakker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녀의 지적대로 헤로도토스의 연설들 안에도 공적인 연설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스트모스에서의 펠로폰네스인들의 논쟁(5.91-83), 켈론의 궁전에서 그리스인들의 논쟁(7.157-162), 페르시아인들의 그리스 원정 직전의 크세르크세스 궁전에서의 논쟁(7.8-11)은 공적인 자리에서 행해진 'δημηγορία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크세르크세스의 궁전에서 행해진 정치체제와 관련한 논쟁(3.80-82)은 투퀴디데스의 『역사』에 나오는 공공 연설들과 매

반면, 투퀴디데스의 『역사』에서 연설문들은 그것들의 역할에 대한 저자의 분명한 의식과 의도를 담고 있는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대중 앞에서 행해진 공적 연설들이고,⁷ 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등장한다. 그의 연설문들은 이전 작가들과는 달리 아테네의 정치구조, 민회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차이를 드러낸다. 투퀴디데스는 이 연설들과 주어진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예리하게 고찰했고 그것을 세심하게 표현했다.

연설문은 기본적으로 말(λόγος)이고 서사를 통해 묘사되는 현실(ἔργον)과 대비된다. 연설문은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연설자가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했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려 했고, 그 판단의 결과를 어떻게 청중들에게 설득하려 했는가를 보여준다. 이 연설문들은 또한 이후의 서사에서 제시될 사건들의 동기나 가능성, 그리고 근거를 앞서 보여주고, 때로는 연설자나 청중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오관을, 때로는 과도한 열망이나 두려움 등의 내면의 감정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연설을 통해 제시된 동기와 감정, 판단 등은 독자들이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복합적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우 유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헤로도토스의 연설은 대개는 ‘προσωποποιία’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⁷ 이 연설들은 대개가 대중 앞에서 행해진 연설로, 민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연설들로 민회 연설, 사절단의 연설, 그리고 독전연설과 장례식 추모연설로 크게 분류된다. Jebb(1973)은 41개의 직접화법으로 제시된 연설들 중 하나를 예식 연설, 두 개를 법정 연설, 그리고 나머지 38개를 정치 연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들은 군사적 독전 연설도 정치 연설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투퀴디데스에 공적연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의 차이와 무관치 않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기원전 6-5세기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당시는 왕과 참주들의 폐쇄적인 정책 결정들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투퀴디데스가 다루고 있는 기원전 5세기 후반 아테네를 비롯한 폴리스들에서는 토론과 연설이 정치의 핵심이었던 시대였던 것이다.

logos(λόγος)인 연설문을 투퀴디데스는 역사 서술의 핵심적 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것을 둘러싼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연설문은 단순히 연설가 자신, 그가 가졌던 생각과 태도의 표현을 넘어선다. 연설가는, 당연히게도, 그가 설득하고자 하는 청중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연설가는 또한 연설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시점에서 적절했을 말이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설문은 연설가를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청중을 비추는 거울이고, 주어진 상황을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연설가와 청중의 관념과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 복합적 사태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speculum sui)이기도 하다.

『역사』의 경우, 투퀴디데스가 공들여 기록한 연설문들은 대개 아테네를 이끈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을 기록한 것이다. 이 연설들은 그들의 현실인식, 그들이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아테네 민중의 믿음과 감정,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조건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그 연설문들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기록한 투퀴디데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이다. 그것이 담고 있는 진실이 이렇게 복합적인 만큼, 『역사』에서의 연설문에 대한 접근은 매우 세심하면서도 철저한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에서의 연설문들 중 특별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해 그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연설은 페리클레스의 세 연설(기원전 432-430년), 뮈틸레네 반란 처리를 둘러싼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논전(기원전 427년), 그리고 시켈리아 원정에 앞서 행해진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기원전 415년)이다. 이 연설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의 중요한 시점에 행해졌고 이후 아테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설들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페리클레스의 연설들은 전쟁 개시 및 전쟁 초기 아테네의 대응 방식을 결정한 연설들이고, 뮈틸레네 논전은 전쟁 중 발생한 동맹국의 반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며, 마지막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은 투퀴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간주한 시켈리아 원정을 앞두고 행해진 연설들이다. 이 연설들은 모두 당대의 주요한 아테네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들 앞에서 행해졌기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주요한 시점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내린 상황 판단, 민중의 상태, 당시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이해를 드러내주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특히 아테네 민주정이 점차 제국주의의 길에 들어서면서, 각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운명에 대해 의식하는지가 이 연설들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이 세 시기의 연설들은 점차 파국적으로 강화되어가는 제국적 아테네의 운명의 비극성과 아테네 민주정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목표는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투퀴디데스가 연설문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이러한 당시 아테네 현실의 결정적인 단면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연설문들은 일차적으로 그것들을 행한 아테네 정치 지도자들과 민중의 의도와 욕구를 보여줄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아테네의 정치적 리더십의 쇠락 과정,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의 근원적 충돌 상황과 파국을 드러낼 것이다.

2. 연구사

투퀴디데스 『역사』에서의 연설문에 관한 연구사를 조망하기에 앞서, 우선 19세기 중반 이후 투퀴디데스 연구와 관련해 가장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소위 ‘투퀴디데스 문제’⁸에 대해서 잠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투퀴디데스가 『역사』를 일관성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지, 그가 삽입해 넣은 연설문들이 투퀴디데스의 서술 의도와 상치되지 않는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가장 처음 제기한 학자는 울리히(F. W. Ullrich)였다. 그는 『역사』가 한 번에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여러 시기에 나누어 집필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투퀴디데스는 기원전 421년, 아르키다모스 전쟁이 끝나고 소위 니키아스의 평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쟁이 완료되었다는 생각으로 1권에서 5권 24장까지를 완성했다. 하지만 시켈리아 원정의 참혹한 결과를 본 그는 다시 계획을 바꿔 원정에 대한 독립적인 기록을 적게 된다. 그리고 기원전 404년 아테네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자, 그는 두 번째의 서문인 5.26을 저술하고, 지금까지의 기록 전체를,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일관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그는 그 작업을 죽기 전에 완성하지 못했다.⁹ 이 밖에도 작품 곳곳에서 발견되는 상충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 투퀴디데스가 전쟁의 결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구절들(2.65.12, 5.26, 6.15.3-4)이 있음에도 『역사』의 서술이 전쟁 종료 7년 전인 기원전 411년의 사건들로 끝이 난다는 사실 등은 『역사』가 미완성이며, 여러 단계에 걸쳐 서술되고, 개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강화시켰다.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분석론자들은 『역사』의 세부내용들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그것

⁸ ‘투퀴디데스 문제’는 소위 ‘호메로스 문제’에서 그 명칭을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후자가 호메로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작품들이 한 작가에 의해 쓰여진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면, 전자는 투퀴디데스가 이 작품의 각 부분을 어떤 시기에 썼는지에 관한, 작품의 구성과 저술시기에 대한 문제이다.

⁹ 울리히는 『역사』의 1-4.51(전쟁의 발발에서부터 스파르타의 함락까지)과, 5.84-8.1(멜로스 사건 이후, 시켈리아 원정에서의 패배까지)은 완성된 형태의 글이지만, 나머지 부분들, 즉 협약문 등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5권의 대부분과, 연설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8권은 초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Ullrich, *Die Entstehung des Thukydideischen Geschichtswerkes*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8)

이 반영하는 투퀴디데스의 생각의 변화들을 추적하고자 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연설문들은 시기를 확정하는 작업의 중요한 단서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전쟁 중에 투퀴디데스의 생각이 바뀌었으며, 펠로폰네소스 전쟁 말에, 전쟁을 시작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 페리클레스와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자, 투퀴디데스가 이를 변론하기 위해 『역사』를 고치고 보완했으며, 특히 연설문들과 저자 자신의 자신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부분들에 이런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¹⁰ 하지만 이러한 분석론자(Analyst)들에 맞서, 마이어(C. Meyer)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역사』가 적어도 7권까지는 한 시기에 저술된 작품이고 그 안에서 시간적 충위를 분석하고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을 단일론자(Unitarian)라 부른다.¹¹ 이후 ‘투퀴디데스 문제’를 둘러싼 분리론자들과 단일론자들 간의 논쟁은 근 한 세기 이상 투퀴디데스 연구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¹² 이 논쟁이 영미권과 프랑스 학자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점차 우세를 차지한 쪽은 단일론이었다. 절충적 단일론자라고 볼 수 있는 로밀리(J. de Romilly)는 투퀴디데스 작품 속에서 비록 여러 시간적 충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분석해 낼 수 없으며, 아테네 제국주의라는 주제가 모든 시간적 충위들과 모순들을 하나로 녹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¹³ 그녀를 위시하여 『역사』의 통일성과 작가의 의도를 입증하는 여러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단일론은 점점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는 단일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 안에서 각기 작품 안의 모순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려 시도하고

¹⁰ Schwartz, *Das Geschichtswerk des Thukydides* (F. Cohen, 1919), 239.

¹¹ 단일론자들은 『역사』 5권과 8권에 대한 ‘방어’에 집중했고, 5권의 협약문들이 손질되지 않은 사료가 그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투퀴디데스가 의도적으로 집어 넣은 것이라고 보면서 작품 전체가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Meyer, *Die Urkunden im Geschichtswerk des Thukydides* (CH Beck, 1970).

¹² 투퀴디데스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 Gomme, *HCT V* (1981), 361-444, Rusten, *Thucydides II* (1991), 3-7, 28-29.

¹³ Romilly, *Thucydides and Athenian imperialism* (Blackwell, 1963)

있고,¹⁴ 작품 전체의 통일성과 투퀴디데스의 일관적인 사고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단일론이 점차 우세를 확보해 가는 것과 나란히 활발해진 움직임은 『역사』를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그것의 텍스트적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¹⁵ 물론 그 이전에도 『역사』를 문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로는 컨포드(F. M. Conford, *Thucydides Mythistoricus* (1907))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주류 역사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나 로밀리를 위시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역사』를 단지 사료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적) 텍스트로서 연구하는 접근 방식은 강력한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특히 도화선의 역할을 한 것은 코너(W. R. Connor)의 'A Post-Modernist Thucydides?', 도버(K. J. Dover)의 "Thucydides "As History" and "As Literature" 였다.¹⁶ 이후, 투퀴디데스 연구는

¹⁴ 5권과 8권과 전체 작품과의 통일성을 주장한 학자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Stahl, *Thucydides: die Stellung des Menschen im geschichtlichen Prozess* (Beck, 1966); Connor, *Thucydid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Rood, *Thucydides: Narrative and Explanation: Narrative and Expla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Stahl은 『역사』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역사』에 모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투퀴디데스가 이를 '예술적인 방법으로 통일성을 만들어 가고 있고, 5권과 8권의 문제도 그렇게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고, 단순히 시기를 분석해 내기 보다는 작품을 전체로 이해하며 그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nor는 5권의 문헌들이 전쟁에서 평화로 넘어가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협약에 따른) 의무와 실제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권 역시 '예속'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¹⁵ Romilly, *Histoire et Raison chez Thucydide* (Les Belles lettres, 1967); Stahl(1966), ; Kitto, *Poi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¹⁶ Connor, "A Post Modernist Thucydides?", *Classical Journal* (1977); Dover, "Thucydides" As History" and" As Literature"", *History and theory* (1983).

전통적인 ‘역사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소위 ‘문학적·수사적’ 측면에서의 연구의 두 갈래로 크게 나누어지게 된다.¹⁷

문학적 측면에서의 투퀴디데스 연구 분야에서는 최근 특히 서사학(narratology)의 기법들을 도입해 『역사』에서의 사건 서사와 연설문에 접근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¹⁸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루드(T. Rood)는 서사학적인 분석을 통해 『역사』에서의 서사와 연설은 분리된 독립적 조각들이 아니라 상호 공명을 이루고 하나로 짜여있는 유기체를 이루고 있으며, 『역사』 전체가 통일된 하나의 텍스트라는 점을 환기시켰다.¹⁹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한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역사』와 그리스 문학의 다양한 장르와의 비교를 시도한다. 기원전 6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산문, 즉 족보(genealogiai) 연대기(chronology), 부족들에 대한 역사(ethnography), 지리지 등과, 과학 및 의학문헌, 그리고 소피스트의 문헌들과의 비교 연구는 고대 역사서술의 기원과 투퀴디데스 역사 서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 투퀴디데스 자신이 서문에서(1.21) 산문작가들(λογογράφοι)와 자신을 구분하고 있고²⁰, 『역사』 곳곳에서 다른 장르들의 영

¹⁷ 국내에서는 김정현, 「헤로도토스를 위한 변명」, (『고전학연구』 2005) 에서 헤로도토스와 투퀴디데스와의 비교를 통해 투퀴디데스의 역사서술적 연구를 개괄하였다.

¹⁸ 특히 주목해야 할 학자는 Rood이다. Hornblower의 제자인 그는 de Jong이 오뒷세이아 연구에 도입했던 Genette와 Bal의 서사학적 방법론을 투퀴디데스 연구에 도입했다. 그의 이 연구는 고대 역사 문헌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Rood(2004), Cf. De Jong, *A narratological commentary on the Odyssey* (2001).

¹⁹ Rood는 이 과정에서 특히 ‘투퀴디데스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5권과 8권에 주목했다.(Rood, *ibid.*) 그는 분석론자들이 미완성 혹은 초고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던 이 두 권이 『역사』의 다른 부분과 이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역사』가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라는 단일론적 입장을 더 강력하게 입증해 보였다.

²⁰ LSJ에서는 λογογράφος를 밀레토스의 카드모스에서부터 헤로도토스에 이르기까지의 초기 그리스 역사가들을 가르킨다고 설명한다. Hornblower는 연대기작가

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¹ ‘역사’라고 일컬을 만한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와의 비교는 물론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²² 헤로도토스와 투퀴디데스의 비교 연구는 다른 산문 문헌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호메로스와의 비교 연구로 연결된다. 그레트라인(J. Grethlein)은 ‘기억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서사시와의 연관성 속에서 투퀴디데스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²³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혼블로워(S. Hornblower)는 『역사』와 핀다로스의 서정시와의 비교를 시도한다.²⁴ 하지만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역사』와 비극과의 연관성이다.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역사』 안에서 다양한 비극적 패턴들을 발견해냈고, 비극 작품들과의 어휘적 주제적 유사성을 분석하기도 했다.²⁵ 특히, 월뱅크(H. W. Walbank)와 울만(B. Ullman) 등은 『역사』를 ‘비극적 역사 (tragic history)’로 규정하면서, “비극적 역사 문체는 그리스-로마의 역사기술 전통에

(chronicler)로 번역면서, 헤카타이오스, 그리고 심지어 헤로도토스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HCT I, 59-60.

²¹ 20세기 초반 편집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Fragmente Der Griechischen Historiker*의 방대한 편집 주해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²² Foster and Lateiner, *Thucydides and Herodotu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²³ Grethlein, *Greeks and Their Past: Poetry, Oratory and History in the fifth Century BCE* (Cambridge, 2010).

²⁴ Hornblower, *Thucydides and Pindar: historical narrative and the world of Epinikian poet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²⁵ Conford가 이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역사』 안에 있는 여러 이야기 패턴들을 분석해서, 『역사』의 ‘플롯’이 비극 속의 신화적 패턴들과 유사한 패턴들로 짜여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역사학계 주류에서는 한동안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후 비극적 역사에 대한 논의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Conford, *Thucydides Mythistoricus* (E. Arnold, 1907); 그밖의 비극과의 연구는 Egan, "Thucydides, tragedian", *The Writing of History: Literary Form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1978); Finley, "Euripides and Thucydides",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1938); Macleod, "Thucydides and Tragedy", *Collected Essays* (Clarendon Press, 1983).

서 처음부터 존재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⁶ 기원전 5세기의 연설문들, 나아가 수사학과 『역사』를 연관시키는 연구들도 활발하다.²⁷ 이러한 연구들이 비극적 패턴을 지나치게 도식화하고 있고 『역사』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역사』에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투퀴디데스가 일관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완결된 형태로 썼다는 데에는 최근의 학자들의 견해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지만, 그가 ‘무엇을’ 썼는지 보다는 ‘어떻게’ 썼는가에 관심을 둔 이런 연구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가로서의 투퀴디데스관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역사』에서의 문학적인 요소를 강조하면 할 수록, 그것이 가지는 역사성의 비중은 감소될 수 밖에 없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로로(N. Loraux)는 우리가 『역사』를 아무런 의심 없이, 현대적 의미의 ‘역사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많은 시대착오적인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투퀴디데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의 모습을 대입시켜 그를, 그리고 그의 작품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²⁸ 여기서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투퀴디데스가 20세기 중반까지 믿어져 온 것처럼 ‘과거의 사실이 본래 어떠했는지(Wie es eigentlich gewesen)’²⁹를

²⁶ ‘비극적 역사’와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Walbank, "Tragic history: a reconsideration",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2 (1) (1955); Walbank, "History and tragedy",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1960); Ullman, "History and tragedy",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942); 이두희, 「고대 역사 기술과 내러티브」, 『인간환경미래』 4 (2010).

²⁷ Moraux, "Thucydide et la rhétorique", *Les études classiques* 22 (1954) 은 Rhetorica ad Alexandrum과 Ars Rhetorica가 투퀴디데스의 연설들을 이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밖에, Macleod, "Rhetoric and History (Thucydides 6.16-18)", *Collected Essays*. (Oxford: Clarendon Press, 1983); Woodman, *Rhetoric in Classical Historiography: Four studies* (Areopagitica Press, 1988) 등도 투퀴디데스의 연설문을 수사학과 연관성 속에서 해석한다.

²⁸ Loraux, "Thucydide n'est pas un collègue", *Quaderni di storia* 12 (1980)

²⁹ von Ranke, *Sämtliche Werke* Bd. 33/34, Leipzig, S. 7 (1885)

보여주는 역사의 의무에 충실했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가가 아니라면, 과연 그의 『역사』를 믿을 만한 역사서술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투퀴디데스가 어떠한 사건들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건들을 생략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인 학자들 중 몇몇은 극단적인 견해에 도달하기도 한다. 헌터(V. Hunter)는 역사서술적으로 투퀴디데스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투퀴디데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생략과 배치, 그리고 패턴들을 이용해 작품을 구성했다고 보면서, 이런 투퀴디데스를 ‘거짓말쟁이’라고까지 비판한다.³⁰ 반면 역사적 접근방법을 택한 배이디언(E. Badian) 여러 사료들과의 비교를 통해 투퀴디데스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전쟁의 원인이 된 메가라 봉쇄령을 비롯하여 아테네에 불리한 사건들에 대해서 생략해버리고, 언어와 데이타를 모두 조작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³¹ 그들은 접근법은 다르지만 모두 투퀴디데스는 매우 ‘계획적인’ 작가였고, 자신의 ‘부정직한’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논증을 만들어 나갔다는 견해를 보이며, 투퀴디데스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견 투퀴디데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문학적 접근은 해소 불가능한 난관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투퀴디데스의 문학과 계획을 강조하면, 그가 서문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온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공허해질 위험이 있다. 반면, 문학적 접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그의 텍스트가 가지는 정교한 구조와 세밀한 표현들의 의미를 축소 내지 간과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이런 당혹스러운 해석적 상황 속에서, 『역사』에서의 연설문들은 매우 큰 중요성과 의미를 가진다. 다음 절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 되겠지만, 투퀴디데스는 자신의 작품 안에 광범위하게 포함시킨 연설문들을 기록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객관적 사실의 기록을 목표로 이야기 하면서도

³⁰ Hunter, *Thucydides: the Artful Reporter* (Toronto: Hakkart, 1973).

³¹ Badian, *From Plataea to Potidaea: Studies in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the Pentecontaeti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저자로서의 자신의 개입도 동시에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떻게 이 둘이 양립 가능한가에 관해서 학자들은 현재까지도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설문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초로 그것의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한 켄(R. C. Jebb)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그를 이어 일군의 학자들이 『역사』 안에 나오는 연설문들을 추려내어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분류하고 이 연설문들을 사건 서사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³² 이에 반해, 연설문들을 서사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³³ 앞서 언급한 역사성과 문학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에서의 연설들이 ‘역사가의 자유로운 창작’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연설들이 투퀴디데스의 실제 일어난 연설문들을 대체로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컨포드(F. M. Conford)는 투퀴디데스가 연설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 그는 투퀴디데스의 역사가 과학적인 역사가 아니라, ‘비극적 작품’과 유사한 플롯을 패턴에 따라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하나의 문학 작품과도 같다고 주장한다. 베이디언은 투퀴디데스의 연설문들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평가, 인물의 성격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허구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아주 소수의 짧은 연설들만이 실제의 연설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니스(H. Yunis)는 많은 연설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결코 행해졌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투퀴디데스의 연설들이 그 자신의 분명한 목적, 정치적 레토릭의 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일 가능성을

³² Jebb(1973), Strasburger, "Thucydides and the Political Self-Portrait of the Ahteninas", in Rusten (ed.), *Thucydid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Heath, "Justice in Thucydides' Athenian Speeches",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1990); Debbar, *Speaking the same language: speech and audience in Thucydides' Spartan debat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³³ Stahl(1966); Romilly(1967)은 투퀴디데스의 연설문들의 배치, 연설문들과 서사와의 관계의 중요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연설들이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제기한다.³⁴ 이들에 반해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로는 고프(A. W. Gomme), 케이건(D. Kagan), 코건(M. Cogan) 등을 들 수 있다.³⁵ 이 밖에도 연설문들이 완전한 창작물은 아니지만, 여러 기회에 행해진 연설들을 하나로 결합시킨 것이라는 해석 등 연설문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다.³⁶

이제까지의 연구사가 투퀴디데스의 역사서술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밝혀주었지만, 투퀴디데스의 문학성과 역사성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시도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특히, 역사문헌에서 역사성과 수사성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³⁷ 이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가의 의도를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투퀴디데스의 문학성과 역사성이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주요 연설문들의 분석을 통해서 그것들에 포함된 문학적, 수사적 요소들이 객관적 사실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된 사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투퀴디데스에 의해 세심하게 선별되고 정밀하게 구성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투퀴디데스가 『역사』를 통해 보이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는 왜 그것이 인류의 ‘영원한 자산(κτῆμα ἐς αἰεὶ)’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는가? 그리고 그의 연설문들은 그의 이 서술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투퀴디데스의 문학성과 수사성은 투퀴디데스의 역사성을 훼손하는가? 투퀴디데스의 연설문은 서사시나

³⁴ Conford(1907), ix; Badian(1993), 115; Yunis, *Taming democracy: Models of political rhetoric in classical Athen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61-63.

³⁵ Gomme, "The Speeches in Thucydides", *Essays in Greek history and literature* (Beaufort Books, 1937); Kagan, "The speeches in Thucydides and the Mytilene debate", *Yale Classical Studies* 24 (1975); Cogan, *The Human Thing: The Speeches and Principles of Thucydides'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xi-xvi.

³⁶ 이 추모 연설이 그 해에 열린 장례식에서의 연설 내용뿐 아니라, 다른 때 행해진 연설들의 내용까지 하나의 연설에 담아서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은 Flashar, *Der Epitaphios des Perikles, seine Funktion im Geschichtswerk des Thukydides* (C. Winter, 1969).

³⁷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이론에서는 역사를 문학의 형식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Cf. Haden White, A. C. Danto, L.O. Mink.

비극에서처럼 서사를 보다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보조적 장치로만 기능하는가? 투퀴디데스의 작품 안의 문학적, 수사적 요소들을 외면하고 『역사』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들에 대한 정보만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생겨나고 생기를 얻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로부터 이 작품을 떼어놓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그의 『역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문학적, 수사적 요소들이 그의 역사성을 구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연설들 자체에 대한, 그리고 연설들과 연설이 행해진 맥락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길을 제시해줄 것이다.

3. 투퀴디데스의 역사서술 방법과 *ta deonta*(τὰ δέοντα)

본 투퀴디데스의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투퀴디데스 자신이 밝히고 있는 역사 서술 방법론, 그 중에서도 연설문 서술 방식에 대한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22.에서 자신의 역사 서술의 대상을 말해진 것들(τὰ λεχθέντα)과 행해진 것들(τὰ ἔργα)로 나눈다. 행해진 것들과 관련해서 그의 서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연히 얻은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οὐκ ἐκ τοῦ παρατυχόντος πυνθανόμενος), 내 생각에 따르지 않으며(οὐδ' ὡς ἐμοὶ ἐδόκει),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든, 각각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하게 상술하는 것(ὅσον δυνατόν ἀκριβείᾳ περὶ ἐκάστου ἐπεξελθώ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다. 문제는 바로 앞에서 투퀴디데스가 제시하는 말해진 것들에 대한 서술 원칙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καὶ ὅσα μὲν λόγῳ εἶπον ἕκαστοι ἢ μέλλοντες πολεμήσειν ἢ ἐν αὐτῷ ἤδη ὄντες, χαλεπὸν τὴν ἀκρίβειαν αὐτὴν τῶν λεχθέντων διαμνημονεῦσαι ἦν ἐμοὶ τε ὥν αὐτὸς ἤκουσα καὶ τοῖς ἄλλοθεν

ποθεν ἐμοὶ ἀπαγγέλλουσιν: ὥς δ' ἂν ἐδόκουν ἐμοὶ ἕκαστοι περὶ τῶν αἰεὶ παρόντων τὰ δέοντα μάλιστα εἰπεῖν, ἐχομένῳ ὅτι ἐγγύτατα τῆς ξυμπάσης γνώμης τῶν ἀληθῶς λεχθέντων, οὕτως εἴρηται.

전쟁을 치르게 될 사람이나 전쟁을 이미 치르고 있는 사람들 각자가 말로 이야기한 것들을, 내 자신이 직접 들었던 다른 경로로 전해 들었던, 매번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내게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내 판단에 따라 각 연설자들이 매번 주어진 상황에서 (말했을법한) **마땅한 것들을 무엇보다 말하도록, 실제 말해진 것들의 전체적 취지에 가장 가깝도록 하면서, 그렇게 말해지도록** 했다. (1.22.1)

이 설명은 많은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투퀴디데스가 밝히고 있는 두 세부 원칙, 즉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연설자들이 각 상황에서 마땅(히 말했어야만)한 것을 말하도록 했다는 원칙과 최대한 실제로 말해진 바의 취지에 가깝도록 기록했다는 원칙이 양립 불가능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전자의 원칙은 ‘마땅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투퀴디데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개입시켰음을 천명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후자의 원칙은 그와 반대로 실제로 말해진 바에 최대한 가깝게 기록했음을 밝히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의 원칙은 연설문의 주관성을 후자의 원칙은 객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원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³⁸ 앞서 연구사를 조망하면서 살펴 보았듯이, 투퀴디데스의 연설문들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확성을 주장하는 견해에

³⁸ 다양한 견해들을 일목요연하게 조망한 글로는 Hornblower, *Thucydides* (London, 1987), 45-72.

서부터,³⁹ 투퀴디데스가 연설들의 논변과 표현 모두를 발명했다는 비난,⁴⁰ 여러 시기에 행해진 연설들을 하나로 결합시켰다는 견해,⁴¹ 그리고 연설가가 그 자신의 견해를 연설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는 주장까지⁴² 매우 다양한 입장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 위의 원칙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투퀴디데스의 객관성과 역사적 진실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ἐγγύτατα τῆς ξυμπάσης γνώμης τῶν ἀληθῶς λεχθέντων’ 쪽에 방점을 찍고, ‘τὰ δέοντα μάλιστα’ εἰπεῖν의 의미는 축소하려 한다. 예를 들어, τὰ δέοντα를 ‘적절함(appropriate)’ 정도로 번역하면서, 연설들의 핵심인 ‘전체 요지(τῆς ξυμπάσης γνώμης)’ 외의 것들은 적절한 한도 내에서 더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⁴³ 이런 해석은 『역사』 전체에 대한 해석의 태도와 관련되어

³⁹ 연설들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주35에서 언급한 Gomme, Kagan, Cogan 등이 있다.

⁴⁰ Conford은 투퀴디데스의 연설들이 정확한 기록이 아니며 투퀴디데스의 작품을 극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Conford, Badian은 모든 연설들이 투퀴디데스의 창작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연설들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고, 직접화법(oratio recta)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상황과 캐릭터에 근거한 픽션에 불과하지만, 간접화법(oratio obliqua)이나 짧은 연설들의 경우는 표현까지도 실제 말해진 연설과 일치할 것이라고 보았다. Yunis는 투퀴디데스가 노골적으로 정치연설들에서 자신의 숨씨를 드러내 보였으며, 그가 ‘화자의 의도’라는 역사적 진실성의 본질적인 요소만 붙잡고, 실제 연설에서는, 결코 제시되지도, 제시될 수도 없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실제의 연설들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한다. Yunis(1996), 62.

⁴¹ Flashar는 페리클레스의 장례 추모 연설과 관련한 논의에서 투퀴디데스가 전체 연설들을 만들어 냈거나 혹은 여러 연설들을 하나로 모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Flashar(1969).

⁴² Romilly는 1권의 스파르타 회의에서의 아테네 사절의 연설이나 3권의 뮈틸레네 논전에서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은 투퀴디데스가 제시한 것과 같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적으며, 투퀴디데스가 이 연설을 통해 보이고자 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Romilly(1963), 160, 243.

⁴³ Walbank(1965), 246; Ste Croix, *The origins of the Peloponnesian War* (Cornell University Press, 1972), 11; Cf. Wilson, "What does Thucydides claim for his speeches?", *The Phoenix* (1982), 95-103.

있는 만큼, 이 단락만 가지고 그것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순전히 이 구절의 구문적 형태와 관련해서 이 해석이 가지는 난점 하나는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구문상 ‘ἐγγύτατα τῆς ξυμπάσης...’는 분사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독해는 그것이 주절인 ‘τὰ δέοντα μάλιστ’ εἶπεῖν’에 종속되어 있다고 읽는 것이다. 만일 투퀴디데스가 ‘실제 발언된 것에 가깝게’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생각했다면, 이 내용을 주절이 아닌 분사구로 삼은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이다.⁴⁴ 반면 『역사』를 문학적, 수사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τὰ δέοντα μάλιστ’ εἶπεῖν’에 방점을 찍으며 관련된 ‘τὰ δέοντα’의 의미에 관심을 기울였다. ‘τὰ δέοντα’에 대한 이들의 해석은 다양하다. 그것은 연설의 상황,⁴⁵ 수사적 전통과 맥락,⁴⁶ 연설자의 성격⁴⁷의 관점에서 볼 때 마땅히 말해졌어야 할 것들로 해석된다. 이들은 투퀴디데스가 연설문 내용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두 입장 사이에서 일종의 중도적인 해석을 모색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중 한 해석은 두 조건이 아예 다른 연설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외견상의 충돌을 해소하려 한다. 예를 들어, 투퀴디데스가 직접 지켜 본 연설들의 경우에는 정확성의 원칙이, 그가 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연설들의 경우에는 마땅함의 원칙이

⁴⁴ ‘ἐχομένῳ ὅτι...’의 여격(dative)은 ‘ὥς δ’ ἂν ἐδόκουν ἐμοὶ’의 ἐμοὶ에 걸려 이를 보충해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Hornblower(1987), 45ff.

⁴⁵ Jebb은 “τὰ δέοντα”가 반드시 화자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Jebb(1973), 253.

⁴⁶ Macleod는 이 표현이 고르기아스의 『헬레네』, 이소크라테스의 『소피스트를 반박함』에도 나온다는 점을 이 구절을 수사적 전통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그는 만일 ‘τὰ δέοντα’를 ‘적절함’으로 해석한다면, 고르기아스까지 이어지는 수사적 용례를 무시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미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시켈리아에 전문 연설가들이 활동했었고, 소피스트들이 활동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투퀴디데스의 연설문에 이런 영향이 들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Macleod(1983).

⁴⁷ Tompkins, "Stylistic Characterization in Thucydides: Nicias and Alcibiades", *Yale Classical Studies* 22 (1972).

적용되었다는 식이다.⁴⁸ 혹은 두 원칙이 같은 연설의 다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ὅσα μὲν λόγῳ'로 시작되는 앞 부분은 연설의 내용을, 'ὥς δ' ἂν ἐδόκουν...'은 연설의 형태를 설명해 준다.⁴⁹

투퀴디데스가 제시한 두 목표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투퀴디데스가 보이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가 연설문과 관련해서 추구했던 진실이 단순히 말해진 것들을 자구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옮기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설문을 독자들에게 영원한 자산으로 적으면서 투퀴디데스는 단순히 한 명의 필경사로서 말해진 바들을 최선을 다해 정확하게만 전하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다. 그는 연설문을 둘러싼 보다 총체적인 진실을 전하기를 원했다. 앞서 이야기된 대로, 연설문은 그 안에 연설가의 판단, 의도, 욕구뿐만 아니라 청중들의 상태와 성향,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 모두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어떤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연설을 촉발한 상황과 그것의 결과로 발생한 상황을 추가해야 한다. 투퀴디데스는 연설문을 통해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려 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태의 본질이지 그것의 모든 세세한 디테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이야기한 'ta deonta(τὰ δέοντα)'는 그가 생각한 사태의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말했을 법한 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분명 그가 수집한 자료들을 취사 선택하고, 그것을 재구성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선별되고 재구성되는 방식은 해당 연설의 성격과 그것이 행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⁴⁸ Rusten, *The Peloponnesian war: book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13-14.

⁴⁹ Garrity, "Thucydides 1.22. 1: Content and form in the speeche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998), 361-364; Bosworth, "The Historical Context of Thucydides' Funeral Oration",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20 (2000).

그런 순간들에서도 그는 자신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그것이 그 연설의 말하고자 했던 바의 핵심 혹은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맥클리어드(C. Mackod)의 비유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투퀴디데스가 단순히 연설들을 ‘재연’하지 않고, ‘재구성해서 제시’하는 것을 세잔(Cézanne)이 생빅투아르(St. Victoire) 산을 화폭에 옮기는 것에 비유한다.⁵⁰ 세잔이 생빅투아르 산을 사진처럼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그가 그것을 왜곡하고자 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사물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로 환원해서 제시하는 것이 진실에 대한 왜곡이 아니라, 사물과 풍경의 본질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투퀴디데스는 그가 기록한 연설들을 단순히 ‘재연’하지 않고 ‘재구성해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실로부터 곧 그는 자의적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내려고 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가 기록한 연설문에 포함된 ‘ta deonta(τὰ δέοντα)’는 진실의 왜곡이 아니라, 그가 전달하고 싶었던 총체적 진실일 것이다. 그렇기에 바로 이 연설문과 연설의 맥락에 대한 연구야말로 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투퀴디데스의 역사서술과 연설문에 관한 배경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장은 크게 연구사와 투퀴디데스의 연설문 서술 원칙이 기술된 1.22.1에 대한 논의로 나뉘어진다. 우선 연구사 부분에서는 투퀴디데스 연구의 주요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그 속에서 연설문 관련 연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본 연구가 어디에 자리하

⁵⁰ Mackod(1983), 69.

는지를 밝힌다. 다음으로 연설문 서술 원칙에 관한 부분에서는 1.22.1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특히 투퀴디데스가 제시한 두 원칙, 즉 “τὰ δέοντα μάλιστα” εἰπεῖν과 ‘ἐγγύτατα τῆς συμπάσης γνώμης τῶν ἀληθῶς λεχθέντων’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을 검토한 후,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해석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페리클레스가 전쟁 초기 행한 세 개의 연설을 다룬다. 페리클레스의 연설들은 투퀴디데스가 그에게 부여한 특별한 위치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가 민중에게 아첨할 필요없이 그들에게 최선의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설득할 수 있었던 특별한 지도자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 아테네는 “이름만 민주정치(δημοκρατία)였을 뿐 실제 권력은 제일인자의 손에 있었다(2.65.9)”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이, 투퀴디데스의 관점에서, 아테네 민주정이 도달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logos*(λόγος)를 대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장에서는 과연 어떤 점에서 그 연설문들이 그렇게 간주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우선 두 개의 민회 연설의 분석을 통해서, 페리클레스가 민중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최선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수사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가 분석된다. 또 가장 유명한 장례 연설의 분석을 통해서, 무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현실적 힘을 넘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힘을 국가적 공지와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통해 국난의 상황에서 국가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페리클레스의 정치적 역량을 드러낸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아테네의 어두운 이면에도 주목한다. 표면적으로 그의 연설문은 이상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색채를 띤다. 하지만 그것을 세밀히 들여다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가 매혹적으로 묘사하는 아테네 민주정의 이상과 헬라스의 지배권을 누리고 있는 아테네의 현실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모순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긴장과 모순이 특히 그가 거듭 강조하는 ‘힘(δύναμις)’ 개념의 애매성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인다. 또 본 장에서는 장례 연설, 역병, 두

번째 의회 연설로 이어지는 서술의 방식 속에서 드러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체를 바라보는 투퀴디데스의 견해가 어떤 것인가를 논의한다.

3장에서는 통상 ‘뮈틸레네 논전’으로 불리는, 뮈틸레네 반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논전을 다룬다. 본 장에서는 우선 논전의 배경인 뮈틸레네 반란 사건을 아테네의 지배권의 확장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연설의 배경적 상황에 대해 간단히 다룬다. 그리고 다음으로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에 의해 행해진 연설을 세밀히 분석한다. 이 둘의 연설은 전형적인 대립 논변의 구조를 보여주며, 둘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의 수사적 기교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클레온의 연설과 관련해서는, 그가 뮈틸레네인들에 대한 분노를 다시 아테네인들로부터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분석된다. 그는 우선 도발적인 발언으로 아테네인들의 즉각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킨 다음, 점진적으로 그 반감을 뮈틸레네에게로 돌리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힘의 논리에 기초한 제국주의적 질서와 그 바탕에 놓인 아테네인들의 욕망에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페리클레스의 연설에서는 다소 모호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제국주의적 욕구를 아무런 제약 없이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테네의 정치적 이념의 쇠퇴를 반영한다. 클레온의 연설에 반대하는 디오도토스의 연설은, 일견 훨씬 온건하고 이성적인 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바람직한 것으로 비쳐진다. 하지만 텍스트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의 연설 역시도, 정의라는 도덕적 이념이 아닌 오직 아테네의 이익의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테네의 정치 이념의 쇠퇴를 보여준다는 점이 드러나게 된다. 두 사람의 팽팽한 연설 대결 속에서 투퀴디데스는 아테네의 어두운 현실의 두 측면을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두 측면은 아테네의 민중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이끌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아테네의 지배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강압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동맹국들의 반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두 측면을 차분하지만

효과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투퀴디데스는 아테네가 궁극적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본 장의 결론이 된다.

4장에서는 투퀴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체를 통틀어 아테네의 패배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시켈리아 원정에 앞서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가 행한 세 연설을 분석한다. 이 둘의 연설은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에 비해서도 더 타락한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의 연설에서는 연설이 표방하는 외적 메시지와 그들의 내적 동기 간의 완전한 불일치가 드러난다. 니키아스는 시켈리아 원정에 내심 반대하면서도, 공개적인 반대가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킬 것이 두려워 그러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반면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절호의 기회로서만 시켈리아 원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둘의 연설 속에서 목격되는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은 정신적 이상도, 공적인 이익도 아닌,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만적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것이 아테네의 정치적 리더십의 몰락을 의미하며, 투퀴디데스가 이를 통해 아테네 몰락이 피할 수 없는 귀결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연설들의 검토에 이어서 본 장의 뒷부분에서는 원정의 출발장면과 원정 과정에서의 니키아스의 캐릭터에 주목하며 그의 편지와 독전 연설을 살펴볼 것이다. 시켈리아 원정 준비를 위한 민회에서 연설을 통해 투퀴디데스가 보여주고 있는 니키아스의 캐릭터는 이후 시켈리아 원정이라는 실제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구체화되는데, 이 부분은, 투퀴디데스의 연설문이 『역사』 안에서 서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설 속의 필연성은 서사적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연설(λόγος)들 속에서의 리더십의 쇠락은 투퀴디데스가 특별히 공들여서 서술한 시켈리아 원정에서 현실(ἔργον)이 되어 나타난다.

5 장 결론 부분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연설문들 속에서 드러나는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 간의 근원적 모순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그것을 관찰하고 기록한 투퀴디데스의 궁극적인 판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고찰해 본다.

II. 아테네의 이상과 현실: 페리클레스의 연설

페리클레스는 투퀴디데스가 평가한 인물 중 가장 뛰어난 정치 지도자였다. 투퀴디데스는 반복적으로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의 제일인자였다고 강조한다.⁵¹

Περικλῆς ὁ Ξανθίππου, ἀνὴρ κατ' ἐκεῖνον τὸν χρόνον πρῶτος Ἀθηναίων, λέγειν τε καὶ πράσσειν δυνατώτατος.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는 당시 아테네의 **제일인자**로서 **말과 행동에서 가장 유능한 자**였다. (1.139.4)

κατεῖχε τὸ πλῆθος ἐλευθέρως, καὶ οὐκ ἤγετο μᾶλλον ὑπ' αὐτοῦ ἢ αὐτὸς ἤγε, ... ἐγίγνετό τε λόγῳ μὲν δημοκρατία, ἔργῳ δὲ ὑπὸ τοῦ πρώτου ἀνδρὸς ἀρχή.

(그는) 대중을 자유롭게 장악할 수 있었으며, 대중이 그를 이끈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이끌었다. ... 그 통치는 명목상으로는 민주정치였지만 실제로는 제일인자에 의한 것이었다. (2.65.8,10)⁵²

⁵¹ 투퀴디데스는 2.65.9에서도 페리클레스를 *πρῶτος*라고 수식한다. 이 구절은 페리클레스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로마의 '제일 시민(princeps)'을 떠올리게 하지만, 당시 아테네에서 장군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대단히 한정되어 있었다. 아테네 민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데모스의 힘은 막강했다. 데모스의 결정 없이, 혹은 데모스의 반대없이 페리클레스가 독단적으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음은 분명하다. 그는 열명의 선출 장군 중 한 명일 뿐으로, 그의 장군직 선출도 데모스에게 달려 있었다. Rhodes, "Who Ran Democratic Athens?", in Hansen, Nielsen and Rubinstein (eds.), *Polis & Politics* (Museum Tusculanum Press, 2000). 이런 상황에서 페리클레스의 권력과 힘은 전적으로 그의 설득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Connor(1984), 60, n.26.

⁵² 이후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모두 투퀴디데스의 『역사』 인용이고, 번역은 본인의 것이다. 다른 작가들의 원전에 대한 번역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 천병희 역(鎭)을 사용하였다.

제일인자라는 것은 공식직책상 최고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의 구절은 그 힘이 업적 못지않게 그의 말의 힘으로부터 온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투퀴디데스는 그의 말의 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αἴτιον δ' ἦν ... διὰ τὸ μὴ κτώμενος ἐξ οὐ προσηκόντων τὴν δύναμιν πρὸς ἡδονὴν τι λέγειν, ἀλλ' ἔχων ἐπ' ἀξιῶσει καὶ πρὸς ὀργὴν τι ἀντειπεῖν. ὁπότε γοῦν αἴσθοιτό τι αὐτοὺς παρὰ καιρὸν ὕβρει θαρσοῦντας, λέγων κατέπλησεν ἐπὶ τὸ φοβεῖσθαι, καὶ δεδιότας αὖ ἀλόγως ἀντικαθίστη πάλιν ἐπὶ τὸ θαρσεῖν.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적절치 못한 수단으로 권력을 차지하려 들지 않아서 그는 그들의 귀의 즐거움을 위해 말할 필요가 없고, 명망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에게 반대하며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들이 오만함으로 대담함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여길 때면 놀랄만한 말을 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반면 그들이 근거 없이 겁에 질려 있으면 다시 용기를 갖도록 일으켜 세웠다.(2.65.8-9)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전기적 사항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는다. 그는 대신 페리클레스의 말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료는 다른 아닌 페리클레스의 연설문들이다.⁵³ 투퀴디데스가 전하는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은

⁵³ 투퀴디데스가 말하고 있는 페리클레스의 연설가로서의 능력은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Cf. 플루타르코스, 『페리클레스』에서는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마치 올림포스의 신들과도 같았다고 말한다.; 에우폴리스 『데모이』: “그 사람은 인간들 중 가장 말하는 능력이 뛰어난 자였지. 그가 일단 앞에 나오면, 뛰어난 달리기 선수 처럼, 열 길은 뒤에서 말하며 다른 연설가들을 따라잡았어. 정말 그는 빠르게 말했는데, 그 속도뿐 아니라, 그의 입술에는 어떤 신빙성이 있어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매혹시켰어. 연설가들 중 그만이 듣는 자들에게 따끔함을 남겨놓았지.” (fr. 102 K.-A.).

모두 세 개이다. 첫 번째 연설(1.140-144)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선전포고에 개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아테네 민회에서의 연설이고, 두 번째 연설은(2.35-46) 전쟁 첫해 전장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치러진 국장에서 행해진 추모 연설이다. 마지막 연설은(2.60-64) 장례식 후 역병이 아테네를 휩쓸고, 펠로폰네소스 군이 앗티케를 유린하자 페리클레스에게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한 민중을 향해 민회에서 행한 연설이다.

이 세 개의 연설들은 각기 연설의 상황은 다르지만 전쟁 초기 페리클레스가 구상하고 있던 아테네의 모습과 아테네인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아테네 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장에서는 페리클레스의 세 개의 연설문을 검토해서 페리클레스의 정치지도자로서의 역량이 그의 연설들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가 아테네 시민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살펴보고 하겠다

1. 첫 번째 민회 연설⁵⁴

페르시아 전쟁 이후 그리스의 여러 나라들은 페르시아의 또 다른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 방어동맹인 델로스 동맹을 결성한다.⁵⁵ 페르시아

κράτιστος οὗτος ἐγένετ' ἀνθρώπων λέγειν
ὁπότε παρέλθοι δ', ὥσπερ ἀγαθοὶ δρομῆς,
ἐκ δέκα ποδῶν ἥρει λέγων τοὺς ῥήτορας,
ταχὺν λέγεις μὲν, πρὸς δέ γ' αὐτοῦ τῷ τάχει
πειθῶ τις ἐπεκάθειζεν ἐπὶ τοῖς χεῖλεσιν
οὕτως ἐκήλει καὶ μόνος τῶν ῥητόρων
τὸ κέντρον ἐγκατέλειπε τοῖς ἀκροωμένοις.

⁵⁴ 이 연설은 투퀴디데스 1권 80-85장에 들어 있는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의 연설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페리클레스의 다른 연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연설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르키다모스 연설과의 세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페리클레스의 연설 안에서의 설득의 방법만으로 논의를 한정하도록 하겠다. 두 연설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Finley, *Thucydid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42), 130, 139, 140; Gomme et al, *HCT I*, 226.

군을 몰아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아테네는 그리스 자유의 수호자라는 명목 하에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⁵⁶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기 위해 결성된 이 동맹에서 동맹국들은 함선을 대거나 함선을 댈 능력이 없는 경우 기금을 내야 했다. 아테네는 이를 이용해 점차 자신의 패권을 확장해 가고, 동맹의 맹주로서의 위상을 넘어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간다.⁵⁷ 하지

⁵⁵ 투퀴디데스는 50년 전간기사(πεντεκονταετία, 1.89-117)에서 페르시아 전쟁 종료 직후,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작까지(기원전 479년에서 432년) 아테네가 세력을 키워갔던 과정에 대해 다루면서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시작해 점차 제국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다. πεντεκονταετία 라는 말은 스킴리아에서 사용된 이후(“ἀρχὴ τῆς πεντεκονταετίας”), 이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고정되었다.

⁵⁶ 투퀴디데스는 델로스 동맹 당시 페르시아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여러 헬라스의 폴리스들이 자발적으로 아테네에 헤게모니아를 넘겨주었다고 말한다.(“παραλαμβάνοντες δὲ οἱ Ἀθηναῖοι τὴν ἡγεμονίαν τοῦτω τῷ τρόπῳ ἐκόντων τῶν συμμάχων διὰ τὸ Πausanίου μῖσος”1.96.1). Gomme는 이 전간기사에서 투퀴디데스가 여기서 지배권(ἀρχήν)이 아닌 헤게모니아(ἡγεμονίαν)라고 말함으로써, 아테네가 “느슨한 연맹체(a loose confederacy)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제국(a more or less well organized empire)”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Gomme et al. *HCT I*, 272).

⁵⁷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행태, 내지는 아테네 제국은 분명 로마나 페르시아, 혹은 근대적 제국주의의 모습과는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러 아테네가 ‘제국주의적’ 혹은 ‘제국’이라고 불릴만한 여러 요소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다. 델로스 동맹의 결성의 이유가 되었던 ‘페르시아의 위협’ 요소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이 동맹 기금을 아테네로 옮기고, 각국의 공여금 할당량을 늘리고 동맹 탈퇴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다른 폴리스들의 정치적 사건 처리 등에 개입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해갔고, 결국 여러 동맹국 중 하나가 아닌 지배국으로 자리매김해 간다.

투퀴디데스는 이런 아테네의 변화들을 인식하고, 이를 아테네 패망의 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를 비롯한 당대 정치인들이 제국이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여 연설문 안에서의 ‘ἀρχή’는 지배권, 지배로 번역하되, 페리클레스의 생각이나 필자의 생각에서 아테네의 이런 제국주의적 행태를 설명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는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물론 이때의 제국은 ‘제국적 행태를 보이는 아테네’ 혹은 ‘아테네의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다. Winton, "Thucydides 1.97.2: The 'arche of the Athenians' and the 'Athenian Empire'", *Museum Helveticum* 38 (1981) 고

만 이를 경계하던 라케다이몬을 비롯한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몇 개의 사건 (케르퀴라, 포테이다이아⁵⁸ 사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을 빌미로 전쟁을 하기로 결의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한다. 얼마 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힌 메가라 봉쇄령⁵⁹을 철회하고 교전 중이거나 이미 차지한 폴리스들에서 철군하고 자치권(αὐτονομία)⁶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

대 그리스의 제국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 Meiggs, *The Athenian Empire* (Oxford: Clarendon Press, 1975); Rhodes, *The Athenian Empi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Mattingly, *The Athenian empire restored: epigraphic and historical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Low, *The Athenian Empi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특히 투퀴디데스와 아테네의 제국주의에 관한 논의는 Romilly(1963).

⁵⁸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의 갈등은 이미 페르시아 전쟁 이후 시작되어 전쟁 직전에 극에 달하였다. 투퀴디데스는 1권 89-117에서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가 국력이 신장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전쟁의 빌미가 된 사건들로는 케르퀴라 사건과 포테이다이아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케르퀴라 사건은 기원전 434년, 코린토스의 식민지였던 케르퀴라와 케르퀴라 자신의 식민지였던 에피담노스 사이의 불화가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함대가 격돌한 쉬보타 해전으로 변진 사건을 들 수 있다. (1.24-55) 에피담노스 사건은, 433/2년 칼키디케 반도의 코린토스의 식민지 에피담노스를 두고 아테네와 코린토스가 충돌한 사건이다. (1.56-65)

⁵⁹ 메가라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들이 있었으나, 투퀴디데스는 이 중에서 메가라 봉쇄령에 대해서만 몇 차례 언급한다. (1.67.4 “메가라인들은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며, 특히 자신들이 아테네 항구들과 앳티케 지방의 시장에서 배제된 것은 조약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1.139.1 “그들은[라케다이몬인들은] 메가라인들은 아테네의 모든 항구와 앳티케 지방의 시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메가라 결의’를 아테네인들이 철회하지 않는 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4.2 “라케다이몬인들이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들을 그들의 외국인 추방령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도 메가라인들이 우리의 시장과 항구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십시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봉쇄령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Hornblower, *The Greek World 479-323 BC* (Routledge, 2011), 108-109.

⁶⁰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 내의 폴리스들의 폴리스 내부 사정들에 개입하고 있었다. 특히 많은 폴리스들의 경우 반역죄나, 살인죄 등의 재판권은 아테네에 있었다 (1.77.1). 이 외에도 많은 법정들이 각 폴리스가 아닌 아테네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5세기 중반 아테네는 단일 화폐체계를 구축해서, 아테네 제국 안에서 통용되도록 했다. 모든 폴리스들이 이에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세력이 약한 폴

며,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최후통첩을 아테네에 보내온다. 라케다이몬인들의 요구에 응해 메가라 봉쇄령을 철회하고 이전에 취한 영토들을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할 것인가? 투퀴디데스가 기록하고 있는 페리클레스의 첫 번째 연설은 이 결정을 놓고 열린 기원전 432년 아테네 민회에서 행해진 것이다.⁶¹ 주전파와 주화파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리클레스는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해야함을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해 전쟁을 원하지 않거나 주저하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이 전쟁에서 아테네인들에게 승산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두려움과 망설임이 근거 없는 것임을 일깨우려 한다.

페리클레스의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한다.

τῆς μὲν γνώμης, ὧς Ἀθηναῖοι, αἰεὶ τῆς αὐτῆς ἔχομαι, μὴ εἶκιν
Πελοποννησίους,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의 입장은⁶² 늘 한결같습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1.140.1)

리스들의 경우 이에 따라야 했다. Gomme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치권(αὐτονομία)은 각 폴리스가 자신의 국내의 사안들을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자신의 관리들을 선출하고, 시민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자치권을 가진 폴리스라 하더라도, 동맹 안에 있는 이상, 대외 관계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동맹 이탈 금지나 주둔지, 원정과 관련한 제한들은 자치권의 제한이라기 보다는 자유(ἐλευθερία)의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Gomme et al., *HCT* I. 383-4)

⁶¹ 『역사』에서 연설문이 직접화법으로 제시되는 경우, 대부분 반대 견해가 함께 제시되는 대립논변(*antilogia*)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연설들은 예외적으로 다른 반대 연설 없이 단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투퀴디데스가 독자들에게 페리클레스의 연설의 견해에 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처럼 독자들이 생각하도록 만듦으로써 그를 독보적인 존재로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⁶² γνώμη는 사전적으로 견해, 입장, 생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자신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사람’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이는 그가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는 자신의 입장의 한결같음을 수시로 바뀌는 민중의 열의와 입장과 대비시킨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로 설득되었을 때와 똑같은 열의(óργή)를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οὐ τῇ αὐτῇ óργῃ ἀναπειθομένους τε πολεμεῖν καὶ ἐν τῷ ἔργῳ πράσσοντας), 상황에 따라 입장까지 바꾼다는 것을(πρὸς δὲ τὰς ξυμφορὰς καὶ τὰς γνώμας τρεπομένους)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다시 한 번 자신의 태도를 민중의 그것과 대조시킨다. “지금도 저는 이전과 동일하고 거의 유사한 것을 제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ὁρῶ δὲ καὶ νῦν ὁμοῖα καὶ παραπλήσια συμβουλευτέα μοι ὄντα)”⁶³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시작한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그러한 양보는 굴종과 다름없는 것임을 보이는 것이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이전에도 아테네인들에게 계락을 꾸짖고 지금도 못지않게 그렇다(πρότερόν ... ἦσαν ἐπιβουλεύοντες ἡμῖν καὶ νῦν οὐχ ἥκιστα).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기로 조약에⁶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

정책에서나, 성품에서도 변함없는 믿을 만한 사람을 청중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사람이 설득되는 세 개의 요소로 들고 있는 에토스(ἦθος), 파토스(πάθος), 그리고 로고스(λόγος) 중에 에토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회 연설에서는 에토스, 즉 연설자가 어떤 사람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페리클레스의 두 개의 민회 연설은, 이 세 요소를 잘 결합시키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377b25-29.

⁶³ 페리클레스는 세 번째 연설에서도 자신이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2.61.2 “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⁶⁴기원전 446/5년 겨울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맺어진 평화조약에서 아테네는 전쟁으로 획득한 펠로폰네소스의 영토를 포기하기로 합의한다. 30년 평화조약에 대해서 투퀴디데스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바가 없다. 다른 사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30년 평화 조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Ste Corix(1972), 293-4 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투퀴디데스는 1.23.4에서 “아테네인들과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에우보이아 섬을 함락하고 맺은 30년 평화조약을 파기함으로써 일어났다” 여기에 더해 그는 “말로는 전혀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가장 참된 원인(πρόφασις)은 아테네인들

구하고 그들은 중재를 요청하지도,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협상보다는 전쟁으로써(πολέμῳ μᾶλλον ἢ λόγοις) 불만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항의하는(αἰτιώμενοι)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고 있다(ἐπιτάσσοντες) (1.140.2). 하나의 폴리스가 동등한 다른 폴리스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은 노예 상태(δούλωσις)나 다름 없는 것이다. (1.141.1)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소한 양보이며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다. 사소한 양보가 더 큰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ὕμῶν δὲ μηδεὶς νομίσει περὶ βραχέος ἂν πολεμεῖν, εἰ τὸ Μεγαρέων ψήφισμα μὴ καθέλοιμεν, ὅπερ μάλιστα προύχονται, εἰ καθαιρεθῇ, μὴ ἂν γίνεσθαι τὸν πόλεμον, μηδὲ ἐν ὑμῖν αὐτοῖς αἰτίαν ὑπολίπησθε ὥς διὰ μικρὸν ἐπολεμήσατε. τὸ γὰρ βραχὺ τι τοῦτο πᾶσαν ὑμῶν ἔχει τὴν βεβαίωσιν καὶ πεῖραν τῆς γνώμης. οἷς εἰ ξυγχωρήσετε, καὶ ἄλλο τι μείζον εὐθύς ἐπιταχθήσεσθε ὥς φόβῳ καὶ τοῦτο ὑπακούσαντες: ἀπισχυρισάμενοι δὲ σαφὲς ἂν καταστήσαιτε αὐτοῖς ἀπὸ τοῦ ἴσου ὑμῖν μᾶλλον προσφέρεσθαι.

“여러분 중 누구라도 만일 메가라 법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로 인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이 사소한 일이 여러분의 입장에 대한 전적인 결의이자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들에게 양보하면, 저들은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고서는, 즉시 다른 더 큰 무언가를 요구해 올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단호히 거절하면, 저들에게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1.140.4-5)

이 강성해져서 그들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킨 것이 저들로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인다.

페리클레스는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더 큰 것들을 양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결국 선조들이 애써 지켜온 자유를 잃고 예속될 것이라 경고한다. 그리고 그는 작은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동등한 폴리스로 대우받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페리클레스는 강조한다.

페리클레스는 이제 양편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인들보다 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οὐκ ἀσθενέστερα ἔσομεν)을 확신시키고자 한다(1.141.2). 그는 먼저 펠로폰네소스인들의 상황을 설명한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여유 재산이 없어서 전쟁을 단발적으로밖에 벌일 수 없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1.141.3-5).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여러 구조적인 약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들에게는 단일 심의기구가 없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동맹내의 모든 폴리스들이 각기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 각기 자신의 폴리스와 부족에 유익한 일만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1.141.6-7). 펠로폰네소스인들의 전력과 전략도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다. 페리클레스는 그들이 가진 경제적 열악함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상 전투 경험이 없고 육상전투 경험만 있는 것을 그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1.142.1-143.1). 그는 펠로폰네소스인들의 단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불리함을 상쇄할 전략을 제시한다. 그는 육군의 힘과 수에 있어서 아테네는 분명 열세에 있지만, 다른 유리한 점들이 많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바다에 대한 지배력((τὸ τῆς θαλάσσης κράτος)이 있다.

μέγα γὰρ τὸ τῆς θαλάσσης κράτος. σκέψασθε δέ: εἰ γὰρ ἤμεν νησιῶται, τίνες ἂν ἀληπτότεροι ἦσαν; καὶ νῦν χρῆ ὅτι ἐγγύτατα τούτου διανοηθέντας τὴν μὲν γῆν καὶ οἰκίας ἀφεῖναι, τῆς δὲ θαλάσσης καὶ πόλεως φυλακὴν ἔχειν ... τὴν τε ὀλόφυρσιν μὴ οἰκιῶν καὶ γῆς ποιεῖσθαι, ἀλλὰ τῶν σωμάτων: οὐ γὰρ τάδε τοὺς ἄνδρας, ἀλλ' οἱ ἄνδρες ταῦτα κτῶνται.

바다에 대한 지배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난공불락인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최대한 섬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땅과 집을 버리고 바다와 폴리스를 방어해야 합니다. ... 우리는 집과 땅이 아닌 몸을 잃는 것에 대해서만 통탄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1.143.5)

아테네의 강점이 바다의 지배권에 있다는 생각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⁶⁵ 그러나 페리클레스에게서 독특한 점은 그가 이 생각을 스파르타와의 전면전을 피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침공해 들어와서 아테네의 땅과 집을 유린했을 때, “그것들 때문에 분노하면서(ὀργισθέντας)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펠로폰네소스인들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아테네인들이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섬들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바다까지를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들은 달리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땅이나 집에 대한 파괴를 큰 손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감정에 휩쓸려 무모한 전면전을 벌이지 않게 될 것이다. 페리클레스의 의도는 바로 아테네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영토로 걸어서 진군해 온다면, 우리는 저들의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갈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의 일부분이 파괴되는 상황과 애틀케 전체가 파괴되는 상황을 비교해도, 그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⁶⁵ 투퀴디데스는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전쟁 직후 페이라이에우스 성벽을 완성하면서 아테네인들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고 처음으로 말했고, 바다의 지배권이 아테네가 제국을 갖게 되는 직접적인 기여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93.4). 다른 폴리스들도 이미 전쟁 이전부터 아테네가 가진 해상 지배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스파르타의 왕 아르키다모스도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 직전 자신들이 중무장보병과 인구 수에 있어서는 아테네인들보다 우세하지만, 아테네인들은 많은 섬나라들을 지배하고 있고, 필요한 물자를 바닷길로 수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81.2-3).

은 싸우지 않고서는 다른 영토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영토가 섬들과 내륙에 있기 때문입니다(1.143.4).” “우리는 집과 땅이 아닌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해서만 통탄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1.143.5).”

페리클레스의 전략이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이고, 전면전보다는 장기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잘 드러난다.

πολλὰ δὲ καὶ ἄλλα ἔχω ἐς ἐλπίδα τοῦ περιέσεσθαι, ἣν ἐθέλητε ἀρχὴν τε μὴ ἐπικτᾶσθαι ἅμα πολεμοῦντες καὶ κινδύνους αὐθαίρετους μὴ προστίθεσθαι: μᾶλλον γὰρ πεφύβημαι τὰς οἰκείας ἡμῶν ἀμαρτίας ἢ τὰς τῶν ἐναντίων διανοίας.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지배권을 더 확장하거나 군이 자초해서 위험을 더하려고 하지만 앎으신다면, **우리가 승리해 내리라는 희망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이유들을 델 수 있습니다. 저는 적들의 전략보다는 우리 자신의 과오가 더 두렵습니다. (1.144.1)

‘περιέσεσθαι’는 ‘승리하다’와 ‘생존하다’의 두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중의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페리클레스는 두 생각을 교묘하게 결합시켜서, 이 전쟁이 장기적으로 ‘견뎌내서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앞서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사이의 눈에 보이는 여러 요소들, 특히 군사와 정치 경제적 차이를 비교하며 아테네가 더 우위에 있음을 보였다. 이제 그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생각으로, 상상으로 파악해야 할 확장된 제국으로 아테네를 제시한다. 그는 이 그림 속에서, 즉 아테네인들이 섬과도 같은 아테네 도성 안에 모두 모여 육상에서의 전면전을 피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약점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아테네인들이 농촌의 토지와 집을 포기하고 아테네의 도성 안으로 이주해서 도성을 방어한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

을 것이고, 앳티케의 농촌이 파괴되더라도 아테네는 자신들의 해상의 지배력에 힘입어 승리를 이뤄내고 아테네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 아테네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제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전통적인 공간적 폴리스 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폴리스를 제시한다. 폴리스는 지리적 공간, 즉 집과 영토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어디든 옮겨갈 수 있고, 옮겨진 그곳 역시 그들의 폴리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아테네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해권이 그들이 폴리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바다 전체로 확장된 아테네의 상은 아테네인들로 하여금, 페리클레스가 최선의 전략으로 생각했던 방안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고 그 결과들을 좀 더 잘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탁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페리클레스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가지는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 될 것이다.

ἔκ τε τῶν μεγίστων κινδύνων ὅτι καὶ πόλει καὶ ἰδιώτῃ μέγισταί τιμαὶ περιγίγνονταιοἱ γοῦν πατέρες ἡμῶν ὑποστάντες Μήδους καὶ οὐκ ἀπὸ τοσῶνδε ὀρμώμενοι, ἀλλὰ καὶ τὰ ὑπάρχοντα ἐκλιπόντες, γνώμη τε πλέονι ἢ τύχῃ καὶ τόλμῃ μείζονι ἢ δυνάμει τὸν τε βάρβαρον ἀπεώσαντο καὶ ἐς τάδε προήγαγον αὐτά. ὧν οὐ χρὴ λείπεσθαι, ἀλλὰ τοὺς τε ἐχθροὺς παντὶ τρόπῳ ἀμύνεσθαι καὶ τοῖς ἐπιγίγνομένοις πειρᾶσθαι αὐτὰ μὴ ἐλάσσῃ παραδοῦναι

폴리스든 개인이든,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가장 큰 영예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페르시아에 맞섰을 때, 그들은 우리가 가진 만큼의 자원으로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습시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도 버리고, 운보다는 판단력으로, 힘보다는 용기로 이방인들을 몰아냈고, 이 폴리스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시다. 우리가 그들에 못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들을 막아내어, 후손들에게 이 폴리스를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넘겨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144.3-4)

페리클레스는 위대한 조상들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현재의 세대를 거쳐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연결시킨다. 정신적인 가치에 호소하는 그의 전략은 다음 장에서 논의할 추모 연설에서 훨씬 더 잘 드러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설득에 성공했음을 전한다. “아테네인들은 그의 조언을 가장 훌륭한 조언으로 여기고 그가 요청한 대로 결의했다(1.145.1).”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직시하되, 아테네의 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정신적인 가치인 영예를 붙들 것을 호소함으로써, 그들을 설득해 낸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여기서, 아테네인들의 생각과 행동 사이의 괴리를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킨다. 민중은 페리클레스에게 설득되어 결의는 했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투퀴디데스는 여러 차례 보여준다.⁶⁶ 실제로 데모스가 페리클레스의 조언대로 행한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다. 투퀴디데스는 데모스의 반응을 연설에 바로 이어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그들이 페리클레스의 연설에 별 이의가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 후 한참 지나서야 이 전략에 대한 데모스의 주저함과 반발을 드러낸다.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농지와 재산을 공공재산으로 헌납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고 다시 그들을 설득한다. 그제서야 아테네인들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농촌에서 시내로의 이주를 시작한다(2.13-14).

⁶⁶ 2.14-17, 2.21-22.

2. 장례식 추모 연설

전쟁 첫 해 겨울(기원전 431/0), 페리클레스는 전몰자들을 위한 국장에서 추모연설을 한다. 페리클레스의 추모 연설은 투퀴디데스 『역사』에 나오는 다른 모든 연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논전의 일부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국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해진 연설이며, 굳이 구분하자면, 장르적으로도 예식연설에 속한다.⁶⁷ 이 연설은 민회연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테네가 취해야 할 대외정책 혹은 전략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일반적인 추모연설(ἐπιτάφιος λόγος)은 선조들과 전사자들에 대한 칭송, 시민들에 대한 권고, 그리고 전사자들의 친지들을 향한 위로의 말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⁶⁸ 이와는 달리, 페리클레스의 추모 연설은 아테네의 과거의 업적을 칭송하기 보다는 아테네의 현재에 대해 집중한다. 투퀴디데스가 『역사』 1-2권에서 생생하게 그려 보이려 한 아테네의 초상은 이 추모연설에서 이상적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아테네와 아테네인들이 처한 현실은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페리클레스의 조언대로 그들은 용맹하게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전쟁은 그들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갔다. 특히 아티케의 영토들이 펠로폰네소스 동맹군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페리클레스가 맞서 싸우지 못하게 막자 그들은 페리클레스의 방어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⁶⁷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문을 민회연설(συμβουλευτικός λόγος, 보다 넓게는 정치연설), 예식연설(ἐπιδεικτικός λόγος), 그리고 법정 연설(δικανικός λόγος)로 구분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358b7.

⁶⁸ 아테네의 장례식 추모 연설 전통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Loraux, *The Invention of Athens: the Funeral Oration in the Classical C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Ziolkowski, *Thucydides and the tradition of funeral speeches at Athens* (Ayer Co Pub, 1981); Bosworth(2000), 1-16; Flashar(1969).

παντί τε τρόπῳ ἀνηρέθιστο ἡ πόλις, καὶ τὸν Περικλέα ἐν ὀργῇ
εἶχον, καὶ ὧν παρήνεσε πρότερον ἐμέμνηντο οὐδέν, ἀλλ’
ἐκάκιζον ὅτι στρατηγὸς ὧν οὐκ ἐπεξάγοι, αἰτίον τε σφίσιν
ἐνόμιζον πάντων ὧν ἔπασχον.

폴리스는 온갖 방법으로 들고 일어섰고, 페리클레스에게 분노했다. 그들은 그가 이전에 조언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고서 그가 장군임에도 자신들을 이끌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자기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2.21.4)

아테네인들의 분노에 대해 페리클레스는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면서 은인자중했다.

Περικλῆς δὲ ὁρῶν μὲν αὐτοὺς πρὸς τὸ παρὸν χαλεπαίνοντας
καὶ οὐ τὰ ἄριστα φρονοῦντας, πιστεύων δὲ ὀρθῶς γινώσκειν
περὶ τοῦ μὴ ἐπεξιέναι, ἐκκλησίαν τε οὐκ ἐποίει αὐτῶν οὐδὲ
ξύλλογον οὐδένα, τοῦ μὴ ὀργῇ τι μᾶλλον ἢ γνώμη ξυνελθόντας
ἐξαμαρτεῖν, τὴν τε πόλιν ἐφύλασσε καὶ δι’ ἡσυχίας μάλιστα
ὅσον ἐδύνατο εἶχεν.

페리클레스는 그들이 현재 상황에 화가 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현명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나가 싸우지 않는다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민회나 다른 회의를 아예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성적 판단= 보다는 충동에 의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폴리스를 지키고, 할 수 있는 한 가만히 있고자 했다. (2.22.1)

이렇게 상황 속에서 전쟁 첫해 겨울을 맞자, 아테네인들은 관습에 따라 전사자들을 위한 국장을 치르고 그 연설자로 페리클레스를 선정했다. 페리클레스는 이 기회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다시금 용기와 자신감을 불러 일으킬

계기로 삼았다. 그것을 위해 그는 통상적인 추모 연설을 따라 과거의 업적들을 칭송하는 대신에 현재의 아테네의 위대함을 드높이고, 그들의 힘을 확신 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페리클레스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한다.

οἱ μὲν πολλοὶ τῶν ἐνθάδε ἤδη εἰρηκόντων ἐπαινοῦσι τὸν προσθέντα τῷ νόμῳ τὸν λόγον τόνδε, ὥς καλὸν ἐπὶ τοῖς ἐκ τῶν πολέμων θαπτομένοις ἀγορεύεσθαι αὐτόν. ἐμοὶ δὲ ἀρκοῦν ἂν ἐδόκει εἶναι ἀνδρῶν ἀγαθῶν ἔργῳ γενομένων ἔργῳ καὶ δηλοῦσθαι τὰς τιμὰς, οἷα καὶ νῦν περὶ τὸν τάφον τόνδε δημοσίᾳ παρασκευασθέντα ὀρᾷτε.

이 자리에서 연설한 많은 분들이 이 추모 연설을 국장의 일부로 제정한 분을 칭송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이들에게 연설이 행해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겨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훌륭한 행동을 드려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명예를 높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지금 이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에서 보고 계십니다. (2.35.1)

연설의 모두에서 페리클레스는 연설보다는 장례식으로 죽은 이들을 기리는 것이 옳지만 관례에 따라 연설을 하노라 말하며, 자신이 하게 될 말(λόγος)은 돌아가신 분들의 훌륭한 업적(ἔργον)을 더 높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ἐμοὶ δὲ ἀρκοῦν ἂν ἐδόκει εἶναι ἀνδρῶν ἀγαθῶν ἔργῳ γενομένων ἔργῳ καὶ δηλοῦσθαι τὰς τιμὰς). 연설을 못하면 기려야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 보이고, 연설을 잘하면 듣는 이들이 그들을 질투하게 되기 때문이다.⁶⁹ 그는 이러한 서두로, 통상적인 추모연설과는 달리, 죽은 이들보다는 살아있는 자들, 아테네의 과거보다는 아테네의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⁶⁹ 연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실제로 연설을 하는 페리클레스의 추모연설의 모두에서 사용된 figura는 parasiopesis(παρασιώπησις)에 해당한다.

그는 아테네의 역사를 셋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그는 먼저 페르시아 이전의 선조들에 대해 언급하고, 그런 후 페르시아인들과 싸워서 자유를 얻어내고 그들의 제국의 기초를 마련한 아버지 시대를 칭송한다. 그는 추모연설의 주 내용이어야 하는 아테네의 과거에 대한 칭송을 간략하게만 언급한 후,⁷⁰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들, 곧 “우리 폴리스가 어떠한 원칙들(ἐπιτηδεύσεις)로 지금 이 상태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체제(πολιτεία)와 어떠한 삶의 방식들(τρόποι)로 위대해졌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런 후에 전사자들에 대한 찬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며, 그 제국을 강화하고 자족적인 상태로 만들어낸 자신들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를 옮겨간다(2.36.4).

페리클레스는 우선 아테네의 정치체제에 대한 유명한 설명을 제시한다. 그가 설명하는 아테네의 정제에는 민주정의 가장 좋은 요소들과 최선자정제(aristocracy)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즉, 민주정은 다수를 위한 정제이며, 모두가 법 안에 평등하다는 isonomia(ἰσονομία)의 정신이 있다. 동시에 여기에는 탁월함에 대한 선호가 들어 있다.

χρώμεθα γὰρ πολιτεία οὐ ζηλούσῃ τοὺς τῶν πέλας νόμους, παράδειγμα δὲ μᾶλλον αὐτοὶ ὄντες τισὶν ἢ μιμούμενοι ἑτέρους. καὶ ὄνομα μὲν διὰ τὸ μὴ ἐς ὀλίγους ἀλλ’ ἐς πλείονας οἰκεῖν δημοκρατία κέκληται: μέτεστι δὲ κατὰ μὲν τοὺς νόμους πρὸς τὰ ἴδια διάφορα πᾶσι τὸ ἴσον, κατὰ δὲ τὴν ἀξίωσιν, ὥς ἕκαστος ἐν τῷ εὐδοκιμεῖ, οὐκ ἀπὸ μέρους τὸ πλεον ἐς τὰ κοινὰ ἢ ἀπ’ ἀρετῆς προτιμᾶται, οὐδ’ αὖ κατὰ πενίαν, ἔχων γέ τι ἀγαθὸν δρᾶσαι τὴν πόλιν, ἀξιώματος ἀφανεία κεκώλυται.

우리의 정제는 이웃의 제도들을 따라 한 것이 아니며, 다른 이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⁷⁰ 일반적인 장례 연설에서는 신화적인 과거나 페르시아인들을 무찌른 과거의 영광에 대해 길게 다루었다. 페리클레스는 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한 후 아테네의 현재를 더 중점적으로 다룬다. Loraux(1986), 133-171.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이름은 민주정이라 불립니다. 사적인 분쟁들에 관해서는 법률에 따라 모두가 평등합니다. 반면 공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자격에 따라, 각자가 평가되는 대로, 추첨이 아닌 탁월함에 의해서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폴리스에 뭔가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에 따른 신분의 미미함으로 인해 제약 받는 일도 없습니다. (2.37.1)

우리가 보통 민주정으로 번역하는 데모크라티아는 말 그대로 데모스가 권력을 갖는 정체이다. 이 말은 데모스(δημός)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데모스를 아테네 시민 전체, 민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빈민, 평민파로 볼 것인지에 따라 데모스가 권력을 갖는 데모크라티아 역시 시민 모두가 투표권을 갖고 국가 안에서 다수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⁷¹, 평민들이 지배하는 정체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⁷² 여기서 페리클레스는 데모스를 다수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테네 민주정은 다수자를 위해 통치되는 정체이며 이 안에서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평등한 정체라는 것이다.⁷³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관직에 관

⁷¹ Cf. 6.89.6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지각 있는 사람은 민주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고, 그 점은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민주정의 피해자였기에 누구보다도 민주정을 비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정부 형태라고 누구나 동의하는 민주정에 관해서는 새로운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6.39.1 아테나고라스의 연설 中, “민중은 국가 전체를 뜻하는 반면 소수자에 의한 정부인 ‘과두정체’는 국가의 일부를 의미할 뿐입니다.”

⁷² Gomme et al, *HCT II*, 107. “늙은 과두주의자는 민주정을 이 의미로 이해했다.”

⁷³ Cf. 에우리피데스, 『탄원하는 여인들』, (천병희 역, 일부 수정) 429-434: “한 나라에 참주보다 더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네. 무엇보다도 그런 나라에는 공공의 법이 없고, 한 사람이 법을 독차지하여 자신을 위해 통치를 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은 결코 평등(ἴσον)이 아닐세. 하지만 일단 법이 쓰여지면, 힘없는 자나 부자나 동등한 정의를(τὴν δίκην ἴσην) 가지게 된다네.”

(οὐδὲν τυράννου δυσμενέστερον πόλει,
ὅπου τὸ μὲν πρῶτιστον οὐκ εἰσὶν νόμοι
κοινοί, κρατεῖ δ' εἷς τὸν νόμον κεκτημένος

한 설명에는 또 다른 요소가 나타난다. 모든 이들은 평등하지만, 공적인 직무의 경우에는 조건이 붙는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탁월성(ἀρετή)이며, 그 자리에 대한 적격성(ἀξιωσις)이다. ‘폴리스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라는 조건에 합당하다면 빈부의 차이도 없다. 탁월한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가장 뛰어난 자들이 권력을 갖는 정체와 데모스가 권력을 갖는 정체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놓고 아테네 정체가 사실은 아ρισ토크라티아(ἀριστοκρατία)이거나, 혹은 혼합정체가 아닌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 왔다.⁷⁴ 플라톤 역시 『메넥세노스』에서 이런 아테네 민주정을 ‘대중의 찬성이 수반된 아ρισ토크라티아’라고 부르고 있다.⁷⁵ 후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건 간에 페리클레스의 말에 따르면, 아테네는 소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과두정에 대비되는 의미로서 민주정이라는 정체를 취하지만, 이 정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폴리스를 이끌고 이를 이롭게 할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페리클레스는 정체로서의 민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언급한 후, 이런 아테네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ἐλευθέρως δὲ τὰ τε πρὸς τὸ κοινὸν πολιτεύομεν καὶ ἐς τὴν
πρὸς ἀλλήλους τῶν καθ’ ἡμέραν ἐπιτηδευμάτων ὑποψίαν, οὐ

αὐτὸς παρ’ αὐτῶ: καὶ τόδ’ οὐκέτ’ ἔστ’ ἴσον.
γεγραμμένων δὲ τῶν νόμων ὃ τ’ ἀσθενὴς
ὁ πλούσιός τε τὴν δίκην ἴσῃν ἔχει)

⁷⁴ ἀριστοκρατία를 현대에 사용하듯이 ‘귀족정치’라고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ἀριστοκρατία라고 할 때는, 재능, 혹은 능력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최선자 정체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플라톤『메넥세노스』(이정호 역, EJB) 해제, 132 n.15. 아테네 민주정과 최선자정체에 대한 논의는 Ziolkowski(1981), 183; Rusten(1989), 143; 페리클레스가 제시하고 있는 아테네의 혼합정체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Oliver, "Praise of Athenian Democracy as a Mixed Constitution",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NF 98(1) (1955), 37-40; Vlastos, "Isonomia politike", *Platonic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196-198.

⁷⁵ 플라톤, 『메넥세노스』 238d “δημοκρατίαν, ὃ δὲ ἄλλο, ᾧ ἂν χαίρῃ, ἔστι δὲ τῇ ἀληθείᾳ μετ’ εὐδοξίας πλήθους ἀριστοκρατία”.

δι' ὀργῆς τὸν πέλας, εἰ καθ' ἡδονὴν τι δρᾷ, ἔχοντες, οὐδὲ ἀζημίους μὲν, λυπηράς δὲ τῇ ὄψει ἀχθηδόνας προστιθέμενοι.

우리는 공적인 일과 관련해서 정치 활동을 할 때에도, 서로의 일 상사에 대한 의혹에 있어서도 자유롭습니다. 만일 이웃이 자신의 즐거움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다면 화를 내지도 않고, 해를 끼치지 않지만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언짢은 표정을 짓지도 않습니다. (2.37.2)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시민들의 자유를 언급한다. 'ἐλευθέρως πολιτεύομεν'은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하다' 혹은 '자유인으로서 살고 있다', '관용성 있다, 관대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ἐλευθερία'가 민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음은 분명하다. 플라톤은 '자유(ἐλευθερία)와 언론의 자유(παρρησία),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자유(ἐξουσία)를 민주정체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⁷⁶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정 시스템의 핵심으로 다수의 통치(τῷ τὸ πλεῖον εἶναι κύριον)와 자유(ἐλευθερία)를 들고 있다.⁷⁷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페리클레스는 추모 연설 초반, 선조들의 과거 업적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아테네의 선조들이 "그들의 탁월성을 통해 이 땅을 자유로운 상태로 후손들에게 계승하여 현재까지 물려주었다(μέχρι τοῦδε ἐλευθέραν δι' ἀρετὴν παρέδοσαν 36.1)"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은, 1권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의 연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스파르타인들)는 먼 옛날부터 죽 자유롭고 이름난

⁷⁶ 플라톤, 『국가』, 557b "그러니까 첫째로, 이들은 자유로우며, 이 나라는 자유와 언론 자유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나라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겠는가? (πρῶτον μὲν δὴ ἐλεύθεροι, καὶ ἐλευθερίας ἡ πόλις μεστή καὶ παρρησίας γίγνεται, καὶ ἐξουσία ἐν αὐτῇ ποιεῖν ὅτι τις βούλεται;)" (박종현 역, 서광사).

⁷⁷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5.1310a29 "δύο γάρ ἐστιν οἷς ἡ δημοκρατία δοκεῖ ὠρίσθαι, τῷ τὸ πλεῖον εἶναι κύριον καὶ τῇ ἐλευθερίᾳ."

폴리스에서 살고 있다(καὶ ἅμα ἐλευθέραν καὶ εὐδοξοτάτην πόλιν διὰ παντός νεμόμεθα)(1.84.1).” 이 구절들에서의 ‘자유로운’은 ‘전제국가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원전 5세기 아테네를 비롯한 모든 폴리스들, 심지어 스파르타까지도 자신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유로움’은 시민들의 공적인 삶 속에서 영위되는 자유로움이다. 이 자유로움에는 자신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테네 시민들은 공적인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사적으로는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의 방식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바로 앞 구절의 다수에 의한 통치를 생각할 때, 소수에 의한 다수의 정치적 통제나(과두정), 다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통제(폭민정치)가 없다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페리클레스가 말하고 있는 자유가 다른 폴리스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아테네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다른 폴리스들을 지켜주는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리고 실제 많은 폴리스들이 “자진하여 찾아와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제국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1.75.2-3). 그러나 이때 아테네가 이들을 위의 인용문에서 설명된 방식으로 관대하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클레온-디오도토스의 연설과 니키아스-알키비아데스 연설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강점들을 다른 폴리스들과 대조하며 계속해서 설명한다. 여러 경연과 제의들, 시설들뿐만 아니라, 폴리스의 크기와 이로 인한 여러 해외 문물들의 유입도 아테네의 자랑이다(2.38).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개방적이며 자유롭게(ἀνεμμένως)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기 때문(τῷ ἀφ’ ἡμῶν αὐτῶν ... εὐψύχῳ)이라고 말한다

(2.39.1). 그 용기는 어린 시절부터의 혹독한 훈련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면서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들 못지않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2.39.1).” “힘겨운 훈련보다는 편안함으로, 그리고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용맹으로써 위험을 감내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미래에 대해 미리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상황에 이르더라도 계속해서 고통스런 훈련을 겪은 자들보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폴리스는 경탄의 대상이 될 만하고. 이 점에서 우리 폴리스는 경탄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ἀξίαν εἶναι θαυμάζεσθαι)(2.39.4).”

자유롭고 개방적인 삶이야 말로 아테네인들의 용기의 원천이라는 페리클레스의 자부심은 이제 폴리스의 일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라는 주제로 향한다.

ἐνι τε τοῖς αὐτοῖς οἰκείων ἅμα καὶ πολιτικῶν ἐπιμέλεια, καὶ ἑτέροις πρὸς ἔργα τετραμμένοις τὰ πολιτικὰ μὴ ἐνδεῶς γινῶναι: μόνοι γὰρ τὸν τε μηδὲν τῶνδε μετέχοντα οὐκ ἀπράγμονα, ἀλλ’ ἀχρεῖον νομίζομεν, καὶ οἱ αὐτοὶ ἦτοι κρίνομεν γε ἢ ἐνθυμούμεθα ὀρθῶς τὰ πράγματα, οὐ τοὺς λόγους τοῖς ἔργοις βλάβην ἡγούμενοι, ἀλλὰ μὴ προδιδαχθῆναι μᾶλλον λόγῳ πρότερον ἢ ἐπὶ ᾧ δεῖ ἔργῳ ἐλθεῖν.

우리는 집안일뿐 아니라 폴리스의 일에 대해서도 신경을 씁니다. 자신의 일에 매여 있는 자들도 폴리스와 관련된 일들을 부족함 없이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무용한 자로 여기고 있는 것도 우리 아테네인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안들을 판단하거나 제대로 논의하며, 말이 행동에 해가 된다고 여기지 않고 행동으로 가기 전에 먼저 말을 통해 배우지 않는 것이야말로 해가 된다고 여깁니다. (2.40.2)

페리클레스는 폴리스의 일에 신경을 쓰는 아테네인들과 대조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아테네에서는 그들을 무관심한(ἀπράγμων)⁷⁸ 사람이 아니라 무용한(ἀχρεῖον) 사람이라 부른다고 말한다. 이 설명에서 우리는 ‘ἀπράγμων’이라는 표현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무용한 자’로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테네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에 ‘ἀπράγμων’과 ‘ἀπραγμοσύνη’는 각각 ‘πολυπράγμων’과 ‘πολυπραγμοσύνη’와 대비되어,⁷⁹ 지나치게 폴리스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태도와 상반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이 긍정적인 의미는 민주정과 그것의 옹호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과두정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이러한 태도를 극도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본성상 활달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들로 여겨왔다. 그리고 이런 아테네인들의 성향은 다른 폴리스 인들에 의해서도 널리 알려진 특성이었다.⁸⁰ 페리클레스 이후 정치인들, 특히 알키비아데스는 이 ἀπράγμων - πολυπράγμων을 시민 개개인의 성격이 아닌 폴리스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정치적인 사안들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의 특성은 그들을 민주적 토의에 참여하게 만든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폴리스의 중요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정책을 제시하거나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페리

⁷⁸ ἀπράγμων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페리클레스가 사용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무관심한 사람’으로 번역하였다.

⁷⁹ ἀπραγμοσύνη-πολυπραγμοσύνη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Allison, "Thucydides and Polypragmosyne", *American Journal of Ancient History* 4 (1979), 10-22.

⁸⁰ "(라케다이몬인들과 아테네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 아테네인들은 진취적이며(νεωτεροποιοί),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데 민첩하고(έπινοῆσαι ὀξεῖς), ... 능력 이상으로 저돌적이고(παρά δύναμιν τολμηταί), 상식 밖의 모험을 하며(παρά γνώμην κινδυνευταί), 역경에 맞닥뜨려도 낙천적입니다(έν τοῖς δεινοῖς εὐέλπιδες). 그들은 주저하지 않으며, ...그들은 틀어박혀 있지 않고 바깥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1.70.1-7)."

클레스는 ‘말’과 ‘행동’을 대비시키면서, 아테네인들은 행동에 나서기 전에 말을 통해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을 유익한 일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행동하기 전에 토론하는 이 아테네 특유의 문화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 속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민주정적 생활 방식에 대한 페리클레스의 자부는 다음의 선언에서 절정에 이른다.

ξυνελών τε λέγω τήν τε πᾶσαν πόλιν τῆς Ἑλλάδος παίδευσιν εἶναι καὶ καθ’ ἕκαστον δοκεῖν ἂν μοι τὸν αὐτὸν ἄνδρα παρ’ ἡμῶν ἐπὶ πλεῖστ’ ἂν εἶδη καὶ μετὰ χαρίτων μάλιστα ἂν εὐτραπέλως τὸ σῶμα αὐτάρκες παρέχεσθαι.

요약해 말씀 드리자면 우리 폴리스 전체는 헬라스의 학교이고, 시민 개개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다양한 삶의 방식 속에서도 최대한 우아함을 지니고 유연하게 자기 자신을 자족적인 사람으로 드러냅니다. (2.41.1)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헬라스 전체의 학교라고 말한다. 여기서 학교(παίδευσις)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앞서 아테네 정체를 다루면서 “우리의 정체는 다른 이들의 본(παράδειγμα)이 되고 있다(2.37.1)”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때의 학교는 단지 아테네의 정치적인 힘, 정체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 나오는 문장은 아테네가 단지 정치적, 정체로서의 본보기를 넘어서, 여러 삶의 방식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가 아테네의 문화적, 정신적인 영향력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리클레스는 먼저 아테네의 민주정적 생활방식을 칭송하면서 바로 이어 아테네의 힘에 대한 언급으로 넘어간다.

καὶ ὥς οὐ λόγων ἐν τῷ παρόντι κόμπος τάδε μᾶλλον ἢ ἔργων
ἐστὶν ἀλήθεια, αὐτὴ ἡ δύναμις τῆς πόλεως, ἣν ἀπὸ τῶνδε τῶν
τρόπων ἐκτησάμεθα, σημαίνει.

이것이 바로 이 자리를 위한 말의 꾸밈이 아니라 실제의 진실임
은 앞서 말씀 드린 방식으로 획득한 이 폴리스의 힘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41.2)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온 헬라스의 교육이 된다는 말은 실제(ἔργα)의
진실(ἀλήθεια)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테네의
힘(αὐτὴ ἡ δύναμις τῆς πόλεως)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고 그 힘은 앞서
다뤘던 그 생활 방식들(τοῖδε οἱ τρόποι)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과연 페리클레스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아테네의 힘의 내용이 무엇인가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근거로
답을 한다면, 그 힘은 그것으로 인해 다른 폴리스들이 아테네를 학교이자 본
으로 삼는 그러한 종류의 힘이다. 그 힘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학교’,
‘본’ 등의 단어는 자연스럽게 아테네가 생성해 낸 저 풍요로운 문화적 유산
들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페리클레스의 시대 그 문화적 유산의 최절정기였
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더욱 그 답은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어지는
페리클레스의 연설 속에서 우리는 사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μετὰ μεγάλων δὲ σημείων καὶ οὐ δὴ τοι ἀμάρτυρόν γε τὴν
δύναμιν παρασχόμενοι τοῖς τε νῦν καὶ τοῖς ἔπειτα
θαυμασθησόμεθα, καὶ οὐδὲν προσδεόμενοι οὔτε Ὀμήρου
ἐπαινέτου οὔτε ὅστις ἔπεσι μὲν τὸ αὐτίκα τέρψει, τῶν δ’ ἔργων
τὴν ὑπόνοιαν ἢ ἀλήθεια βλάψει, ἀλλὰ πᾶσαν μὲν θάλασσαν καὶ
γῆν ἐσβατὸν τῇ ἡμετέρᾳ τόλμῃ καταναγκάσαντες γενέσθαι,
πανταχοῦ δὲ μνημεῖα κακῶν τε κάγαθῶν αἰδία ξυγκατ-
οικίσαντες.

이 힘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 또한 있으니,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후세 사람들에게도 경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해줄 호메로스나, 시로서 당장은 즐거움을 주지만 사실이 그것의 진실성을 무너뜨리게 될 시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용기로써 온 바다와 땅에 길을 열었고, 가는 곳마다 성공과 실패의 영원한 기념비들을 세웠습니다. (2.41.4)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힘을 증명해 줄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테네인들의 용기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온 바다와 땅에 길을 열었고, 그것을 가는 곳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던 바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앞서 페리클레스가 이야기했던 아테네의 힘이 전적으로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었다면, 그는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아테네인들의 용기가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온 바다와 땅에 길을 열 수 있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에게 아테네의 힘을 사랑하는 사람(έραστάς)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ἀλλὰ μᾶλλον τὴν τῆς πόλεως δύναμιν καθ' ἡμέραν ἔργῳ θεωμένους καὶ ἐραστὰς γιγνομένους αὐτῆς, καὶ ὅταν ὑμῖν μεγάλη δόξη εἶναι, ἐνθυμουμένους ὅτι τολμῶντες καὶ γινώσκοντες τὰ δέοντα καὶ ἐν τοῖς ἔργοις αἰσχυρόμενοι ἄνδρες αὐτὰ ἐκτίσαντο, καὶ ὁπότε καὶ πείρα τοῦ σφαλεῖεν, οὐκ οὖν καὶ τὴν πόλιν γε τῆς σφετέρας ἀρετῆς ἀξιοῦντες στερίσκειν, κάλλιστον δὲ ἔρανον αὐτῇ προῖέμενοι.

오히려 여러분은 매일 이 폴리스의 힘을 날마다 보면서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폴리스가 위대하게 여겨지신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과감하고, 해야 할 바를 알며, 행동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시도가 실패

로 돌아갔을 때에도, 폴리스가 자신들의 탁월함을 빼앗아 갔다고 여기기보다는, 가장 고귀한 봉사를 폴리스에 바쳤다고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2.43.1)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것(αὐτῆς)’은 여성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스’ 혹은 ‘힘’을 가리킨다. 이 구절이 폴리스에 대한 여러 진술들 다음에 행해진 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테네와 연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페리클레스는 여기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둔다. 그는 그 힘을 과감함, 의무감, 염치, 그리고 희생의식과 결부시킨다. 이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페리클레스가 이야기하는 힘이 정신적, 문화적, 정체적 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폴리스들을 물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의 힘임을 알 수 있다.⁸¹

페리클레스는 이 힘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애매한 상태로 남겨 둔다. 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존재한다. 그는 아테네의 물리적 힘이 그것이 가지는 정신적, 문화적 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을 이 연설 내내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 힘이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무한히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것인 듯 이야기하기까지 한다.⁸² 하지만 아테네의 힘에 대한 그의 이러한 이상화에는

⁸¹ 이 힘이 군사적인 힘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2.41.4의 마지막의 “용기로써 온 바다와 땅에 길을 열었고, 가는 곳마다 성공과 실패의 영원한 기념비들을 세웠다”와 2.43.1 “아테네의 힘” 사이에서는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의 용맹함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아테네의 힘은 곧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군사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테네인들의 행복은 자유이며 자유는 용기(τὸ εὐδαιμον τὸ ἐλεύθερον, τὸ δ’ ἐλεύθερον τὸ εὐψυχον)이다(2.43.4).; Bar-Hen, "Les Sens Divers du Mot Dynamis Chez Thucydide", *Scripta Classica Israelica* 2 (1975), 73-82.

⁸² Ober, *Political dissent in democratic Athens: intellectual critics of popular ru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85; Taylor, *Thucydides, Pericles, and the idea of Athens in the Peloponnesian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71. Cf. 1.10.1 καὶ ὅτι μὲν Μυκῆναι μικρὸν ἦν, ἢ εἴ τι τῶν τότε πόλιςμα νῦν μὴ ἀξιόχρεων δοκεῖ εἶναι, οὐκ

기만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이상화는 물론 전사자의 추모를 위해 모인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감동적이고 고무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아테네 제국에 속한 폴리스들에게 그것은 기만이고 위선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과연 그 폴리스 중 어떤 폴리스가 제국 아테네의 군사력 때문에 경탄하고, 그것을 본으로 삼으려 하고, 그 폴리스를 교사로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장레 연설은 분명 정치 연설가로서의 페리클레스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아테네의 힘이라는 거의 의도적으로 애매한 개념 속에 아테네의 정신적, 문화적 성취와 제국으로서의 물리적 힘을 교묘하게 결합해 냈다. 무엇보다도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의 힘의 궁극적 원천으로 칭송했던 민주정과 민주정적 생활 방식은 결국 그 힘의 또 다른 측면인 제국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아테네인들은 자유를 민주정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한다. 그리고 다른 폴리스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자유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한다. 그러나 아테네의 자유와 그들의 본성이 산출해 낸 힘은 필연적으로 제국의 울타리 안에 있는 폴리스들의 자유를 박탈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해질 것이다. 아테네의 여러 이상들은 결국 아테네 내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페리클레스가 말의 힘으로 통일시켰던 아테네는 결국 균열을 드러내고, 그가 주장했던 여러 아름다움과 미덕은 얼마 가지 않아 발생한 역병으로 그 힘과 빛을 잃어버린다.

3. 역병

기원전 431/430년 아테네에서 겨울 장례식이 치뤄진지 몇 개월 만인 기원전 430년 초여름에 예상치 못했던 역병이 발생한다. 이 역병으로 아테네 시민의 약 삼분의 일 가량이 목숨을 잃었고 페리클레스 또한 이 역병으

ἀκριβεῖ ἄν τις σημείῳ χρώμενος ἀπιστοίη μὴ γενέσθαι τὸν στόλον τοσοῦτον ὅσον οἷ τε ποιηταὶ εἰρήκασι καὶ ὁ λόγος κατέχει.

로 기원전 429년 사망한다. 장례식과 역병의 발생 사이에 약 반년간의 시간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퀴디데스는 그 사이의 사건들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역병에 대한 서술로 바로 넘어간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역병의 증상들과 역병으로 인한 아테네의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서술한다.⁸³ 여기서 우리는 추모 연설과 역병의 서술의 배치에 주목하게 된다. 투퀴디데스는 이 두 연속된 사건에서 아테네 시민들의 죽음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추모 연설은 폴리스를 위해 싸우다 죽은 이들을 위한 장례식에서 행해진 것이고, 역병 서사는 역병으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서술이다. 투퀴디데스는 이 둘을 ‘문학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묘사로⁸⁴ 대비시키는데 바로 이 안에 투퀴디데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⁵

⁸³ 투퀴디데스는 이미 1권 23장에서 펠로폰소스 전쟁이 가져온 여러 불행과 고통들을 설명하면서 그 중 하나로 이 역병을 들고 있다. “τά τε πρότερον ἀκοῇ μὲν λεγόμενα, ἔργῳ δὲ σπανιώτερον βεβαιούμενα οὐκ ἄπιστα κατέστη, σεισμῶν τε πέρι, οἳ ἐπὶ πλεῖστον ἄμα μέρος γῆς καὶ ἰσχυρότατοι οἱ αὐτοὶ ἐπέσχον, ἡλίου τε ἐκλείψεις, αἱ πυκνότεραι παρὰ τὰ ἐκ τοῦ πρὶν χρόνου μνημονευόμενα ξυνέβησαν, αὐχμοὶ τε ἔστι παρ’ οἷς μεγάλοι καὶ ἀπ’ αὐτῶν καὶ λιμοὶ καὶ ἡ οὐχ ἥκιστα βλάβησα καὶ μέρος τι φθειράσα ἡ λοιμώδης νόσος(1.23.3).”

⁸⁴ “The style of that description is observant and exact, but ... it is... dramatic and imaginative, controlled throughout by the writer’s determination to show the awful and overwhelming power of the sickness. The sentence construction is various, often containing powerful and unexpected verbs in emphatic positions, or after a climactic catalogue, resolving itself into an epigrammatic summation.” (Parry, “The Language of Thucydides’ Description of the Plague”,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16 (1) (1969), 114).

⁸⁵ 매해 국가 장례 추모 연설이 행해졌는데도 27년의 전쟁을 다룬 『역사』에서 이 연설만을 길게 제시하고 있다. 페리클레스의 이 연설이 전쟁 첫해 3월에 행해졌고, 역병이 6월에 발생했을 것으로 본다면, 그 사이의 사건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바로 장례식 이후 단 여섯줄 만에(OCT) 역병에 대한 서술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 배치에 대해서는 이미 디오닐시오스도 문제를 제기했다. Dion. Hal. *On Thucydides*, 18. (Tr. by Prickett); Kitto는 다른 역사가들이 이 시대를 서술했다면, 분명히 그 사이에 ‘실제 행해졌던’ 일들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투퀴디데스가 의도를 가지고 그 중간의 사건들을 생략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투퀴디데스가 “‘일어난 일’을 다 기록했다면, 이 역사서술이 보여주는 인상은 지금과는 전혀

투퀴디데스는 역병이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병에 대한 서술을 시작한다. “어떤 인간적인 기술도 아무 소용도 없었다. 신전으로 가기도 해보고, 예언자들이나 그 밖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 보아도 소용 있는 것은 없었고, 결국 고통에 굴복 당해 이마저도 포기해버렸다.” (2.47.4) 그는 역병의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 대신 증상과 사회 현상에 집중한다.⁸⁶ 역병의 증상에 대한 묘사는 일견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감정적인 어조와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⁸⁷ 역병에 걸린 자들은 “당장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당장 자포자기에 빠지고(πρὸς γὰρ τὸ ἀνέλπιστον εὐθὺς τραπόμενοι τῇ γνῶμῃ, 51.4)”, 사람들은 역병에 걸린 자들을 두려워한다(δεδιότες, 51.5). 역

달랐을 것이고, 전혀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Kitto(1966), 288. 여러 학자들은 투퀴디데스가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추모 연설 직후에, 다른 사건에 대한 언급 없이 바로 역병에 대한 서술로 넘어간 것이 추모 연설에서 보여진 이상적인 아테네에서 역병으로 인한 고통과 사기 저하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계획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Connor(1984), 63; Rhodes, *Thucydides History II* (Warminster, 1988), 228.; Gomme et al., *HCT II*. 144. 그는 또한 이 선택과 배치가 “압도적인 극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한다.

⁸⁶ 투퀴디데스는 자신이 역병의 증상에 대해 기술하는 이유가 역병이 재발할 때, 이 문제를 탐구하는 자들이(τις σκοπῶν) 자신이 기술한 것을 통해 병명을 모르지 않도록(μὴ ἀγνοεῖν)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ἐγὼ δὲ οἷόν τε ἐγίγνετο λέξω, καὶ ἀφ’ ὧν ἂν τις σκοπῶν, εἴ ποτε καὶ αὖθις ἐπιπέσοι, μάλιστα’ ἂν ἔχοι τι προειδώς μὴ ἀγνοεῖν, ταῦτα δηλώσω αὐτός τε νοσήσας καὶ αὐτὸς ἰδὼν ἄλλους πάσχοντας” (2.48.3)) 그의 이 표현은 『역사』를 서술하는 목적에서 사용된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일어난 일들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인간 본성에 따라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것을 충분히 유용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ὅσοι δὲ βουλήσονται τῶν τε γενομένων τὸ σαφὲς σκοπεῖν καὶ τῶν μελλόντων ποτὲ αὖθις κατὰ τὸ ἀνθρώπινον τοιούτων καὶ παραπλησίων ἔσεσθαι, 1.22.4).”

⁸⁷ 역병의 서술을 투퀴디데스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서술의 가장 좋은 예로 꼽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질병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히포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Page, “Thucydides’ description of the great plague at Athens”, *The Classical Quarterly (New Series)* 3(3-4) (1953); 케이건(2009), 『투퀴디데스 역사를 다시 쓰다』, 26.

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의기양양하고(περιχαρεῖ)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다(ἐλπίδος τι εἶχον κούφης, 51.6).

장례식 연설과 역병 사건의 병렬 배치는 역병으로 인한 사회 변화와 시민들의 상태 변화로 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이제 아테네는 페리클레스가 칭송하던 그 아테네가 아니다. 장례 연설의 중요한 주제였던 아테네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더는 언급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폴리스의 공공선은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가 연설에서 사용했던 여러 어휘들을 역병의 서술에서 반복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모두 뒤집어 버린다.⁸⁸

페리클레스가 “모든 나라에서 온갖 것들이 유입된다(2.38.2)”고 자랑했던 아테네에 이젠 ‘역병과 기근’이 들어오게 되고,⁸⁹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아테네 도성과 신전은 이제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τά τε ἱερὰ ἐν οἷς ἐσκήνηντο νεκρῶν πλέα ἦν, αὐτοῦ
ἐναποθνησκόντων: ὑπερβιαζομένου γὰρ τοῦ κακοῦ οἱ
ἄνθρωποι, οὐκ ἔχοντες ὅτι γένωνται, ἐς ὀλιγωρίαν ἐτράποντο
καὶ ἱερῶν καὶ ὁσίων ὁμοίως.

그들이 임시로 거주하던 신전들은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의 시신으로 가득찼다. 엄청난 불행에 갇히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성스러운 법도나, 세속적인 모든 법도들에 대해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2.52.3)

⁸⁸ 장례식 추모 연설의 2.41과 2.51.의 역병으로 인한 아테네의 상황 묘사의 어휘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acleod(1983), 151; Woodman(1988), 34; Gomme et al., *HCT II*, 144.

⁸⁹ 투퀴디데스는 아이굽토스 남쪽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생했던 역병은 아테네에 외부의 문물이 유입되던 페이라이에우스가 첫 감염지가 되고 이 곳을 통해 아테네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설명한다(2.48.1-2).

추모 연설에서 죽은 자들은 장례식과 그들을 기리는 연설로 “명예”를 부여 받는 것이 “정의롭고도 합당한”일이었으나, 이제 아테네인들은 최고의 명예는커녕 장례식조차 치러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심지어 시신들은 신전에 방치되고, 남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몰래 시신을 던져 넣는 일까지 행해졌다.

ὥστε ταχείας τὰς ἐπαυρέσεις καὶ πρὸς τὸ τερπνὸν ἡξίουں ποιεῖσθαι, ἐφήμερα τὰ τε σώματα καὶ τὰ χρήματα ὁμοίως ἡγούμενοι. καὶ τὸ μὲν προσταλαιπωρεῖν τῷ δόξαντι καλῶ οὐδεὶς πρόθυμος ἦν, ἄδηλον νομίζων εἰ πρὶν ἐπ’ αὐτὸ ἐλθεῖν διαφθαρήσεται: ὅτι δὲ ἤδη τε ἡδὺ πανταχόθεν τε ἐς αὐτὸ κερδαλέον, τοῦτο καὶ καλὸν καὶ χρήσιμον κατέστη.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도 재물도 마찬가지로 하찮게 여기며, 가진 것들을 신속하게 쾌락을 위해 빨리 써버리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고상한 목표로 보이는 것들을 위해 인내하며 노력하려는 열망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목표에 이루기도 전에 죽음을 맞게 될 지조차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당장의 쾌락과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간에 고상하고 유익한 것이 되어버렸다. (2.53.2-3)

폴리스를 위해 기꺼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폴리스의 안전을 위해 고귀하게 싸우다가 죽은 아테네인들이 페리클레스의 연설에서 칭송되었지만 (2.41.5, 2.42.5), 이제 그들은 수치를 모르는(ἀναισχύντους) 행동을 일삼게 되었고(2.52.4), ‘아름다움을 사랑하지만 사치하지 않는다’고 칭송받던 이들은 (40.1) 더 이상 고상한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당장의 쾌락에 탐닉하게 되었다. ‘최대한 우아함을 지니고 유연하게 자기 자신을 자족적인 사람으로 드러내던(τὸ σῶμα αὐτάρκες παρέχεσθαι 2.41.1)’ 아테네인들은 이제 질병에 맞서 ‘자신의 육신을 지킬 수조차 없는 자가 되었다(σῶμά τε αὐτάρκες ὄν οὐδέν).’

θεῶν δὲ φόβος ἢ ἀνθρώπων νόμος οὐδεὶς ἀπεῖργε, τὸ μὲν κρίνοντες ἐν ὁμοίῳ καὶ σέβειν καὶ μὴ ἐκ τοῦ πάντας ὁρᾶν ἐν ἴσῳ ἀπολλυμένους, τῶν δὲ ἀμαρτημάτων οὐδεὶς ἐλπίζων μέχρι τοῦ δίκην γενέσθαι βιοῦς ἂν τὴν τιμωρίαν ἀντιδοῦναι.

신들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의 법도 아무도 막지 못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마찬가지로 죽는다면, 신들을 공경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다고 판단한 한편, 잘못을 저지른 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재판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살게 되리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3.3)

‘경외심으로(διὰ δέος)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οὐ παρανομοῦμεν)’... ‘언제나 관리들과 법률에 복종하며 (τῶν αἰεὶ ἐν ἀρχῇ ὄντων ἀκροάσει καὶ τῶν νόμων)’;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기면 수치로 여겨지는 법(ἄγραφοι ὄντες αἰσχύνην ὁμολογουμένην φέρουσιν)에 복종하던’ 아테네((37.3)는⁹⁰ 이제 ‘무법천지(ἀνομίας)’가 되었고, 질서도 경건함도 윤리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추모 연설과 역병을 연이어 배치하고 이 둘 사이의 변화를 어휘 반복을 통해 매우 긴밀하게 연결시킨다. 그리고 추모 연설을 통해 한껏 치켜 올린 아테네를 극적으로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뒤집어 버림으로써 ‘비극적 반전(περιπέτεια)’의 효과를 주고 있다.⁹¹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이상향을 추모연설을 통해 제시했지만 이 역병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시험대 위에 올려 놓는다. 가장 이상적인 것들도 계산을 벗어난 일들로 한 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다. 자유롭고 고상한 삶을 추구하던 아테네인들이 역병으로 피폐해진 것을 보라. (심지어 페리클레스는 마지막

⁹⁰ 2.37.3

⁹¹ 투퀴디데스의 역사서술과 비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Conford(1907); Woodman(1988), 37.

연설에서 ‘예기치 않게 모든 계산으로부터 벗어나 발생한 모든 일은 우리 마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며, 바로 이 역병이 그런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역병과 관련한 투퀴디데스의 서술은 페리클레스의 추모 연설뿐만 아니라, 이후 다루게 될 페리클레스의 마지막 연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투퀴디데스는 역병이라는 엄청난 비극적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페리클레스의 두 개의 연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면서 이를 대조시킨다.⁹² 이 세 개의 에피소드, 역병의 서사와 역병을 둘러싼 두 개의 연설의 배치와 어휘적 유사성을 통해 아테네가 겪게 될 이후의 일들이 필연(ἀνάγκη)적이라는 것을 투퀴디데스는 우리에게 보게 만든다.⁹³

4. 두 번째 민회 연설

페리클레스의 두 번째 민회 연설은 전쟁이 시작된 이듬해 민회에서 행해졌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행해졌던 첫 번째 민회 연설에서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민중에게 전쟁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설명하고 설득해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페리클레스의 제안을 따르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역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자, 이들은 크게 요동하며 전쟁을 멈추고 싶어 했다. 특히, 아테네 시민들은 펠로폰네소스인들이 또다시 앗티케를 공격하는데도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그저 도성 안에서 자신의 재산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차라리 전쟁을 포기하기를 바랐고, 전쟁과 아테네 도심 안으로의 이주를 자신들에게 설득했던 페리클레스에게 분노를 쏟았다. 이미 전쟁이 시작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페리클레스가 약속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지도 못했고,

⁹²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제외하고는 대개 안틸로기로 되어 있다. 투퀴디데스는 대신 페리클레스의 두 개의 연설이 역병을 둘러싸고 서로 상응하도록 만들고 있다.

⁹³ Connor(1984), 65. Cf. Flashar(1969), 38.

전쟁으로 이득을 얻기는커녕 있던 재산마저도 잃은 상황에서 이들이 보이는 분노와 좌절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대해 투퀴디데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καὶ τὸν μὲν Περικλέα ἐν αἰτία εἶχον ὥς πείσαντα σφᾶς πολεμεῖν καὶ δι' ἐκεῖνον ταῖς ξυμφοραῖς περιπεπτωκότες, πρὸς δὲ τοὺς Λακεδαιμονίους ὥρμητο συγχωρεῖν: ... ὁ δὲ ὄρων αὐτοὺς πρὸς τὰ παρόντα χαλεπαίνοντας καὶ πάντα ποιοῦντας ἅπερ αὐτὸς ἤλπιζε, ξύλλογον ποιήσας (ἔτι δ' ἐστρατήγει) ἐβούλετο θαρσύναι τε καὶ ἀπαγαγὼν τὸ ὀργιζόμενον τῆς γνώμης πρὸς τὸ ἡπιώτερον καὶ ἀδεέστερον καταστῆσαι:

그들은 전쟁을 하도록 자기들을 설득했다고 페리클레스를 비난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당한 불행을 모두 그의 탓으로 돌렸다. ... 그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괴로워하고 모든 점에서 자기가 예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자, 여전히 장군직에 있었던 그[페리클레스]는 회의를 소집해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분노의 마음을 없애 더 차분한 마음을 갖게 하며, 더 용맹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2.59.2-3)

바로 이런 상황에서 페리클레스는 민회를 소집해서 다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한다.⁹⁴

καὶ προσδεχομένω μοι τὰ τῆς ὀργῆς ὑμῶν ἕς με γεγένηται (αἰσθάνομαι γὰρ τὰς αἰτίας) καὶ ἐκκλησίαν τούτου ἔνεκα συνήγαγον, ὅπως ὑπομνήσω καὶ μέμψωμαι εἴ τι μὴ ὀρθῶς ἢ ἐμοὶ χαλεπαίνετε ἢ ταῖς ξυμφοραῖς εἴκετε.

⁹⁴ 이 연설(2.60-64)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 Romilly(1963), 120-130; Edmunds, *Chance and Intelligence in Thucydides* (Harvard, 1975), 70-76; Yunis(1996), 83-85; Cogan(1981), 42-44; Ober(2001), 89-94.

제가 예상한대로 여러분은 저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게 화를 내거나 이 불행에 굴복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또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민회를 소집했습니다. (2.60.1)

그는 앳티케의 약탈과 역병으로 낙담하고 동요하는 대중에게 다시금 용기를 불러 일으켜 전쟁을 지속하도록 설득해야 했으며, 동시에 자신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다. 그는 분노하는 아테네인들에게 그들이 이 불행에 굴복하고 그에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비판하기 위해 이 민회를 소집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아테네 시민 개개인과 폴리스 간의 관계가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한다.

ἐγὼ γὰρ ἡγοῦμαι πόλιν πλείω ξύμπασαν ὀρθουμένην ὠφελεῖν τοὺς ἰδιώτας ἢ καθ' ἕκαστον τῶν πολιτῶν εὐπραγοῦσαν, ἀθρόαν δὲ σφαλλομένην. καλῶς μὲν γὰρ φερόμενος ἀνὴρ τὸ καθ' ἑαυτὸν διαφθειρομένης τῆς πατρίδος οὐδὲν ἥσσον ξυναπόλλυται, κακοτυχῶν δὲ ἐν εὐτυχούσῃ πολλῷ μᾶλλον διασώζεται.

저는 참으로 국가 안의 개개인들은 변영하지만 폴리스 전체가 망할 때보다는, 폴리스 전체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이 개인들을 더 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을 잘 해낸다고 해도 조국이 파괴되면 그 역시 국가와 함께 공멸하는 반면, 조국이 변영하면 불운한 자도 그 안에서 훨씬 잘 보호받으니 말입니다. (2.60.2-3)

페리클레스는 먼저 아테네인들에게 그들의 운명이 폴리스의 운명과 같이 할 수밖에 없으며, 그 운명은 데모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폴리스에게 달려 있음을 페리클레스는 데모스에게 자신들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폴리스는 개인들의 불행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폴리스를 지

켜내야 하며, 각자가 입은 불행과 손해로 ‘공동체의 구원(τοῦ κοινού ἡ σωτηρί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60.4)

폴리스의 안위가 개개인의 안위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밝힌 후에, 그는 자신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그는 지금 벌어진 일들이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아님을, 즉 자신의 주장들이 장기적인 전망에서 예측한, 믿을 만한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⁹⁵ 그는 자신이 이전에도 지금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이며, 지금 비록 난관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과연 시민들이 자신을 이번에도 지지해줄 것인가?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아테네 시민들 안심시키고 자신의 연설을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상기시킨다.

καίτοι ἐμοὶ τοιοῦτῳ ἀνδρὶ ὀργίζεσθε ὃς οὐδενὸς ἥσσω οἴομαι
εἶναι γινῶναί τε τὰ δέοντα καὶ ἐρμηνεύσαι ταῦτα, φιλόπολιν τε
καὶ χρημάτων κρείσσων.

여러분은 지금 제게 화를 내고 계시지만, 저는 제 자신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필요한 바를 분별해 낼 수 있고,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으며, 이 폴리스를 사랑하고 재물에 약해지지 않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2.60.5)

⁹⁵ 페리클레스는 첫 번째 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동일한’ 사람, 일관성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한다. Cf. 1.140.1 “저는 언제나 똑같은 의견, 즉 우리가 펠로폰네소스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견지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할 때와 동일한 감정으로 실제 행동하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의견까지도 바꾼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 우리가 혹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공동 결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일의 정황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만큼 종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Cf. Ober(2001), 89-94; Parry, *Logos and Ergon in Thucydides* (New Hampshire: Ayer, 1988), 87.

페리클레스는 자신이 정치인-연설가의 가장 중요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사실 이것들이야말로 그를 다른 연설가들과 구분 짓는 중요한 자질이다. 그가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밝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자신의 말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⁹⁶ 페리클레스는 첫 번째 연설 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인내하고 버텨야 할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자신이 변함없는 믿을 만한 사람이며, 공동체를 위해 이 연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신시킨다.⁹⁷

자신에 대한 불신을 약화시킨 페리클레스의 다음 과제는 아테네 시민들을 한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민회 연설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자신의 연설을 지지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결의하는 것이 아테네와 시민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⁹⁸ 페리클레스는 첫 연설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가장 큰 명예가 주어지리라고 확신시켰다(1.144.3). 집과 땅은 잃어도 사람이 그것들을 다시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1.143.5).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그들에게는 명예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집과 땅을 잃고, 역병으로 사람들마저 잃고 있다. 아무것도 얻을 것

⁹⁶ 이는 에토스(ἦθος) 근거한 설득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연설가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대중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무조건 따라주고 믿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377b25-29; cf. Yunis(1996), 69-70 참조.

⁹⁷ 이런 자신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그가 어떤 아침이나 대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고수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Cf. 투퀴디데스는 여러 구절들에서 실제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페리클레스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전히 장군직에 있던 페리클레스는 지난번 침입 때와 같은 의견을 고수했으니...(2.55.2)”, “실제로 페리클레스를 향한 아테네인들의 노여움은 그들이 그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까지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곧 그들은 군중이 흔히 그러하듯, 그를 다시 장군으로 선출하고 자신들의 모든 업무를 그에게 맡겼다. 그때쯤 그들은 개인적인 고통에 다소 둔감해지기도 했지만, 국가 전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데에는 그가 가장 적극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2.65.3-4).”

⁹⁸ 플라톤 『파이드로스』, 259d-261.

이 없고 계속해서 손해만 입어야 한다면 전쟁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페리클레스는 ‘이익-손해’의 가치뿐 아니라, 통상 예식 연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수치스러움’의 가치를 결합해서 제시하는 수사적 전략을 선택한다. 그는 첫 번째 연설의 말미에 언급했던 명예(τιμή)를 두 번째 연설에서는 보다 강조한다.

이미 아테네가 처한 상황은 전쟁과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있다. 앞의 연설에서 강조한 바대로 아테네 앞에 놓인 위기는 단지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손실뿐이 아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강조해온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다시 강조한다(2.60.2-4).⁹⁹ 아테네의 시민 개개인으로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들은 폴리스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개인들의 불행은 폴리스가 바로 선다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기에 “개인적인 슬픔은 접어두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2.61.4).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지금 페리클레스는 무엇으로 그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왜,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슬픔을 잠시 잊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 애써야 하는가? 페리클레스는 그것이 바로 아테네의 지배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당장 괴롭다고 전쟁을 포기하거나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바로 아테네가 이미 획득한 제국 내에서의 지배력을 잃게 될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지배력의 포기를 안전의 포기로 연결시킨다.

ἥς οὐδ' ἐκστῆναι ἔτι ὑμῖν ἔστιν, εἴ τις καὶ τόδε ἐν τῷ παρόντι
 δεδιώς ἀπραγμοσύνη ἀνδραγαθίζεται: ὡς τυραννίδα γὰρ ἤδη
 ἔχετε αὐτήν, ἣν λαβεῖν μὲν ἄδικον δοκεῖ εἶναι, ἀφεῖναι δὲ
 ἐπικίνδυνον.

⁹⁹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연설들에서도 강조된다. Cf. 1.141.7, 1.143.5, 1.144.3, 2.40, 2.43.

혹시라도 현재 상황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관심함이 인간적인 일이라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그것(지배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참주권력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불의하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63.2)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정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다가 이제는 참주권력처럼(ὡς τυραννίδα)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고 있는 아테네의 이런 측면은 이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른 폴리스들에 의해 인식되었다.¹⁰⁰ 그러나 아테네인 스스로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페리클레스의 이 발언이 처음이다. 이후 클레온도 페리클레스의 이 말과 거의 유사한 말을 한다. 그는 페리클레스의 말에서 ὡς 를 떼어내버리고 노골적으로 ‘아테네는 참주권력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¹⁰⁰ 라케다이몬인들이 전쟁 개전문제를 놓고 동맹국 회의를 열었을 때, 코린토스 사절은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로 아테네의 참주적 행태를 들고 있다. “그들(우리의 선조들)은 헬라스를 해방시켰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자유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각각의 국가에서는 참주제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한 폴리스(아테네)가 우리 모두 위에 참주로 군림하는 것을 용납했으니 말입니다(οἱ τὴν Ἑλλάδα ἡλευθέρωσαν, ἡμεῖς δὲ οὐδ’ ἡμῖν αὐτοῖς βεβαιοῦμεν αὐτό, τύραννον δὲ ἐῷμεν ἐγκαθεστάναι πόλιν, τοὺς δ’ ἐν μὲν μονάρχους ἀξιοῦμεν καταλύειν).” (1.122.3); “이제 헬라스에 참주로 군림하는 폴리스는 우리 모두 위에 군림하며, 우리 가운데 일부는 벌써 지배하고 있고, 일부는 복속시킬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καὶ τὴν καθεστηκυῖαν ἐν τῇ Ἑλλάδι πόλιν τύραννον ἡγησάμενοι ἐπὶ πᾶσιν ὁμοίως καθεστάναι, ὥστε τῶν μὲν ἤδη ἄρχειν, τῶν δὲ διανοεῖσθαι, παραστησώμεθα ἐπελθόντες).” (1.124.3) Cf.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아테네인들이 자신들(데모스)를 참주로 언급하는 경우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파네스, 『기사』, 1111-4: “데모스여, 그대의 권력은 /실로 막강하며, 그대를 /참주인 양 /다들 두려워한다오.”

(ὦ Δῆμε καλὴν γ’ ἔχεις
ἀρχήν, ὅτε πάντες ἄνθρωποι
δεδίασί σ’ ὥσπερ
ἄνδρα τύραννον.)

고 말한다. 이 두 사람의 말에서 ὥς 의 유무로 인한 미묘한 차이는 클레온을 다루면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다른 폴리스들이 아테네에 대해 갖고 있는 이 두려움과 미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못한다. 바로 이어 덧붙여진 말은 그가 민주정과 제국주의의 모순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는 다른 폴리스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만일 지배권을 획득한 것이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¹⁰¹ 아테네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제국은 선조들이 애써서 만들고 지켜서 물려준 것이며,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에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테네인들이 전쟁을 멈추고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 굴복하는 것, 곧 그것이 자신의 지배권, 제국,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도덕성의 문제를 생각할 때가 아님을 지적한다. 아테네가 전쟁을 계속하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간다면 당장의 이익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근거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아테네의 힘(δύναμις)과 아테네의 지배권(ἀρχή)에서 찾는다.¹⁰² 이 연설에서는 특히 이 두 단어의 잦은 사용이 두드러진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힘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 이만큼의 땅, 이러저러한 재산, 그리고 전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계가 없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¹⁰¹ Kagan은 당시 아테네 제국과 전쟁이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페리클레스가 제국의 내재적인 부도덕성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정책을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Kagan and Wallace, *The Peloponnesian War* (Viking New York, NY, 2003), 82.

¹⁰² 페리클레스의 두 번째 민회연설에서는 앞의 첫 번째 연설에 비해 힘(δύναμις, ἰσχύς)와 제국/지배권/지배하다 (ἀρχή, ἄρχειν)의 의미를 갖는 어휘의 사용빈도가 높다. Cf. 힘: 62.3, 62.5, 64.3. 제국/지배: 62.1, 62.2, 63.1, 63.3, 64.3, 64.5.

οἴεσθε μὲν γὰρ τῶν ξυμμάχων μόνων ἄρχειν, ἐγὼ δὲ ἀποφαίνω δύο μερῶν τῶν ἐς χρῆσιν φανερῶν, γῆς καὶ θαλάσσης, τοῦ ἐτέρου ὑμᾶς παντὸς κυριωτάτους ὄντας, ἐφ’ ὅσον τε νῦν νέμεσθε καὶ ἦν ἐπὶ πλέον βουλευθῆτε: καὶ οὐκ ἔστιν ὅστις τῇ ὑπαρχούσῃ παρασκευῇ τοῦ ναυτικοῦ πλέοντας ὑμᾶς οὔτε βασιλεὺς οὔτε ἄλλο οὐδὲν ἔθνος τῶν ἐν τῷ παρόντι κωλύσει. ὥστε οὐ κατὰ τὴν τῶν οἰκιῶν καὶ τῆς γῆς χρεῖαν, ὧν μεγάλων νομίζετε ἐστερεῖσθαι, αὕτη ἡ δύναμις φαίνεται: οὐδ’ εἰκὸς χαλεπῶς φέρειν αὐτῶν μᾶλλον ἢ οὐ κηπίον καὶ ἐγκαλλώπισμα πλούτου πρὸς ταύτην νομίσαντας ὀλιγωρῆσαι, καὶ γνῶναι ἐλευθερίαν μὲν, ἣν ἀντιλαμβάνόμενοι αὐτῆς διασώσωμεν, ῥαδίως ταῦτα ἀναληψομένην, ἄλλων δὲ ὑπακούουσαι καὶ τὰ προκεκτημένα φιλεῖν ἐλασσοῦσθαι.

여러분은 여러분이 단지 동맹국들만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용함과 관련해서 명백한 두 개의 부분, 곧 육지와 바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 하나인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함대의 준비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항해를, 그가 페르시아 왕이든 혹은 현재 이 땅 위의 종족 중 어느 누구든 간에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힘은 집과 육지의 이로움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잃는 것을 엄청난 것으로 여기시겠지만 말입니다. 또 여러분은 그것들을 과중하게 여길 게 아니라, 해군력과 비교할 때 그것들은 그저 뒤뜰이자 부의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되찾기를 바라며 위험에서도 자유를 지켜낸다면, 그것들을 쉽게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복종한다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잃게 됩니다.(2.62.2-3)

여기서 우리는 페리클레스가 생각하고 있던 제국에 대한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이미 뗀어진 동맹국들, 그들만이 아테네 제국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집과 토지 역시 나라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원과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데모스) 그리고 우리가 제국을 갖도록 해주는 해군이다.¹⁰³ 그리고 해군력의 요체는 바로 ‘섬 주민’과도 같은 바로 데모스이다. 페리클레스는 데모스가 곧 제국화된 폴리스 아테네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 말함으로써 데모크라티아와 제국주의를 결합하고 있다. 그는 특히, 첫 번째 연설에서도 언급했던 ‘아테네의 바다의 지배’와 관련한 논의를 이 연설에서 더 확장시킨다. 단지 땅과 동맹국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영역까지 아테네의 지배하에 있다는 말은, 청중들에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에 대한 신뢰를 줌과 동시에, 그것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준다. 실재하는 재산에서 생각하고 상상해야 하는 재산으로, 물리적인 것에서 이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로 아테네인들의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써,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이 현실의 괴로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고자 한다.

ιέναι δὲ τοῖς ἐχθροῖς ὁμόσε μὴ φρονήματι μόνον, ἀλλὰ καὶ καταφρονήματι. αὖχημα μὲν γὰρ καὶ ἀπὸ ἀμαθίας εὐτυχοῦς καὶ δειλῷ τινὶ ἐγγίγνεται, καταφρόνησις δὲ ὃς ἂν καὶ γνώμη πιστεύῃ τῶν ἐναντίων προύχειν, ὃ ἡμῖν ὑπάρχει. καὶ τὴν τόλμαν ἀπὸ τῆς ὁμοίας τύχης ἢ ξύνεσις ἐκ τοῦ ὑπέρφρονος ἐχυρωτέραν παρέχεται, ἐλπίδι τε ἥσσον πιστεύει, ἥς ἐν τῷ ἀπόρῳ ἢ ἰσχύς, γνώμη δὲ ἀπὸ τῶν ὑπαρχόντων, ἥς βεβαιότερα ἢ πρόνοια.

여러분은 용기만이 아니라, 우월감을 가지고서 적들에게 전진해야 합니다. 운 좋게 몰라서 생긴 자만심은 비겁한 사람에게도 생

¹⁰³ 이 생각은 라케다이몬의 왕 아르키다모스의 입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다. “우리는 그들의 나라를 약탈하면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에 들떠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가 이 전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에 집착하거나, 신병들처럼 전쟁에 겁먹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1.81.6)

겨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월감은 적들보다 더 앞서 있다는 믿을 만한 판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운이 같은 상황이라면, 우월감으로부터 오는 식견은 용기를 보다 강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절망 속에서나 힘을 가지는 희망보다는 현재 상황들에 대한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것에서 더 확고한 선견지명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2.62.3-5)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힘과 그 힘으로 만들어낸 제국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도 단순한 용기 있는 생각(φρόνημα) 아니라,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는 우월감(καταφρονήμ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2.62.3) 적들에 굴복하는 것은 위대한 힘을 가진 아테네 시민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테네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러한 태도는 믿을 만한 판단(γνώμη)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우월감(ὑπέρφρων)은 식견(ξύνεσις)을 가져오고, 지성은 용감함(τόλμα)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2.62.5) 바로 여기에서 그들은 확실한 선견지명(πρόνοια)를 갖게 될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이들이 우월감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들이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다.¹⁰⁴

τῆς τε πόλεως ὑμᾶς εἰκὸς τῷ τιμωμένῳ ἀπὸ τοῦ ἄρχειν, ὧπερ ἅπαντες ἀγάλλεσθε, βοηθεῖν, καὶ μὴ φεύγειν τοὺς πόνους ἢ μηδὲ τὰς τιμὰς διώκειν: μηδὲ νομίσαι περὶ ἐνὸς μόνου, δουλείας ἀντ' ἐλευθερίας, ἀγωνίζεσθαι, ἀλλὰ καὶ ἀρχῆς στέρησεως καὶ κινδύνου ὧν ἐν τῇ ἀρχῇ ἀπήχθεσθε.

¹⁰⁴ Alexander Numenius는 φρόν-이 들어간 여러 단어들을 반복을 이용한 2.64.3-4에서 사용된 수사적 전략을 ‘παρονομασία’ 기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lex. fig. ver. κ': Παρονομασία δὲ γίνεται, ὅταν τι τῶν ληφθέντων εἰς τὴν διάνοιαν ὀνομάτων ἢ ῥημάτων βραχὺ μεταποιήσαντες ἐτέραν κινήσωμεν ἔννοιαν, ... καὶ ὡς τὸ θουκυδίδου, ἰέναι τοῖς ἐχθροῖς ὁμόσε μὴ φρονήματι, ἀλλὰ καταφρονήματι. καὶ ὅπως τὰ τοιαῦτα ἔχει διεκπλέκοντες καὶ περιπλέκοντες.)

여러분이 이 폴리스의 지배력으로 칭송을 받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면, 마땅히 이 폴리스를 도와야 하며, 힘든 일들을 회피하지 않거나 아니면 영예를 추구하지 않거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속이나 자유냐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배권의 상실과 지배권 안에서 여러분이 불리일으킨 증오의 위험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2.63.1)

지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폴리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페리클레스는 폴리스 아테네, 그리고 제국화된 아테네에 새로운 길을 열어 놓는다. 제국화의 길로 들어선 아테네는 더 이상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제 아테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제국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이 우월감을 가질만 하다고 자신감을 불려 일으킨 후, 그들이 이 제국을 지배할 만한 자들임을 강조하며, 이 전쟁이 단지 자유와 예속을 놓고 겨루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아테네가 계속 확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제국이 된 이상, 이제 제국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πολυπραγμοσύνη’는 이제 제국의 핵심적인 특징이 된다. 투퀴디데스는 이 말을 ‘정치에 무관심한’ 개인에게도 사용하지만 동시에 ‘다른 폴리스의 일들에 개입하지 않는,’ 혹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폴리스에도 사용한다.¹⁰⁵ 아테네는 본성상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만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¹⁰⁶ 페리클레스가 덧붙이고 있는 참주정에 대한 유

¹⁰⁵ 추모 연설에서 페리클레스는 정치적 문제들에 무관심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 아테네가 본성상 ἀπράγμων하지 않다는 페리클레스의 논의에 대해서는 앞 47쪽 참조. Cf. Hornblower, *Comm. I*, 1.32.5, 1.62.2, 1.75.4, 6.18.6 n.

¹⁰⁶ ἀπράγμων - πολυπραγμων에 대해서는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에서도 강조된다. 6.18.6 “본성적으로 활동적인 폴리스가 그 본성을 바꿔 나태해지면 금세 망하지만, 설령 본성과 제도가 완전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되도록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나라의 안전이 가장 확실히 담보되는 것입니다.”; ἡσυχία와 ἀπραγμοσύνης 연관성에 관해서는 Hornblower, *Comm. III*, 6.18.6; cf. Pin. P. 8.

비¹⁰⁷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테네가 제국적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들의 지배권을 참주권력 같이 행사하는 것이다. 지배는 본성적으로 지배 받는 자들의 두려움과 증오를 수반한다. 지금 당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가는 그 지배력을 다시 빼앗겨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는 제국을 참주정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의 힘을 끊임없이 제국내의 폴리스들에게 보여야만, 그들은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이 제국화의 길 위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또 멀리 나아가지 않고 멈추어 서는 날에는 제국은 유지되지 않고 붕괴되어 버릴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직접적으로 제국의 팽창을 말하지는 않지만 아테네 시민들 내면에 제국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아테네인들의 제국에 대한 욕망을 팽창이 아닌 제국의 존립과 연결시킨다. 아테네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 끝까지 싸운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아테네의 위대함을 드러내야만 한다. 그는 추모 연설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아테네의 위대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γινώτε δὲ ὄνομα μέγιστον αὐτὴν ἔχουσιν ἐν ἅπασιν ἀνθρώποις διὰ τὸ ταῖς ξυμφοραῖς μὴ εἶκειν, πλεῖστα δὲ σώματα καὶ πόλους ἀνηλωκέναι πολέμῳ, καὶ δύναμιν μεγίστην δὴ μέχρι τοῦδε κεκτημένην, ἥς ἐς αἶδιον τοῖς ἐπιγιγνομένοις, ἦν καὶ νῦν ὑπενδωμέν ποτε (πάντα γὰρ πέφυκε καὶ ἐλασσοῦσθαι) μνήμη καταλείπεται, Ἑλλήνων τε ὅτι Ἕλληνες πλείστων δὴ ἥρξαμεν, καὶ πολέμοις μεγίστοις ἀντέσχομεν πρὸς τε ξύμπαντας καὶ καθ' ἐκάστους, πόλιν τε τοῖς πᾶσιν εὐπορωτάτην καὶ μεγίστην ὠκῆσαμεν.

¹⁰⁷ cf. “아테네는 참주권력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음모를 꾸미며 마지못해 복종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3.37.2); “참주나 폴리스가 지배권을 가진 경우에는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불합리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없으면 형제취급을 하지도 않습니다.” (6.85.1)

명심하십시오. 이 폴리스는 불행에 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가장 많은 목숨과 노고를 전쟁에 바쳐 역사상 최대의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후세들에게도 영원히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 세대 역시 언젠가 쇠퇴하게 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본성상 약해지기 마련이니까요.) 헬라스인들 중 우리가 가장 많은 헬라스인들을 지배했고, 가장 큰 전쟁들에서 폴리스들의 연합 그리고 각각의 폴리스들과 맞서 싸웠으며, 모든 점에서 가장 훌륭하게 갖추진 가장 위대한 폴리스에서 거주했다고 말입니다. (2.64.3)

페리클레스는 여기서 연달아 일곱 개의 최상급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¹⁰⁸ 이 중 네 개는 ‘μέγιστ-’로 아테네의 위대함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아테네의 과거의 용맹함이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과, 가장 큰 힘을 갖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국, 즉 앗티케와 그 밖의 여러 도서지역들을 포함하는 지배 영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장례식 장례 연설에서 칭송했듯이 “헬라스의 학교(ἡ πόλις τῆς Ἑλλάδος παίδευσις, 2.41.1)”로서의 아테네의 문화적, 정신적 우월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테네인들은 그러한 아테네의 우월함에 걸맞게 행동 해야만 한다. 선조들의 위대함을 그들에 못지않은 자신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보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더 우세했지만, 우리가 폴리스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가진 고상하고 높은 가치를 위해 싸웠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모든 점에서 가장 훌륭

¹⁰⁸ ‘가장 위대한 이름(ὄνομα μέγιστον),’ ‘가장 많은 목숨(πλείστα δὲ σώματα),’ ‘가장 큰 힘(δύναμις μεγίστην),’ ‘가장 많은 헬라스인들(Ἕλληνες πλείστων),’ ‘가장 큰 전쟁들에서(πολέμοις μεγίστοις),’ ‘가장 훌륭하게 갖추진(πόσιν εύπορωτάτην),’ ‘가장 위대한(μεγίστην)’. 투퀴디데스에서 이렇게 많은 최상급이 사용된 문장도 연설도 여기 외에는 없다.

하게 완비되어 있는 아테네는 결국 펠로폰네소스인들로부터 승리할 것이며 그들의 위대함은 기억 속에 불멸하는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테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 있는 “ἦν καὶ νῦν ὑπενδῶμέν ποτε (πάντα γὰρ πέφυκε καὶ ἔλασσοῦσθαι)”이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위대함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왜 ‘쇠퇴’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용기를 북돋워야 하는 이 상황에서 페리클레스의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¹⁰⁹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이 페리클레스가 실제 이 연설에서 한 말이 아닌, 기원전 404년 아테네의 패배를 지켜본 투퀴디데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으며,¹¹⁰ 아테네 제국의 몰락을

¹⁰⁹ 이 구절은 투퀴디데스 연설문들의 ‘역사성’ 및 ‘구성문제’의 쟁점이 되었다. 투퀴디데스가 1.22에서 말한 ‘실제 말해진 것들의 전체 요지’에 강조점을 두는 학자들은 이를 아테네의 쇠망을 예견한 페리클레스의 선견지명 내지는 당시 이미 유행했던 사물의 이치나 인간 본성에 대한 일반화였다고 말한다. Kagan은 페리클레스의 세 번째 연설의 역사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 연설이 페리클레스가 그 상황에서 직접 한 말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퀴디데스의 생각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는 ‘진짜로 말해진 전체 요지에 최대한 가깝게’ 연설자들이 말하게 했다는 페리클레스의 서술 원칙(1.22)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Kagan, *The Archidamian War*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365-367. Gomme는 “모든 것이 쇠한다는 사실’이 보편적인,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 진실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기원전 404년 이후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투퀴디데스가 이 연설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으로 썼을 것이지만, 페리클레스의 성격과, 그가 바로 그 상황에서 했어야 할 말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Gomme et al, *HCT II*, 181. Finley는 여기서 보이는 ‘일반화(generalization)’와 소피스트적 스타일 등의 페리클레스의 여러 언어적 특성들이 실제 당시에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말하며 페리클레스 연설의 역사성을 방어하고 있다.

¹¹⁰ 대부분의 분석론자들은 이 세 번째 연설 자체가 기원전 404년 이후에 쓴 것이라고 보고 있다. Meyer는 기원전 404년 전쟁이 아테네의 패배로 끝난 이후 페리클레스와 아테네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자, 이에 대한 변론을 위해 이 연설을 집어 넣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Meyer, *Forschungen zur alten Geschichte II*. (Halle, 1899), 389ff.)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Parry 역시 이 구절이 의미에서나 문체에서나 페리클레스가 아닌 투퀴디데스의 말이라고 본다. Wade-Gery는 페리클레스의 추모 연설과 이 구절이 아테네의 몰락 이후에 쓰였거나, 혹은 고쳐졌을 것이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vaticinium post eventum).¹¹¹ 투퀴디데스가 과연 어떤 시점에 이 연설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그가 이 구절을 통해서 투퀴디데스가, 아테네의 패배를 알고 있었던 시점에서, 비극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삽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럴 듯해 보인다. 그가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추모 연설과 역병에 대한 서술, 그리고 페리클레스의 죽음 직전의 마지막 연설을 나란히 배치한 것도 같은 효과, 즉 아테네가 겪게 될 비극을 더 강조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페리클레스가 장례 연설에서 강조한 아테네의 위대함은 역병으로 인해 이미 비극적 반전(περιπέτεια)을 겪었다.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모든 계산으로부터 벗어나 발생한 일” 특히 “역병”이 아테네인들의 마음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2.61.3) 그리고 지금 그는 아테네의 위대함, 아테네인들의 명성과 영광을 예기하면서 동시에 아테네의 쇠망을 언급한다. “설령 우리 세대 역시 언젠가 쇠퇴하게 된다고 해도(ἤν καὶ νῦν ὑπενδωμέν ποτε)” 아테네인들의 명성은 영원할 것이다(ἐς αἶδιον).¹¹²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듣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독자들은 투퀴디데스가 페리클레스의

라고 주장한다. 그는 아테네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시기에 페리클레스가 전쟁에서의 패배를 언급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든다. Wade-Gery, ‘Thucydides’, in *OCL*, 1518.

¹¹¹ 투퀴디데스의 연설문의 사실성을 인정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도 이 구절만큼은 그들의 입장을 보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Hornblower는 이 구절이 기원전 404년 이후 투퀴디데스가 집어 넣었다고 볼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아테네 제국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Hornblower, *Comm. I*, 399. 그는 또한 역사적인 페리클레스에게도 호메로스적 태도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구절은 페리클레스의 말이 아닌 투퀴디데스의 말이라고 보고 있다. Hornblower(1987), 65.

¹¹² 그의 말은 비극적 요소를 가질 뿐 아니라, 전장에 나서는 호메로스의 영웅들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일리아스』 6권 447-449. “나는 물론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소, 언젠가는 신성한 일리오스와 훌륭한 물푸레나무 창의 프리아모스와 그의 백성들이 멸망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ὅτ’ ἄν ποτ’ ὀλώλῃ).” 아킬레스가 자신의 고집을 위해 친구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고, 호메로스에서의 영광은 실패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이 구절과 비교해볼 만하다. Macleod(1983), 157.

입을 통해 아테네의 패망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치는 페리클레스의 말에 깊은 비장감을 부여한다. 그것은 페리클레스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본성상 그렇게 되기 마련이듯, 언젠가 아테네도 쇠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대한 힘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입을 통해 또다시 역병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발생할 것을 암시한다. 아테네는 위대하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 깨어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¹¹³ 아테네의 지배력을 참주권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그들이 받는 미움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테네 제국 역시 몰락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아테네인들이 싸워서 얻으려는 것들,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은 ‘이름’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전쟁에서 죽은 이들에게 이름과 명성만 남은 것처럼, 추모 연설에서 칭송한 아테네의 아름다움이 역병으로 스러진 것처럼, 그렇게 아테네의 위대함, 아테네의 힘도 소멸되고 그들에게 남겨질 것은 기껏해야 미래의 명성일 뿐이다. 여기서 아테네가 갖는 비극성이 드러난다.¹¹⁴

μῖσος μὲν γὰρ οὐκ ἐπὶ πολὺ ἀντέχει, ἡ δὲ παραντίκα τε
λαμπρότης καὶ ἐς τὸ ἔπειτα δόξα αἰείμνηστος καταλείπεται.
ὕμεις δὲ ἔς τε τὸ μέλλον καλὸν προγνόντες ἔς τε τὸ αὐτίκα μὴ
αἰσχρὸν τῷ ἤδη προθύμῳ ἀμφοτέρα κτήσασθε.

¹¹³ Ibid, 156.

¹¹⁴ 추모 연설과 세 번째 연설의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데, 장례 연설이 아테네의 새로운 시민적 삶에 대한 가능성들을 내다보도록 만들었다면, 마지막 연설은 아테네의 쇠퇴를 내다보고 있다. Connor는 장례 연설이 과시 연설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적 역할로 변형되는 반면, 이 민회연설은 폴리스의 몰락을 예상하며 부르는 아테네의 추모연설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Connor, *The New Politicians of Fifth-Century Athe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71. cf. Parry(1988), 179-180.

미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현재의 찬란함과 미래의 명성**은 영원히 기억되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미래의 영광을 예견하고 현재의 일들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열성을 다해 저 두 가지 모두를 얻으십시오.(2.64.5-6)

페리클레스는 승리를 장담하는 대신에 아테네의 몰락을 예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룬 것들에 대한 기억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는 현재의 영광과 미래의 명성을 하나의 관사를 사용해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제시함과 동시에, 그들의 위대함이 만들어낸, 그들이 이뤄낸 것들 즉 영토와 건물, 재산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분리해 낸다.¹¹⁵ 물질적인 것들은 인간이 언젠가 죽듯 소멸해버리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부심, 이름, 명성은 영원히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¹¹⁶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이 그의 말에 설득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이들은 투퀴디데스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 독자들도 알고 있듯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페리클레스가 한 말처럼 결국 자신들이 패배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에서 시선을 돌려 미래를 바라보고 전쟁을 계속해 나간다.¹¹⁷ 그들은 페리클레스의 예언을 알아듣지 못한다. 페리클레스가 강조했던 ‘위대함’과 ‘명성’만을 귀에 담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명성에 대한 욕구는 그들을 현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페리클레스를 따르도록 만든다.

¹¹⁵ Macleod(1983), 153.

¹¹⁶ 페리클레스의 이 말은 이후 시켈리아 원정에서의 참혹한 패배를 목전에 둔 니키아스에 의해서도 반복된다. “이 배에 오른 여러분들이 아테네인들에게 보병이고, 배들이며, 뒤에 남겨둔 폴리스이며, 아테네의 위대한 이름(τὸ μέγα ὄνομα τῶν Ἀθηνῶν)입니다.” (7.64.2)

¹¹⁷ “그런 말로 페리클레스는 자신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노여움을 풀고 그들의 생각을 현재의 고통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다. 아테네인들은 공적으로는 그의 주장을 받아 들여...” (2.65.1-2)

여기서 투퀴디데스는 아테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보여준다. 페리클레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서도 그에 대한 분노를 삭이지 못한 민중은 곧 페리클레스를 장군직에서 쫓아내고 벌금을 부과해 버린다. 그리고 얼마 뒤 그들은 ‘군중이 흔히 그러하듯(ὅπερ φιλεῖ ὄμιλος ποιεῖν)’ 다시 페리클레스를 불러들여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는다(2.65.4). 투퀴디데스는 끊임없이 마음이 바뀌는 민중의 모습을 지적한다. 민주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중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과 함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말로 그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말을 통해 아테네 민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례 연설에서는 아테네의 모습이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자유로운 폴리스 안에서 개인들은 자신을 삶을 자유롭고 유지하며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었고, 폴리스를 위한 시민들의 노고는 폴리스의 공공선을 이루었다. 아테네의 위대함은 다른 폴리스들이 본받을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균형은 역병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로 금방 깨질 수밖에 없었다. 아테네 안에, 아테네를 쇠망을 가져올 약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입을 통해, 아테네의 쇠망을 예고하고 그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독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한다.

5. 소결론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세 개의 연설을 통해 그의 가졌던 탁월한 연설의 힘을 보여주고 난 후,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ὅσον τε γὰρ χρόνον προύστη τῆς πόλεως ἐν τῇ εἰρήνῃ, μετρίως ἐξηγεῖτο καὶ ἀσφαλῶς διεφύλαξεν αὐτήν, καὶ ἐγένετο ἐπ’ ἐκείνου μεγίστη, ἐπειδὴ τε ὁ πόλεμος κατέστη, ὁ δὲ φαίνεται καὶ ἐν τούτῳ προγνοῦς τὴν δύναμιν. ἐπεβίω δὲ δύο ἔτη καὶ ἕξ

μήνας: καὶ ἐπειδὴ ἀπέθανεν, ἐπὶ πλέον ἔτι ἐγνώσθη ἡ πρόνοια αὐτοῦ ἢ ἐς τὸν πόλεμον. ... αἴτιον δ' ἦν ὅτι ἐκεῖνος μὲν δυνατὸς ὢν τῷ τε ἀξιώματι καὶ τῇ γνώμῃ χρημάτων τε διαφανῶς ἀδωρότατος γενόμενος κατεῖχε τὸ πλῆθος ἐλευθέρως, καὶ οὐκ ἤγετο μᾶλλον ὑπ' αὐτοῦ ἢ αὐτὸς ἦγε, διὰ τὸ μὴ κτώμενος ἐξ οὐ προσηκόντων τὴν δύναμιν πρὸς ἡδονὴν τι λέγειν, ἀλλ' ἔχων ἐπ' ἀξιώσει καὶ πρὸς ὀργὴν τι ἀντειπεῖν. [9] ὁπότε γοῦν αἰσθητό τι αὐτοῦ παρὰ καιρὸν ὕβρει θαρσοῦντας, λέγων κατέπλησεν ἐπὶ τὸ φοβεῖσθαι, καὶ δεδιότας αὖ ἀλόγως ἀντικαθίστη πάλιν ἐπὶ τὸ θαρσεῖν. ἐγίγνετό τε λόγῳ μὲν δημοκρατία, ἔργῳ δὲ ὑπὸ τοῦ πρώτου ἀνδρὸς ἀρχή.

그는 평화시에 폴리스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는, 중도적인 정책으로 폴리스를 안전하게 수호했고, 그로 인하여 아테네는 가장 위대한 폴리스가 되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당시 폴리스의 힘을 내다보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개전 후 2년 반을 더 살았고, 전쟁에 대한 그의 선견지명은 그가 죽은 뒤 보다 널리 인정되었다. ... 그는 명성에 있어서나, 판단력에서나 능력 있는 자였고, 금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청렴했고, 대중을 자유롭게 장악할 수 있었으며, 대중이 그를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그들을 이끌었다. 적절치 못한 수단으로 권력을 차지하려 들지 않아서 그는 그들의 귀의 즐거움을 위해 말할 필요가 없고, 명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분노를 자극하며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오만함으로 대담함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여길 때면 놀랄만한 말을 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반면 그들이 근거 없이 겁에 질려 있으면 다시 용기를 갖도록 일으켜 세웠다. 명목상으로는 민주정이었으나, 실제로 그 통치는 제일인자에 의한 것이었다. (2.65.5-10)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가 이후 다시 찾아보기 어려운 아테네의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리더십이 특히 그의 말의 힘에서 드러났다고 보았다. 페리클레스의 연설들은 투퀴디데스의 평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페리클레스의 연설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설득의 힘을 잘 보여 주는데, 그 하나는 정신적 가치에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설득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아테네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직시하되, 정신적인 가치인 영예를 붙들 것을 호소하고, 그것을 통해 주저하고 망설이는 자들을 일어서게 만들었다.

페리클레스가 역병으로 인해 전쟁 개전 이년 반 만에 세상을 뜨고 난 후, 아테네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투퀴디데스는 이후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οἱ δὲ ὕστερον ἴσοι μᾶλλον αὐτοὶ πρὸς ἀλλήλους ὄντες καὶ ὀρεγόμενοι τοῦ πρώτου ἑκάστος γίγνεσθαι ἐτράποντο καθ' ἡδονὰς τῷ δήμῳ καὶ τὰ πράγματα ἐνδιδόναι. ἐξ ὧν ἄλλα τε πολλὰ, ὥς ἐν μεγάλῃ πόλει καὶ ἀρχὴν ἐχούσῃ, ἡμαρτήθη καὶ ὁ ἐς Σικελίαν πλοῦς, ὃς οὐ τοσοῦτον γνώμης ἀμάρτημα ἦν πρὸς οὓς ἐπῆσαν, ὅσον οἱ ἐκπέμψαντες οὐ τὰ πρόσφορα τοῖς οἰχομένοις ἐπιγιγνώσκοντες, ἀλλὰ κατὰ τὰς ἰδίας διαβολὰς περὶ τῆς τοῦ δήμου προστασίας τὰ τε ἐν τῷ στρατοπέδῳ ἀμβλύτερα ἐποίουν καὶ τὰ περὶ τὴν πόλιν πρῶτον ἐν ἀλλήλοις ἐταράχθησαν.

이후의 정치인들은 모두 수준이 비슷하였고, 각기 일인자의 자리에 이르고자 하여 심지어 정치적 사안들까지 민중의 쾌락에 맡겨버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들은 지배권을 보유한 가장 큰 폴리스에서 저지를 법한 잘못들, 그것도 특히 시켈리아로의 원정이라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 실수는 원정의 대상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기보다는, 보낸 자들이 떠난 자들에 대해 적절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민중에 대한 지도력을 갖고자 사적인 분쟁으로 군대의 힘을 약화시키고, 폴리스와 관련된 일들에서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65.10-11)

페리클레스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민주정과 제국주의가 함께 갈 수 있었다. 아테네의 내적 구조인 민주정의 시스템과 외연인 제국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한 명의 뛰어난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인해, 아테네 민중의, 그리고 아테네의 욕망이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투퀴디데스가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민주정은 민주정의 몸체라 할 수 있는 데모스를 통제할 수 있는, 행동과 말, 그리고 능력과 윤리성이 결합된 이상적 통치자와도 같은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와 정체의 훌륭함 속에서 그 몸 역시 훌륭한 존재가 된다. 투퀴디데스는 이 세 개의 연설과 페리클레스의 초창기 전쟁 전략을 통해, 페리클레스에 의해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시기의 모습을 그려 보였다. 그것은 ‘머리 달린 온전한 형태의 몸’¹¹⁸과

¹¹⁸ ‘머리 없는(ἀκέφαλος)’ 몸의 비유는, 플라톤의 『국가』와 아이소포스의 여러 우화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 아이소포스, 『이솝 우화』, 천병희 역, 288: “하루는 뱀의 꼬리가 자기야말로 앞장서서 인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뱀의 다른 부분들이 말했다. “너는 다른 동물처럼 눈도 코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니?” 그들은 꼬리를 설득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결국 건전한 상식이 지고 말았다. 꼬리는 보지도 못하면서 온몸을 끌고 앞장서서 인도하다가 돌 구렁이에 빠졌다. 그래서 뱀은 등과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꼬리가 아양을 떨며 머리에겐 간청했다. “원한다면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세요, 여주인이여! 내가 당신과 다툼 것이 잘못이었어요.”) Pope는 아테네의 의사결정 과정이 다른 폴리스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책임 시스템’을 취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아테네 그러면서 그는 아테네의 정책들이 정치적 리더(정치 엘리트)에 의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 의해 이끌어졌기 때문에 전쟁 발발 전후의 아테네 민주정을 ‘페리클레스의 아테네’ ‘페리클레스의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면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크지 않았으며, 그런 점에서 아테네를 머리 없는 폴리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Pope, "Thucydides and democracy",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1988)) 반면 Rhodes는 Pope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이 민회에 모여 집단적 지혜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그리스인들의 삶에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현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폴리스 아테네가 ‘머리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테네 민회에는, 영향력 있는 그리고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테네 민주정의 몸이라 할 수 있는 데모스와 그 머리라 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각자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제국이 된 아테네는 움직임을 멈출 수 없다. 제국이 더 커져갈수록, 아테네인들의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πλεονεξία*) 역시 커져간다. 아테네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외부로 뻗어나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테네가 커져갈수록 다른 국가들의 아테네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는 커져간다. 투퀴디데스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바로 아테네의 제국적 탐욕과, 이것이 불러 일으킬 다른 폴리스들의 두려움과 증오가 아테네가 안고 있던 내재적 약점이라고 보았다. 페리클레스가 통치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그는 말의 힘으로 아슬아슬하게 민주정과 제국주의의 균형을 잡고, 데모스를 제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커져가는 제국을 페리클레스보다 뛰어나지 않은 그의 후계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 아테네의 외연과 그들 자신의 욕망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버린 아테네는, 머리까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앞서 사 용한 몸과 머리의 유비를 사용한다면, 페리클레스 사후의 아테네는 머리와 몸이 전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머리가 없는 몸과도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균형이 깨어져버린 이후의 아테네의 상황을 몇 개의 논전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행해진 연설들에서 우리는 이후 아테네인들이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페리클레스의 후계자들이 이런 아테네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이

적인 인물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들은, 무엇보다 연설을 통해 데모스를 설득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아테네 민주정이 머리 없는 폴리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Rhodes, "The "Acephalous" Polis?" Ibid. (1995). 이 논문에서는 Rhodes의 기본적인 입장을 따르지만, 아테네 민주정이 페리클레스 이후로는, 결국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지도자가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머리 없는 상태로 바뀌어 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용하며 설득해 나가고, 아테네 제국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가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III. 제국의 논리: 뮈틸레네 논전

기원전 428년 여름 메티나를 제외한 레스보스의 폴리스들이 뮈틸레네의 주동으로 아테네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뮈틸레네의 과두파는 스파르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스파르타의 의도적인 늑장으로, 펠로폰네소스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뮈틸레네는 아테네에 포위당하고 말았다. 기원전 427년 뮈틸레네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아테네의 지휘관 파케스에게 항복했고, 뮈틸레네가 아테네 경비병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동안, 주동자들은 아테네로 후송되었다. 이제 뮈틸레네의 운명은 아테네인들의 결정에 놓여지게 된다. 뮈틸레네의 반란 소식은 아테네인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지금까지 아테네에게 반란을 일으킨 폴리스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테네의 지배 하에 있었던 폴리스들 중, 특별히 자치권(αὐτονομία)을 허용하고 자신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해준¹¹⁹ 뮈틸레네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의 호의에 대한 배반으로까지 여긴 것이다.¹²⁰ 그들이 스파르

¹¹⁹ 물론 뮈틸레네인들은 자신들이 아테네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등한 동맹관계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¹²⁰ 뮈틸레네인들이 스파르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한 연설(3.9-14)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Macleod, "Reason and necessity: Thucydides 3.9-14, 37-48", *Journal of Hellenic Studies* 98 (1978) 참조. 뮈틸레네인들의 연설에서도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정의'의 문제가 다뤄진다. 이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아테네와의 동맹을 이탈하고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동맹을 요구하는 정당성과 그 근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의 연설에서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아테네의 동맹국들이 과연 아테네를 어떤 '주도국'으로 여기고 있는 지이다. 뮈틸레네인들은 아테네인들이 '헬라스인들을 페르시아의 압제로 해방시킨다'는 명목 하에 되려 동맹국들을 '노예로 삼고 있다고 비난한다. 3.10.3-4. 그리고 자신들이 아테네와의 동맹을 이탈한 것이 자신들까지 노예로 삼을까봐 두려워서라고 주장한다. (3.10.4. '동맹국들을 노예로 삼는데 점점 열을 올리자 우리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뮈틸레네인들은 자신들과 키오스인들이 유일하게 '아직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αὐτόνομοι δὴ ὄντες) 명목상 자유인(ἐλεύθεροι τῷ ὀνόματι)이라고 밝힌다. 일반적으로 동맹국은 크게 함선을 델 수 있었던 해군동맹국과, 매년 세

타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아테네인들을 격분시킨 이유였다. 아테네인들은 포로의 신병 처리 및 뮈틸레네의 운명을 놓고 민회를 연다 (3.36.1). 그리고 그들은 분노라는 걱정¹에 사로잡혀 어떤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도 없이 주동자인 살라이토스를 즉시 죽인 후, 뮈틸레네의 모든 성인 남성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팔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뮈틸레네로 즉시 사람을 보내 지체 없이(κατὰ τάχος) 그들의 결의안을 실행하도록 했다. 투퀴디데스는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한다.

καὶ τῇ ὕστεραίᾳ μετάνοιά τις εὐθὺς ἦν αὐτοῖς καὶ ἀναλογισμὸς ὥμῳ τὸ βούλευμα καὶ μέγα ἐγνώσθαι, πόλιν ὅλην διαφθεῖραι μᾶλλον ἢ οὐ τοὺς αἰτίους.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 책임 있는 자들뿐만이 아닌 폴리스 전체를 몰살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이 가혹하고도 과하다고** 재고하게 된 것이다. (3.36.4)

자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폴리스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다고 여겨 뮈틸레네인들 전원을 몰살하도록 사람을 보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아테네인들은 곧 자신들의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함을 되찾는다. 분노에 사로잡혀 내린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테네인들의 이 변화는 가혹함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와 사안을 따져보는 이성적 반성이 모

금을 내야했던 연공동맹국으로 나뉘고, 해상동맹국들은 자치권을 가졌다고 여겨져 왔으나, 생크르와는 해군동맹국이라고 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이 구절을 대고 있다. 동맹국들의 성격과 그 안에서의 자유와 독립의 문제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Ste Croix, "The character of the Athenian empire", *Historia* 3 (1954). 뮈틸레네 사절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독립국(자치권을 가진 나라 *αὐτόνομοι*)으로 있는 이유와 독립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예측될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두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²¹ 이들이 이런 변화를 겪는 사이, 뮈틸레네 사절들과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한 아테네인들도 이 문제를 재고할 것을 설득해냈고, 결국 다음날 민회가 소집된다.

이 두 번째 민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많은 사람들 중, 투퀴디데스는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을 직접화법으로 전해준다. 이 둘의 연설은 『역사』에서 소개되는 모든 연설들을 통틀어 가장 대칭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대립논변을 보여준다. 페리클레스 사후 아테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클레온과 이 연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는 무명의 인물 디오도토스의 병치는 그 자체로 기묘한 대조의 효과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러한 외견 상의 대조와는 상반되게, 내용상으로, 이들의 논전은 시종일관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유력 정치인 클레온이 내세우는 논변의 세부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명의 인사 디오도토스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조목조목 반대 논변을 제시한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제안에 대한 다수의 찬성을 이끌어 냄으로써 클레온과의 연설의 경연(λόγων ἀγών)에서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투퀴디데스는 최종 결정이 간발의 차이로 이루어졌다고 전하면서, 이 팽팽했던 연설 대결의 긴장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클레온과 디오도토스는 뮈틸레네의 반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토론을 제국 경영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장된 논의로 끌어 올린다. 그리고 과연 아테네 민주정과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방식이 제국의 경영과 양립가능한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에까지 다다른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연설이, 투퀴디데스가 전하고 있는 취지대로, 행해졌다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동시에 투퀴디데스가 두 사람의 토론을 아테네의 민주정과 제국주의의 상호 관계를 음미해 볼 계기로 삼았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뮈틸레네 논전은 단순히 뮈틸레네 반란의 처리라는 개별적

¹²¹ Winnington-Ingram, "TA ΔΕΟΝΤΑ ΕΙΠΕΙΝ: Cleon and Diodoto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12 (1) (1965).

사건의 이해를 넘어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의 본성과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가로서의 투퀴디데스의 성찰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을 각각의 목적과 설득의 방식, 즉 그들이 어떤 수사적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세부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 속에서 드러나는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생각들을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다.

1. 클레온의 연설

가장 먼저 연설을 하는 사람은 클레온이다. 뮈틸레네 반란 사건이 서술된 『역사』 3권 이전에도 클레온이 활약하였다는 것은 다른 전거를 통해 알 수 있다.¹²² 그러나 투퀴디데스는 그를 이 사건으로 역사의 무대의 처음 등장시키며,¹²³ 그가 “전날 뮈틸레네인들을 죽이자는 안을 통과시킨 사람으로 아테네 시민 가운데 성격이 가장 격렬했으며(καὶ ἐς τὰ ἄλλα βιαίωτατος τῶν πολιτῶν),¹²⁴ 그 무렵에는 민중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τῷ τε δήμῳ παρὰ

¹²² 부유한 피혁업자의 아들이었던 클레온은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신흥 정치세력에 속하는 인물로, 5세기 중반 비극 경연에서 코로스장을 맡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는 페리클레스의 소극적, 방어적 전쟁 전략에 반대하는 주전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며, 뮈틸레네 반란 사건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음이 분명하다.

¹²³ 투퀴디데스가 그의 소개를 이 뮈틸레네 논전으로 미룬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ood(2004), 145. 투퀴디데스는 클레온이 활약한 다른 사건들은 매우 간략하게 언급만 한다.

¹²⁴ ‘βιαίωτατος’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는 논란거리이다. ‘난폭한’ 등의 의미로 이해해 이 단어를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격정적’인 등의 의미로 읽어 그 자체로 부정적이라고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클레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여러 문헌들에서 발견되는데, 동시대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에서는 곳곳에서 클레온을 ‘신분이 좋지 않고,’ ‘무식하고’(『아카르나이 구역민들』, 299-302, 『기사』 136-7), ‘겉잡이에 변태’(『아카

πολὺ ἐν τῷ τότε πιθανώτατος)”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클레온을 묘사하는 두 개의 최상급 형용사(βιαιότατος, πιθανώτατος)는 이어질 실제 연설에서 그가 보여줄 특징을 시사해 준다. 그는 격한 감정을 통해 설득력 있는 말을 만들어 낼 것이다.

클레온은 뮈틸레네 사건을 재심의할 생각을 하는 아테네인들을 비판하면서 연설을 시작한다.

πολλάκις μὲν ἤδη ἔγωγε καὶ ἄλλοτε ἔγνων δημοκρατίαν ὅτι
ἀδύνατόν ἐστιν ἐτέρων ἄρχειν , μάλιστα δ’ ἐν τῇ νῦν ὑμετέρα
περὶ Μυτιληναίων μεταμελεία

이전에도 여러 번 저는 민주정은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특히나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뮈틸레네인들에 대해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3.37.1)

클레온의 일성(一聲)은 의도적으로 도발적이다. 그는 아테네 민중에게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그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로 그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δημοκρατίαν ἀδύνατόν ἐστιν ἄρχειν”은 당시 과두정지지자들이 민주정을 비

르나이 구역민들』, 664), ‘범죄자에 중상모략하는 자’(『기사들』, 40-44), ‘시끄럽고’,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온갖 말을 지껄이며’(『기사』, 215-216) “그리고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잊지 말고 조미료를 치시오. 당신은 민중선동가의 다른 자질은 다 갖추었소”), ‘뇌물을 좋아하는’(『기사』, 985-990 “나는 또 그의 돼지 같은 교육에 놀라지 않을 수 없소. 그와 같이 학교에 다니 소년들의 말에 따르면 ... 그를 학교에서 내보냈대요. 이 아이는 뇌물을 좋아해서 도리스(Doris) 선법 말고 다른 선법은 도무지 배울 수 없으니까요.”) 인물로 그려졌고,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루타르코스의 문헌들에서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아테네인들을 타락시켰다. 비록 다른 연설가들이 교양 있게 행동했는데 반해, 클레온은 민회에서 연설을 하는 동안 소리를 친 최초의 인물이었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모욕적인 말들을 사용했으며, 그의 무릎을 치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정체』, 28.3).

판하면서 흔히 사용하던 표현이었다.¹²⁵ 연설 시작에 이 자극적인 말을 던짐으로써 클레온은 민중을 도발하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다. 뮈틸레네 문제와 관련된 당신들의 변심(μεταμελεία)¹²⁶은 과두주의자들이 항상 비판하는 민주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 약점을 시정하지 않는 한, 당신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는 제국 경영은 불가능하다. 과두주의자들이 위의 표현을 사용해 민주정의 무능함을 비판했을 때 ‘ἄρχειν’의 의미는 다른 폴리스의 지배보다는 자신이 속한 폴리스의 통치를 의미했을 것이다. 클레온은 ‘ἄρχειν’ 앞에 ‘ἐτέρων’을 첨가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폴리스들에 대한 통치라는 제국 경영의 맥락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클레온이 보기에, 문제는 아테네인들이 폴리스 내에서 다른 시민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폴리스들을 대하는 것에 있다. 아테네인들은 “일상사에서(τὸ καθ’ ἡμέραν) 서로에 대해(πρὸς ἀλλήλους) 두려움이나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ἀδεῆς καὶ ἀνεπιβούλευτον)”(3.37.2), 다른 폴리스들도 그렇게 대한다. 이 구절은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민주정의 생활방식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표현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공적인 일과 관련해서 정치 활동을 할 때에도, 서로의 일상사에 대한 의혹에 있어서도(τῶν καθ’ ἡμέραν ἐπιτηδευμάτων ὑποψίαν) 자유롭게((ἐλευθέρως) 행동합니다. ... 이웃에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οὐ δὲ ὀργῆς τὸν πέλας)”(2.37.2) 하지만 이런 식

¹²⁵ Rhodes, *Thucydides History III* (Aris & Phillips, 1994), 205.

¹²⁶ 투퀴디데스는 바로 앞 절에서 이 논전의 배경을 설명하며 아테네인들의 변심을 명사 μετάνοια(3.36.4)를 사용하는 반면, 클레온은 μεταμελεία를 사용하고 있다. 투퀴디데스가 사용한 단어 μετά-νοια와 클레온이 사용하고 있는 μεταμελεία는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다 마음/생각/의견 등을 바꾸고, 후회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퀴디데스는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μετά-νοια에서의 νοια는 νοῦς-νοέω에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변화는 νοῦς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에 μεταμέλ-εια는 μελεία는 관심, 신경 씌, 돌보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투퀴디데스가 뮈틸레네 사건을 서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μεταμελεία는 그런 어원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감정의 변화뿐 아닌, 생각의 변화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μετάνοια와 클레온의 반 지성적 연설 전략에 대해서는 Winnington-Ingram(1965), 71.

으로 다른 폴리스들을 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들에 의해 말로 설득되어 과오를 저지르거나 혹은 동정심에 굴복하는 것은 (ὅτι ἂν ἡ λόγῳ πεισθέντες ὑπ' αὐτῶν ἀμάρτητε ἢ οἴκτῳ ἐνδῶτε) 약해지는 것(μαλακίζεσθαι)이다. 이것은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한 들 동맹국들이 아테네에 호의를 갖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클레온은 아테네와 동맹국들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οὐ σκοποῦντες ὅτι τυραννίδα ἔχετε τὴν ἀρχὴν καὶ πρὸς ἐπιβουλεύοντας αὐτοὺς καὶ ἄκοντας ἀρχομένους, οἳ οὐκ ἐξ ὧν ἂν χαρίζεσθε βλαπτόμενοι αὐτοὶ ἀκροῶνται ὑμῶν, ἀλλ' ἐξ ὧν ἂν ἰσχύι μᾶλλον ἢ τῇ ἐκείνων εὐνοίᾳ περιγένησθε.

여러분은 지배권을 참주권력으로서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음모를 꾸미며 마지못해 복종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이 해를 입으면서 호의를 베풀어준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가 아닌¹²⁷ 힘에 의한 우위(를 우리가 점하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3.37.2)

이 묘사는 아테네의 제국적 지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동맹국들에 대해서 아테네는 참주로서 군림하고 있다. 그리고 참주권력 하에서의 피지배인들이 그렇듯이, 동맹국들은 늘 음모를 꾸미고 있고, 마지못해 지배받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테네가 제국 경영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아테네가 취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아테네는 그들을 힘에 의해서(ἰσχύι) 강압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클레온은 힘에 의한 지배를 호의에 의한(εὐνοίᾳ) 지배와 대비시킨다.

¹²⁷ 이 호의(εὐνοία)에 대한 언급은 2.8.4에도 등장한다. 투퀴디데스는 여기서 그리스인들이 아테네보다 라케다이몬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Hornblower는 이 반복이 투퀴디데스가 클레온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대목이라고 주장한다. Hornblower, *Comm. I.*, 423.

호의에 근거한 지배는 결코 제국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조금 뒤에 클레온은 아테네가 뮈틸레네에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반란을 부추겼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통해 아테네 민중의 분노를 되살리려 시도할 것이다.

클레온은 아테네가 “참주권력으로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τυραννίδα ἔχετε τὴν ἀρχήν)”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이와 매우 유사한 말을 페리클레스의 입을 통해 들은 바 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참주권력처럼 가지고 있어서...(ὥς τυραννίδα γὰρ ἤδη ἔχετε αὐτήν)”(2.63.2).¹²⁸ 하지만 두 사람의 말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의미있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는 지배권을 참주권력처럼(ὥς τυραννίδα)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클레온은 페리클레스의 표현에서 ‘ὥς’를 떼어내어 아테네가 참주권력으로서(τυραννίδα)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히, 클레온의 표현은 페리클레스의 그것에 비해 더 노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모순적이다. 페리클레스가 참주권력처럼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가 굳이 덧붙인 ‘ὥς’에는 아테네를 단적인 참주권력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꺼림직함과 편치않음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명백히, 그가 아테네가 모범적인 민주정 국가라고 믿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아테네를 참주권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테네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테네가 자신의 지배권에 속한 폴리스들을 대하는 방식은 분명 참주적인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그가 그 과정에 수반되는 불의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더 이상 지배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참주권력처럼 보유하고 있어서, **설사 그것**

¹²⁸ “아테네가 참주나 다름없다”는 주장은 페리클레스가 처음 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폴리스들이 아테네를 경계하고 비난할 때, 가장 큰 비난의 내용은 아테네가 마치 참주인 양, 다른 폴리스들을 억압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듯 보인다.

을 획득하는 것이 불의하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페리클레스는 ‘ὥς’ 와 ‘ἤδη’를 통해 그 불편함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배권을 참주권력처럼 행사하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다. 반면 클레온에게서는 페리클레스적인 불편함 혹은 민감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당당하게 외친다: 제국 경영자 아테네는 참주정 국가이다. 그에게서는 지배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의의 가능성도 언급되거나 암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테네의 참주적 성격이 그것의 민주정의 이념과 충돌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생각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그는 아테네의 불의를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아테네의 제국 지배에 저항하는 폴리스들의 불의에 분노하며 그것에 걸맞는 혹독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 클레온은 제국 지배를 어렵게 만드는 내부의 적들을 겨냥하기 시작한다.

πάντων δὲ δεινότατον εἰ βέβαιον ἡμῖν μηδὲν καθεστήξει ὧν ἂν δόξη πέρι, μηδὲ γνωσόμεθα ὅτι χείροσι νόμοις ἀκινήτοις χρωμένη πόλις κρείσσων ἐστὶν ἢ καλῶς ἔχουσιν ἀκύροις, ἀμαθία τε μετὰ σωφροσύνης ὠφελιμώτερον ἢ δεξιότης μετὰ ἀκολασίας, οἳ τε φαυλότεροι τῶν ἀνθρώπων πρὸς τοὺς ξυνετωτέρους ὥς ἐπὶ τὸ πλεον ἄμεινον οἰκοῦσι τὰς πόλεις.

무엇보다도 무서운 일은 우리가 결의한 것들 중 무엇 하나 **확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없다는 것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법률을 가졌으나 **강제력이 없는** 국가보다는 더 나쁘지만 **변동 없는** 법률을¹²⁹ 가진 폴리스가 더 낫고, **절제**

¹²⁹ 엄밀하게 말해서, 뮈틸레네 사안과 관련한 결정은 법률(νόμοι)이라기 보다는 민회에서 다수의 투표로 결정된 결정사항(ψηφισμα)일 것이다. 그러나 클레온은 이것을 ‘법률’이라고 말함으로써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언제나 복종되어야 하는 것(ἀκινήτος)임을 강조하고 있다. Hansen, "Nomos and Psephisma in Fourth-Century Athens",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19 (4) (1987), 316. 기원전 4세기에는 이

함 없는 노련함보다는 분별있는 무식함이 더 유익하며, 더 비천한 자들이 더 식견 있는 사람들보다 대개는¹³⁰ 폴리스를 더 잘 다스립니다. (3.37.3)

클레온은 박탈적 a(a-privatium)가 결합된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폴리스를 지배하는 데 유익하고 해가 되는 항목들을 대조하고 있다. ‘확고하게 (βέβαιον)’는 명백히 앞서 언급된 변심(μεταμελεία)과 대비된다. 클레온은 확고함의 결여를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πάντων δὲ δεινότατον)’으로 칭하면서, 뮈틸레네 사안을 원래의 결정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로운 것은 좋은 법, 시민들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쉽게 뒤집히지 않는 법, 결정된 사항을 곳곳이 수행하려는 시민들의 태도이다. 클레온은 또 식견 있는(ξυνητωτέρους)¹³¹ 자들과 더 비천한 자들(φαυλότεροι)을 대비시키는데, 이때 ‘φαυλότεροι’는 ‘ξυνητωτέρους’의 일차적 의미에 대비되는, 지적으로 열등한 자들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가리킨다.¹³² 이런 대조는 무지하다는 이유로 경멸받고 있는 민중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들의 자부심을 부추겨 뮈틸레네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바꾸지 않

둘 사이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기원전 5세기에는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νόμος에 보다 관습적이고 지속적인 의미가 들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¹³⁰ ‘대개는’으로 번역한 ‘ὥς ἐπὶ τὸ πλεόν’은 이후 수사학의 전문용어로 ‘개연성(εἰκός)’와 같은 말로 여겨졌다.

¹³¹ 투퀴디데스는 특히 테미스토클레스를 식견(ξυνησις)을 가진 자로 칭송한다. “실제로 테미스토클레스는 타고난 재능을 확실히(βεβαιότατα) 보여주었고, 이 점에서 어느 누구보다 찬탄 받을 만했다. 그는 미리 준비하거나 학습을 통해 익히는 일 없이 타고난 식견으로(οἰκεία ξυνέσει) 잠시 숙고해보고는 당면한 과제를 정확히 판단했으며, 먼 미래를 언제나 가장 정확히 예측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완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에 가능한 이익과 손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예견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타고난 재능과 신속한 대응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1.138.3.)

¹³²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는 ‘φαῦλοι’가 ‘σπουδαῖοι’와 짝을 이룬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1448a.

게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지금은 없는 페리클레스와 같은 지적이고 식견 있는 정치지도자들을 은근히 겨냥하고 있다.¹³³

클레온은 이제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의 폐해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οἱ μὲν γὰρ τῶν τε νόμων σοφώτεροι βούλονται φαίνεσθαι τῶν τε αἰεὶ λεγομένων ἐς τὸ κοινὸν περιγίγνεσθαι, ὥς ἐν ἄλλοις μείζουσιν οὐκ ἂν δηλώσαντες τὴν γνώμην, καὶ ἐκ τοῦ τοιούτου τὰ πολλὰ σφάλλουσι τὰς πόλεις· οἱ δ' ἀπιστοῦντες τῇ ἐξ αὐτῶν ξυνέσει ἀμαθέστεροι μὲν τῶν νόμων ἀξιοῦσιν εἶναι, ἀδυνατώτεροι δὲ τοῦ καλῶς εἰπόντος μέμψασθαι λόγον, κριταὶ δὲ ὄντες ἀπὸ τοῦ ἴσου μᾶλλον ἢ ἀγωνιστὰι ὀρθοῦνται τὰ πλείω. ὥς οὖν χρή καὶ ἡμᾶς ποιοῦντας μὴ δεινότητι καὶ ξυνέσεως ἀγῶνι ἐπαιρομένους παρὰ δόξαν τῷ ὑμετέρῳ πλήθει παραινεῖν.

왜냐하면 그들은 **법률보다 더 현명한 자들**로 보이기를 원하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 보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하는 자들을 이기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러한 자들로 인해 많은 경우 폴리스는 파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불신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법률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상대의 말을 비판하는 훌륭한 연설가들보다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쟁자라기 보다는 공정하게 심판하는 자들**로서 대부분의 일들에서 똑바른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와 같이 **영리함과 식견의 경연**을 위해 우리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대중 여러분에게 조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37.4-5)

스스로를 식견있고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법보다 더 현명하게 보이기를 원하며¹³⁴ 공적 토론의 장소를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시할

¹³³ 클레온이 ‘최고 시민’인 페리클레스에 적대적이고, 공공연하게 ‘φαῦλοι’를 지지한다는 사실은 플루타르코스나,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의 문헌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클레온은 아낙사고라스를 불경죄로 고소했다고 한다. 2.12. 이와 같은 클레온의 반 지성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Connor(1971), 95-96.

기회로 여길 뿐이다. 그 결과 폴리스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정책을 토론해야 할 자리는 지적 능력의 경연장이 되어버리고 만다. 클레온은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스스로 법률이나 언변 좋은 연설가들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대비시킨다. 후자의 사람들이야말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클레온은 뮈틸레네 문제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을 제안한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렇게 했을 뿐임을 암시함으로써 그들의 의도의 순수성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

클레온은 이어지는 첫 구절을 명백히 페리클레스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 “저는 입장에서 있어서 그대로입니다(ἐγὼ μὲν οὖν ὁ αὐτός εἰμι τῇ γνώμῃ).”¹³⁵ 이 구절을 통해, 페리클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클레온도 자신의 입장의 (바람직한) 일관성을 민중의 (바람직하지 않은) 변덕스러움에 대비시키고 있다. 그가 보기에, 뮈틸레네 문제를 재고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χρόνου διατριβή)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은 불의를 행한 뮈틸레네인들에게 이로울 뿐이다(3.38.1).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면, 그 사이 아테네인들이 원래 품었던 분노는 누그러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불의를 저지른 자들

¹³⁴ 법률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은 비극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평범한 다수가 자신들의 규칙과 관습으로 삼는 것을 나도 받아들이고(τὸ φαυλότερον ἐνόμισε χρῆ- /ταί τε, τόδ’ ἂν δεχοίμαν)(430-1).” “법보다 더 강하다는 생각도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οὐ/γὰρ κρείσσόν ποτε τῶν νόμων /γιγνώσκειν χρῆ καὶ μελετᾶν)(890-2).” (에우리피데스, 『박코스 여신도들』). 이 구절은 또한 1권에 삽입된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의 연설 일부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현명한 조언자인 것은, 우리가 법을 무시할 만큼 너무 많이 배우지 않았고(ἀμαθέστερον τῶν νόμων τῆς ὑπεροψίας παιδευόμενοι) 법에 복종하지 않기에는 자체력 훈련을 너무 엄격히 받았기 때문이오.(ξὺν χαλεπότητι σωφρονέστερον ἢ ὥστε αὐτῶν ἀνηκουστεῖν) 우리는 쓸데없는 기교에 너무 능하여 적의 작전을 탁월한 언변으로 비판하면서도 행동은 그에 미치지 못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소(1.84.3).” 스파르타인들과 아테네인들 사이에 공유된 ‘법과 배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Gomme et al, *HCT II*, 300-301.

¹³⁵ Cf. “저는 그대로이고 변하지 않았습시다(καὶ ἐγὼ μὲν ὁ αὐτός εἰμι καὶ οὐκ ἐξίσταμαι).” (2.61.2)

은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피해에 대한 응징은 가장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공정한 처벌을 이끌어냅니다(ἀμύνεσθαι δὲ τῷ παθεῖν ὅτι ἐγγυτάτῳ κείμενον ἀντίπαλον ὃν μάλιστα τὴν τιμωρίαν ἀναλαμβάνει)(3.38.1).” 클레온은 ‘저지른 자는 당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보복적 정의관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는 마음이 바뀌기 전, 아테네인들이 뮈틸레네인들을 향해 가졌던 그 분노를 다시금 불러 일으키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의와 불의의 개념에 호소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보복에 근거한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 불의를 저지른 자에게는 마땅한 보복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시간을 끌다가 분노가 잦아들면 그들이 원래 마땅히 받았어야 할 처벌을 불의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정의가 성취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당한 대로 갚아야 한다는 이 보복적 정의관은 호메로스와 비극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클레온은 아테네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했을 이 오래된 정의관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¹³⁶

클레온이 보기에,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뮈틸레네인들의 불의한 것들(ἀδικίας)이 우리에게 유익하며(ὠφελίμους), 우리의 불행들이(ξυμφοράς) 동맹국들에게 해롭다고(βλάβας)” 말하는 자일 것이다.¹³⁷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에 반대하는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 가혹한 처벌에 반대하는 것이 곧 뮈틸레네인들의 행위가 아테네에 유익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곧 클레온의 실제 반대자로 등장할 디오도토스 역시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그는 설사 **뮈틸레네의 행위 자체는 불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테네에 이롭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테네가 당한 일들이 사실은 아테네가 아닌 동맹국들

¹³⁶ “살인의 값은 살인으로 갚을지이다. 저지른 자는 당하기 마련이니까. 이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라네(ἀντὶ δὲ πληγῆς φονίας φονίαν / πληγὴν τινέτω. δράσαντι παθεῖν, / τριγέρων μῦθος τάδε φωνεῖ).” (아이스퀼로스,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313-5) 보복적 정의에 관해서는 Winnington-Ingram(1965), 72ff. 참조.

¹³⁷ ὅστις ἔσται ὁ ἀντερῶν καὶ ἀξιῶσων ἀποφαίνειν τὰς μὲν Μυτιληναίων ἀδικίας ἡμῖν ὠφελίμους οὕσας, τὰς δ’ ἡμετέρας ξυμφοράς τοῖς ξυμμάχοις βλάβας καθισταμένας.

에게 해롭다는 것¹³⁸ 역시도 디오도토스의 논점은 아니다. 클레온은 청중들에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분법적 틀을 제시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나는 뮈틸레네의 행위가 아테네에는 해를, 뮈틸레네에는 이로움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반대한다면, 그는 그들의 행위가 아테네에는 이로움을, 뮈틸레네에는 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클레온은 인신공격의 수위를 높인다. 자신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자는 자신의 말의 능력을 믿고서 전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론하려 덤비는(τῷ λέγειν πιστεύσας τὸ πάνυ δοκοῦν ἀνταποφῆναι ὥς οὐκ ἔγνωσται ἀγωνίσαιτ' ἄν) 자이거나, 뇌물에 혹해 말의 그럴 법함을 만들어내어 오도하려 할(κέρδει ἐπαιρόμενος τὸ εὐπρεπὲς τοῦ λόγου ἐκπονήσας παράγειν πειράσεται) 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이분법 역시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단 반대자들은 ‘전날 결정된 바를 다시 논의해보자’고 말하는 것이지, 결정된 바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클레온은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뇌물에 혹한 자라고 말한다. 흥미롭게도 그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전자에 대해서는 optative+ ἄν(future less vivid)을, 후자에 대해서는 미래형(future most vivid)을 사용함으로써, 가능성의 무게를 달리 두고 있다. 클레온이 이 상황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는 분명하다. 그 자신도 그들이 이미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재심의를 주장하는 자는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그럴 법한 논리를 만들어내려 하는 자임에 틀림없다.

¹³⁸ Arnold는 이 구절을 “우리가 고통 당하면 우리 동맹들도 모두 위와 함께 고통 당한다”고 설명한다. Arnold, "The Persuasive Style of Debates in Direct Speech in Thucydides", *Hermes* 120 (1) (1992). 반면 Gomme는 “우리의 불운이 실제로는 그들의 것” 혹은 “우리의 불운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의 손해”라는 취지로 해석한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맥락에 맞는 해석으로 보인다.

클레온이 보기에, 아테네는 일종의 말의 경연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경연들로부터 정작 상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폴리스 자체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ἐκ τῶν τοιῶνδε ἀγώνων τὰ μὲν ἄθλα ἑτέροις δίδωσιν, αὐτὴ δὲ τοὺς κινδύνους ἀναφέρει). (3.38.3) 이렇게 된 책임은 이런 고약한 경쟁을 벌이는(κακῶς ἀγωνοθετοῦντες) 아테네인들에게 있다. 그들은 이 경연장에서 “말들의 관객(θεαταὶ τῶν λόγων), 행동들의 청중(ἀκροαταὶ τῶν ἔργων)”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3.38.4) 이 표현은 복합적인 수사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일단 이 표현은 ‘λόγος’와 ‘ἔργον’의 대비를 끌어들이면서, 아테네인들이 실제로 그들이 행해야 할 일, 즉 뒤흔레네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은 하지 않은 채, 연설들을 구경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동시에 ‘θεαταὶ’와 ‘ἀκροαταὶ’는 폴리스의 정책을 진지하게 심의해야 할 민회가 축제에서의 공연장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암시한다.¹³⁹ 또 클레온은 보다 자연스러운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의 청중, 행동들의 관객’ 대신, ‘말들의 관객, 행동들의 청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뒤집음을 통해서 그는 아테네인들이 실제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미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제 클레온은 ‘λόγος’와 ‘ἔργον’의 대비를 다시 한 번 끌어들이, 후자를 무시하고 전자만을 신뢰하는 아테네인들의 문화에 일침을 가한다. 당신들은 미래와 관련한 일들(τὰ μὲν μέλλοντα ἔργα)에 관해서는, 연설을 얼마나 잘 하는지로 (ἀπὸ τῶν εὖ εἰπόντων)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과거에 관한 일들(τὰ δὲ πεπραγμένα ἤδη)에 관해서는, 당신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멋진 말을 (ἀπὸ τῶν λόγῳ καλῶς ἐπιτιμησάντων) 더 신뢰한다(3.38.4). “여러분들은 새로운 논변에 속는 것에 있어서 으뜸이고, 검증된 것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이한 것들의 노예들이고, 익숙한 것들의 경멸자들입니다.”

¹³⁹ 클레온은 뒤흔레네 문제에 관한 결정을 재고해 보자는 제안을 폴리스에 이로운 바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기를 더 오래 보기 위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Gomme et al., *HCT II*, 304).

니다(μετὰ καινότητος μὲν λόγου ἀπατᾶσθαι ἄριστοι, μετὰ δεδοκιμασμένου δὲ μὴ ξυνέπεσθαι ἐθέλειν, δοῦλοι ὄντες τῶν αἰεὶ ἀτόπων, ὑπερόπται δὲ τῶν εἰωθότων)(3.38.5).¹⁴⁰ 아테네인들은 단순히 구경꾼으로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연설자가 되려고 하거나(αὐτὸς εἰπεῖν ἔκαστος βουλόμενος δύνασθαι), 연설자들과 경쟁하려(ἀνταγωνιζόμενοιτοῖς) 한다. “여러분은 날카로운 말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찬사를 보내고, 이야기된 바를 미리 파악하기를 열망하지만,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것에는 느립니다(ὀξέως δέ τι λέγοντος προεπαινέσαι, καὶ προαισθῆσθαι τε πρόθυμοι εἶναι τὰ λεγόμενα καὶ προνοῆσαι βραδεῖς τὰ ἐξ αὐτῶν ἀποβησόμενα)(3.38.6).¹⁴¹ 하지만 이런 식의 태도 때문에 아테네인들은 현실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다른 어떤 곳을 찾고 있으며, 현재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ζητοῦντές τε ἄλλο τι ὥς εἰπεῖν ἢ ἐν οἷς ζῶμεν, φρονοῦντες δὲ οὐδὲ περὶ τῶν παρόντων ἱκανῶς)(3.38.7).” 아테네인들은 듣는 즐거움(ἀκοῆς ἡδονή)에 빠져 “폴리스의 일에 관해 심의하는 자들이

¹⁴⁰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민첩한 것은 아테네인들의 고유한 성격으로 널리 여겨졌다. “아테네인들은 새로운 일을 꾸미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데 민첩합니다(οἱ μὲν γε νεωτεροποιοὶ καὶ ἐπινοῆσαι ὀξεῖς καὶ ἐπιτελέσαι ἔργῳ ἃ ἂν γνῶσιν)...또 아테네인들은 능력 이상으로 과감하고 상식 밖의 모험을 하며, 역경에 맞닥뜨려도 낙천적입니다(οἱ μὲν καὶ παρὰ δύναμιν τολμηταὶ καὶ παρὰ γνώμην κινδυνεύουσι καὶ ἐν τοῖς δεινοῖς εὐέλπιδες)...그들은 주춤거리지 않으며(ἄοκνοι) ...그들은 바깥세상을 떠돌아 다닙니다(ἀποδημηταὶ)...(1.70.2-4).” “아테네인들은 민첩하고(ὀξεῖς) 진취적인(ἐπιχειρηταὶ) 반면 라케다이몬인들은 느리고 모험을 싫어했다(8.96.5).” Cf. 아리스토파네스, 『구름』 547-8: “나는 늘 새로운 생각들을 보여주려고 애쓰는데, 그것들은 서로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올바른 것이라오(ἀλλ’ αἰεὶ καινὰς ἰδέας ἐσφέρων σοφίζομαι, / οὐδὲν ἀλλήλαισιν ὁμοίας καὶ πάσας δεξιὰς:).” 신약성경, 『사도행전』 17:21: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다(Ἀθηναῖοι δὲ πάντες καὶ οἱ ἐπιδημοῦντες ξένοι εἰς οὐδὲν ἕτερον ἠυκαίρουν ἢ λέγειν τι ἢ ἀκούειν τι καινότερον.).”

¹⁴¹ 클레온은 반복적으로 접두사 ‘πρό-’를 사용해서(προεπαινέσαι...προαισθῆσθαι...πρόθυμοι...προνοῆσαι...) 이들이 상대를 앞지르겠다는 생각에 현실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περὶ πόλεως βουλευομένοις) 아닌 소피스트의 말을 관람하고 있는 자들 (σοφιστῶν θεαταῖς) (3.38.7)”이 되었다.

클레온의 신랄한 공격에는—투퀴디데스가 의도한 것이 분명한—아이러니가 내포되어 있다. 최선의 정책을 논의해야 할 토론의 장이 연설자의 수사적 기교를 과시하는 장이 되어버린 것을 비판하고 있는 그의 말 자체가 그가 비판하고 있는 바로 그 특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란한 수사적 기교 속에서 현실과의 접점을 잃어버린 정치적 연설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연설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그의 연설, 특히 그 모습을 비판하는 바로 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독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분명 투퀴디데스가 의도한 바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¹⁴²

클레온의 연설에는 민중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설 초반부에서 그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우직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민중을 영리하지만 확고함을 결여한 지식인들과 대비시키면서, 전자를 칭송하는 듯 보인다. 그는 그러한 민중이야말로 진정으로 분별있는 자들이라고까지 선언한다. 하지만 연설이 진행되어가면서, 그는 민중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영리한 연설자들의 영향에 취약한가를 암시한다. 그들은 그러한 연설자들의 현란한 언사에 휘둘려 현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연설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다. 정치 토론을 수사술의 경연장으로 만들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다른 아닌 민중 자신이기 때문이다.

¹⁴² 3.38.4-7에는 antithesis, isocolon, parison, homoioteleuton, hyperbaton 등 다양한 수사적 기교가 한꺼번에 사용되고 있다. 투퀴디데스가 전하는 연설문들 중 이처럼 다채로운 기교가 동시에 과시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 Yunis(1996), 90-91. 클레온 연설의 아이러니적 특성은 다음에서도 지적된다. Macleod(1978), 71; Gomme et al., *HCT II*, 304-7.

클레온의 연설을 통해 독자들은 페리클레스 사후 대표적인 민중 지도자였던 클레온 자신이 민중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결코 믿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이지만 명백하게, 감지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 투퀴디데스가 클레온의 현란한 수사적 표현들을 연이어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어했던 바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클레온의 연설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민중에 대한 그의 폄하를 드러내고 있다면, 클레온의 말과 그 내용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이 둘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투퀴디데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페리클레스 사후 아테네 민주정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반영한다. 민중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믿지 않는 민중 지도자, 그리고 현실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채 말의 화려함에 매혹되는 민중, 이 둘의 상호작용이 아테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투퀴디데스는 이러한 예감을 독자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심고 있다. 그가 클레온의 말이라는 렌즈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아테네 민주정의 현실 속에서, 민중은 폴리스 경영의 진정한 주체라기보다는 그들의 무능과 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교묘한 말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되는 대상일 뿐이다. 클레온의 화려하지만 논리적으로 결함 많은 수사는, 그것이 담고 있는 표면적인 내용과는 달리, 그가 그러한 민중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려 하는 지도자임을 드러낸다. 투퀴디데스는 이러한 이중적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점에서 클레온이 “일인자가 되려는 열망 때문에, 폴리스의 사안들을 민중의 즐거움에 맡겼던(ὀρεγόμενοι τοῦ πρώτου ἕκαστος γίγνεσθαι ἐτράποντο καθ’ ἡδονὰς τῷ δήμῳ καὶ τὰ πράγματα ἐνδιδόναι.) (2.65.10)” 지도자들 중 하나였는가를 보이려 하고 있다.

3.39.1부터 클레온 연설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된다. 그는 이제 뮈틸레네인들이 어떤 불의를 저질렀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만일 그들이 아테네인들의 지배를 견딜 수 없었거나(μὴ δυνατοὶ φέρειν τὴν ὑμετέραν ἀρχήν) 적들에 의해 강요되어(ὑπὸ τῶν πολεμίων ἀναγκασθέντες) 반란을 일으켰다면,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¹⁴³ 가장 존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αὐτόνομοί τε οἰκοῦντες καὶ τιμώμενοι ἐς τὰ πρῶτα)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킨(ἀπέστησαν) 것이 아니라 음모를 꾸민(ἐπεβούλευσάν) 것이고 역모를 꾀한(ἐπανέστησαν) 것이다. 저항(ἀπόστασις)은 압제를 겪은 자들(τῶν βίαιόν τι πασχόντων)에게나 해당되기 때문이다. (3.39.2). 투퀴디데스는 3.36.2에서 뮈틸레네가 “다른 폴리스들과 같은 속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οὐκ ἀρχόμενοι ὥσπερ οἱ ἄλλοι)”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아테네인들이 특히 분노했다고 이미 밝혀 두었다.¹⁴⁴ 클레온은 이 사실을 뮈틸레네가 불의를 저질렀음에 대한 근거로 끌어 오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동등하게 대해준 아테네를 자발적으로 배신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아테네의 적인 라케다이모니아인들과 결탁했으니 더더욱 용서는 있을 수 없다.

뮈틸레네의 행위를 자발적 배신행위로 규정하며 아테네인들의 분노를 자극한 클레온은 이제 비극적 혹은 헤로도토스적인 주제를 끌고 들어온다. 뮈틸레네의 반란은 일종의 오만(ὑβρις)이다. 클레온은 뮈틸레네인들이 다른

¹⁴³ 3.39.7에서 클레온은 뮈틸레네가 반란에 성공하게 되면 그 결과 얻게 되는 것을 자유(ἐλευθέρωσις)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뮈틸레네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셈이 된다. 문제는 디오도토스가 3.46.5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는 뮈틸레네가 자치권을 원하는 자유로운 국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ἢν τινα ἐλεύθερον καὶ βίᾳ ἀρχόμενον εἰκότως πρὸς αὐτονομίαν ἀποστάντα...).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Lévy는 (3.10.5를 근거로) 뮈틸레네는 진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 명목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해석을 제안한다. (Lévy, *Athènes Devant la défaite de 404: Histoire d'une Crise Idéologique* (Ecole française d'Athènes, 1976), 10, n. 15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퀴디데스가 관련된 단어들을 엄밀하게 일관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Hornblower의 제안이 더 타당해 보인다. (Hornblower, *Comm. I*, 427).

¹⁴⁴ 뮈틸레네는 아테네 제국 안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아테네 제국 안의 대부분의 폴리스들은 공여금을 내야 했지만 뮈틸레네를 비롯해 단 세 개의 폴리스만이 공여금 대신 함대를 파견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치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Gomme et al. *HCT II*, 252. cf. 7.57.5, Sealey, *A history of the Greek city states, ca. 700-338 BC* (Univ of California Press, 1976), 329; CAH 37.

폴리스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본(παράδειγμα)으로 삼지 못했다고 말한다.¹⁴⁵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행운(παροῦσα εὐδαιμονία)을 깨닫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과신(πρὸς τὸ μέλλον θρασεῖς)과 그들 자신의 힘을 넘어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ἐλπίσαντες μακρότερα μὲν τῆς δυνάμεως) 그 일을 저질렀다.¹⁴⁶ 그들은 정의보다는 힘(ισχύς)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로 작정했고, 아테네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성공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3.39.3). 뮈틸레네인들은 정의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로 규정되고 있다. 그들은 능력도 안 되는 일에 헛된 희망을 품고 자신들의 힘을 관철시키려 했던 자들일 뿐이다. 클레온은 뮈틸레네인들의 행위 속에서 인간과 폴리스의 본성적 행태를 발견한다. “생각지도 않다가 엄청난 성공(εὐπραγία)을 누리게 된 폴리스들은 오만에 빠지는 법입니다(εἴωθε ... ἐς ὕβριν τρέπειν)(3.39.4).” 뮈틸레네인들의 행위를 ὕβρις와 연관지음으로써, 클레온은 그것에 대한 처벌에 거의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의 수사적 전략에는 이미 행해진 잘못에 대한 처벌 이상의 차원이 존재한다. 그들의 행위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아테네는 애초에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했어야 했다. 비극 작품에서 ὕβρις는 처벌되어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마찬가지로 뮈틸레네의 행위는 아테네가 그 폴리

¹⁴⁵이 구절은 뮈틸레네인들이 그들은 아테네의 강압적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다른 폴리스들의 예(παράδειγμα)’를 보면서 자신들도 결국 자유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대목을 연상시킨다(3.10.6, 3.11.8). 3.40.7에서 클레온은 뮈틸레네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른 제국들에 대한 παράδειγμα로 삼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

¹⁴⁶ 인간이 변영하면(ὄλβος) 과도함이나 무절제(κόρος)에 빠지고 곧 오만해진다(ὕβρις). 그들은 오만에 의해 미망(ἄτη)에 빠져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김기영,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에 나타난 전쟁관’, 『서양고전학연구』, 79-80.) Cf. Solon Elegeia fr.4 “그들은 분명 커다란 휘브리스로 인해(ὕβρις ἐκ μεγάλης) 많은 고통을 겪으리라. 과도함(κόρος)을 억제하는 방법을 모르기에(4. 7-9).” 테오그니스의 엘레게이아 단편 153-4(ed. Gerber): “참으로 과도함(κόρος)이 휘브리스(ὕβρις)를 낳는다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악한 인간에게 변영(ὄλβος)이 찾아 올 때.”

스, 나아가 동맹국 일반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점잖게 대해 준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할 뿐이다. 오직 힘만이 존중받는다.¹⁴⁷ 클레온은 다시금 인간의 본성을 상기시킨다.

χρῆν δὲ Μυτιληναίους καὶ πάλοι μηδὲν διαφερόντως τῶν ἄλλων ὑφ' ἡμῶν τετιμῆσθαι, καὶ οὐκ ἂν ἐς τόδε ἐξύβρισαν: πέφυκε γὰρ καὶ ἄλλως ἄνθρωπος τὸ μὲν θεραπεῦον ὑπερφρονεῖν, τὸ δὲ μὴ ὑπεῖκον θαυμάζειν.

우리는 뮈틸레네인들을 오래 전부터 다른 이들과 다르게 존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이 정도까지 오만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οὐκ ἂν ... ἐξύβρισαν). 다른 경우에서도 사람은 본성적으로(πέφυκε) 돌보아주는 것은(τὸ θεραπεῦον) 무시하고, 봐주지 않는 것에는(τὸ μὴ ὑπεῖκον) 경탄하기 때문입니다. (3.39.5)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불의에 걸맞게 벌을 받아야 합니다(κολασθέντων δὲ καὶ νῦν ἀξίως τῆς ἀδικίας).”

3.39.6에서 클레온은 과두정 지지자들과 민중을 구분해, 전자만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은 아테네의 편에 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과두정 지지자들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클레온은 자발적인 행위와 강요된 행위를 구분해서 처벌해야 함을 강조한다.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은 사소한 구실로도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을 것이고, 실패해도 견딜 만한 처벌을 받을 것이니 말이다. 자발적인 반란에 대한 혹독하고 무자비한 처벌만이 추가적인 반란을 예방하는 최선책이 될 것이다.¹⁴⁸ 만약 뮈틸레네인들이, “실수는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ξυγγνώμην ἀμαρτεῖν ἀνθρωπίνως λήψονται)”이 아니냐고 한다면? 우리는

¹⁴⁷ Winnington-Ingram(1965), 74.

¹⁴⁸ 이 점은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생각이 충돌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말이나 뇌물을 통해 그런 동정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혀 갖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그들은 비자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알고서 음모를 꾸민 것이다(ἄκοντες μὲν γὰρ οὐκ ἔβλαψαν, εἰδότες δὲ ἐπεβούλευσαν). 오직 비자발적인 행위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ξυγγνωμον δ' ἐστὶ τὸ ἀκούσιον).¹⁴⁹

클레온은 연민(οἷκτος), 말의 즐거움(ἡδονὴ λόγων), 그리고 공평함(ἐπιεικεία)¹⁵⁰을 아테네 제국 운영에 가장 해가 되는(ἄξυμφορωτάτοι) 세 가지로 꼽는다(3.40.2). 연민은 비슷한 사람들(πρὸς τοὺς ὁμοίους) 사이에서만 서로 정의롭게 주어질 수 있다(δίκαιος ἀντιδίδοσθαι). 그것은 연민을 보이지 않는 자들과 필연적으로 늘 적대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그럴 수 없다. 말의 즐거움의 결과는 연설가들은 그럴 듯한 말로 상당한 보수를 받아가는 반면, 폴리스는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공평함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앞으로 친구가 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지, 이전 못지않게 우리의 적으로 남아있을 자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¹⁴⁹ Cf.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3. 1109b30ff)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용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연민까지 생겨나므로, 탁월성에 대해 탐구하는 사람은 아마도 필수적으로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테네 법정은 초기부터 자발적/우발적/그리고 정당화된 살해를 구분했다. (IG i3 104 = M&L 86 = Fornara 15 B, 13-19)

¹⁵⁰ ‘ἐπιεικεία’는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단어이다. Winnigton-Ingram은 번역어로, ‘fairness’, ‘decency’, ‘humanity’, 그리고 ‘reasonableness’를 제안한다. 반면 Macleod는 ‘clemency’, Crawley는 ‘indulgence’, Jowett은 ‘a too forgiving temper’로 번역하고 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5권 10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ἐπιεικεία’를 ‘δικαιοσύνη’와 구분하면서, 그것에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투퀴디데스가 여기서 이 단어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엄밀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로 생각된다. 오히려 Macleod의 제안대로, 여기서 ‘ἐπιεικεία’는 ‘οἷκτος’와 실질적으로 크게 구분되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클레온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두 단어 사이에 이질적인 ‘ἡδονὴ λόγων’을 끼워넣음으로써, 실제보다 더 많은 논거들이 사용되고 있는 인상을 주는 수사적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Macleod(1978), 96)

클레온은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한다.

ἐν τε ξυνελὼν λέγω: πειθόμενοι μὲν ἐμοὶ τὰ τε δίκαια ἐς Μυτιληναίους καὶ τὰ ξύμφορα ἅμα ποιήσετε, ἄλλως δὲ γνόντες τοῖς μὲν οὐ χαριεῖσθε, ὑμᾶς δὲ αὐτοὺς μᾶλλον δικαιώσεσθε. εἰ γὰρ οὗτοι ὀρθῶς ἀπέστησαν, ὑμεῖς ἂν οὐ χρεῶν ἄρχοιτε. εἰ δὲ δὴ καὶ οὐ προσῆκον ὅμως ἀξιοῦτε τοῦτο δρᾶν, παρὰ τὸ εἰκός τοι καὶ τούσδε ξυμφόρως δεῖ κολάζεσθαι, ἢ παύεσθαι τῆς ἀρχῆς καὶ ἐκ τοῦ ἀκινδύνου ἀνδραγαθίζεσθαι.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 드립니다. 제 말에 설득되신다면, 여러분은 뮈틸레네인들과 관련해서 정의로운 일(τὰ τε δίκαια)과 동시에(ἅμα) 유익한 일(τὰ ξύμφορα) 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반면 달리 결정하신다면, 그것은 저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δικαιώσεσθε)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옳다면(ὀρθῶς), 여러분은 지배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οὐ χρεῶν ἄρχοιτε). 만일 온당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신다면, 마땅함을 벗어나 여기 이 자들을 이익을 위해(ξυμφόρως) 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국을 포기하고 위협과 떨어져서 인간적으로 지내는 일(ἀνδραγαθίζεσθαι)이나 해야 합니다. (3.40.4)

뮈틸레네인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정의로운 일인 동시에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범한 불의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며 제국을 유지하려 하는 아테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클레온은 또다시 사법적 용어를 사용해 아테네인들을 이분법적 틀로 끌고 들어간다. 만일 마음이 약해져서 뮈틸레네인들을 봐준다면, 이것은 스스로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테네의 지배에 반기를 드는 것이 불의하지 않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것은 곧 아테네의 제국 지배가 불의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니, 결국 아테네의 제국 지배에 유죄를 선고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클레온이 보기에 이 문제에 있어

서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정의와 이익을 생각해서 그들을 혹독히 처벌하거나, 아니면 제국을 포기하고 좋은 사람 노릇이나 하며 살거나. 클레온은 아테네인들이 후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이다. 당신들은 아테네 제국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셈인가?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마음이 약해져서(μαλακισθέντες)는 안 됨을 강조한다. 그렇게 되어 뮈틸레네인들을 봐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μὴ οὖν προδότηι γένησθε ὑμῶν αὐτῶν 3.40.7). 제국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분노의 상태로 돌아가서 즉각적인 응징,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서 다른 폴리스들에 대한 본보기(παράδειγμα)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제국을 확고히 하고, 이후의 위협을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클레온의 연설은 아테네의 제국 지배에 대한 가장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정당화이다. 하지만 그의 연설을 꼼꼼히 살펴보면, 엄밀히 말해서 그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그것에 대한 저항의 불의함을 논증하는 것이고, 그 저항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고 이로움을 보이는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클레온의 화려한 언사 속에 감춰져 있는 아테네 제국 지배의 불편한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뮈틸레네인들이 저지른 불의를 거듭 강조하며 아테네인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분노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클레온의 말을 따라가면서, 독자들은 당연하게도 다음과 같은 의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 당신은 아테네가 뮈틸레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양자에게 공평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왜 그 상황이 정상 상황이고, 그것을 깨는 일은 불의한 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가?

세심한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투퀴디데스의 의도였을 것이다. 클레온으로 하여금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아테네 중심적인 논리를 쏟아내게 함으로써, 투퀴디데스는 당

시 아테네에 널리 퍼져있었던, 제국 지배에 대한 자기중심적 정당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투퀴디데스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든가, 그것이 지나친 것이었다든가 하는 평가를 직접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역사를 서술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냉정한 시선으로, 자신이 관찰했던 당대의 아테네 정치지도자들의 마음을 독자들에게 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이후의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 만일 그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평가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 마음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테네 민중의 마음이기도 했다. 페리클레스 이후의 정치 지도자들은 민중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어떻게든 그것에 부합해 최고의 권력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다고 투퀴디데스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표적인 민중 지도자였던 클레온과 그의 연설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는 뮈틸레네의 반란에 대해 다수의 민중이 느꼈던 바에 부합하려 하고 있고, 그것을 부추기려 애쓰고 있다. 민중은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폴리스의 반란이 너무나 괴씸했던 것이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다. 아테네인들의 분노는 뮈틸레네의 모든 남성들을 도륙해 버리자는 결의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노 속에서, 아테네와 뮈틸레네 사이에 존재했던 불평등한 관계는 아테네인들의 마음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엇이 되어 버렸다. 클레온은 민중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마치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듯 연설을 진행한다. 그 불편한 부분은 물론 아테네의 제국 지배의 정당성의 문제이다. 클레온의 수사가 화려해질 수록, 그의 주장이 과격해질 수록, 그 불편한 진실을 감지하는 독자들에게, 그것은 더욱더 공허하고 위선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의 화려한 언어는 결국 아테네 민중이 애초에 느꼈던 괴씸함과 분노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투퀴디데스는 그것에 대해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것을 냉정하게 보여줄 뿐이다. 그것이 옳으나 그르냐는 그의 일차적인 관심이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클레온의 연설 속에서 드러나는 제국 지배에 대한 민중의 강렬한 욕구였고, 그

의 목표는 그들의 욕구가 오로지 그것에 부합하려고만 애쓰는 정치지도자들과 결합해 어떤 파국으로 아테네를 이끌고 갔는가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 파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시켈리아 원정에서였지만, 이미 클레온의 연설 속에서 독자들은 자기합리화의 수단으로 전략해 버린 로고스의 식락한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

2. 디오도토스의 연설

디오도토스에 대한 전거는 오직 투퀴디데스의 『역사』와 그 안에서도 바로 이 뮈틸레네 논전뿐이다.¹⁵¹ 투퀴디데스는 여기서조차 그가 에우크라테스의 아들이며 전날의 민회에서 클레온의 “뮈틸레네인들을 도륙하자는 안에 극구 반대한” 인물이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주지 않는다.¹⁵² 이런 상황은 그의 연설에 매우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다. 인물로서의 디오도토스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은 오로지 그의 말과 그것의

¹⁵¹ Ostwald는 43.4-5에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디오도토스가 당시 텔로스 동맹 기금 관리자 중 하나였을 거라고 추론한다. Ostwald, "Diodotus, son of Eucrates",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20 (1) (1979). 반면, Rhodes는 자신의 주석(Rhodes, *Thucydides III*)에서 Ostwald의 이런 추론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Wassermann은 디오도토스의 연설이 전혀 실제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의 진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Wassermann, "Post-Periclean Democracy in Action: The Mytilenean Debate(Thuc. III 37-48)",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87 (1956), 34. 디오도토스에 대해 이 이상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디오도토스가 실존 인물이었으며, 실제 뮈틸레네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전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Rhodes, *Thucydides III*).

¹⁵² 디오도토스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연설을 근거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는 페리클레스의 입장과 가까운 중도적 민주파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연설에서 읽을 수 있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 제국에 대한 입장이 상당부분 페리클레스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설에서는 그의 민주주의자로서의 모습보다는 ‘현실정치가’로서의 입장이 더 부각된다.

내적 논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고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연설자들, 예를 들어 그의 논전 상대인 클레온이나,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와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한 인물들의 경우 그들의 잘 알려진 성격은 그들의 연설 내용에 깊이 배어들어 있고, 따라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연설에 관련된 총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디오도토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경으로서의 개성과 성격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말 자체에만 집중하게 된다. 디오도토스의 경우, 그의 말이 곧 그의 성격이고 개성인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투퀴디데스 자신의 의도였을 것이다. 만일 그가 디오도토스에 대한 정보, 그의 연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투퀴디데스가 순수하게 디오도토스의 말, 그의 논리에 집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의도적으로 전기적 사항을 배제함으로써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이 전형적인 말의 경연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디오도토스의 연설은, 클레온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뮈틸레네 반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아테네 제국의 경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디오도토스라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연설자는 투퀴디데스에게 클레온의 논리에 대비되는 하나의 일관된 제국 경영의 논리를 구성해 보는 데 편리한 수단을 제공했을 것이다. 독자들이 디오도토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의 연설 중 상당 부분이 투퀴디데스에 의해서, 일관된 논리를 염두에 두고, 보완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그럴 법해 보인다.

디오도토스의 연설은 클레온의 연설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대응관계를 이룬다. 그의 연설의 전반부(3.42-43)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는 아테네의 정치 문화에 대한 클레온의 비판을 반박하고, 후반부(3.44-48)는 뮈틸레네의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아테네의 이익이라는 측면에

서 옹호한다. 연설의 전반부는 클레온 연설의 37-8에, 후반부는 39-40에 각각 대응된다. 두 연설 사이에는 구조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어휘 대응(verbal echo)도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디오도토스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한다.

οὔτε τοὺς προθέντας τὴν διαγνώμην αὖθις περὶ Μυτιληναίων αἰτιῶμαι, οὔτε τοὺς μεμφομένους μὴ πολλάκις περὶ τῶν μεγίστων βουλευέσθαι ἐπαινῶ, νομίζω δὲ δύο τὰ ἐναντιώτατα εὐβουλία εἶναι, τάχος τε καὶ ὀργήν, ὧν τὸ μὲν μετὰ ἀνοίας φιλεῖ γίγνεσθαι, τὸ δὲ μετὰ ἀπαιδευσίας καὶ βραχύτητος γνώμης.

“저는 뮈틸레네인들에 대한 결정을 다시 안건으로 제기한 이들을 비난하지도, 중대한 일들과 관련해서 여러 번 심의하는 것을 비난하는 자들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은 판단에 가장 반대되는 두 가지가 서두름과 충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름에는 어리석음이, 분노에는 무식과 단견이 동반하기 마련이니 까요.” (3.42.1)

디오도토스의 일성은 클레온의 그것에 못지 않게 도발적이다. 클레온이 제국 경영과 관련한 무능(ἀδύνατόν ἐστιν ἑτέρων ἄρχειν)을 이야기하며 아테네인들을 자극하려고 했다면, 디오도토스는 클레온의 주장에 따르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하고, 생각이 짧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다. 현재 아테네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판단이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방해요소는 서두름과 분노이다.

서두름과 분노는, 디오도토스의 관점에서, 뮈틸레네 반란에 대한 아테네 시민들의 최초의 즉각적 반응과 그것을 견지해야 한다는 클레온의 주장에 포함된 문제점을 간결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다. 투퀴디데스는 이미 뮈틸레네 사건과 관련한 아테네인들의 반응을 설명하면서, 아테네인들이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즉시’ 처리했고, ‘신속’하게 실행했고, 그것에 대해서 ‘즉시’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아테네인들이 즉시 뮈틸레네 사건을 결정

하게 한 이유가 그들의 충동(ὀργή) 때문임으로 밝혔었다(3.36.2).¹⁵³ ‘τάχος’와 ‘ὀργή’는 사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대변한다. 이에 대비해서 디오도토스는 ‘좋은 판단(εὐβουλία)’이 관건임을 상기시킨다. ‘εὐβουλία’는, ‘-βουλ-’과 관련된 일련의 단어들이 시사하듯이, 신중하게 숙고된 이성적 판단을 대변하는 단어이다. 이 대비를 통해서 디오도토스는 클레온의 연설의 핵심적 전략을 짚어내고 있다. 클레온은 청중들의 즉각적인 충동에 호소하고 그것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디오도토스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후자의 태도가 무엇이 아테네에 이익인지를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디오도토스는 ‘말이 행위의 교사가 되지 못한다(τούς λόγους μὴ διδασκάλους... τῶν πραγμάτων γίνεσθαι)’고 주장하는 자는 어리석거나(ἀξύνετος) 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ἰδίᾳ τι αὐτῷ διαφέρει)’라고 비판한다. (3.42.2) ‘말이 행위의 교사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물론 클레온을 가리킨다. 클레온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재심의 하자고 주장하는 자는 결정된 사항을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궤변론자이거나 뇌물을 받은 자일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3.38.2) 디오도토스는 클레온의 이분법을 나름의 이분법으로 되돌려 주고 있다. 토론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한 자이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다. 클레온이 던지시 디오도토스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는 궤변가가 아니라면 뇌물을 받은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면, 디오도토스는 클레온과 같은 자는 단순 무식한 자가 아니라면 뭔가 개인적인 속셈이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디오도토스는 페리클레스가 추모 연설에서 자랑스럽게

¹⁵³ 투퀴디데스는 뮈틸레네 논전을 둘러싼 내러티브에서 아테네인들의 행동을 서술하며 부사 ‘즉시(εὐθύς)’를 네 번 사용하고 있다: οἱ Ἀθηναῖοι τὸν μὲν Σάλαιθον εὐθύς ἀπέκτειναν(3.36.1); καὶ τῇ ὕστεραίᾳ μετάνοιά τις εὐθύς ἦν αὐτοῖς(3.36.4); καταστάσης δ’ εὐθύς ἐκκλησίας (3.36.6); καὶ τριήρη εὐθύς ἄλλην ἀπέστελλον κατὰ σπουδὴν(3.49.2)

이야기했던 아테네 정치 문화의 특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이 “사안들을 판단하거나 제대로 논의하며, 말이 행동에 해가 된다고 여기지 않고 행동으로 가기 전에 먼저 말을 통해 배우지 않는 것이야말로 해가 된다고 여긴다”고 말했다(2.40.2). 그리고 이것을 아테네를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최소한 말의 힘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디오도토스는 페리클레스가 제시했던 아테네의 이상을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디오도토스의 ‘ἄξύνετος’은 클레온이 그의 연설에서 사용했던 ‘συνετός’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클레온은 아테네인들이 민회를 “식견의 경연(ξυνέσεως ἀγῶνι)”으로 삼고 있으며, “더 비천한 자들이(φραυλότεροι) 식견이 더 많은 자들보다(πρὸς τοὺς ξυνετωτέρους) 폴리스를 더 잘 다스린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식견은 폴리스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것이었다. 디오도토스의 생각은 다르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ἄλλῳ τινὶ) 미래와 보이지 않는(μὴ ἐμφανοῦ) 것들을 보이는 것이(φράσαι)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ἄξύνετος)입니다.”¹⁵⁴ 그는 여기서도 클레온의 말을 끌어 오고 있다. 클레온은 아테네인들이 ‘미래와 관련한 일들을 연설을 얼마나 잘 하는지로 결정한다(τὰ μὲν μέλλοντα ἔργα ἀπὸ τῶν εὖ εἰπόντων σκοποῦντες)’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연설은 현실-실체와 분리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디오도토스는 연설만이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맞선다. 결정되어 있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민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λόγο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디오도토스에게는 λόγος와 그것의 힘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적 가치이자 원천이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의 능력과 가능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무지몽매한 자로 선언하는 것이다.

¹⁵⁴ 디오도토스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과 ‘보이는’을 하나는 분사의 부정형태로, 다른 하나는 동사원형으로 제시해서 옥시모론(oxymoron)을 강조한다. (Macleod(1978), 73)

토론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가 단순히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은 그가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클레온이 제시한 두 선택지 중 두 번째에 정확히 대응한다. 클레온은 다시 토론해보자는 사람을 뇌물을 받은 자로 의심했다. 디오도토스는 토론을 하지 말자는 자야말로 사적인 이유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인가? “뭔가 수치스러운 것(τι αἰσχρὸν)을 설득해내고는 싶은데, 훌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περὶ τοῦ μὴ καλοῦ) 말을 잘 할 수(εὖ μὲν εἰπεῖν) 없어서, 모함을 잘 함으로써 반대자들과 청중을 속일(εὖ διαβαλὼν... ἐκπλῆξαι)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는 옳지 않은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싶어하지만, 그것을 타당한 논리로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자를 비방함으로써 청중을 속일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조금 뒤에 더 분명해지겠지만, 사실 디오도토스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도덕적 고려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αἰσχρὸν’이나 ‘καλον’과 같은 도덕적인 개념을 끌고 들어 오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일관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청중을 설득을 이끌어낸다는 철저하게 수사적 관점에서, 이런 용어들의 도입은 분명 매우 효과적이고, 이 점에서 디오도토스의 영리함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¹⁵⁵

수사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클레온에 대응하는 디오도토스의 방식은 꽤 효과적이다. 클레온이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수상한 이분법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클레온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새로운 이분법을 되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이 둘 중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미묘하고 재기 넘치는 공방전은 독자들에게 분명 지적인 재미를 선사한다.¹⁵⁶ 하지만 동시에 독자들은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논쟁이 정말로 중요한 실질적인

¹⁵⁵ “the slipping in of value-judgements irrelevant to his main position is one of the tricks of Diodotos.” (Winnington-Ingram(1965), 78.

¹⁵⁶ 후대 수사이론에서 이 figura는 ‘딜렘마(dilemma)’에 해당한다.

사안을 정면으로 다루는 대신, 일종의 말과 재치의 대결이 되어 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된다. 둘의 논쟁은 클레온이 비판하고 있는 말과 식견의 경연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디오도토스가 자신이 뇌물을 받았는가라는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직접적인 변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그 질문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교묘히 회피하면서, 쟁점을 토론 문화 자체의 정당성이라는 일반적 문제로 이끌어 가고 있다.

디오도토스는 이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χαλεπώτατοι δὲ καὶ οἱ ἐπὶ χρήμασι προσκατηγοροῦντες
ἐπίδειξιν τινα. εἰ μὲν γὰρ ἀμαθίαν κατητιῶντο, ὁ μὴ πείσας
ἄξυνετώτερος ἂν δόξας εἶναι ἢ ἀδικώτερος ἀπεχώρει: ἀδικίας
δ’ ἐπιφερομένης πείσας τε ὑποπτος γίγνεται καὶ μὴ τυχὼν
μετὰ ἄξυνεσίας καὶ ἄδικος.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자들은 어떤 연설에 대해서 그것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행해진 것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지를 비난한다면, 설득하지 못한 연설자는 더 불의하다는 평보다는 더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불의함을 고발한다면, 설득하더라도 의심을 받고, 설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지한 자로 여겨짐과 동시에 불의한 자라고 여겨집니다. (3.42.3)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자들은 연설의 배후에 금전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ἐπὶ χρήμασι)’는 클레온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κέρδει ἐπαιρόμενος)”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디오도토스의 반론의 핵심은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상대방을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점이다. 어떤 주장에 대해,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돈을 받고 그 주장을 했다고 몰아부친다면, 아무리 뛰어난 논리로 반박을 해 본들, 불순한 동기에

대한 의혹을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논리 자체의 설득력도 인정을 못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결과일 텐데, 이 경우 반론자는 불의한 사람임은 물론이고 무지하기까지 자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디오도토스는 이런 식의 의혹이 가져올 사회적 해악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향할 수 있는 의혹의 화살을 일반적인 문제 쪽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연설자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테네는 조언자들(σύμβουλοι)을 폴리스로부터 몰아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폴리스에 전혀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οὐκ ὠφελεῖται). (3.42.4) 훌륭한 시민(ὁ ἀγαθὸς πολίτης)은 상대를 위협하지 않고(μὴ ἐκφοβοῦντα), 공정한 (ἀπὸ τοῦ ἴσου) 연설을 통해 자신이 더 뛰어난 연설가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또 분별 있는 폴리스는 (ἡ δὲ σώφρων πόλις)는 연설자들에게 특별한 명예를 주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그들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불명예를 주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3.42.5) 이러한 문화가 확립된다면, 연설가들은 더 많은 명예를 바라고 인기를 끌기 위해 자신이 믿는 바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지(ἐπὶ τῷ ἐπιμειζόνων ἀξιοῦσθαι παρὰ γνώμην τι καὶ πρὸς χάριν λέγοι) 않게 될 것이다. (3.42.6)

그러나 지금 아테네의 상황은 어떠한가? 디오도토스는 현재 아테네는 모든 것이 정 반대로(τάναντία) 행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클레온과 같은 이들의 비방 때문이다. 이런 비방은 아테네인들로 하여금 연설가들을 의심하게 만들고(ὑποπτεύεται), 확실하지도 않은 추측(οὐ βεβαίου δόκησις)으로 시기하게 만들며(φθονήσαντες), 명백한 이익(φανερὰ ὠφελία)을 거부하게 만든다. (3.43.1) 디오도토스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연설가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ὥστε δεῖν ὁμοίως τὸν τε τὰ δεινότατα βουλόμενον πείσαι
ἀπάτη προσάγεσθαι τὸ πλῆθος καὶ τὸν τὰ ἀμείνω λέγοντα
ψευσάμενον πιστὸν γενέσθαι.

그 결과, 가장 끔찍한 것들을 설득하려는 자가 대중을 속임수로
오도할 수 있듯이, 더 좋은 것을 말하는 자도 거짓말을 함으로써
믿을 만한 자가 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연설가의 진의를 의심하는 문화는 심지어 좋은 제안을 하려는 연
설가조차도 대중을 기만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¹⁵⁷ 토론을 못하게
만드는 문화는, 결국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그 진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은 폴리스에 유익한 조언을 들을 수 없게 만들며, 그 결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

연설자의 동기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디오도토스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
은 민중의 책임 전가 혹은 회피이다. 연설자들은 앞을 내다보고
(προνοοῦντας) 말을 하지만, 결정하는 대중은 눈앞의 것들밖에 생각하지 않
는다. 디오도토스는 이 차이를 책임 부담의 차이로 연결시킨다. 연설가들은
제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ὑπεύθυνον), 청중들은 그렇지 않다
(ἀνεύθυνον). 만일 연설가와 청중이 똑같이 책임을 지고 똑같은 벌을 받는
다면, 청중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일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설득을 한 사람에게만 분노를 터뜨리며, 많은 경우 함
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들은 벌하지 않습니다(νῦν δὲ
πρὸς ὀργὴν ἦντινα τύχητε ἔστιν ὅτε σφαλέντες τὴν τοῦ πείσαντος μίαν
γνώμην ζημιοῦτε καὶ οὐ τὰς ὑμετέρας αὐτῶν, εἰ πολλαὶ οὔσαι
ξυνεξήμαρτον)(3.43.4).” 디오도토스의 이 말에서 우리는, 클레온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아테네 민주정, 좀더 구체적으로는 아테네 민중에 관한
어두운 현실을 발견한다. 그들은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만,
정작 그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책을
제안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 이 시점에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고 페리클레

¹⁵⁷ 이 상황은 연설가들을 역설적인 상황에 빠뜨린다. “What should the honest man do? Convey just a flavour of spurious dishonesty, enough to gratify suspicion, but not enough to wreck his proposal?” (Andrewes, “The Mytilene Debate: Thucydides 3.36-49”, *Phoenix* (1962), 74, n. 25 Andrewes 74, n. 25)

스가 두 번째 민회연설을 했을 때 처했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전쟁을 하도록 자기들을 설득했다고 페리클레스를 비난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당한 불행을 모두 그의 탓으로 돌렸다(2.59.2).” 또한 독자들은 클레온과 디오도토스가, 거의 모든 세부적인 논점에서 충돌하는 듯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점에서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민중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클레온의 생각처럼) 논쟁의 게임을 즐기느라 현실의 사안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자들이거나 (디오도토스의 생각처럼) 기분대로 결정을 내려놓고 책임은 전가하는 자들이다. 둘 중 어느 쪽도 아테네 민중에 대한 전면적 진실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둘 중 어느 쪽도 그들에 대한 완전한 곡해로 폄하될 수 없을 것이다. 의견 상 전혀 접점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관점을 병치시키면서, 그 가운데에서, 투퀴디데스는 아테네 민중에 대한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진실을 드러내 보인다. 여러 관점을 겹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이 총체적 진실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논전의 내용보다도 투퀴디데스에게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3.44에서부터 디오도토스의 연설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된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정의의 문제와 이익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 결정은 오직 후자에 근거해서 내려져야만 한다.

ἐγὼ δὲ παρήλθον οὔτε ἀντερῶν περὶ Μυτιληναίων οὔτε κατηγορήσων. οὐ γὰρ περὶ τῆς ἐκείνων ἀδικίας ἡμῖν ὁ ἀγών, εἰ σωφρονοῦμεν, ἀλλὰ περὶ τῆς ἡμετέρας εὐβουλίας.

제가 이곳에 나온 것은 뮈틸레네인들을 변론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이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연은 저들의 불의한 짓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판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3.44.1)

디오도토스는 현재 논의의 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이지 아니라 이롭고 해로움을 따지는 민회임을 지적한다. 그는 민회가 ‘경연장(ἀγών)’이 되었다고 한 클레온의 말을 가져와 그 성격을 바꾼다. 우리는 제대로 된 경연(ὁ ἀγών)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경연의 목표는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 이로운 판단이다. ‘우리가 분별이 있다면(εἰ σωφρονοῦμεν)’, 우리는 제대로 된 경연을 벌일 것이다. 앞서 클레온은 사안에 대해 거듭 토론하지 않고 한 번 결정된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분별 있음(σωφροσύνη)의 징표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경연이 지향하는 바가 좋은 판단(εὐβουλία)이라고 말함으로써, 디오도토스는 민회(βουλή)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무엇이 최선인가를 숙고하는(βουλεύεσθαι) 자리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법정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에 관심을 둔다면 민회는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는 점을 대비시킨다. 우리는 저들의 불의가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결정을 생각해야 한다.

디오도토스는 정의와 불의의 문제로 논의를 끌고 들어가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하며, 오로지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며 쟁점 전환을 시도한다. “설사 그들이 전적으로 불의함을 내가 입증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이롭지 않다면, 나는 그들을 처형하라고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폴리스에 좋은 일로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ἤν τε γὰρ ἀποφώνω πάνυ ἀδικοῦντας αὐτούς, οὐ διὰ τοῦτο καὶ ἀποκτεῖναι κελεύσω, εἰ μὴ ξυμφέρον, ἤν τε καὶ ἔχοντάς τι ξυγγνώμης † εἶεν †, εἰ τῇ πόλει μὴ ἀγαθὸν φαίνοιτο)(3.44.2).” 물론 클레온도 뉘틸레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다른 폴리스들의 반란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아테네에 이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자신은 의견이 다르다고 디오도토스는 말한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디오도토스의 연설 후반부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정의와 이익의 대비는 현재와 미래의 대비로 연결된다. 법정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민회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일들과 관련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περὶ τοῦ μέλλοντος ἡμᾶς μᾶλλον βουλευέσθαι ἢ τοῦ παρόντος)(3.44.3). 법정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다룬다면, 민회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내다보아야 한다. 디오도토스는 클레온의 말의 그럴 법함(εὐπρεπής)과 뮈틸레네인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신의 말의 유용함(τὸ χρήσιμον)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다시 처음에 제시했던 대비를 반복해 강조한다. “우리는 정의가 필요해서 그들과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로운 일일까를 그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ἡμεῖς δὲ οὐ δικάζομεθα πρὸς αὐτούς, ὥστε τῶν δικαίων δεῖν, ἀλλὰ βουλευόμεθα περὶ αὐτῶν, ὅπως χρησίμως ἐξουσιν)(3.44.4).”

3.45에서부터 디오도토스는 왜 클레온의 제안대로 뮈틸레네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테네에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앞서 클레온은 가혹한 처벌만이 이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또 다른 반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⁵⁸ 하지만 디오도토스는 가혹한 처벌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많은 폴리스에서 이보다 훨씬 미미한 죄에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혹해 우리는 모험을 벌입니다(ὁμως δὲ τῇ ἐλπίδι ἐπαιρόμενοι κινδυνεύουσι).” 이 구절은 클레온의 주장에 대한 디오도토스의 반론의 핵심을 요약한다. 클레온은 뮈틸레네가 자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그들이 불의를 저질렀다고 판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며, 가혹한 처벌은 일종의 본보기로 작용해 다른 폴리스들로 하여금 반란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디오도토스가 보기에 뮈틸레네인들의 반란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리 처벌의 정도를 높인다 한들, 인간의 본성상,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반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

¹⁵⁸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리고, 반란을 일으킨 자가 받는 벌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른 동맹국들에게 본패를 보이십시오(κολάσατε δὲ ἀξίως τούτους τε καὶ τοῖς ἄλλοις συμμαχοῖς παράδειγμα σαφὲς καταστήσατε, ὃς ἂν ἀπιστῇται, θανάτῳ ζημιωσόμενον)(3.40.7).”

본성에 근거한 필연인 한, 그것을 완전히 억제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디오도토스는 클레온이 사용했던 표현을 슬며시 바꾸고 있다. 클레온은 뮈틸레네인들이 아테네인들에게 불의를 저질렀다(ἀποφαίνω Μυτιληναίους μάλιστα δὴ μίαν πόλιν ἡδίκηκότας ὑμᾶς. 39.1)고 말했다. 하지만 디오도토스는 인간도 폴리스도 언제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ἀμαρτάνειν)고 말한다.¹⁵⁹ 뮈틸레네인들의 반란은 의도적 범죄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에 기초한 비자발적 과오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3.45.4-7에서 디오도토스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을 제시한다.¹⁶⁰ “가난은 강제에 의해 대담함을 가져다 주고, 부는 오만과 자만에 의해 탐욕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삶의 조건들도, 각각의 충동에 따라, 저항할 수 없고 압도적인 충동에 의해 인간을 위협한 일들로 끌고 갑니다(ἡ μὲν πενία ἀνάγκη τὴν τόλμαν παρέχουσα, ἡ δ’ ἐξουσία ὕβρει τὴν πλεονεξίαν καὶ φρονήματι. αἱ δ’ ἄλλαι ξυντυχίαι ὀργῇ τῶν ἀνθρώπων ὥς ἐκάστη τις κατέχεται ὑπ’ ἀνηκέστου τινὸς κρείσσονος ἐξάγουσιν ἐς τοὺς κινδύνους).” (3.45.4) 인간의 충동의 핵심에는 희망(ἐλπίς)과 욕망(ἐρως)이 있다. 그리고 이 본원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느 누구라도 인간의 본성이 작동해서 열렬하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강력한 법에 의해서든, 다른 어떤 무서움에 의해서든, 그것을 막지 못하는 법입니다.(ὅστις οἶεται τῆς ἀνθρωπείας φύσεως ὀρμωμένης προθύμως τι πράξαι ἀποτροπήν τινα ἔχειν ἢ νόμων ἰσχύι ἢ ἄλλῳ τῷ δεινῷ.)” (3.45.7) 디오도토스는 클레온이 사용한 단어들을 가져와 의도적

¹⁵⁹ ‘ἐλασσόνων ἀμαρτημάτων’ (3.45.1), ‘καὶ ἰδίᾳ καὶ δημοσίᾳ ἀμαρτάνειν’ (3.45.3).

¹⁶⁰ 이 부분은 3.39.3-5에서의 클레온의 논의에 대응한다. 클레온 역시 뮈틸레네인들이 반란을 인간의 본성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행복(ἡ παροῦσα εὐδαιμονία)이 ‘미래에 대한 과신(πρὸς τὸ μέλλον θρασείς)’과 ‘자신의 힘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폴리스는 성공(εὐπραγία)에 의해 오만에 빠진다(ἐς ὕβριν τρέπειν)고도 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돌보아주는 것은 무시하고, 봐주지 않는 것에는 경탄하기 때문입니다(πέφυκε γὰρ ... ἄνθρωπος τὸ μὲν θεραπεῦον ὑπερφρονεῖν, τὸ δὲ μὴ ὑπεῖκον θαυμάζειν).” (3.39.5)

으로 의미를 변형시키고 있다. 클레온에게는 인간의 본성이 뮈틸레네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행복에 겨워 바람(βούλησις)과 욕망(ἔρως)에 의해 오만(ὑβρις)에 빠진 뮈틸레네 인들은 당연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반면 디오도토스는 인간의 본성적 충동들은 이성적으로 통제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처벌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오도토스는 현실적인 차원으로 돌아와 뮈틸레네인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경제적으로도 이롭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다. 클레온은 일벌백계만이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오도토스는 만일 행복해봐야 끝까지 저항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반란을 일으킨 폴리스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역으로, 만일 행복하면 훨씬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그들은 저항을 멈추고 행복할 것이고, 그들로부터 공물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 테니 그쪽이 아테네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것이다. 디오도토스는 엄격한 재판관의 자세가 아니라 세심한 행정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ὥστε οὐ δικαστὰς ὄντας δεῖ ἡμᾶς μᾶλλον τῶν ἐξαμαρτανόντων ἀκριβεῖς βλάπτεσθαι ἢ ὁρᾶν ὅπως ἐς τὸν ἔπειτα χρόνον μετρίως κολάζοντες ταῖς πόλεσιν ἔξομεν ἐς χρημάτων λόγον ἰσχυούσαις χρῆσθαι, καὶ τὴν φυλακὴν μὴ ἀπὸ τῶν νόμων τῆς δεινότητος ἀξιοῦν ποιεῖσθαι, ἀλλ' ἀπὸ τῶν ἔργων τῆς ἐπιμελείας.

그러니 우리는 엄격한 재판관들이 되어 잘못을 저지른 자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해롭게 해서 안 되며, 적절하게 처벌함으로써, 이후에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폴리스들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법률이 아니라, 일들에 대한 세심한 돌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3.46.4)

디오도토스는 반란을 일으킨 자유 국가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은 많이 별하는(σφόδρα κολάζειν) 것이 아니라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많이 경계하는(σφόδρα φυλάσσειν)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반란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단 일어난 반란에 대해서는 되도록 소수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충고한다(3.46.6). 이런 정신에서 그는 뮈틸레네인들 중 민중과 과두주의자들을 분리해서, 과두주의자들만을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모든 폴리스들에서 민중은 아테네에 호의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과두제 지지자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그것에 가담하지 않거나, 강제로 가담하게 된 경우 그들에게 적대적이다.¹⁶¹ 디오도토스는 민중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을 제시한다. 첫째, 그렇게 하는 것은 은인을 죽이는 불의를 저지르는 일이다. 디오도토스는 그의 연설 중 유일하게 바로 이곳에서 정의의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다.¹⁶² 둘째, 민중을 처벌하는 것은 지배층이 원하는 일이다. 둘 모두에게 똑같은 벌을 내린다면, 앞으로도 그 둘은 같은 편이 될 것이다. 잠시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디오도토스에게 정의인가 불의인가의 여부는 궁극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다. “설령 민중이 불의를 행했다 하더라도(εἰ ἡδίκησαν), 아닌 척 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동맹인 유일한 집단을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면 말이지요. (3.47.4)”

¹⁶¹ 디오도토스의 이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는 논란거리이다. 예를 들어 Bradeen, "The Popularity of the Athenian Empire", *Historia* 9 (1960), 264은 3.3.4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뮈틸레네 선원들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행동을 근거로 뮈틸레네 민중이 자동적으로 아테네에 호의를 가졌다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¹⁶² 일관성의 견지에서만 말한다면, 오로지 이익의 관점만 생각해야 한다는 그가 정의에 호소하는 것은 분명 비일관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디오도토스가 일관된 생각의 체계를 수립하려는 철학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하려 하는 연설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로 상대방을 논파할 수 있다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던 그렇지 않던 상관 없이, 기꺼이 그럴 용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클레온이 앞서 활용했던 전통적 정의관, 즉 ‘적에게는 해를 친구에게는 이익을’을 이용할 좋은 기회이고, 그는 그 기회를 활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디오도토스는 이 모든 논의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밝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국의 유지이다.

καὶ τοῦτο πολλῶν ὑμφορώτερον ἡγοῦμαι ἐς τὴν κάθεξιν τῆς ἀρχῆς, ἐκόντας ἡμᾶς ἀδικηθῆναι ἢ δικαίως οὐς μὴ δεῖ διαφθεῖραι: καὶ τὸ Κλέωνος τὸ αὐτὸ δίκαιον καὶ ὑμφορον τῆς τιμωρίας οὐχ εὐρίσκεται ἐν αὐτῷ δυνατὸν ὄν ἅμα γίγνεσθαι.

그리고 저는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불의를 감수하는 것이 죽이지 말아야 하는 자들을 정의롭게 죽이는 것 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레온은 저 처벌의 방식이 정의로운 동시에 유익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그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3.47.5)

디오도토스에 따르면 현재 고려해야 할 것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이다. 만일 그 최선의 수단이 어떤 불의를 감수하는 것을 수반한다면, 설사 그것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¹⁶³ 역으로 정의와 불의의 측면에서만 사안을 고려해서, 죽이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제국의 유지를 위해 최선이 아님에도,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와 이익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디오도토스는 이익이 정의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디오도토스가 뮈틸레네 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그가 보다 온건한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오도토스의 말에서 우리는 그 역시 클레온과 제국주의적 목표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단지 그들이 각기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디오도토스는 철저히 이익

¹⁶³ 투퀴디데스는 이익을 *ξύμφορον*과 *χρήσιμον* 로 나누어 사용한다. 대체로 전자는 '이기적인 눈 앞의 이익'을, 후자는 '장기적인 공동의 이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Macleod, "Thucydides on Faction",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25 (1979), 59. 그러나 디오도토스는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의 관점에서 제국의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클레온처럼 이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익이 결코 확보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디오도토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부터 비롯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한다. 뮈틸레네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철회하고, 민중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연민’ 때문이 아니다. 디오도토스는 클레온이 제국에 해가 되는 세 가지 요소로 꼽은 ‘연민’과 ‘관용’ 그리고 ‘듣기 좋은 말’ 중 연민과 관용을 다시 받아, 자신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민(οἶκτος)이나 관용(ἐπιεικεία)에 너무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그것들에 이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3.48.1).” 그리고 그는 파케스가 주동자로 여겨 아테네로 보낸 포로들만 차분히(καθ’ ἡσυχίαν) 판단할(κρίναι) 것을 요청한다. 클레온이 다시 불을 지핀 분노의 감정과, 제국에 대한 욕망을 다시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⁶⁴ 이 태도는 그가 연설 초반에 경계한 서두름(τάχος)과 충동(ὀργή)에 반대되는 태도이다.

τάδε γὰρ ἔς τε τὸ μέλλον ἀγαθὰ καὶ τοῖς πολεμίοις ἤδη φοβερά:
ὅστις γὰρ εὖ βουλευέται πρὸς τοὺς ἐναντίους κρείσσων ἐστὶν ἢ
μετ’ ἔργων ἰσχύος ἀνοίᾳ ἐπιών.

바로 그것이 미래에 좋은 일이 될 것이며, 지금의 적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 잘 숙고하는 자가 생각 없이 과격한 행동으로 공격하는 자보다 더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3.48.2)

¹⁶⁴ Cf. 5.26.5 καθ’ ἡσυχίαν τι αὐτῶν μᾶλλον αἰσθῆσθαι. 투퀴디데스는 5권 초반, 10년 전쟁 (아르키다모스 전쟁)이 끝나는 지점에, ‘두 번째 서문’에 해당하는 글을 쓴다. 여기서 그는 디오도토스가 여기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καθ’ ἡσυχίαν 을 자신의 서술의 원칙으로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추방되어, 펠로폰네소스 쪽 사정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런 시간을 통해 자신이 본 것들을 ‘차분히, 냉정하게’ 고찰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ἄνοια는 연설 서두의 μετὰ ἀνοίας(3.42.2)와 순환구조(ring-composition)를 이룬다. 디오도토스는 ‘ἰσχύος’와 ‘ἀνοία’를 나란히 배치하면서 클레온의 ‘ἰσχύι μᾶλλον ἢ τῇ ἐκείνων εὐνοίᾳ’(3.37.2)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¹⁶⁵ 클레온의 “저들의 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에 의해 아테네가 우의를 점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호의(εὐνοία)’와 ‘힘(ἰσχύς)’을 가져와, 디오도토스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디오도토스는 다시금 미래(τὸ μέλλον)를 생각하며, 무엇이 유익함을 줄 좋음인지를 따져보고 잘 숙고해야 함을(εὖ βουλευέται) 강조하며 연설을 마친다.

일견 디오도토스의 제안은 클레온의 그것에 비해 보다 너그럽고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클레온의 주장의 이면에 놓인 것 못지 않은 냉혹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3.47.1-5에서 디오도토스는 뮈틸레네 민중이 아테네에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강압적 수단이 아니라 상호 호의에 기초한 친선 관계를 동맹국 민중과 유지함으로써 아테네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과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뮈틸레네가 실제로 아테네에 항복하는 과정에 관한 투퀴디데스의 서사 어디에도 뮈틸레네 민중의 아테네에 대한 호의가 역할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서사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다른 아닌 굶주림이었다.¹⁶⁶ 그리고 사실 민중은 과두제 지지자들과 함께 아테네군을 공격했다.¹⁶⁷ 따라서 디오도토스의 제안은 기만적이다. 그것이 아테네 제국의 강압적 성격을

¹⁶⁵ Hornblower, *Comm. II*, 438.

¹⁶⁶ “그 사이 뮈틸레네인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펠로폰네소스에서 함대가 나타나지 않았고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테네인들과 협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οἱ δὲ Μυτιληναῖοι ἐν τούτῳ, ὥς αἱ τε νῆες αὐτοῖς οὐχ ἦκον ἀπὸ τῆς Πελοποννήσου ἀλλὰ ἐνεχρόνιζον καὶ ὁ σῖτος ἐπελελοίπει, ἀναγκάζονται ξυμβαίνειν πρὸς τοὺς Ἀθηναίους διὰ τὰδε.)” (3.27.1)

¹⁶⁷ “...그들 모두는 우리를 공격했습니다....민중은 과두제 지지자들과 위협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기고 반란에 가담했습니다(πάντες γὰρ ὑμῖν γε ὁμοίως ἐπέθεντο... ἀλλὰ τὸν μετὰ τῶν ὀλίγων κίνδυνον ἡγησάμενοι βεβαιότερον ξυναπέστησαν.)” (3.39.6)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오도토스는 3.46.5에서 아테네 제국의 진정한 성격을 무심코 노출시키고 있다. “강제로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위해 반란을 일으킨 자유로운 폴리스를 다시 장악하면 우리는...(ἦν τινα ἐλεύθερον καὶ βία ἀρχόμενον εἰκότως πρὸς αὐτονομίαν ἀποστάντα χειρωσώμεθα).” 동맹국들은 아테네에 의해 ‘강제로 지배를 받고 있는(βία ἀρχόμενον)’ 것이다. 디오도토스와 클레온은 모두 인간 본성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끌어 온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폴리스들과 그 시민들의 반응을 추론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것은 제국으로서의 아테네 그리고 그 시민들을 움직이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 클레온이나 디오도토스의 연설 모두에서 제국 아테네의 본성적인 모습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본성상 강압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이건 (클레온의 경우) 자신의 이익이건 (디오도토스의 경우) 그들은 자신의 관점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그것을 동맹국들에게 강요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만일 강압이 아테네 제국의 본성이라면 동맹국들이 그 강압에 저항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그 답은 ‘그렇다’일 수밖에 없는 없어 보인다. 뮈틸레네의 반란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테네인들은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다고 생각한 뮈틸레네가 반란을 일으킨 것에 더욱더 분노했다고 투퀴디데스는 전한다. 하지만 뮈틸레네의 관점에서, 아테네 제국의 강압적 성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그래서 자신들이 아테네와 같은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확보하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아테네에 저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동맹국들에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어떤 점에서, 뮈틸레네의 특수성, 즉 그들이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율권을 가졌다는 점이 그들의 반란을 촉발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더 자율권을 누렸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아테네의 강압을 견디기 힘들어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오도토스와 클레온은 강압적으로 지배 받고 있는 동맹국의 관점에서 인간

본성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은, 표면상의 저 많은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아테네 제국의 논리에 충실한, 그리고 제국의 유지라는 대전제 안에서의 최선을 고민하는 인물들이다. 두 사람 모두에게 뮈틸레네의 관점이 전혀 안중에 없지만, 투퀴디데스의 독자들은 두 사람의 논전 이전에 이미, 라케다이모니아인들 앞에 선 뮈틸레네 사절단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보다 온건하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디오도토스의 그것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우호관계와 자유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다른 사람들의 경우 대개 호의가 신뢰를 확고하게 해 주지만, 우리의 경우는 두려움이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의 동맹은 우호관계보다는 두려움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τίς οὖν αὕτη ἢ φιλία ἐγίγνετο ἢ ἐλευθερία πιστή...ὃ τε τοῖς ἄλλοις μάλιστα εὖνοια πίστιν βεβαιοῖ, ἡμῖν τοῦτο ὁ φόβος ἐχυρὸν παρεῖχε).” (3.12.1)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정교한 연설 공방전을 바라보면서, 독자들은 그 이면에 놓인 제국 지배의 어두운 그림자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결국 자유와 독립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이 아테네 제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끝없는 도전을 일으킬 것임을 예감하게 된다. 하지만 아테네는 제국으로서의 그 자신의 본성에 의해 끊임 없이 동맹국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제국을 유지, 확장하려 할 것이다.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을 통해서 투퀴디데스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두 논리 혹은 관점과 그것이 야기하는 제국 내부의 근원적인 불안정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3. 소결론

투퀴디데스에 의해 당시 가장 설득력 있었던 사람으로 소개되었던 클레온의 주장은 민회 둘째 날에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투퀴디데스는 이들의 주장이 막상막하였으며(ρηθειςὼν δὲ τῶν γνωμῶν τούτων μάλιστα

ἀντιπάλων)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수표결에서 양편이 거의 같은 표수(ἐς ἀγῶνα ὁμῶς τῆς δόξης ... ἀγχώμαλοι)를 얻었다고 말한다. 이런 중에 디오도토스의 안이 채택되고, 급히 전날 뮈틸레네 시민 전원을 처형하고 폴리스를 파괴하기 위해 보낸 삼단노선을 따라잡기 위한 새로운 삼단노선을 급파한다. (3.49.4)

κατὰ τύχην δὲ πνεύματος οὐδενὸς ἐναντιωθέντος καὶ τῆς μὲν προτέρας νεῶς οὐ σπουδῇ πλεούσης ἐπὶ πρᾶγμα ἀλλόκοτον, ταύτης δὲ τοιούτῳ τρόπῳ ἐπειγομένης, ἡ μὲν ἔφθασε τοσοῦτον ὅσον Πάχητα ἀνεγνωκέναι τὸ ψήφισμα καὶ μέλλειν δράσειν τὰ δεδογμένα, ἡ δ' ὕστερα αὐτῆς ἐπικατάγεται καὶ διεκώλυσε μὴ διαφθεῖραι. παρὰ τοσοῦτον μὲν ἡ Μυτιλήνη ἤλθε κινδύνου.

운이 좋아 어떤 역풍도 불지 않았고, 먼저 떠난 배들은 잔혹한 임무를 맡아 속도를 내지 않고 항해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떠난 함선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둘렀기 때문에, 먼저 떠난 배가 도착해서 파케스가 결의문을 읽고 형을 집행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두번째 배는 바로 뒤따라 도착해서 모두를 죽이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다. 뮈틸레네는 이 정도로 위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3.49.4)

뮈틸레네는 디오도토스의 안이 통과되어, 극적인 순간에 형 집행을 저지하는 삼단노선의 도착으로 폴리스의 파멸을 모면할 수 있었고, 관련자들만 처형된다.¹⁶⁸ 투퀴디데스는 뮈틸레네 논전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서 행해졌는지를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¹⁶⁸ 뮈틸레네인 전원을 처형해야한다고 주장한 클레온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디오도토스가 인류애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오도토스의 안에 따라 실제로 처형된 사람이 무려 천명, 그것도 재판도 없이 즉결 처형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디오도토스의 주장은 인류애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agan(1975), 88-89.

클레온과 디오도토스가 민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이 주제로 연설을 했을 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전날 이미 미틸레네 시민 전원을 처형하기 위해서 미틸레네로 배를 보낸 상황에서, 이렇게 복잡한 논의를 했을 지에 대해서는 미심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퀴디데스가 굳이 이 연설들을 선택해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논전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과, 이들의 현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논의 내용들이야말로 그가 이 연설을 통해 보이고자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두 연설이 『역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뮈틸레네 반란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투퀴디데스는 이들의 연설 공방전을 통해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의 어두운 현실이 존재함을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페리클레스가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놓은 이상화된 아테네 상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민주정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균열이 생겨났다. 인간의 본성이 아테네 제국을 위협하고, 제국이라는 것의 본성이 자신의 제국을 스스로 붕괴시킬 것이다. 또한 아테네 민주정의 의사결정의 핵심에 놓인 민회는 아테네의 제국 유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이들의 논전을 통해, 그리고 특히 클레온이 아테네 민주정의 약점을 지적하며, 그 자신이 그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런 모순을 부각시킨다. 페리클레스에서는 제국의 팽창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들의 논전에서는 현실정치(Realpolitik)적인 측면과, 제국 유지를 위해서는 강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표면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투퀴디데스는 이 논전을 통해 아테네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국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제국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이용하는 아테네 정치인들의 생각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IV. 로고스와 욕망: 시켈리아 원정

기원전 413년 여름 아테네 원정대의 참혹한 패배로 끝이 난 시켈리아 원정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투퀴디데스는 이 사건을 펠로폰네소스 전쟁뿐 아닌, 그리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보고 있다.

ξυνέβη τε ἔργον τοῦτο [Ἑλληνικὸν] τῶν κατὰ τὸν πόλεμον
τόνδε μέγιστον γενέσθαι, δοκεῖν δ' ἔμοιγε καὶ ὧν ἀκοῇ
Ἑλληνικῶν ἴσμεν, καὶ τοῖς τε κρατήσασι λαμπρότατον καὶ τοῖς
διαφθαρεῖσι δυστυχέστατον.

이 일은 이번 전쟁 전체를 통틀어, 아니 내가 보기에는 기록에 남은 헬라스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것으로, 이긴 자들에게는 가장 빛나는 승리였지만 패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었다.¹⁶⁹ (7.87.5)

기원전 416년 아테네는 멜로스를 자신의 제국에 포함시킨 후, 이듬해 봄 대규모 함대를 시켈리아로 보낸다. 기원전 416-5년 겨울 시켈리아 서부의 폴리스들 간에 분쟁이 생기자, 에게스타가 아테네에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에게스타는 셀레스타와의 분쟁에 시켈리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쉬라쿠사이가 개입하여 셀레스타를 지원하자, 다른 여러 폴리스에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폴리스로부터 거절당하고 결국 아테네까지 찾아오게 된다. 에게스타와 아테네 사이에는 동맹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테네의 동맹국인 레온티니를 쉬라쿠사이가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6.6.2).

¹⁶⁹ ‘패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었다(καὶ τοῖς διαφθαρεῖσι δυστυχέστατον).’ 이 구절은 비극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장 3보격(iambic trimeter)으로 쓰여졌다. 이 율격의 사용은 시켈리아 원정을 비극 작품에서의 신화적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Dover, *Thucydides VI* (Bristol Classical Press, 1977), 169).

그들은 특히 쉬라쿠사를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그들을 중심으로 시켈리아의 도리아계가 펠로폰네소스인들과 합세해서 아테네 제국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니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테네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정 비용은 에게스타가 지겠다고 약속했다.¹⁷⁰ 아테네인들은 우선 사절을 보내 시켈리아 사정을 알아보게 한 후(6.8.2), 몇 차례의 민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원정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 원정대를 지휘하기 위해 알키비아데스, 니키아스, 그리고 라마코스를 지휘관으로 선출하고(6.8.3) 원정대의 의장(艦裝)을 위해 다시 민회를 소집한다.

투퀴디데스는 원정을 결정한 처음 민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어떤 이들이 어떤 논리로 찬성 혹은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 결과만 간단히 제시한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플루타르코스 등의 후대 작가들의 문헌을 통해서만 짐작해볼 수 있을 뿐이다.¹⁷¹ 투퀴디데스는 첫 번째의 민회에 대해서와는 달리, 나흘 후 열린 이 두 번째의 민회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

¹⁷⁰ 기원전 8세기 중엽부터 여러 그리스와 비 그리스 국가들은 서로 앞다투어 시켈리아에 식민지를 건설해왔다. 식민지라고는 하지만, 건설된 지 오래되어 이미 모국보다 규모나 경제력이 더 큰 폴리스들도 있었다. 시켈리아 안의 여러 폴리스는 본토와 마찬가지로, 이오니아계와 도리아계들이 각각 동맹을 맺어 대립하고 있었고 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에게스타인들이 이때 약속한 원정 비용은 사실상 거짓이었던 것으로 이후 밝혀진다. (6.8.2, 6.46.2) 투퀴디데스는 시켈리아에 식민화과정에 대한 서술(6.2-5)과 에게스타인들의 거짓말과 여기에 속아넘어간 아테네인들을 시켈리아 원정 시작 직전에 보여줌으로써, 아테네인들의 무지를 강조해서 보여준다. Kallet, *Money and the corrosion of power in Thucydides: the Sicilian expedition and its aftermath* (Univ of California Press, 2001), 202, n. 206).

¹⁷¹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니키아스는 첫번째 연설에서 시켈리아 원정을 반대했지만, 이미 민회 소집 전부터 알키비아데스가 군중을 이미 매수했다고 민중을 욕망을 부추겨 결국 시켈리아 원정 결정을 이뤄냈다고 한다. 그는 니키아스가 지휘를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알키비아데스 때문이었다고 여겼다고 말한다. (플루타르코스, 『니키아스』, 12, 『알키비아데스』, 17-8) 투퀴디데스가 침묵하고 있는 다른 민회에서의 논쟁들에 관해서는 Kagan, *The peace of Nicias and the Sicilian expedi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167; Viggiano, "Unreported Speeches and Selection in Thucydides" (Ph.D Thesis, Yale University, 2005) 41-70.

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특히 이때 행해진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을 직접인용으로 들려준다.

그는 원정 자체의 재고를 요구하는 니키아스와 원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을 특별히 선별해 제시한다. 투퀴디데스는 자신이 중대한 사건(*μεγάλον ἔργον*)이라고 평가한 시켈리아 원정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보다는, 그 원정을 재심의하기 위한 토론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민중을 어떤 말로 설득하는지에 더 집중하도록 만든다.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그리고 니키아스의 두 번째 연설, 총 세 개의 연설로 구성된 이 논전은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성격과 수사적 전략의 대조를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그들 각각이 아테네인들의 생각과 잠재된 욕망을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¹⁷² 이 장에서는 이들의 연설문을 검토해서 그들이 표방하는 외적 메시지와 그들의 내적 동기 간의 불일치가 어떻게 연설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말로 민중을 이끌고 정책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니키아스의 첫 번째 연설

둘 중 먼저 연설을 한 것은 니키아스였다.¹⁷³ 그런데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의 연설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언급을 덧붙이고 있다.

¹⁷²투퀴디데스는 이 연설에서뿐 아니라 시켈리아 원정 서사 전반에서 인물들의 성격과, 생각을 보여주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Ellis는 성격묘사를 검토하면서 투퀴디데스가 인물들의 행동과 말의 동기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역사가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Ellis(1979), "Characters in the Sicilian Expedition", 58). 그러나 이후 살펴보겠지만, 투퀴디데스는 인물들, 특히 연설가의 동기와 생각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민중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자 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인물들의 성격 및 동기의 묘사는 투퀴디데스가 역사를 이해하고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Cf. Westlake(1968), *Individuals in Thucydides*, 171.

¹⁷³ 니키아스는 미노아 원정 사건 때 처음 언급된다. (3.51.1.) 투퀴디데스는 이때 니키아스에 대한 소개를 뒤로 미루고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라는 말로만 간

καὶ ὁ Νικίας ἀκούσιος μὲν ἡρημένος ἄρχειν, νομίζων δὲ τὴν πόλιν οὐκ ὀρθῶς βεβουλεῦσθαι, ἀλλὰ προφάσει βραχείᾳ καὶ εὐπρεπεῖ τῆς Σικελίας ἀπάσης, μεγάλου ἔργου,, ἐφίεσθαι, παρελθὼν ἀποτρέψαι ἐβούλετο, καὶ παρήνει τοῖς Ἀθηναίοις τοιάδε.

니키아스는 **마지못해** 지휘관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폴리스가 제대로 심의하지를 앓았고 사소하고 그럴 법한 이유로 엄청난 일인¹⁷⁴ 시켈리아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테네인들의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 앞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6.8.4)

단하게 언급한다. 이후, 니키아스가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평화협정을 맺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5.16) 투퀴디데스는 처음으로 니키아스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제공한다. “당시 아테네의 장군 가운데 가장 잘나가던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 ... 이들은 전쟁을 끝내는 일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니키아스가 그렇게 한 것은 아직 패배를 당하지 않아 존경 받는 동안 자신의 행운을 보전하고, 자신의 노고와 시민들의 노고를 당장 끝내고, 한 번도 국가에 실패를 안긴 적이 없는 인물로 후세에 알려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위험을 피하고, 자신을 되도록 운에 적게 맡겨야 하는데, 위험은 평화에 의해서만 피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5.16.1)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와 ‘τύχη’와 관련해서 이후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알키비아데스와 직접적으로 맞붙게 되는 사건인 필로스 사건에서 그가 “전쟁을 계속 회피하면 아테네는 위신이 선다”고 생각했으며, ‘잘나가고 있는 아테네는 이러한 행운을 되도록 오래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는 라케다이몬은 되도록 빨리 전쟁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뜻밖의 횡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한다. 이 장에서 다룬 니키아스의 연설과, 이후 시켈리아 원정 서사에서의 니키아스는 바로 이 ‘운’이 어떻게 반대로 그에게 작용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강조적으로 보여준다.

¹⁷⁴ ‘μέγα ἔργον’은 『일리아스』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표현을 상기시킨다. (Rood(2004), 163, n.118). Cf. 호메로스, 『일리아스』, 5.303-4=20. 286-7)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다. 요즘 사람 같으면 둘이서도 들 수 없는 돌덩이를 그가 혼자서 가볍게 휘둘렀으니 말이다(...μέγα ἔργον ὃ οὐ δύο γ’ ἄνδρε φέροιεν, / οἷοι νῦν βροτοὶ εἰς: ὃ δέ μιν ῥέα πάλλε καὶ οἶος).”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가 지휘관으로 선출된 것을 내키지 않아 했고, 아테네인들로 하여금 이미 내려진 결정을 되돌리게 하려는 의도로 바로 다음에 소개될 연설을 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니키아스의 심리 상태와 연설의 의도를 미리 알게 하는 장치는 독자들에게 매우 독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퀴디데스는 시켈리아 원정이 그럴듯한 이유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배후에 그것을 추동한 감추어진 진정한 동기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의 논의에서 분명해지겠지만, 사실 니키아스의 연설 자체가 비슷한 방식의 이중성, 즉 표면적인 메시지와 이면의 의도 사이의 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니키아스 연설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있는 독자들은 니키아스가 그 의도를 드러내지 않은 채, 그럴 듯한 갖가지 이유들을 대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테네인들을 끌고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냉정하고, 어쩌면 거의 냉소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니키아스는 자신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종류의 이중성과 자기기만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이러한 독특한 표현방식을 통해서 말과 실제 간의 분열, 그리고 아테네 리더십의 쇠락의 한 양상을 냉정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켈리아 원정의 표면적 명분은 물론 도움을 청해 온 에게스타를 돕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배후에 놓여 있던 실제적 동기는 무엇이었는가?¹⁷⁵ 투퀴

¹⁷⁵ “ἀληθεστάτη προφάσις”이라는 표현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을 설명하는 1.23.6 외에는 이 곳에만 나온다. 투퀴디데스는 시켈리아 원정 서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작과 관련해서 사용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원정이 전쟁의 전환점이 된다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Cf. 1.23.6. “내 생각에, 말로는 전혀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가장 참된 원인은(τὴν μὲν γὰρ ἀληθεστάτην πρόφασιν, ἀφανεστάτην δὲ λόγῳ) 아테네인들이 강성해져서 그들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킨 것이 저들로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조약을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그들 양쪽이 각기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αἰτίαι)들은 다음과 같다.” 1.23.6에 대해서는 Pearson, “Prophesis and aitia”,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디데스는 6권 시작 부분에서 이미 그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아테네인들은.... 또다시 시켈리아로 더 규모가 큰 병력을 파견하여 가능하다면 그곳을 정복하려 했다(ἐβούλοντο ... καταστρέψασθαι, εἰ δύναιτο).” (6.1.1) “아테나이인들은 이토록 큰 섬을 공격하고자 했다. 그들의 진짜 이유는(τῇ ἀληθεστάτῃ προφάσει) 그것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τῆς πάσης ἄρξαι)이었지만, 그곳의 동족들과 새로 구한 그곳의 동맹국들을 돕는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웠다(βοηθεῖν δὲ ἅμα εὐπρεπῶς βουλόμενοι...).” (6.6.1) 투퀴디데스는 아테네인들에게 제국적 욕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니키아스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독자들이 연설을 대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투퀴디데스는 아테네인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니키아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¹⁷⁶

투퀴디데스가 밝히고 있는 니키아스의 연설 목표는 분명하다. 자신이 내켜하지 않는 시켈리아 원정 결정을 아테네인들이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은 이중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선 그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결정을 뒤엎도록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은 채 설득을 해내야만 한다. 그는 아테네 민중이 시켈리아 정복의 욕망을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정면으로 반대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심기를 거슬러 결과적으로 자신의 평판을 손상시킬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제 니키아스가 이런 이중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그의 연설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원정의 제반 사항들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에서, 니키아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로 연설을 시작한다. 이미 원정이 결정되

Association 83 (1952); Kirkwood, "Thucydides' words for "caus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73 (1) (1952).

¹⁷⁶ 시켈리아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정복욕은 3.86.5, 4.58-.65에서 이미 보여졌다. cf. Stahl, "Speeches and the Course of Events in Books Six and Seven of Thucydides", in Stadter (ed.), *The speeches in Thucydides: a collection of original studies with a bibliograph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3), 64.

었지만, 그 결정이 더 나은 것인지(ἄμεινόν)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¹⁷⁷ 그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περὶ μεγάλων πραγμάτων) 그렇게 짧은 논의로(οὕτω βραχεία βουλή)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폴리스 사람들에게 설득되어 우리와 상관 없는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6.9.1). 그는 이어서 원정에 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신에게 가해질 여러 비난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서 변론한다. 원정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것은 자신의 애국심에 대한 의심이나, 비겁하거나 소심하다는 그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καίτοι ἔγωγε καὶ τιμῶμαι ἐκ τοῦ τοιούτου καὶ ἦσσαν ἐτέρων περὶ τῷ ἑμαυτοῦ σώματι ὀρρωδῶ, νομίζων ὁμοίως ἀγαθὸν πολίτην εἶναι ὅς ἂν καὶ τοῦ σώματός τι καὶ τῆς οὐσίας προνοῇται· μάλιστα γὰρ ἂν ὁ τοιοῦτος καὶ τὰ τῆς πόλεως δι' ἑαυτὸν βούλοιτο ὀρθοῦσθαι. ὅμως δὲ οὔτε ἐν τῷ πρότερον χρόνῳ διὰ τὸ προτιμᾶσθαι εἶπον παρὰ γνώμην οὔτε νῦν, ἀλλὰ ἢ ἂν γινώσκω βέλτιστα, ἐρῶ.

사실 저야말로 이러한 일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제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보다 적게 걱정합니다. 물론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나 재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자도 좋은 시민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말이지요. 그러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폴리스의 일들이 제대로 되기를 바랄 테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전에도 지금도 명예를 얻기 위해 내 판단에 어긋나는 바를 말한 적이 없으니, 지금도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6.9.2)

이 구절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니키아스의 심리 상태와 성격이 문장의 구성 방식에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니키아스는 자신

¹⁷⁷ ἄμεινόν은 신탁과 관련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형용사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 단어는 단순히 ‘바람직한’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을 다시 내 놓는 것이 신의 뜻을 구하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Hornblower, *Comm. III*, 323).

이 설득하고자 하는 바가 아테네 시민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지 모를 어떤 말도 하기를 두려워한다.¹⁷⁸ 그 결과 그의 연설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가해질 비난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복잡한 문장 구성을 가지게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니키아스는 청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대나 비판을 의식하면서 앞서의 발언을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불변화사 ‘καίτοι’로 문장을 시작한다. 바로 앞의 문장에서 그는 시켈리아 원정 자체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꺼냈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테네 시민들의 생각을 거스르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니키아스는 곧바로 ‘καίτοι’를 통해서, 혹시 제기될 지 모를 비판을 떠올리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καίτοι’에 담긴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혹시 원정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저의 의견을, 제가 어떤 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내키지 않아서 제안하는 것 아닌가 의심하실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는 ἔγω에 강세형 접사 γε까지 붙여가며, 자신은 원정을 반대할 아무런 사적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차라리 원정을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명예를 가져다주니 말입니다.”¹⁷⁹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추가로 언급한다. 이 말은 또 다른 비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혹시라도 제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그런 이야기를 꺼내나 의심하실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¹⁷⁸ 후대에 따르면 이 수사 전략은 일종의 prodiorthosis(προδιόρθωσις) 기법에 해당한다. (Alex. fig. γ': Προδιόρθωσις ἐστίν, ὅταν μέλλωμέν τι τοιοῦτον λέγειν, ὃ δεῖται τινος θεραπείας, ὥστε μὴ χαλεπῶς αὐτὸ προσδέξασθαι τὸν ἀκροατὴν, καὶ προθεραπεύωμεν αὐτόν, ...)

¹⁷⁹ 대개 공공 연설에서 명예나 경탄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폴리스)에게 속한 것으로 제시되었다.(1.75.3, 2.39.4, 41.1) 그러나 니키아스는 개인의 명예, 개인의 안녕,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Cf. 5.16. 투퀴디데스는 브라시다스는 평화조약에 반대하고 전쟁을 바라는 이유로 니키아스와 동일한 표현인, ‘전쟁으로부터 명예를 얻었기 때문(διὰ τὸ εὐτυχεῖν τε τιμᾶσθαι ἐκ τοῦ πολεμεῖν)’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방금 한 말에 제한을 가한다. 이번에는 ‘νομίζων’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를 통해서이다. 내용상 이 분사구는 양보의 의미를 가지며,¹⁸⁰ 또 다른 가상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말이나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 그런 사람도 물론 훌륭한 시민일 수 있습니다.” 니키아스는 은근히, 무모한 원정을 통해 잃을 것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 즉 재산을 가진 시민 계층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는 비애국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가만히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지키려 애쓰는다고 해서 나쁜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폴리스가 잘 되어야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지킬 수 있으니, 당신들 같은 분들이 사실 폴리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니키아스가 바로 이러한 재산 있는 계층에 속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¹⁸¹ 간접적인 자기변호 혹은 자신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자기합리화로 읽힐 수도 있다. “(시켈리아 원정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무모한 모험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렇게 나의 생명과 재산을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니키아스는 바로 다음 문장을 또다시 양보문으로 만든다.¹⁸² “그럼에도 불구하고(ὁμως δέ)...” 이 문장에 함축되

¹⁸⁰ 생각, 바람 등과 관련된 분사는 대개 주어의 동기를 설명해주는 원인적 의미를 갖지만, 니키아스는 이 분사들을 오히려 양보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주저함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Dover(1977), 15.

¹⁸¹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그의 죽음 이후 평가까지 미뤄둔다. 7.86.4에서 코린토스인들이 그가 “부유해서 뇌물로 사람들을 매수할까봐 두려워했다”고 설명한다. Hornblower 는 투퀴디데스가 왜 니키아스의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아마도 알키비아데스의 부와 사치에 대해 독자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 니키아스가 부유했다는 사실을 7장 86절까지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Cf. Rood(2004), 288ff.

¹⁸² 니키아스는 이 첫번째 문단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말을 계속 약화시키거나, 뒤엎는다. 이 연설에서 사용되는 빈번한 양보절과, 많은 종속절은 그의 문장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투퀴디데스는 이를 통해 니키아스의 성격과 이 연설의 상황

어 있는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신경 쓰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지는커녕 폴리스를 위해 바람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저의 명예를 신경 쓰고 있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개인적인 명예를 늘리는 데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객관적 판단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그것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객관적 판단에 근거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시켈리아 원정이 저의 명예를 높여줄 절호의 기회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로지 객관적 판단에 따라) 최선이 라고 생각되는 바를 말씀드릴 것입니다.”¹⁸³

사실 니키아스의 궁극적 관심사가 자기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폴리스 전체의 이익이었다면, 우리가 그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연설이다. 시켈리아 원정이 엄청난 일인데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으니 다시 심의해야 한다. 원정 결정이 사소하고 그럴듯한 명분에 근거한 것이니 진짜 이유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당신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시켈리아 전체를 아테네 제국 안에 편입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해 봐야 한다. 하지만 니키아스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그는 이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만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아테네인들에게 원정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에만 노력을 기울인다. 그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주장이 아테네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니키아스의 조심스럽고, 거의 소심해 보이기까지 한 태도는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역력하다.

을 드러낸다. 그의 구사하는 연설의 구문적 특징은 투퀴디데스가 개인의 성격을 연설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요소(τὰ δέοντα) 중 하나로 사용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ompkins(1972), 184-188.

¹⁸³ 여기서도 *prodiorthosis*(προδιόρθωσις)가 사용되고 있다. Cf. n.178.

καὶ πρὸς μὲν τοὺς τρόπους τοὺς ὑμετέρους ἀσθενὴς ἂν μου ὁ λόγος εἴη, εἰ τὰ τε ὑπάρχοντα σώζειν παραινοίην καὶ μὴ τοῖς ἐτοίμοις περὶ τῶν ἀφανῶν καὶ μελλόντων κινδυνεύειν· ὥς δὲ οὔτε ἐν καιρῷ σπεύδετε οὔτε ῥᾷδιά ἐστι κατασχεῖν ἐφ' ἃ ὥρμησθε, ταῦτα διδάξω.

여러분의 성향에 대하여 제 말은 무력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시라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것들을 위태롭게 하지 마시라고 권고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적절한 시기에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며, 당신들이 열망하는 것들을 쉽게 차지할 수도 없다는 점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6.9.3)

니키아스는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 없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그 말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¹⁸⁴ 그리고서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가능성적 희구법(potential optative) 구문을 사용해서(εἰ ... παραινοίην)¹⁸⁵ 가장 포괄적이고 막연한 방식으로 자신의 제안을 꺼내 놓기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청중들의 심기를 거스르기를 두려워하는 니키아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아테네 민중의 성향과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만 본다면, 니키아스는 페리클레스

¹⁸⁴ 아테네/아테네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과 1권의 코린토스인들의 연설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여기서는 특히 아테네인들의 가만히 있지 않는, 활동적인 성향에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Gomme et al, *HCT IV*, 231. 니키아스는 시켈리아 원정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욕망이 바로 이 본성(πολυπραγμοσύνη)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직접적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표면위로 내세우는 것은 알키비아데스이다.

¹⁸⁵ 가능성적 희구법의 빈번한 사용은 니키아스의 연설의 주요한 문체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의 연설은 헤르모크라테스의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횟수의 가능성적 희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Tompkins(1972), 185, n.115.

나 클레온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⁶ 하지만 페리클레스나 클레온이 필요에 따라 그들을 도발하고 거스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해, 니키아스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니키아스의 이러한 성격과 태도는 투퀴디데스가 연설 앞 부분에서 짚막한 설명과 초반부의 몇 문장의 구성방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니키아스는 현재의 것을 위해 미래의 불확실함 (περὶ τῶν ἀφανῶν καὶ μελλόντων)을 선택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역사』 5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의 이 대비는 즉각 시켈리아 원정 직전의 중요 사건이었던 멜로스에서의 회담을 상기시킨다. 그곳에서 아테네 사절단은 멜로스인들에게 자신들에게 굴복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이 “미래사를(τὰ μέλλοντα) 눈앞에 있는 것보다(τῶν ὁρωμένων) 더 확실한 것(σαφέστερα)으로 판단하고(κρίνετε), 단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τὰ ἀφανῆ)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ὡς γινόμενα ἤδη) 보는(θεᾷσθε)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분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5.113.1). 아테네 사절단은 또한 멜로스인들의 동맹국들의 지원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그들의 주요 논거가 ‘미래의 희망과 관계 있는데 반해, 현재 실력은 지금 자신들과 대치할 세력에 맞서기에는 너무 미약’하기에, 이들의 요청이 어리석다고 보았다(5.111.2).

하지만 지금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멜로스인들을 비난한 바로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¹⁸⁷ 니키아스는 아테네인들의 시켈리아 원정이 ‘적절하지 않은

¹⁸⁶ 니키아스는 이후 원정 중에도 아테네인들에 본성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한다. “당신들은 본성상 다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χαλεπαὶ γὰρ αἱ ὑμέτεραι φύσεις ἄρξαι)... 나는 여러분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καὶ ἅμα τὰς φύσεις ἐπιστάμενος ὑμῶν)(7.14.2).” “그 자신이 아테네인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αὐτός γε ἐπιστάμενος τὰς Ἀθηναίων φύσεις(7.48.4).”

¹⁸⁷ 이 구절을 4권 62.3에서의 쉬라쿠사인 헤르모크라테스의 말과 연결되고, ‘거리적으로는 더 멀지만, 텍스트상으로는 멜로스 회담(5.87)에 보다 더 가깝다. “여러분이 눈앞의 현실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폴리스를 구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가 아

시기'에 수행되고 있으며, '서두름'의 결과이고, '쉽게 이를 수 없는 것'이며, '현재'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는 행위와 같다고 지적한다. 그는 아테네인들이 믿고 있는 '확실함'과 '안전'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니키아스는 시켈리아 원정이 시기에 맞지 않다는 점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이유는 아테네가 처한 상황이다. 그는 시켈리아 원정이 더 많은 적을 불러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현재의 평화조약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신들은 혹 맺어져 있는 조약이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οἴεσθε ἴσως τὰς γενομένης ὑμῖν σπονδὰς ἔχειν τι βέβαιον),” 그것은 아테네인들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만 (ἡσυχάζοντων ὑμῶν) 명목상으로 유지될(όνόματι σπονδαὶ ἔσονται) 것이고, 아테네 군이 어딘가에서 패배하는 순간, 적들은 즉각 공격에 나설 것이다(6.10.2).¹⁸⁸ 니키아스 본인이 니키아스의 평화로 알려져 있는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간의 평화 조약의 안정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는 조약 자체에 여러 쟁점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다른 폴리스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테네인들의 그것의 안정성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아테네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입장은 이런 것이다. “간두지세(竿頭之勢)의 폴리스를¹⁸⁹ 위협에 빠뜨릴 생각을

니라 여분의 장래에 관해 제멋대로 억측을 늘어놓기 위해 여기서 우리를 만난 것이라면, 우리는 회담을 중단할 것이요.” (Hornblower, *Comm. III*)

¹⁸⁸ Dover는 ἡσυχάζοντων ὑμῶν를 조건절로 보지 않고, 양보절로 해석한다. “even if you are inactive, it will be peace only in name.” 이 경우 평화 조약 자체의 취약성 보다는, 아테네의 정세 자체가 이미 위태로워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Hornblower(327-8)는 쉬라쿠사이인인 아테나고라스의 연설에서도 (6.36.4)에서 니키아스의 연설과 같은 주제와 어휘를 사용하여 이 평화협정의 불안정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연설이 투퀴디데스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Kagan(1981), 175-177.

¹⁸⁹ 원문을 직역하면 ‘땅에서 높이 들린, 허공에 매달린’ 폴리스이다. 위태로운 상태를 표현한 이 메타포는 대개 바다에 나가있는 배들의 상태로도 사용되었는데 Hornblower는 이 구절을 ‘제대로 닻을 내리지 못한’ ‘아직 항구에 들어서지 않은’ 의

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확고하게 하기 전에 다른 지배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μὴ μετεώρω τε <τῇ> πόλει ἀξιοῦν κινδυνεύειν καὶ ἀρχῆς ἄλλης ὀρέγεσθαι πρὶν ἢν ἔχομεν βεβαιώσωμεθα)” 이다(6.10.5). 니키아스의 이 말은 페리클레스가 마지막 민회 연설에서 했던 말을 연상시킨다. “전쟁을 치르는 중에(ἄμα πολεμοῦντες) 지배력을 더 확장하거나(ἀρχὴν ἐπικτᾶσθαι) 굳이 자초해서(αὐθαίρετους) 위험을 더하기를(κινδύνους προστίθεσθαι) 바라지 않으신다면...(1.144.1).” 니키아스가 보기에, 현재의 상황에서 확장을 도모하는 것은 페리클레스가 경고한, 굳이 자초해 위험을 더하는 일이다. 니키아스는 곧바로 더 긴급히 상대해야 할 적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아직 제압하지 못한 그리스 북부의 칼키디케인들과 아테네인들에게 복종하긴 하나 미심쩍은 육지의 몇몇 폴리스들(ἄλλοι τινὲς κατὰ τὰς ἡπείρους)이 그들이다(6.10.5). 그가 이 대목에서 칼키디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니키아스는 두 해 전에(기원전 417년) 칼키디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원정대의 지휘관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 원정은 무산되고 말았다(5.83.5). 일견 현재 상황에서 시켈리아 원정이 초래할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니키아스가 또 다른 원정의 목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기이하고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니키아스가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경우에도 원정은 불가하다라는 점이라기보다는 좀더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모순이 드러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사실 니키아스의 입

의미를 가진 배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해한다. Hornblower(329)는 그래서 이 구절을 ‘마른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폴리스’로 번역했다. 반면, Dover는 이 단어에 ‘의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면서,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Hornblower 역시 분명히 니키아스가 이 ‘의학적 메타포’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의 견해에 동의한다. 분명 6.14에서 폴리스-몸(질병)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 메타포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반면, 천병희는 ‘난처한 입장’으로 번역하면서 메타포를 살리지 않았으나, 둘 중 하나는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단어의 원 뜻에 가까운 번역어를 선택했다.

장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식으로 해석되게 되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에서 알키비아데스가, 가만히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면서, 니키아스의 입장을 전자쪽의 극단으로 틀지워 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알키비아데스는 니키아스의 입에서 나온 ‘ἡσυχάζοντων’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두었다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이용할 것이다.

니키아스가 칼키디케를 언급한 것을, 끊임 없이 청중들의 반응을 예상하며 논의의 방향을 트는 그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그는 내심으로는 자신의 위신을 지키를 원하고, 그것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 그는 그 점이 청중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어쩌면 그는 또 다시 청중들이 혹시라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정을 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고 있지 않을까를 우려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칼키디케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시기에 맞지 않은 시켈리아 원정을 반대한 것이지, 모든 원정 활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고 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니키아스는 원정을 가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한다. 시켈리아는 아테네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칼키디케인들의 경우에는 일단 제압하면 예측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시켈리아처럼 인구가 많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의 경우에는, 설사 정복한다 하더라도 통치하는 (ἄρχειν)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을 공격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ἀνόητον) 일이다(6.11.1).¹⁹⁰ 아마도 이것은 니키아스가 제시한 원정 반대의 근거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일 것이다. 6.68.3에서 쉬라쿠사이에 파견된 아테나이 사절 에우페모스 역시 이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

¹⁹⁰ 알키비아데스는 6.16.3에서 이 ‘ἀνόητον’을 받아 반박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다. ¹⁹¹ 니키아스는 이어서 시켈리아의 헬라스인 이주민들이 결코 아테네에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펠로폰네소스인과 힘을 합쳐 제국 대 제국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럴 법하지 않은(οὐκ εἰκός) 일이다. 자신들도 같은 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파괴될 것이 그럴 법하기(εἰκός) 때문이다(6.11.3). 니키아스는 시켈리아의 헬라스인들을 겁주기 위해서는 아예 원정을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직접적인 충돌 대신 무력시위만을 하고 즉시 떠나는 쪽이 낫다고 제안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명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6.11.4). 그는 다소 수상쩍은 이 논리를 라케다이모니아인들과 그들의 동맹군으로부터 배웠다고 말하면서, 청중들의 적개심의 방향을 은근히 시켈리아로부터 라케다이모니아인들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처음에는 그들을 두려워하던 아테네인들이 이제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그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분별이 있다면(εἰ σωφρονοῦμεν), 우리의 경쟁(ὁ ἀγών)은¹⁹² 이방인들인 시켈리아의 에게스타인들에 관한(περὶ τῶν ἐν Σικελίᾳ Ἑγεσταίων ... ἀνδρῶν βαρβάρων)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음모를 꾸미는 폴리스의 과두정부에 날카롭게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는 것이 될 것입니다(ὅπως πόλιν δι’ ὀλιγαρχίας ἐπιβουλεύουσιν ὁξέως φυλαξόμεθα)(6.11.7).” 니키아스가 ‘과두정부’를 언급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당시 원정을 강력하게 주도했던 측은 급진 민주파였다. 그러나 니키아스는 이들을 직접 겨냥하는 대신, 민주정의 최대의 적인 과두정 국가의 음모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적개심의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니키아스는 아테네는 역병으로 인한 여러 피

¹⁹¹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여기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설명 우리가 비열하게도 여러분의 독립을 박탈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뱀길도 멀고 대륙 세력 수준으로 무장한 대폴리스들에 수비대를 배치하기가 어려워 여러분을 통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¹⁹² ‘경쟁, 경연’의 메타포는 『역사』 전체에 걸쳐 발견되지만, 특히 시켈리아 원정 내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 7.56.2, 7.59.2.

해에서 이제야 조금씩 회복되었기 때문에, 원정을 감행해 제국을 확장을 시도할 상황이 아님을 다시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것으로 원정에 반대하는 그의 객관적인 근거들의 제시는 종료된다(12.1).

지금까지 원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했던 니키아스는 이제 논의를 전환해서 원정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의 자질과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니키아스는 직접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가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사실은 명백하다.¹⁹³

εἴ τέ τις ἄρχειν ἄσμενος αἰρεθεὶς παραινεῖ ὑμῖν ἐκπλεῖν, τὸ ἑαυτοῦ μόνον σκοπῶν, ἄλλως τε καὶ νεώτερος ὢν ἔτι ἐς τὸ ἄρχειν, ὅπως θαυμασθῇ μὲν ἀπὸ τῆς ἵπποτροφίας, διὰ δὲ πολυτέλειαν καὶ ὠφελήθη τι ἐκ τῆς ἀρχῆς, μηδὲ τούτῳ ἐμπαράσχητε τῷ τῆς πόλεως κινδύνῳ ἰδίᾳ ἐλλαμπρύνεσθαι, νομίσατε δὲ τοὺς τοιούτους τὰ μὲν δημόσια ἀδικεῖν, τὰ δὲ ἴδια ἀναλοῦν, καὶ τὸ πρᾶγμα μέγα εἶναι καὶ μὴ οἷον νεωτέρῳ βουλευσασθαί τε καὶ ὀξέως μεταχειρίσαι.

그런데 만일 지휘하도록 선출되어 기뻐하며 자기 자신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원정을 권하는 자가 있다면, 게다가 그가 지휘하기에는 너무 젊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말 사육으로 인해 찬사를 받기를 원하고, 그 비용을 대기 위해 지휘관직에서 어떤 이익을 바라느냐 자라면, 여러분은 그런 자에게 폴리스의 위험을 통해 개인을 돋보이게 만들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공금을 건드리고, 개인 재산을 탕진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6.12.2)

니키아스는 우선 알키비아데스가 원정을 지지하고 지휘관이 되고자 하는 데 사적인 의도가 있음을 지적한다. 알키비아데스는 사실 원정 자체를 지지했다기보다는, 지휘관으로 선출되기를 원했던 것이며, 단지 개인적인 어떤

¹⁹³ 투퀴디데스는 원정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알키비아데스였음을 6.15.2에서야 밝힌다. (prolepsis)

이유 때문에 원정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니키아스는 알키비아데스의 개인적인 동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 사육(ἀπὸ τῆς ἵπποτροφίας)을 언급한다. 우리는 말 사육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을뿐만 아니라,¹⁹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말 사육과 전차 경주에서의 승리는 이미 핀다로스의 시에서부터 귀족들의 과도한 부, 과두파적 성향이 있는 엘리트 집단과 연결되어 생각되었다.¹⁹⁵ 바로 앞선 6.11.7에서 니키아스가 과두파 폴리스로부터의 위협을 경고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 사적 동기들 중 유독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니키아스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알키비아데스가 민중로부터 민주정을 위협할 인물로 경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싶어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니키아스는 알키비아데스가 지휘관이 되는 것으로부터 얻고자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어떤 이익(ὠφεληθῆ τι)’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이득’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특권’이다. 즉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사적인 지출로 인한 필요 때문에 원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특권을 얻기를 바랐다고 볼 수도 있다. 두 가능성 모두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지만, 이후 알키비아데스의 행보와,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전자가 더 그럴 법한 해석으로 보인

¹⁹⁴ Cf. 아리스토파네스 『구름』, 12-18. “잠이 통 오질 않네, 하긴 무슨 잠이 오겠어, 온몸이/물어 뜯기는데. 비용에, 구유에, 그리고 빗에. /그게 다 여기 이 아드님 덕분이지. 머리를 길게 /기르고는 승마를 하고, 경주용 쌍두전차를/ 타고 다니고, 꿈을 꾶도 말 꿈만 꾸니 말이야./그래서 나는 매달 20일이 지나면 죽을 지경이야/ 이 자를 값아야 하나까”

(ἀλλ’ οὐ δύναμαι δείλαιος εὖδεν δακνόμενος
 ὑπὸ τῆς δαπάνης καὶ τῆς φάτνης καὶ τῶν χρῆων
 διὰ τουτονὶ τὸν υἱόν. ὁ δὲ κόμην ἔχων
 15 ἵππάζεται τε καὶ ξυνωρικεῖται
 ὄνειροπολεῖ θ’ ἵππους· ἐγὼ δ’ ἀπόλλυμαι
 ὀρῶν ἄγουσαν τὴν σελήνην εἰκάδας·
 οἱ γὰρ τόκοι χωροῦσιν.)

¹⁹⁵ Hornblower, *Comm. III* 33.

다.¹⁹⁶ 이런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원정을 지지하는 알키비아데스가 주장하는 대로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사치를 위해 공금이 부정의하게 소진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¹⁹⁷

알키비아데스의 개인적 의도와 함께 니키아스가 문제 삼는 것은 그의 젊음이다. 그는 지휘관이 되기에는 너무 젊다. 시켈리아 원정이라는 중대한 사안(τὸ πρᾶγμα μέγα)은 그와 같은 젊은이에 의해(νεωτέρῳ) 결정되어서도, 급히(ὀξέως) 실행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니키아스는 ‘젊음’과 ‘급함’을 짝지우면서 알키비아데스 개인에 대한 비판을 젊은 세대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한다. 그는 의도적으로 장년들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강조하면서 세대간의 긴장을 이끌어내려 한다.¹⁹⁸

Οὓς ἐγὼ ὁρῶν νῦν ἐνθάδε τῷ αὐτῷ ἀνδρὶ παρακελευστοὺς
καθημένους φοβοῦμαι, καὶ τοῖς πρεσβυτέροις ἀντιπαρα-
κελεύομαι μὴ καταισχυνθῆναι ὅπως μὴ δόξει, ἐὰν μὴ ψηφίζεται
πολεμεῖν, μαλακὸς εἶναι, μὴδ', ὅπερ ἂν αὐτοὶ πάθοιεν,
δυσέρωτας εἶναι τῶν ἀπόντων,

이들을 제가 보면서, 지금 이곳에 바로 그 동일한 사람에 의해
요청받고 와서 앉아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
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연장자께 반대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 찬성하는 표를 던지지 않는다고 그들 중 어떤 이가 여러
분을 나약한 자로 여기지나 않을까 하며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
십시오. 또한, 그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 바,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열병을 앓는 자들이** 되어서
도 안 됩니다. (6.13.1)

¹⁹⁶ Dover가 이 해석을 취하고 있고, Hornblower(*III* 334)와 Kallet (33 n.49)도 같은 입장이다. 이 해석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알키비아데스가 연설에 앞서 소개되고 있는 6.15.2에서의 다음 구절이다. “그는 성공하면 개인적으로도 재물과 명성에(χρήμασί τε καὶ δόξῃ) 이로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¹⁹⁷ Marchant *Comm.* 6.12.2.

¹⁹⁸ Strauss, *Fathers and sons in Athens: ideology and society in the era of the Peloponnesian War* (Routledge, 2002), 141ff.

젊은이들은 본성적으로 보지 못한 곳을 보고 싶어하고, 갖고 있지 않는 것,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자들이다.¹⁹⁹ 니키아스는 원정에 대한 욕구를 그러한 욕망의 일종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한 욕망은 일종의 병적 상태이다. 니키아스는 그 병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έρως’ 에 ‘δυσ-’를 붙인 매우 강한 부정적인 어조의 단어 ‘δυσέρωτας’를 사용하고 있다.²⁰⁰ 이 단어는 또한 원정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감정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²⁰¹ 이러한 병적 상태와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장자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문제점을 보면서도 원정에 반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다. 니키아스는 그들이 명백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단지 나약한 자라는 비판이 두려워 잠자코 있는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²⁰²

¹⁹⁹ 젊은이와 ‘도달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욕구’에 대한 고대인들의 생각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의 신화, 파에톤 신화 등은 이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퀴디데스는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태도를 6.24.3의 설명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준다. “모두들 출항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장년층은 자신들이 공격하러 가는 폴리스들을 정복하거나, 적어도 그런 대군이 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청년층은 먼 나라들을 보고 겪고 싶었으며, 자신들은 무사히 귀환하리라고 확신했다.”

²⁰⁰ 이 단어는 기원전 5세기 산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시적 용어이다. 산문에서는 드물게, Lysias 4.8와 Xenophon Oec. 12.13에서 발견된다.

²⁰¹ Euripides, Hipp. 193-5. “우리는 이 지상에서 빛나는 그 무엇에 참담하게 사랑에 빠져버려요, 다른 삶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 Pindaros Ph. 3. 19ff. “허나 그대는 부재한 것에 대한 사랑에 빠졌다” Conford(1907), 206에서는 투퀴디데스가 핀다로스에서부터 이 구절을 따 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펠로스 회담과 니키아스 연설은 특히 ‘가깝고 먼’ 주제를 강조적으로 다룬다. Hornblower는 특히 핀다로스와 투퀴디데스 사이의 ‘δυσέρως’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에우리피데스의 구절은 ‘현재 있는 것’에 대해 열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Hornblower(2004), 335.

²⁰² Cf. 6.24.4 이렇게 대부분 사람의 과도한 열망으로 인해, 이 일에 반대하던 이들은 혹시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ὥστε διὰ τὴν ἄγαν τῶν πλεόνων ἐπιθυμίαν, εἴ τῳ ἄρα καὶ μὴ ἤρεσκε, δεδιώς μὴ ἀντιχειροτονῶν κακόνους δόξειεν εἶναι τῇ πόλει

니키아스는 젊음과 연륜의 대비를 욕망(ἐπιθυμία)과 선견지명(πρόνοια)의 대비로 전환시킨다.²⁰³

γνόντας ὅτι ἐπιθυμία μὲν ἐλάχιστα κατορθοῦνται, προνοία δὲ πλεῖστα, ἀλλ' ὑπὲρ τῆς πατρίδος ὡς μέγιστον δὴ τῶν πρὶν κίνδυνον ἀναρριπτούσης ἀντιχειροτονεῖν.

욕망으로는 최소의 것들을, 반면 선견지명으로는 가장 많은 것을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위협에 처해 있는 조국을 위해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6.13.1)

그는 최상급의 형용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욕망과 선견지명이 각각 폴리스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부각시킨다. 원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 젊음의 무모함과 욕망에 이끌려 폴리스를 더 큰 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다. 반대로 원정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선견지명에 따라 최선의 결과로 폴리스를 이끄는 길이다. 니키아스는 다시금 그들에게 원정 반대를 촉구하면서 에게스타의 문제에 아테네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πρύτανις)에게 이 문제를 재표결에 부쳐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ἐπιψήφισε ...τῆς δὲ πόλεως κακῶς βουλευσαμένης ἰατρὸς ἂν γενέσθαι, καὶ τὸ καλῶς ἄρξαι τοῦτ' εἶναι, ὃς ἂν τὴν πατρίδα ὠφελήσῃ ὡς πλεῖστα ἢ ἐκὼν εἶναι μηδὲν βλάβῃ.

ἡσυχίαν ἦγεν.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의 이 말만 단어를 조금 바꾸어서 반복하고 있다.

²⁰³ 그는 여러 개의 대비(ἀντίθεσις)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lex. fig. ver. κα': Ἀντίθεσις δὲ γίνεται κατὰ τρόπους πλείονας, καθ' ἓνα μὲν, ὅταν τὰ ἀντικείμενα ὀνόματα ἀναλαμβάνωμεν,...καθ' ἄλλον δὲ τρόπον ἢ ἀντίθεσις γίνεται, ὅταν μὴ πάντως τοῖς ἀντικειμένοις ὀνόμασιν φράζωμεν, ἀντικείμενα μέντοι ἢ διαφέροντα πράγματα λαμβάνωμεν.)

당신은 심의를 잘못된 폴리스의 의사가 되는 것이며, 조국에 가장 좋은 일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자가 폴리스를 잘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표결에 부쳐주시시오. (6.14.1)

원정에 대한 욕망을 질병과도 같이 표현한 니키아스는, 다시 한 번 질병-의사 메타포를 사용하면서 폴리스를 의인화한다. 시켈리아 원정은 폴리스에 생긴 질병과도 같은 것이며, 이 사안을 다시 표결해서 원정을 가지 않는 것만이 열병으로 병든 폴리스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이런 말로 연설을 마친다.

2.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가 연설을 마친 뒤 다수의 사람들이 연설을 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그 중 그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이다.²⁰⁴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시켈리아 원정에 관한 알키비아데스의 입장과 동기를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다.²⁰⁵

²⁰⁴ 시켈리아 원정과 알키비아데스에 관한 논의는, 투퀴디데스의 역사 안에서의 여러 모순적인 구절들로 인해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6권 알키비아데스의 소개에서, 시켈리아 원정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과 2권 65장 시켈리아 원정 및 펠로폰네소스 전쟁 패배의 원인에 대한 묘사의 불일치가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에 관해서는 Gomme et al., *HCT II*, 195-196; Rhodes, *Thucydides II*, 245.; Bloedow는 이 문제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없다고 보고 있다: Bloedow, "Alcibiades 'Brilliant' or 'Intelligent'?", *Historia* 42 (2) (1992).

²⁰⁵ 알키비아데스에 관한 투퀴디데스의 최초의 평가는 5권 43에 나타난다. 투퀴디데스는 그가 “평화조약을 파기하기를 바라던 아테네의 정파의 주도자”였다고 밝힌다. 이어 그는 알키비아데스가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명문가 출신인지라 아테네에서는 명망이 높았고’, 라케다이몬인들이 평화조약에 관해 니키아스나 라케토스와 협상하고 자기를 나이 젊다고 무시하는 것이 못마땅해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5.43.2-3) 디오뉘소스 할리카르나소스 (xxi.145)에서는 알키비아데스가 “모든 이들

ἐνῆγε δὲ προθυμότατα τὴν στρατείαν Ἀλκιβιάδης ὁ Κλεινίου, βουλόμενος τῷ τε Νικίᾳ ἐναντιοῦσθαι, ὦν καὶ ἐς τᾶλλα διάφορος τὰ πολιτικά καὶ ὅτι αὐτοῦ διαβόλως ἐμνήσθη, καὶ μάλιστα στρατηγῆσαί τε ἐπιθυμῶν καὶ ἐλπίζων Σικελίαν τε δι' αὐτοῦ καὶ Καρχηδόνα λήψεσθαι καὶ τὰ ἴδια ἅμα εὐτυχήσας χρήμασί τε καὶ δόξῃ ὠφελήσειν. ὦν γὰρ ἐν ἀξιώματι ὑπὸ τῶν ἀστῶν, ταῖς ἐπιθυμίαις μείζουσιν ἢ κατὰ τὴν ὑπάρχουσαν οὐσίαν ἐχρήτο ἔς τε τὰς ἵπποτροφίας καὶ τὰς ἄλλας δαπάνας:

원정을 **가장 열정적으로** 지지한 것은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알키비아데스였다. 그는 니키아스에 반대하고 싶어했는데, 다른 정치적인 일들에서도 견해가 달랐고, 그가 자신을 모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장군이 되기를 **열망했고**, 그것을 통해 시켈리아와 카르케돈을 얻게 될 것이고, 성공하면 개인적으로도 재물과 명성에 이로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명성이 있었고, 그는 말 사육과 다른 사치들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넘어서는 **욕망**을 가졌다. (6.15.2-3)

이 설명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동일한 어근 ‘θυμ’-‘을 가지는 일련의 단어들의 등장이다.²⁰⁶ 투퀴데데스는 이를 통해서 알키비아데스가 가지는 강렬한 욕망(ἐπιθυμία)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더욱더 분명해지겠지만, 알키비아데스의 바로 이 욕망적 요소는 그의 연설이 청중들에게 니키아스의 연설에 비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된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이 품고 있었던 제국 확장에 대한 욕망의 대변자였으며, 바로 그 욕망을 일깨우고 부추기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설득에 성공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보고한다.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이런 평가는 테오프라스토스(fr. 134)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알키비아데스 ‘τὰ δέοντα’를 발견하고 생각하는데 있어 탁월했지만, 언제나 가장 적당한 말들을 찾으려 하며 머뭇거리며 말을 했다고 전한다.

²⁰⁶ 동일한 어근을 이용하는 이런 수사적 전략은 일종의 Αἰτιολογί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lex. fig. η': Αἰτιολογία δέ ἐστίν, ὅταν προθέντες τι πρὸς τὸ γενέσθαι σαφέστερον αὐτὸ τὴν αἰτίαν προσαποδιδῶμεν, ...)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의 연설은 클레온의 연설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며, 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페리클레스의 연설로부터 유사한 어휘와 내용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다.

투퀴디데스는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아테네 시민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도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시민들에게 명성이 있었고(ὦν γὰρ ἐν ἀξιώματι ὑπὸ τῶν ἀστῶν), 경주마들을 먹이는 일이나 기타 다른 사치를 위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썼다. 동시에 시민들은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방식이 지나쳤고 그가 엄청난 야망을 수시로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가 참주가 되려는 것이 아닌가(ὥς τυραννίδος ἐπιθυμοῦντι) 생각해 그를 적대시했다(6.15.3-4).²⁰⁷

니키아스의 경우와 달리, 알키비아데스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 원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οἱ πλεῖστοι) 니키아스의 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6.15.1), 곧바로 자신에게 가해진 니키아스의 비난에 대한 반박으로 연설을 시작한다.²⁰⁸

καὶ προσήκει μοι μᾶλλον ἐτέρων, ὧ Ἀθηναῖοι, ἄρχειν (ἀνάγκη γὰρ ἐντεῦθεν ἄρξασθαι, ἐπειδὴ μου Νικίας καθήψατο), καὶ

²⁰⁷ 아리스토파네스는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폴리스는 그를 갈망하고, 미워하고, 또 갖고 싶어하지(ποθεῖ-μέν, ἐχθαίρει δέ, βούλεται δ’ ἔχειν).” (아리스토파네스, 『개구리』, 1425)

²⁰⁸ 연설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상대나, 사안과 상관없는 것들을 언급하거나, 비방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것이 *διαβολή*이다(Arist. Rhet. 1415a). 연설자는 대개 상대의 비방이나, 청중의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한 말(*λύσις διαβολῆς*)로 연설을 시작하는 것이 통례이다. Anaximenes는 상대방의 편견이나, 비방을 제거하려는 시도인 *λύσις διαβολῆς*로 연설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Rhet. ad Alex 1437 b 38-41). 이 두 문헌보다 이른 시기에 나온 『역사』에서도 이미 연설들의 서두에 *λύσις διαβολῆς*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Worthington, *Persuasion: Greek rhetoric in action* (Routledge, 2002), 31) 알키비아데스 역시 *λύσις διαβολῆς*로 연설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는 직접적인 반박이나 변론 대신, 자화자찬의 형태로 변형시킨다. Macleod(1983), 68-87.

ἄξιος ἅμα νομίζω εἶναι. ὧν γὰρ πέρι ἐπιβόητός εἰμι, τοῖς μὲν
προγόνους μου καὶ ἐμοὶ δόξαν φέρει ταῦτα,

아테네인 여러분, 지휘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이들에게보다 제가
맡아 마땅한 일이며 (저는 이 말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
다, 니키아스가 저를 모욕하였으니까요), 제 자신은 그럴만한 자
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16.1)

앞서 니키아스는 두 가지 점에서 알키비아데스의 지휘관으로서의 자격
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알키비아데스가 너무 젊다는 점, 그리고 그에게는 그
것을 원하는 사적인 동기가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6.12.2). 알키비아데스는
두 번째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자신에게 사적인 성공
에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자신의 성공이 폴
리스에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ὧν γὰρ πέρι ἐπιβόητός εἰμι, τοῖς μὲν προγόνους μου καὶ ἐμοὶ
δόξαν φέρει ταῦτα, τῇ δὲ πατρίδι καὶ ὠφελίαν.

내가 비난 받고 있는 그 일들이 나의 선조들과 내 자신에게는
명예를 가져오고, 조국에는 유익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6.16.1)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사회적인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업적들을 늘어 놓는다. 그는 우선 자신이 올림피아 제전에 참가해 활약한 사
실을 상기시킨다.²⁰⁹ 그는 7대의 전차를 출전시켜 1등, 2등, 4등을 차지했고,
그 승리에 걸맞는 다른 일들 역시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다른 헬라스인들로 하여금 아테네의 힘을 원래 이상으로 크게 생각하게 만

²⁰⁹ τῷ ἐμῷ διαπρεπεῖ τῆς Ὀλυμπιάζε θεωρίας: Jowett, Crawley, Warner 등은
‘θεωρία’를 폴리스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번역하
고 있다. 반면 Hornblower는 Budé판 번역에서 채택한 ‘참여(participation)’의 의미를
원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Hornblower, *Comm. III*, 342).

드는(ὑπὲρ δύναμιν μείζω ἡμῶν τὴν πόλιν ἐνόμισαν) 데 기여했다(6.16.2). 그는 또한 아테나이에서는 코로스의 비용을 대기도 했었다. 그는 이런 활약상이 자신이 “시민들에게 자연스레 시기를 받도록(τοῖς μὲν ἀστοῖς φθονεῖται φύσει)”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넌지시 자신에 대한 비난이 질서에서 비롯한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폴리스를 강하게 보이도록(αὕτη ἰσχὺς φαίνεται)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6.16.3). 이어 알키비아데스는 넌지시 다음의 한 마디를 덧붙인다. “이 어리석음은 쓸모없지 않습니다(καὶ οὐκ ἄχρηστος ἢ δ’ ἡ ἄνοια).” 이 “어리석음(ἄνοια)”은 6.11.1에서 니키아스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되받아치고 있는 것이다. “정복한다 해도 지배할 수 없고, 실패하면 공격하기 전보다 우리를 더 곤경에 빠뜨릴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ἀνόητον) 일입니다.” 니키아스는 원정을 바라는 자들이 현실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실체 없는 미래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가 보기에, 니키아스가 비난하는 어리석음이야말로 폴리스를 힘있게 보이게 만드는 여러 화려한 업적들, 즉 여러 제의 등에서의 공적 활동들이나 경기에서의 승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알키비아데스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부정의한 일이 아니라고(οὐδέ γε ἄδικον ἐφ’ ἑαυτῷ μέγα φρονοῦντα μὴ ἴσον εἶναι) 말한다. 그것은 마치 나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자산의 불행을 나누어 가지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운한 사람들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도 감수해야만 한다. 엄밀히 말해, 알키비아데스의 논리에는 명백한 결함이 있다. 그는 불행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그러한 비동등성이 정당하다는 당위적 명제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²¹⁰ 그렇다면 이러한 거의 궤변적인 주장으로 알키비아데스가 얻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²¹⁰ Macleod(1983), 74.

런 주장이 페리클레스가 장례식 추모 연설에서 강조했던 아테네 민주정의 이념, 즉 시민들의 법 앞에서의 평등(κατὰ μὲν τοὺς νόμους ..πᾶσι τὸ ἴσον, 2.37.1)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에게는 나름의 수사적 전략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선 그의 말은 과두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을 끌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에게는 민중이 강조하는 평등이 오히려 정당한 차별을 거스르는 부정의라는 주장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알키비아데스의 의도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 결국 질투심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을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었을 것이다. 알키비아데스의 말 속에는 은근히 보다 열등한 사람들이 보다 우월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동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야유섞인 암시가 깔려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또다시 기대한 동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월한 사람들을 질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암시가 깔려있다. 결국 알키비아데스의 노골적인 궤변 속에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정당한 논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질투심에서 비롯한 것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이 개인적인 일들로(ταῦτα τὰ ἴδια)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무(τὰ δημόσια)에도 탁월함을 보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예로 만티네이아 사건을 든다. 그는 자신이 대단히 큰 위험이나 비용 없이(ἄνευ μεγάλου ὕμιν κινδύνου καὶ δαπάνης) 펠로폰네소스의 강대국들을 결집시켜(Πελοποννήσου τὰ δυνατώτατα ξυστήσας) 라케다이몬인들과 만티네이아에서 ‘단 하루의(ἐς μίαν ἡμέραν) 전투’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6.16.6). 과연 그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 투퀴디데스는 이 사건을 5권에서 다루고 있다(5.58-60). 그에 따르면, 알키비아데스가 아르고스 엘리스, 만티네이아 등의 펠로폰네소스의 강대국들과 아테네가 동맹을 맺도록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단지 ‘말로’ 그들을 속여서 그런 동맹을 결성할 수 있었을 뿐이다. 실제 이 만티네이아에서의 전투 결과는 알키비

아테스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이 났으니, 사실상 이를 알키비아데스의 업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위험부담도, 비용도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떠한 동맹체제도 힘의 유동성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알키비아데스의 말에는 상당 정도의 과장과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¹¹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공적을 근거로 니키아스가 자신에게 가한 비판의 한 측면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Καὶ ταῦτα ἡ ἐμὴ νεότης καὶ ἄνοια παρὰ φύσιν δοκοῦσα εἶναι ἐς τὴν Πελοποννησίων δύναμιν λόγοις τε πρέπουσιν ὠμίλησε καὶ ὀργῇ πίστιν παρασχομένη ἔπεισεν. καὶ νῦν μὴ πεφόβησθε αὐτήν, ἀλλ' ἔως ἐγὼ τε ἔτι ἀκμάζω μετ' αὐτῆς καὶ ὁ Νικίας εὐτυχῆς δοκεῖ εἶναι, ἀποχρήσασθε τῇ ἐκατέρου ἡμῶν ὠφελίᾳ.

이 일들도 저의 젊음과 과도하다고 여겨진 어리석음이 펠로폰네스인들의 힘을 적절한 말들로써 다룬 것이고, 그들의 충동에 믿음을 주어 설득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두려워 마시고, 제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절정인 동안,²¹² 그리고 니키아스가 운이 좋은 자로 여겨지는 한, 우리들 각각의 이로움을 활용하십시오. (6.17.1)

²¹¹ 알키비아데스가 언급하고 있는 만티네이아 사건에 대해 투퀴디데스는 스파르타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라케다이몬인들이 승리하고, 비겁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5.75) 반면 알키비아데스는 여기서 자신이 강대국들의 힘을 규합해 ‘단 하루에(ἐς μίαν ἡμέραν)’ 라케다이몬인들이 모든 것을 걸도록 만들었다고 말함으로써, 강조점을 라케다이몬인들의 행동에서 알키비아데스 자신으로 옮겨버린다.

²¹² “그것을(αὐτήν) 두려워 마시고, 제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μετ' αὐτῆς) 절정인 동안...” 이 두 개의 대명사는 젊음과 어리석음 둘 다를 받을 수 있다. 투퀴디데스의 애매성은 거의 의도적으로 보인다. 이 애매성을 통해 알키비아데스의 젊음과 어리석음은 불가분의 것으로 느껴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은 니키아스가 비난했던 자신의 젊음과 어리석음(ἄνοια)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앞서 니키아스는 알키비아데스의 젊음에 수반하는 욕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비되는 선견지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6.13.1) 알키비아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ἄνοια는 니키아스가 이야기했던 προνοία를 염두에 두면서 그것과 의식적으로 대조되고 있다. 니키아스에게 알키비아데스의 젊음과 그것에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ἄνοια는 미래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위험요소이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업적이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치게 가능한 모든 위험성을 고려하고 몸을 사리는 것이 해로울 수 있고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은 젊은이답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과감히 일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이 말들로 펠로폰네소스인들의 힘을 잘 다루어냈다고 말한다. 아닌게 아니라, 니키아스가 약점으로 지적했던 바로 그 점을 정확히 뒤집어 강점으로 만드는 그의 수사적 역량은,²¹³ 그가 자부하고 있는 대로, 그가 말을 다루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이러한 강점을 비판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한다. 이 장점은 운이 따르는 인물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니키아스의 장점과 결합해 일종의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²¹⁴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은 문장의 스타일

²¹³ 여기서 사용된 수사적 기법은 후대에 따르면 in utramque partem dicere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²¹⁴ 행운(εὐτυχής)은 대개 신의 호의로 여겨졌고,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가 행운의 사나이인 것처럼 여러 차례 언급한다(5.16.1, 7.77.2.). 지금까지 그의 이루어 온 것들 역시 대개는 순조로웠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면 행운이 니키아스의 특성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εὐ-τυχής도 τυχή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연적인 것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의 인용 구절에서도 'ὥς가 앞에 붙음으로써, 행운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는 시켈리아 원정 서사를 통해, 이후 더는 행운이 찾아오지

이다. 6.17.1의 마지막 두 문장과 그리고 6.17.2의 첫 문장(“*καὶ τὸν ἐς τὴν Σικελίαν πλοῦν μὴ μεταγινώσκετε...*”)은 모두 접속사 ‘καί’로 시작한다. “이런 일들도 저의 젊음과(*καὶ ταῦτα ἢ ἐμὴ νεότης*)...지금도 두려워 마시고(*καὶ νῦν μὴ πεφόβησθε*)...시켈리아의 원정에 관해서도(*καὶ τὸν ἐς τὴν Σικελίαν πλοῦν*)...” 즉 이 부분에서 투퀴디데스는 알키비아데스의 연이은 세 문장을 병렬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²¹⁵ ‘καί’가 연속적으로 세 번 이어지는 병렬배치(parataxis)²¹⁶는 사실 그리스 산문에서 매우 희귀한 것이다.²¹⁷ 이런 문체를 의식적으로 사용한 데에는 분명 투퀴디데스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체는 젊고 걱정적이고 자신만만한 알키비아데스의 성격 자체를 잘 반영하는 장치인 것이다. 알키비아데스는 결코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며, 그의 생각의 진행은 항상 신속하고 박력에 넘친다. 그 결과 독자들은 그의 말을 따라가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와 더불어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분명 투퀴디데스가 특정한 문체로 알키비아데스의 말을 기록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점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않게 되는, 운이 다해버린 니키아스를 보며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Hornblower, *Comm. III.*, 348, Macleod(1983), 77)

²¹⁵ 그리고 이 세 문장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²¹⁶ 그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수사기법인 *πολυσύνδετον*은 감정의 고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²¹⁷ Tompkins에 따르면, 세 개 이상의 연속된 *kai*의 사용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외에는 *Andocides*, *Myst.* 15, *Antiphon*, *Herod.* 23, *Platon*, *Charm.* 153b-c 에서만 찾아진다. 그는 고대 문헌들에서의 연속적 *kai*의 용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알키비아데스의 *kai*가 가진 특이성에 주목한다. 연속적인 *kai*의 가장 일반적인 용례는 *kai...kai...* (A와 B 모두)이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의 경우는 그가 사용한 *kai*의 대부분은, 이런 용례가 아닌, ‘또한’ ‘심지어’ 등의 의미로 쓰이고, 바로 앞의 문장을 설명해주거나, 생각의 흐름을 끊거나 변경하지 않고, 덧붙이고 강화한다. 그리고 이런 *kai*는 명확함과 단순함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Tompkins(1972), 204-209).

이 점은 알키비아데스의 문체와 니키아스의 그것을 대조해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 니키아스의 연설은 종종 계속적으로 가지를 치는 종속절들, 빈번하게 등장하는 양보구문들로 인해 생각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체는 니키아스의 성격과 심적 상태를 적절히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한 문장, 그러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니키아스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검열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다소 자세하게 검토해 보았던, 니키아스 연설의 첫 몇 문장들 속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는 끊임없이 청자들의 반응들을 예상하며 그 예상된 반응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다음 문장을 이어나간다. 이것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그의 일반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켈리아 원정 지휘관이라는 내키지 않는 직책을 맡게 되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코 아테네 민중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서, 그 난관을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 보려 고심하고 있는 그의 복잡한 마음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니키아스의 문장을 구성한 것에는 단순히 그의 생각과 논리뿐만 아니라, 그것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의 심적상태와 성격까지 표현하려는 투퀴디데스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해 가해진 비판에 답한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시켈리아 원정 자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시켈리아가 아테네인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쉬운 대상이 아니라는 니키아스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 시켈리아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원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시켈리아의 상황 분석과 아테네 제국의 성격에 근거해 논증한다.²¹⁸ 알키비아데스는 시켈리아가 단일 종족이 아니고(*ὄχλοις τε γὰρ*

²¹⁸ 투퀴디데스는 시켈리아에 대한 정보를 이미 6권 서두에 (2-5)에서 다룬바 있다. 이 Sikelika 일반에 대해서는 Hornblower, *Comm. III*, 262-3; Avery, "Themes in Thucydides' Account of the Sicilian Expedition", *Hermes* 101 (1) (1973). 그는 특히 5권의 마지막 단어들인 아테네가 멜로스로 거주자들을 보냈다는 것으로 끝을 내고, 6

ξυμμείκτοις πολυανδροῦσιν αἱ πόλεις, 6.17.2), 인구 이동이 빈번하며(ῥαδίας
 ἔχουσι τῶν πολιτῶν τὰς μεταβολὰς καὶ ἐπιδοχάς, 6.17.2), 충분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끊임없는 분쟁(stasis) 가운
 데 있고, ‘듣는 즐거움’에 빠진 자들이어서(εἴ τι καθ’ ἡδονὴν λέγοιτο)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οὐκ εἰκὸς τὸν τοιοῦτον ὄμιλον οὔτε λόγου μιᾶ
 γνώμῃ ἀκροᾶσθαι οὔτε ἐς τὰ ἔργα κοινῶς τρέπεσθαι, 17.3). 알키비아데스가
 지적하고 있는 시켈리아인들의 단점들은 페리클레스가 추모 연설에서 칭송
 한 아테네 민주정의 장점들과 대비된다. 페리클레스는 추모 연설에서, 아테
 네가 언제나 단일 종족을 이루며 살았으며 (τὴν γὰρ χώραν οἱ αὐτοὶ αἰεὶ
 οἰκοῦντες διαδοχῇ 2.36) 그 안에서 여러 계층들이 그 능력에 따라 서로 조
 화를 이루며, 자유롭게(μέχρι τοῦδε ἐλευθέραν 2.36.2, ἐλευθέρως 2.37.2) 살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알키비아데스가 지적하고 있는 시켈리아의 약점들
 은 또한, 페리클레스가 첫 번째 민회 연설에서 펠로폰네소스인들에 대해 지
 적한 부분들과도 일치한다. 페리클레스에 따르면 “그들은 단일한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급박한 사건들을 즉시 해결할 수 없고(μήτε βουλευτηρίῳ ἐνὶ
 χρόμῃ παραχρῆμά τι ὀξέως ἐπιτελῶσι) 모두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부족이 서로 달라(οὐχ ὁμόφυλοι) 그들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
 기 때문에 대개 결론이 나지 않는다(ἐξ ὧν φιλεῖ μηδὲν ἐπιτελὲς
 γίγνεσθαι).”(1.141.6) 앞서 니키아스는 ‘원정을 떠난다면 본토의 적들에 더해
 새로운 적을 더하게 될 뿐’이라는 이유로 원정에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알
 키비아데스는 과거에 선조들이 본토에도 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
 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선
 조들이 그랬듯이 해군력의 우세를 앞세워 누구와도 맞서 싸울 수 있음을 강
 조한다. 해군에 대한 자신감 또한 페리클레스가 첫 번째 연설에서 강조한 바

권의 처음은 ‘시켈리아 식민화 과정’을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이, 아테네의 당시
 ‘colonizing power’를 염두에 두고 시켈리아 원정을 보도록 하려 했다는 것이다.
 Macleod는 5권의 Leontinoi의 최근 운명이 알키비아데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정당
 화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와 유사하다.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장기전이나 바다를 건너 남의 나라로 건너가서 벌이는 전쟁 경험이 없고... 바닷길이 봉쇄되어 있어 (...καὶ προσέτι καὶ θαλάσσης εἰργόμενοι),”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다(1.141.3-4).

통상 시켈리아에 대한 알키비아데스의 판단은 니키아스의 그것에 비해 부정확하고 왜곡된 것으로 간주된다. 알키비아데스가 시켈리아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니키아스의 분석은 시켈리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신중하고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²¹⁹ 사실 6.20.4에서 니키아스는 알키비아데스의 시켈리아 경제력에 대한 분석을 다시 반박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알키비아데스의 설득 전략을 관찰해 볼 때 두드러지는 점은 그가 의도적으로 페리클레스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 자신이 페리클레스를 계승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듯 보인다는 점이다.²²⁰ 이러한 의도가 특히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부터 다루게 될 아테네의 제국적 본성에 대한 그의 논의이다.

그는 우선 도움을 청한 모든 폴리스를 돕는 것이 제국 수립에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 제국을 우리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배하기 시작한 다른 모든 폴리스들이 그러하듯이, 비헬라스인이든 헬라스인이든 도움을 청하는

²¹⁹ 투퀴디데스는 연설 안에서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는 여러 연설들에서, 특히 대립논변의 경우,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시라쿠사 논전(6.33-41)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²²⁰ 알키비아데스는 페리클레스와 같은 주제들과, 유사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그 결과는 페리클레스가 의도한 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여기에도 상당한 아이러니가 들어 있다. 알키비아데스는 상대방(시켈리아)안의 분열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테네이고, 알키비아데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싸움에서 패하는 것은 시켈리아가 아닌 아테네이다. 알키비아데스는 표면적으로는 페리클레스를 계승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사실 페리클레스의 일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페리클레스의 방어적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신중함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Mackeod(1983), 80)

이들을 언제나 기꺼이 지원하면서 말이지요.”²²¹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 개념을 도입시킨다. “만일 모두가 가만히 있거나(ἡσυχάζοιεν) 도와야만 하는 이들에게 차별을 둔다면, 우리는 이 제국에 아주 작은 부분을 더할지는 몰라도, 보다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누구든 공격해오는 더 막강한 자들을 막아낼 뿐 아니라, 그들이 공격하지나 않을까 하여 선제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6.18.2).”²²² 가만히 있는 것은 제국의 획득과 유지와 상충한다. 왜냐하면 제국의 크기에 관해서는 한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καὶ οὐκ ἔστιν ἡμῖν ταμιεύεσθαι ἐς ὅσον βουλόμεθα ἄρχειν, ἀλλ' ἀνάγκη, ἐπειδὴ περ ἐν τῷδε καθέσταμεν, τοῖς μὲν ἐπιβουλεύειν, τοὺς δὲ μὴ ἀνιέναι, διὰ τὸ ἀρχθῆναι ἂν ὑφ' ἐτέρων αὐτοῖς κίνδυνον εἶναι, εἰ μὴ αὐτοὶ ἄλλων ἄρχοιμεν. καὶ οὐκ ἐκ τοῦ αὐτοῦ ἐπισκεπτέον ὑμῖν τοῖς ἄλλοις τὸ ἡσυχον, εἰ μὴ καὶ τὰ ἐπιτηδεύματα ἐς τὸ ὁμοῖον μεταλήψεσθε.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계까지 지배할 수 있을지 정확히 헤아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가 도달한 이 제국의 위치에 있는 한,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책략을 꾸미고, 다른 이들은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들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 의해 지배되는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가만히 있는

²²¹ 투퀴디데스는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아테네 제국화하는 과정을 50년 전간기사에서 설명했다. 여기서 그는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아줌으로써 아테네가 동맹국들로부터 헤게모니아(ἡγεμονία)를 넘겨받았고(παραλαβόντες) 동맹들이 이를 자발적으로(ἐκόντων) 했다고 밝히고 있다(1.96.1). 여기서 니키아스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에게스타인들을 돕기 위해 시켈리아로 항해해 가야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니키아스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폴리스를 돕는 것은 유익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한다. (6.13.2)

²²² 알키비아데스의 일반화와는 달리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 직전, 아테네의 커져가는 세력을 놓고 스파르타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 코린토스를 비롯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은 스파르타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태도를다른 이들과 같은 관점에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방식을 그들과 같은 것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6.18.2-3)

알키비아데스는 유익함, 즉 제국의 유지와 확장의 측면에서 이 원정이 필요함을 보이려고 한다. 에게스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만히 있는 일(ἡσυχάζειν)²²³이거나 대상을 차별하는 행동이 된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제국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알키비아데스는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태도를 ἡσυχία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 단어는 ἀπραγμοσύνη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그 반의어는 πολυπραγμοσύνη이다.²²⁴ 앞서 우리는 페리클레스가 국내 안에서 정치활동에 무관심한 자들의 태도를 가리킬 때 ἀπραγμοσύνη를 사용했음을 보았다.²²⁵ 이 단어는 폴리스간의 폴리스간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서로의 문제

²²³ ἡσυχάζοιμεν πάντες'은 텍스트 확정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본에서 ἡσυχάζοιμεν 을 취하고, 가장 최근 Alberti가 편집한 텍스트에서는 이것을 ἡσυχάζοιμεν 으로 고쳤다. Macleod는 이 구절을 교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ἡσυχάζοιμεν를 채택한다면, '가만히 있거나' '차별을 둔다면'의 주어인 πάντες를 다른 모든 제국들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교정 전의 lectio difficilior를 선택한다면, 알키비아데스의 의도가 더 부각될 수 있다.

²²⁴ πολυπραγμοσύνη 일반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Ehrenberg, "Polypragmosyne: A Study in Greek Politics", *Journal of Hellenic Studies* 67 (1947).

²²⁵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쓸모없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도 우리 아테네인뿐입니다. (μόνοι γὰρ τὸν τε μηδὲν τῶνδε μετέχοντα οὐκ ἀπράγμονα, ἀλλ' ἀχρεῖον νομίζομεν 2.40.1)", "혹 현재 상황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관심함이 인간적인 일이라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지배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ἤς οὐδ' ἐκστῆναι ἔτι ὑμῖν ἔστιν, εἴ τις καὶ τότε ἐν τῷ παρόντι δεδιὼς ἀπραγμοσύνη ἀνδραγαθίζεται 2.63.2)", "무관심한 자는 행동하는 자들과 함께 배치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배하는 폴리스에서는 쓸모가 없고, 지배를 받는 폴리스에서 안전하게 종노릇하는 데에나 쓸모가 있습니다(τὸ γὰρ ἀπραγμον οὐ σῶζεται μὴ μετὰ τοῦ δραστηρίου τεταγμένον, οὐδὲ ἐν ἀρχούσῃ πόλει ξυμφέρει, ἀλλ' ἐν ὑπηκόῳ, ἀσφαλῶς δουλεύειν. 2.63.3)", "이것들조차도 무관심한 사람은 흠을 잡겠지요. 하지만 우리처럼 무엇이라도 해 보려 하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 할 것이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시기할 것입니다(καίτοι ταῦτα ὁ

에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킨다. ‘ἡσυχία’도 상호관계적 맥락에서 사용될 때는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남의 일에 개입하고자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알키비아데스는 6.18에서 이 세 단어 및 같은 어원의 단어들을 7차례나 사용하고 있다.²²⁶ 앞서 페리클레스가 ‘ἀπραγμοσύνη’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알키비아데스는 ‘ἡσυχί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차이도 존재하는데, 페리클레스가 이 단어를 폴리스 내적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알키비아데스는 이것을 좀 더 확장된 맥락에서, 즉 아테네가 다른 폴리스들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라는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키비아데스가 말하고 있는 생활방식(ἐπιτηδεύματα)은 다름아닌 ‘πολυπραγμοσύνη’이다. 아테네의 선조들이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제국을 세우고 키워갈 수 있었다는 그의 말은 페리클레스의 여러 말들을 상기시킨다. 페리클레스는 추모 연설에서 아버지 세대들이 적들을 용감하게 막아냄으로써 위대한 폴리스를 만들어 냈고, 아테네 고유의 생활방식을 통해 (ἀπὸ ἐπιτηδεύσεως) 지금의 위대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2.36.4). 마지막 연설에서는 지금의 제국을 포기할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 제국을 획득하게 된 것이 정의롭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2.63.2). 이미 제국의 상태가 된 이상, 유기체와도 같은 아테네는 살아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확장해 가야 한다. 폴리스 안에서만 활동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이제는 넘어서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ἡσυχία, ἡσυχον)은 아테네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아테네인들이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생활 태도를 바꾼다면, 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알키비아데스의 생각은 페리클레스가 생각하고 있는 아테네와 아테네의 생활방식으로서의 ‘πολυπραγμοσύνη’, 그리고 클레온-디오도토스 논전에

μὲν ἀπράγμων μέμψαιτ' ἄν, ὁ δὲ δρᾶν τι καὶ αὐτὸς βουλόμενος ζηλώσει: εἰ δέ τις μὴ κέκτηται, φθονήσει. 2.64.4).”

²²⁶ 18.2 ἡσυχάζοιμεν; 18.3 τὸ ἡσυχον; 18.4 ἡσυχίαν; 18.6 ἀπραγμοσύνη, ἡσυχάζη; 18.7 ἀπράγμονα, ἀπραγμοσύνης.

서 다뤄진 지배권의 개념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논전에서 다뤄진 것은, 일단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제국을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 이탈폴리스들을 더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아테네의 제국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3.12.3, 3.37.2).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단지 제국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아테네는 끊임없이 그것을 확장해야만 한다.

알키비아데스의 이 제국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리클레스 연설에 나타나는 여러 단어들과 개념들을 가져오고 있으나, 사실상, 페리클레스의 제국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제국적인 상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히 방어적인 정책을 취했고, 아테네 시민들이 본성상 갖고 있을 정복욕을 가능한 억제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알키비아데스는 노골적으로 제국 확장의 요구를 부추기고 있으며, 제국의 확장을 제국 유지의 필요조건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지배력의 크기의 문제에 관해서도 알키비아데스의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는 페리클레스의 그것과 일치하는 듯 보인다.²²⁷ 페리클레스에게 아테네의 힘의 근원은 ‘바다의 지배’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함대였다. 그는 아테네인들의 영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닌, ‘바다’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바다는 이미 그들의 손 안에 있음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확신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2.62.2). 그러나 동시에 페리클레스는 전쟁 중에 제국을 확장하려는 희망이나, 자초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1.143.5). 반면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 제국의 한계를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며, 이미 아테네는 필연(ἀνάγκη)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제국

²²⁷ Cf. 6.62.1 “우리가 보유한 그 지배력의 크기에 대해서는(μεγέθους περί)... 여러분은 이미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원한다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τοῦ ἐτέρου ὑμᾶς παντὸς κυριωτάτους ὄντας, ἐφ’ ὅσον τε νῦν νέμεσθε καὶ ἦν ἐπὶ πλέον βουλευθῆτε).”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필연(ἀνάγκη)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²⁸ 이 지점이 알키비아데스가 페리클레스와 달라지는 곳이다. 페리클레스가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상황에 따른 제한은 알키비아데스에 이르면 이미 필연에 의해 끌려 가고 있기 때문에 멈춰질 수 없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δύναμις)을 보이고 확대하기 위해 자신들의 것들을(자신의 재산과 몸) 사용했다면, 필연적으로 이끌어지는 제국은 그 재산과 몸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과도한 탐욕(πλεονεξία)이 제국 확장의 목적 자체가 되어 버린다.

알키비아데스는 지금까지의 말을 요약하고 강조하면서 다시금 니키아스의 연설에서 두 개의 주제를 끌어온다. ‘ἀπραγμοσύνη와 젊은이들과 장년들 사이의 이간질(ἡ Νικίου τῶν λόγων ἀπραγμοσύνη καὶ διάστασις τοῖς νέοις ἐς τοὺς πρεσβυτέρους)’에 대한 니키아스의 말에 여러분들은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니키아스가 사용한 단어들을 가지고, 니키아스가 하지 않은 주장들을 그가 했노라고 주장하고 있다. 니키아스는 시켈리아 원정을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거나 혹은 다른 폴리스들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무모한 원정을 감행할 때가 아니며, 시켈리아보다는 아직 제압되지 않는 포테이다이아를 치러 가거나(6.10.5), 정복해서 예측할 수 있는 폴리스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6.11.1)” 또, 니키아스는 젊은이의 어리석음을 대신 노년의 선견지명을 선택할 것을 권하며 알키비아데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니키아스의 이 말을 ‘세대 간 불화를 조장한 것’처럼 의미를 바꾸어 버린다. 니키아스는 폴리스의 힘(군대)이 둘로 나뉠 것을 두려워했는데, 알키비아데스는 폴리스 자체가, 젊은층과 노년층이 서로 반복하며 쪼개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더 두려운 일이겠는가?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분(στάσις)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²²⁸ Ostwald, *Anankē in Thucydides*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38-42.

알키비아데스는 이 과정에서 니키아스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다른 전략을 취한다. ‘젊음-어리석음’과 ‘노년-선견지명’의 대립항에서, 그는 어리석음과 선견지명을 제거해 버리고, 이를 ‘젊음’과 ‘노년’의 대립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그 둘을 자신이 화해시키고자 한다.

ὥσπερ καὶ οἱ πατέρες ἡμῶν ἅμα νέοι γεραιτέροις βουλευόντες
ἐς τὰδε ἦσαν αὐτά, καὶ νῦν τῷ αὐτῷ τρόπῳ πειρᾶσθε
προαγαγεῖν τὴν πόλιν.

우리의 아버지들이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폴리스를 이끌려고 해야 합니다. (6.18.6)

이 구절은 페리클레스가 했던 다음의 말과 매우 유사하다.

οἱ γοῦν πατέρες ἡμῶν ὑποστάντες Μήδους καὶ οὐκ ἀπὸ
τοσῶνδε ὀρμώμενοι, ἀλλὰ καὶ τὰ ὑπάρχοντα ἐκλιπόντες,
γνώμη τε πλέονι ἢ τύχῃ καὶ τόλμῃ μείζονι ἢ δυνάμει τὸν τε
βάρβαρον ἀπέωσαντο καὶ ἐς τὰδε προήγαγον αὐτά.

우리 아버지들이 페르시아에 맞섰을 때, 그들은 우리가 가진 만 큼의 자원으로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 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 이 가지고 있던 것들도 버리고, 운보다는 지혜로, 힘보다는 용기 로 이방인들을 몰아냈고, 이 폴리스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 다. (1.144.4)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알키비아데스는 페리클레스가 했던 말에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함께 논의하면서’를 덧붙이면서 자신이 아테네의 전통과 이상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의도한 대로, 니키아스를 폴리스를 내분하는 자로 보도록 한다. 여기서 그가 ‘함께 전장에서 싸우면서’가 아닌 ‘함께 논의하면서’라고 덧붙인 것은, 알키비아데스 자신의 능력, 특히 이 연설 안에서 강조된 그의 능력이 ‘말로 협상’하

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더 부각된다. (6.16.6) 아테네를 지금의 이 위대함에 이르게 한 것은 젊음과 노년 어느 한 쪽이 아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세대 간 화합을 이야기하며, 과거와 현재를 다시 연결시킨다. 그가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것은 이미 6.17.1-2의 반복적인 *καὶ* 의 사용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다시 그는 *καὶ*를 반복한다. 과거에도 선조들이, 노인들과 젊은 이들이 함께 일을 해나갔듯이, 이제 그 젊은이들이 노인이 되었으니,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위대한 폴리스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젊은이들을 반대하는 이들 역시 젊은이들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암시와 함께, 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καὶ νομίσατε νεότητα μὲν καὶ γῆρας ἄνευ ἀλλήλων μηδὲν δύνασθαι, ὁμοῦ δὲ τό τε φαῦλον καὶ τὸ μέσον καὶ τὸ πᾶν ἀκριβὲς ἂν συγκραθὲν μάλιστ’ ἂν ἰσχύειν.

그리고 젊음도 노년도 서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부주의한 자와 평균적인 자와 그리고 대단히 엄격한 자가 완전히 섞여야 무엇보다 강력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6.18)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세대간의 화합에서 사회적 통합에 대한 강조로 넘어간다. 여기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τό φαῦλον, τὸ πᾶν ἀκριβὲς*)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이 단어들은 ‘부주의한- 대단히 엄격한’으로 번역한다면 이것은 바로 니키아스가 앞서 말한 젊음과 노년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그 중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고, 모든 것이 섞여야만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페리클레스의 ‘모든 것은 본성상 약해지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상기시킨다.²²⁹ 젊은이도 언젠가는 늙고, 노인의 선견지명도 언젠가는 빛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²²⁹ (Macleod(1983), 84-85) Cf. 2.64.3 페리클레스는 물론 이를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 안에서의 이 말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3장 71-74.

좋은 운 또한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노년의 선견지명만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젊음과 노년, 그리고 그 중간을 다 섞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 가능한 해석은, φαῦλον을 σπουδαῖος에 대비되는, 신분상 ‘비천한’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도 보는 것이다. 이것은 니키아스가 앞서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하다. 이 경우, 뜻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τὸ πάνυ ἀκριβές’ 라는 의도적으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 계층간의 화합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폴리스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한 몸의 여러 기질들이 섞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폴리스도 섞여 있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²³⁰

그는 마지막으로 잠자코 있는 것, 혹은 무관심함을 아테네의 본성에 반하는 태도로 비판한다.

καὶ τὴν πόλιν, ἔαν μὲν ἡσυχάζῃ, τρίψεσθαί τε αὐτὴν περὶ αὐτὴν ὥσπερ καὶ ἄλλο τι, καὶ πάντων τὴν ἐπιστήμην ἐγγηράσσεσθαι, ἀγωνιζομένην δὲ αἰεὶ προσλήψεσθαί τε τὴν ἐμπειρίαν καὶ τὸ ἀμύνεσθαι οὐ λόγῳ ἀλλ' ἔργῳ μᾶλλον ξύνηθες ἔξειν. παρὰπαν τε γινώσκω πόλιν μὴ ἀπράγμονα τάχιστ' ἂν μοι δοκεῖν ἀπραγμοσύνης μεταβολῇ διαφθαρῆναι, καὶ τῶν ἀνθρώπων ἀσφαλέστατα τούτους οἰκεῖν οἱ ἂν τοῖς παροῦσιν ἦθεσι καὶ νόμοις, ἦν καὶ χεῖρω ᾗ, ἥκιστα διαφόρως πολιτεύωσιν.

폴리스는 가만히 있게 되면,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소모되어버릴 것이며, 온갖 지식도 구닥다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는 폴리스는 경험을 더하게 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써 자신을 지키는데 습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대체로 제 생각으로는, 비활동적이지 않은 폴리스가 그 활동적이지 않게 바뀌면 급격히 몰락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18.7)

²³⁰ De Romilly, "Alcibiade et le mélange entre jeunes et vieux: politique et medicine", *Wiener Studien* 10 (1976).

아테네는 본성적으로 ‘활동적인 젊은’ 폴리스이다. 알키비아데스는 시종 일관 안전을 강조한 니키아스의 말에 반대한다. 하지만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대신 아테네의 정체성에 따라 원정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 안에 사는 시민들도 초연해서는 안되고 활동적이어야 하지만, 폴리스 자체도 활동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지, 그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와해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니키아스는 위험부담이 큰 모험은 안전하지 못하며,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치기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며, 그들의 사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자신의 연설을 전략을 세웠다면, 알키비아데스는 이에 대해, 사적인 목적조차도 폴리스에 유익했으며, 자신들이 모든 일에서 능하며, 그렇기에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젊음과 능력을 시기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깔면서, 당신들 역시 젊었던 적이 있었으며, 젊었을 때 노인들과 함께 힘을 합쳤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원정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투퀴디데스는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이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을 들은 민중은 전보다 훨씬 더 원정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고 말한다. 알키비아데스 연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데모스가 가지고 있던 제국 확장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투퀴디데스가 6권 서두에 밝힌 바대로, 아테네가 제국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은 민중의 정복에 대한 욕망의 확장과 같이 간다. 사실상 민중의 욕망이 제국에 대한 추진력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제국의 확장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허락해줄 것이었기 때문이다. 알키비아데스는 그의 연설을 통해 그 욕망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다. 그 욕망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그는 특히 페리클레스가 사용했던 개념들과 표현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그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것의 힘을 조절할 줄 알았던 페리클레스와 달리,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절제되지 않은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그것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테네 특유의 활동성을 제

국 확장의 욕구로 연결시키고 동시에 제국 확장을 제국 유지의 필요조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의 전략이다. 그의 전략은, 당장의 민회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시켈리아 원정의 참혹한 결과를 고려해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투퀴디데스의 기준에서는, 아테네 제국 몰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실패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니키아스의 두 번째 연설

니키아스는 자신의 연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연설을 한다. 그는 ‘앞서 한 것과 같은 말들로는 그들의 마음을 돌릴 가망이 없다고 보고, 준비의 크기와 관련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말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을 바꿀까 싶어’ 새로운 연설을 시도한다.²³¹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 민중 안에 내재되어 있던 제국에의 욕망에 불을 지폈다. “저는 당신들이 얼마나 완전히 원정을 가기를 열망하고 있는지(ὠρμημένους στρατεύειν) 볼 수 있습니다(6.20.1).” 여기서 니키아스는 투퀴디데스가 이미 두 차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후의 민중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²³² 투퀴디데스는 원정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상태를 비이성적인 마음의 상태(ὁρμή)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니키아스도 이들의 열망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아테네인들의 합리성에 근거해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더 ‘큰’ 상대로 만들어 그들의 비이성적인 상태

²³¹ Cf. Rhet. ad Alex. 1421 b24는 “이런 상황에서 연설가는 자신이 반대하는 행동이 정당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유익하지도, 명예롭지도, 즐겁게도, 실제적이지도 않는 것을 보여야 하고, 이 설득에 실패한다면, 그 일이 너무나 고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Connor(1984), 162-163, 166; Edmunds(1975), 130; Kallet(2001), 31.

²³² Cf. “그리고 아테네인들은 바로 이러한 곳으로 원정을 가기 바랐던 것이다(στρατεύειν ὠρμήντο)(6.6.1).”

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이 스스로 이 원정을 포기할 마음을 갖게 만들고자 한다. 이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말로 아테네인들의 신중함에 호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니키아스는 그들의 감성적인 측면에 호소한다. 그가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전보다 원정을 더 갈망하게 된 민중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니키아스는 첫 번째 연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신의 생각을 숨긴다. 그는 자신이 ‘이 원정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전부 이뤄지기를 바란다(ξυνενέγκοι μὲν ταῦτα ὡς βουλόμεθα)’ 말하며 현재 상황(ἐπὶ δὲ τῷ παρόντι)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겠다고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한다. 이미 열망에 찬 민중에 대한 두려움은 니키아스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대신에 사실을 왜곡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더 큰 것’으로 만들고,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전쟁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니키아스가 시켈리아 원정이 어려운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그는 여러 항목마다 그 크기를 강조한다. ‘대단히 큰(μεγάλας) 폴리스’(20.2) ‘하나의 섬(ὅν μιν νήσω)’이지만 많은(πολλὰς) 헬라스인들’(20.2), 많은(πολλοὶ) 중무장 보병들과 궁수와 투창병들, 많은(πολλοὶ) 삼단 노선... ὧν δὲ μάλιστα ἡμῶν προύχουσιν(20.4) 그가 중간에 제시하는 ‘다른 일곱 폴리스들이 있는데(ἄλλαι εἰσὶν ἑπτὰ)’ 등의 구체적인 수의 제시는, 청중들이 이 정보에 대해 보다 신빙성을 갖도록 만든다.²³³ 그리고 그는 적이 아테네인들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들은 이 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ὧν δὲ μάλιστα ἡμῶν προύχουσιν).’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을 볼 때, 그가 제시하고 있는 원정 대상, 즉 적진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 분석이라

²³³ 여기서 니키아스는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7이라는 수를 넣어줌으로써, 앞 뒤의 ‘많은’을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려 했을 것이다. Cf. 투퀴디데스의 숫자와 신빙성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Rubincam, "Casualty figures in the battle descriptions of Thucydide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991).

기 보다는 그 규모가 크고 상대하기 어렵다는 막연한 인상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⁴

이렇게 그들이 상대해야 할 시켈리아가 ‘보다 크고’ ‘보다 힘든’ 상대라는 것을 밝힌 후에, 그는 아테네의 준비와 관련한 또 다른 과장을 시도한다.

Πρὸς οὖν τοιαύτην δύναμιν οὐ ναυτικῆς καὶ φαύλου στρατιᾶς
μόνον δεῖ, ἀλλὰ καὶ πεζὸν πολὺν ξυμπλεῖν,

그러니 이러한 힘에 맞서서 함대와 적은 수의 군대만 필요한 것
이 아니라, 대규모 보병이 함께 파병되어야 합니다. (6.21.1)

니키아스는 바로 문장의 맨 앞에 ‘이러한 힘(τοιαύτην δύναμιν)’, ‘함대(οὐ ναυτικῆς)’를 언급하고 있다. 이 두 단어가 부정어(οὐ)로 연결됨으로 인해 아테네인들은 큰 불편함을 마음에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아테네의 힘과 함대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고, 앞선 연설들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던 주제였다. 그러나 니키아스는 여기서 그들이 자랑하던 함대가 그들의 힘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힘 앞에서 무력할 것이라는 말로 아테네인들에게 충격을 준다.²³⁵ 그는 대규모 보병이 필요하

²³⁴ 투퀴디데스는 6.31. 에서 기원전 430년 경의 원정대와 기원전 415년 시켈리아 원정대의 규모를 비교하면서 훨씬 구체적인 수를 제시한다. 그는 기원전 430년의 원정대가, “아테네인 중무장보병 4천명, 기병 3백명, 삼단노선 1백척, 레스보스와 키오스에서 온 함선 50척과 많은 동맹군”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²³⁵ 니키아스가 이 문장에서 강조하면서 아테네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ἀλλὰ 뒤에 나오는 내용, 즉 상대의 기병대에 맞설 대규모 보병과 보강이다. 니키아스가 이 근거는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아테네군은 이후 시켈리아의 기병대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패하지 않은 수많은 쉬라쿠사이 기병대가 사이에 끼어들어, 이들(아테네인들)의 중무장 보병들이... 추격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οἱ γὰρ ἱππῆς τῶν Συρακοσίων πολλοὶ ὄντες καὶ ἀήσθητοι εἴργον, καὶ ἐσβαλόντες ἐς τοὺς ὀπλίτας αὐτῶν... ἀνέστελλον)”(6.70.3) Hornblower는 니키아스의 여러 예언들 중에, 이것만큼은 정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상대의 기병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왜 여기서 이에 맞설 충분한 기병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 이 연설에 조금 후에 나오는 쉬라쿠사이 회의에서 아테나고라스는 아테

다고 밝힌 후, 연속적인 두 개의 가정절을 덧붙인다. 이 문장 안에서 그는 무려 여덟 개의 동사를 다양한 형태와, 법, 인칭으로 사용하면서,²³⁶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덧붙인다. 일견 ‘원정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대비(αὐτόθεν δὲ παρασκευῇ ἀξιόχρεω ἐπιέναι)’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준비를 위해 생각해야 한다며 덧붙이는 말들은 그의 주저함을 잘 보여준다. 니키아스는 끊임없이 주어를 바꾸어가면서, ‘그들’과 ‘우리’를 사이의 간극을 키운다. 그리고 부정적인 가정을 나열함으로써 상대의 힘의 크기와 자신들의 불리함을 대조하면서, 청중들에게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 그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시도한다.

니키아스의 연설은 문법적으로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후 제시하는 구체적인 항목들 또한 구체적이다 못해 산만하다. 그는 큰 원정대를 꾸미야 한다고 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의 구성요소들인 보병, 기병, 궁수, 사단노선 등을 일일이 열거할 뿐 아니라, 가지고 가야 할 식량까지 언급한다.²³⁷ 여기서도 계속해서 ‘많은, 특히나, 가능한 한 많이(πολλούς, μάλιστα, ὡς πλεῖστα)’ 등의 수식어가 여러차례 붙는 것은 물론이다.²³⁸

네인들이 충분한 기병을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치 니키아스의 연설을 들은 것처럼, 예측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들은 기병을 데리고 오지도 않을 것이고... (οἷς γ’ ἐπίσταμαι οὐθ’ ἵππους ἀκολουθήσοντας)(6.37.1).”

²³⁶ “만일 우리의 생각에 합당한 것을 행하기 바라고, (저들의) 많은 말들에 의해 그 땅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지 않으려면, 특히 폴리스들이 두려워서 힘을 함쳐 맞서고 에게스타인들 외에는 어떤 다른 폴리스들도 우군이 되어 저들의 기병을 (ῶ) 우리가 막아낼 기병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면.(εἴπερ βουλόμεθα ἄξιον τῆς διανοίας δρᾶν καὶ μὴ ὑπὸ ἱππέων πολλῶν εἴργεσθαι τῆς γῆς, ἄλλως τε καὶ εἰ ξυστώσιν αἱ πόλεις φοβηθεῖσαι καὶ μὴ ἀντιπαράσχωσιν ἡμῖν φίλοι τινὲς γενόμενοι ἄλλοι ἢ Ἐγεσταῖοι ᾧ ἀμυνούμεθα ἱππικόν).”

²³⁷ 민회 연설에서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논의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당시 이 연설을 들은 청중들조차 니키아스의 연설이 민회연설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Kallet(2001), 43, n.79)

²³⁸ 여기서 사용된 수사 기법은 일종의 synathroesmos(συναθροισμός)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lex. fig. θ': Συναθροισμός δέ ἐστιν συναγωγή τῶν πεπραγμένων ἢ πραχθῆναι δυναμένων εἰς ἓν κεφάλαιον,...)

니키아스는 이제 비로소 투퀴디데스가 6.6에서 이미 언급한 원정의 진짜 이유를 입 밖에 낸다. ‘여러분은 다른 종족들과 적대적인 이들 사이에 폴리스를 세우기 위해 가려고 하고 있다(οἰκιοῦντας ἰέναι)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는 이 원정은 첫날 상대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모두를 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한다. 그는 원정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치고 만다.

ὅπερ ἐγὼ φοβούμενος, καὶ εἰδὼς πολλὰ μὲν ἡμᾶς δέον εὖ
 βουλευσασθαι, ἔτι δὲ πλείω εὐτυχῆσαι (χαλεπὸν δὲ ἀνθρώπους
 ὄντας), ὅτι ἐλάχιστα τῇ τύχῃ παραδοὺς ἑμαυτὸν βούλομαι
 ἐκπλεῖν, παρασκευῇ δὲ ἀπὸ τῶν εἰκότων ἀσφαλῆς ἐκπλεῦσαι.
 ταῦτα γὰρ τῇ τε ξυμπάσῃ πόλει βεβαιότατα ἡγοῦμαι καὶ ἡμῖν
 τοῖς στρατευσομένοις σωτήρια. εἰ δέ τῳ ἄλλως δοκεῖ, παρήμι
 αὐτῷ τὴν ἀρχήν.

바로 이것을 제가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잘 논의하는 것, 그리고 그보다도 더 많은 행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 그건 우리가 인간인 이상 어려운 일이니- 저는 원정을 떠나는 데 있어 가능한 한 운에 제 자신을 맡기지 않고자 하며, 대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확실히** 준비해서 항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폴리스 전체와 우리 원정대원들에게 **가장 안전한 구원**이라 전 생각합니다.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지휘권을 넘기겠습니다. (6.24.3-4)

이제 아테네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논의(εὖ βουλευσασθαι)’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운(ἔτι δὲ πλείω εὐτυχῆσαι)’이다. 니키아스는 ‘행운’의 사람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도 그의 행운을 언급했었다(ἔως ... ὁ Νικίας εὐτυχῆς δοκεῖ εἶναι, 6.17.1). 이 말은 투퀴디데스가 5권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평화 협정 과정을 서술하면서 밝힌 니키아스의 생각과 거의 유사하다. 니키아스가 전쟁을 끝내는 데 앞장섰던 가장 큰 이유는, 폴리스와 민중의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더해 자신의 자신의 행운

(εὐτυχία)을 보전하고(διασώσασθαι τὴν εὐτυχίαν) 장래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것(τῷ μέλλοντι χρόνῳ καταλιπεῖν ὄνομα)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행운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운에 가급적 의존하지 않아야한다(ἐλάχιστα τύχῃ αὐτὸν παραδίδωσι).”(5.16.1) 그는 여기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준다. 자신의 행운을 보전하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는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맺고자 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는 원정을 막고자 한다.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안전하게 항해를 떠나는 것(παρασκευῇ δὲ ἀπὸ τῶν εἰκότων ἀσφαλῆς ἐκπλεῦσαι) 그것이 곧 폴리스의 구원(βεβαιότατα σωτήρια)이 될 것이다.

니키아스는 이렇게 말을 맺으며 청중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최대한 민중을 두렵게 한다면,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바, 곧 시켈리아 원정을 철회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안전하게라도 항해하도록(μάλιστα' <ἀν> οὕτως ἀσφαλῶς ἐκπλεῦσαι) 할 수 있을 것이다(6.24.1). 그러나 니키아스가 연설을 들은 아테네 민중은 니키아스의 의도와는 정 반대로 움직인다.

οἱ δὲ τὸ μὲν ἐπιθυμοῦν τοῦ πλοῦ οὐκ ἐξηρέθησαν ὑπὸ τοῦ ὀχλώδους τῆς παρασκευῆς, πολὺ δὲ μᾶλλον ὥρμηντο, καὶ τούναντίον περιέστη αὐτῷ· εὗ τε γὰρ παραινέσαι ἔδοξε καὶ ἀσφάλεια νῦν δὴ καὶ πολλὴ ἔσεσθαι.

그러나 그들은 곤란한 준비로 인해 항해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열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에게 반대 효과의 효과가 나타나버렸다. (6.24.2)

투퀴디데스는 여기서 앞의 연설들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몇 개의 단어를 다시 사용하면서 연설의 결과를 알려준다. 그들은 마음이 부풀어 올랐고(ἐπιθυμοῦν), 그것도 훨씬 더(πολὺ μᾶλλον) 큰 열망에 사로잡혔다(ὥρμηντο). 니키아스가 연설을 통해 건드리려고 했던 아테네 민중의 감정(θυμος)은 두려움이 아닌 욕망에 불을 지핀다. 특히 이 두번째 연설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로 한번 불이 지펴진 아테네 민중의 가슴에 기름을 부은 셈

이다. 투퀴디데스는 이런 아테네 민중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서술한다. “그리고 욕망(ἔρως)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똑같이 덮쳤다(ἐνέπενσε). 원정을 바라도록(6.24.2).”²³⁹

니키아스가 젊은이들의 열망으로부터 떼어놓고자 했던 연장자들의 마음 까지도 이제는 불이 옮겨 붙었다. 그들은 니키아스의 두 번째 연설을 들은 후, ‘항해해 가려는 곳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면 대규모 병력이 적어도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미 원정에 대한 열의에 사로잡혀 있던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나라들을 보고 듣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리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니키아스의 연설은 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 없이 이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불안감마저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ὥστε διὰ τὴν ἄγαν τῶν πλεόνων ἐπιθυμίαν, εἴ τω ἄρα καὶ μὴ ἥρεσκε, δεδιὼς μὴ ἀντιχειροτονῶν κακόνους δόξειεν εἶναι τῇ πόλει ἡσυχίαν ἦγεν.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나친 열망으로 인해, 심지어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반대표를 던졌을 경우 폴리스에 호의적이지 않은 자로 여겨질까 두려워 침묵했다. (6.24.2)

²³⁹ 투퀴디데스는 트로이아의 재난, 아가멤논의 죽음을 예고하는 클뤼타임네스트라의 말을 상기시키는 이 표현을 통해 시켈리아 원정이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것을 암시한다. Cf. Conford(1907), 214; 아이스퀼로스, 『아가멤논』, 341-4: “제발 그동안 물욕에 눈이 어두워진 군사들이/ 신성한 물건을 약탈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그들이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려면 / 간 거리만큼 되돌아와야 하니까요.

(ἔρως δὲ μή τις πρότερον ἐμπίπτη στρατῷ
πορθεῖν ἄ μὴ χρή, κέρδεσιν νικωμένους.
δεῖ γὰρ πρὸς οἴκους νοστήμου σωτηρίας
κάμψαι διαύλου θάτερον κῶλον πάλιν:)”

이 구절은 에우리피데스,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808; Isoc. 10.52 에서도 반복된다.

투퀴디데스는 이제 그 욕망이 과도한 욕망(ἄγαν ἐπιθυμία)이며, 그 과도한 범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었다고 말한다. 앞서 경고했던 대로 아테네는 과도한 욕망으로 인한 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제 원정에 대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다. 마지못해(ὁ Νικίας ἀκούσιος, 8.4), 그리고 아테네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장’해서 말을 했던 니키아스는 이제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아테네 원정대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만들 규모를 이끌어야만 한다. 투튀디데스는 다시 한번 니키아스의 마음과 말의 표리부동함을 보여준다. 그는 또다시 마지못해(ὁ δὲ ἄκων) 원정에 필요한 것들을 밝힌다.

투퀴디데스는 연설의 앞뒤로 유사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니키아스와 이 원정 준비 과정을 극화한다.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만큼 두 연설자의 성격이 대조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역사』에 없다. 투퀴디데스는 이 두 연설을 통해서 이 두 연설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반적인 정책의 대비도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아테네에 치명적인 재난을 가져온 시켈리아 원정의 위험을 경고하고 막으려 했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니키아스가 ‘현명한 조언자, 비극적 경고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여겼다.²⁴⁰ 그러나 니키아스의 연설은 현명하거나 적절한 조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니키아스의

²⁴⁰ 계속해서 원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니키아스는 카산드라와 같은 모습을 갖는다. 니키아스 자신도 아테네에 닥칠 불운을 알고 있고, 상황 밖에서 이들을 보고 있는 관객과도 같은 우리 독자들도 그 결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경고를 듣는 아테네인들만이 그 위험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Stahl(1973), 73; 다음의 연구들도 니키아스에서 ‘비극적 경고자’의 모습을 보았다: Hunter(1973), 131, 179; Marinatos, "Nicias as a Wise Advisor and Tragic Warner in Thucydides", *Philologus* 124 (1980) 반면, 니키아스에게 비극적 경고자로서의 모습과 현명하지 않은 조언들이 복합적이고 모호하게 섞여 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Connor(1984), 163; Kallet(2001), 31; Rutherford, "Structure and Meaning in Epic and Historiography", in Foster and Lateiner (eds.), *Thucydides and Herodotus* (2012)는 투퀴디데스에서의 ‘현명한 조언자들은’ 조언을 할 뿐 아니라, 조언과 관련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모티브를 이용한 다른 작가들과는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다. 그는 특히, 니키아스의 경우, 원정을 반대하는 조언을 하는 니키아스 자신이, 반대하고 있는 원정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Ibid, 29).

연설은 아테네인들이 시켈리아로 원정하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와 명성에 해가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대의 큰 이유였고, 안전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아테네인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셈이 되고야 말았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의 안전은 국가와 개인의 재산에 달려있다고 보았고, 아테네인들은 그의 말대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이 원정을 더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4. 시켈리아 원정과 니키아스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의 논전의 결과로 시켈리아 원정대 파병 결정은 철회되기는커녕, 원정규모만 애초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범위로 확대되었다. 투퀴디데스는 이 원정군의 출항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그려준다. 페이라이에우스 항에서 원정을 떠나기 위해, 그리고 이들을 환송하거나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사실상 ‘아테나이 전 주민(ὡς εἰπεῖν ὁ ἐν τῇ πόλει)’이었으며 그 광경은 ‘볼 가치가 있고(ἐπ’ ἀξιόχρεων) 믿기 어려울 정도(ἄπιστον)의 장관(θέα)’이었다.(6.31.1) 자신들의 힘(παροῦσα ῥώμη)과 그들 눈에 보이는 준비된 장비들과 규모의 크기(τὸ πλῆθος)를 보자 그들의 원정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고 다시 사기충천해졌다(τῇ ὄψει ἀνεθάρσουν). 원정군으로 가게 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끼리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더 빠르, 더 아름다운 장비들을 갖추기 위해 대단한 열의로(μεγάλῃ σπουδῇ) 경쟁했다(ἀμιλληθέν). 이 광경은 다른 헬라스인들에게는 전쟁과 관련한 준비라기 보다는 오히려 힘과 재물의 과시(ἐπίδειξιν ... τῆς δυνάμεως καὶ ἐξουσίας)로 비춰졌다.²⁴¹ 하지만, 이런 화려하고 희망과 흥분에 들뜬 원정군의 출항은 곧 비극적 반전(peripeteia)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곧 지

²⁴¹ 투퀴디데스는 시켈리아 장면 묘사에 ‘λεπτολογία’를 사용하고 있다.

금과는 정반대의 상황, 절망과 비탄으로 가득한 상황을 또 한번 독자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일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이후 시켈리아 원정 과정을 통해, 니키아스의 연설을 통해 드러난 그의 성격을 여러 사건들과 다른 몇 개의 연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²⁴² 이것은 시켈리아 원정의 출발부터 참패까지의 중요한 순간들에서 니키아스의 생각과 판단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투퀴디데스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의도, 의지와는 정반대로 대규모의 원정대를 이끌게 된 니키아스는 연설에서 보였던 안전 최우선주의를 실제 전략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가 상황을 파악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보여준다.²⁴³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아테네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었다(καὶ τῇ πόλει δαπανῶντας τὰ οἰκεῖα μὴ κινδυνεύειν 6.47). 그는 시켈리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자금을 재고해 보고, 에게스타와 쉘리누스 사이의 문제를 자신들끼리 해결하도록 ‘기다려보고’ 그런 후에, 아테네의 국력을 과시하고, 우방과 동맹국을 돕겠다는 결의를 보이다가, 귀로에 오르자”는 제안을 한다(6.47.1). 니키아스는 계속해서 이 원정이 무모한 것임을 계속 돌려 말하며, 이제라도 ‘자신의 비겁함 때문이 아니라’, ‘에게스타인들의 거짓말로 군자금을 속였으니, 우리의 비용을 허비하며 아테네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원정을 되돌려야

²⁴² 투퀴디데스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 니키아스의 연설들을 훨씬 많이 포함시켰다. 이 장에서 다른 두 개의 연설 외에도, 3개의 독전 연설(6.68; 7.61-64; 7.77)을 직접 화법(*oratio recta*)으로, 4개의 연설(6.25.2; 6.47; 7.48; 7.69.2)과 편지 하나(7.11-15)를 간접 화법(*oratio obliqua*)로 제시한다.

²⁴³ 일례로, 아테네 군이 시켈리아 도착하기 전 레기온에서 중간 집결했을 때, 원정을 요청했던 에게스타가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군자금이 사실상 거짓이었다는 소식을 선발대가 전해오고, 여기에 더해 레기온인들이 아테네 군과의 합류를 거절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상황을 예기치 못한 것(ἀλογώτερα)으로 여긴 다른 두 장군, 알키비아데스와 라마코스는 “즉시 용기를 잃었지만(εὐθὺς ἐν ἄθυμιά ᾗσαν),” 니키아스에는 이 소식을 ‘예상하고 있었다(προσδεχόμενος)’(6.46.2)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가 이 일을 예견했음을, 6.22.의 그의 연설을 통해 이미 밝혀주었다.

한다고 돌려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원정에 대한 열정에 불타오른 아테네 군에게 그의 조언이 설득력이 없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원정을 가장 강력하게 바란 알키비아데스가 헤르메스상 훼손 및 비의 사건으로 고발되어 소환된 상태에서, 라마코스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결정권이 니키아스에게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때야말로 그가 바라던 대로 원정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이다. 그가 여기서 단호하게 아테네로의 회항을 결정했다면, 아테네는 시켈리아에서의 치명적인 패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아테네인들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니키아스의 머뭇거림과 시간 끌기는 오히려 적군의 두려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쉬라쿠사이인들은 ...아테나이인들이 즉시 공격해오지 않자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생겼다. ... 아테네인들을 더욱 얹잡아보고는, 군중이 자신감이 생기면 흔히 그러듯, 아테네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오지 않으니 장군들더러 자기들을 카타네로 인도하라고 재촉했다(6.63.2).”

니키아스의 두 번째 중대한 실책은 실립포스가 알키비아데스의 조언을 받아 보낸 펠로폰네소스의 함선 19척을 차단하는데 실패한 일이다(7.2.1). 투퀴디데스는 이 함선들이 “빠르게(τάχους)” 지원을 위해 항해하고 있었으며, 그 중 코린토스 장군 공겔로스가 지휘한 함선 한 척이 “가장 마지막에 출발”했는데도, “한발 앞서” 도착해서²⁴⁴ 아테네와의 전쟁 종결을 논의 중이었던 쉬라쿠사이인들을 막았다고 밝히고 있다(7.2.1). 또한 스파르타 장군 켈립포스의 지휘 하에 파견된 펠로폰네소스 군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이동해, 그들이 이제 방벽을 다 쌓아 쉬라쿠사이를 봉쇄하기 직전

²⁴⁴ 투퀴디데스는 여기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성격이 뒤바뀌어 있는 것을 강조한다. Cf. 1권에서 코린토스의 한 사절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하면서, “아테네인들은 진취적이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하는 것을 실행하는 데 민첩”한 반면, 스파르타인들은 “보수적이고 창의력이 부족하며 행동함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아테네인들이 “능력 이상으로 저돌적이고, 상식 밖의 모험을 하며, 역경에 맞닥뜨려도 낙관적이며, 주춤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이기면 적을 되도록 멀리 추격하지만 지면 되도록 조금 물러난다”고 말한 바 있다(1.70.1-5).

‘갑자기(αἰφνιδίως)’ 에피폴라이에 도착했다. (7.2-3)²⁴⁵ 아테네는 이후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쉬라쿠사이를 봉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되려 자신들이 포위되고 만다. (7.2-6) 니키아스에게는 이 패배가 원정군을 철수시킬 또 한번의 기회였을 것이다. 그는 “본국 정부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원정군을 철수시키든 아니면 상당 규모의 증원부대를 파견하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생각”했다. (7.8) 니키아스가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과, 아테네 민중의 시켈리아 정복의 욕망에 반대하지 않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이중성은 니키아스가 증원부대를 요청하기 위해 아테네 민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아테네군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면서도 자신에게 가해질 비난을 의식한다.

τούτων ἐγὼ ἡδὶώ μὲν ἂν εἶχον ὑμῖν ἕτερα ἐπιστέλλειν, οὐ μέντοι χρησιμώτερά γε, εἰ δεῖ σαφῶς εἰδόμεναι τὰ ἐνθάδε βουλευσασθαι. καὶ ἅμα τὰς φύσεις ἐπιστάμενος ὑμῶν, βουλομένων μὲν τὰ ἥδιστα ἀκούειν, αἰτιωμένων δὲ ὕστερον, ἦν τι ὑμῖν ἀπ’ αὐτῶν μὴ ὁμοῖον ἐκβῆ, ἀσφαλέστερον ἡγησάμην τὸ ἀληθὲς δηλῶσαι. καὶ νῦν ὡς ἐφ’ ἃ μὲν ἦλθομεν τὸ πρῶτον καὶ τῶν στρατιωτῶν καὶ τῶν ἡγεμόνων ὑμῖν μὴ μεμπτῶν γεγεννημένων, οὕτω τὴν γνώμην ἔχετε.

나는 여러분에게 더 듣기 좋은 다른 보고를 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곳 상황을 정확히 알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그런 보고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가운 소식을 듣기 좋아하지만 나중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보

²⁴⁵ 투퀴디데스는 쉬라쿠사이에 아테네군이 방벽을 쌓고 있는 모습을 강조해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완성되어가던 바로 그 순간 궤립포스가 등장했다고 말하고 있다. “위험이 그토록 가까이에 와 있었다” 이런 장면 배치는 뮈틸레네 논전의 상황의 배경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투퀴디데스는 중간에 여러 상황들을 생략하고 사건을 재배치함으로써 각각의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 사이의 긴박한 상황을 부각시킨다. Cf. Romilly(1967), 21-106.

고자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군대에도, 장군들에게도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7.14.4-15.1)

니키아스의 편지 곳곳에는 그가 아테네 민중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원정대의 소환 아니면, 지원병과 함께 다른 지휘관을 보내주는 것이다. 니키아스는 자신의 지병을 언급하며 지휘권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다.²⁴⁶ 니키아스는 아테네인들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 하리라고 기대하면서, 원정을 결정하던 당시의 실수를 다시금 반복한다. 그 때에도 그는 원정을 내키지 않아 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인들의 심기를 거스를 것이 두려워 자신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스스로 유도한 셈이 되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여전히 원정과, 원정으로 인한 이득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아테네인들은 니키아스의 제안을 그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받아들였다. 아테네는 니키아스를 지휘관에서 해임시키지 않고 그를 도울 다른 지휘관들과 지원부대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의 이런 머뭇거림과 민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전략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합류한 새로운 지휘관 데모스테네스의 생각을 통해 전달해준다. “데모스테네스는 상황을 파악하고서, 시간의 여유도 없을뿐더러 자신은 니키아스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니키아스의 군대가 도착했을 때 적들은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니

²⁴⁶ “제가 건강할 때 여러 번 지휘권을 부여 받아 여러분을 훌륭히 섬겼으니, 여러분은 제 이러한 요청을 기꺼이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7.15.2).” 니키아스가 지휘권을 넘기고자 하는 대목은 『역사』에 총 세 번 등장한다. (펠로스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휘권을 클레온에게 넘기겠다고 주장한(4.28.1- 4.28.3) 연설과 원정이 시작되기 직전 연설(6.23.3)) 투퀴디데스는 이를 통해 아테네의 지도력의 상당한 약화와 위기를 암시해주고 있다.

키아스 시간만 끌고 있자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7.42.3).²⁴⁷

이후, 니키아스의 성격은 결국 철수를 시기를 놓쳐버리는 치명적인 실책으로 이어진다. 에피폴라이 전투에서의 참패로 인해 아테네 군의 사기가 저하되자 니키아스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원정대의 철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전에는 니키아스만이 원정을 반대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전투로 지치고 사기가 저하된 원정대원들은 물론이고 데모스테네스마저 “적어도 해군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동안 지체없이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47). 그러나 이번에도 니키아스는 주저하고 만다.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의 이런 태도의 변화에는 그의 상황에 대한 판단(철군하기로 공개적으로 결정할 경우, 그들이 적의 눈을 피해 철군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다)과 쉬라쿠사이 군의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근거에 깔려 있음을 알려준다(7.47.2, 7.49). 니키아스는 속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여전히 저울질하며 기다리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철군은 없으며”, “재가 없는 철군은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한다” (7.48.3) 투퀴디데스는 이런 니키아스의 태도가 ‘완고하다(ἰσχυρίζετο)(7.49.1)’고 밝힌다. 그는 아테네 군조차 니키아스가 다

²⁴⁷ 니키아스의 전략에 대한 평가는 데모스테네스를 통한 초점화(focalization)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니키아스에 대한 이 평가가 실제 누구의 평가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Hornblower, *Greek Histori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34, n. 138. Dover는 이 구절에서 사용된 주격(대)명사들과 주격 분사들이 투퀴디데스의 생각이라고 주장한다(Gomme et al, *HCT IV*, 419-421). 반면, Pelling은 이 구절인 단지 투퀴디데스의 견해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모스테네스의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Hornblower가 *Comm. III*. 622에서 주장하듯이, 이 구절은 데모스테네스의 판단에서 투퀴디데스의 평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이 구절만 보았을 때, 니키아스의 원정 후 첫 실책인, 카타네에서의 지연이 시켈리아 원정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만일 이것이 투퀴디데스의 견해였다고 한다면, 2.65. 11에서의 시켈리아 원정에서의 실수가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본국에 있는 자들이 파견된 군대를 제대로 지원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그 자신의 주장과는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을 데모스테네스를 통한 초점화로 파악한다면 그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른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완고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자(ἰσχυρίζεται, 7.49.4)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주저함과 머뭇거림(ῥκνος τις καὶ μέλλησις)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이후 보여지는 니키아스의 모습은 무척 모순적이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정보력을 믿는 한편, 아테네인들의 본성(φύσεις)에 대한 체험적 지식도 갖고 있다.²⁴⁸ 그는 아테네인들의 쉽게 변하는 마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두려워한다. 적진에서 적들과 싸우다 죽는 것보다 돌아가서 아테네인들에 의해 자신의 평판이 손상당할까봐 더 두려워한다. 민중의 시기를 거스를까봐 자신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그가, 이제는 민중을 비난을 두려워해서 완고한 모습을 보인다. 상황이 더 악화되자, 아테네 군은 진작 철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고(μετεμέλοντο) 그제서야 니키아스도 철수를 심하게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철수명령을 공개적으로 표결하지 않고, 비밀리에 철수를 지시한다(7.51). 하지만 출항하기로 한 날 월식이 일어나자 “예언이나 그와 같은 것들에 뭔가 지나치게 신경을 쓰던” 니키아스는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긴 아테네인들과 예언자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철수를 보류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철수 기회를 놓쳐 버린다. 니키아스는 이제 민중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신들의 뜻(이라고 여기는 바), 아테네의 본성, 그리고 민중의 요구에 이끌려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니키아스는 결국 모두를 사지로 몰아 넣는다. 그는 페리클레스의 말을 상기해야만 했다. “전쟁에서 적기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법입니다(τοῦ δὲ πολέμου οἱ καιροὶ οὐ μενετοί)(1.142.1).”

투퀴디데스는 시켈리아에서의 아테네인들이 맞게 될 가장 절망적인 순간들을 매우 정교하게 기술한다. 그는 쉬라쿠사이 대항구에서의 전투를 앞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니키아스가 행한 두 개의 독전 연설을 들려준다. 첫 번째 연설에서 그는 아테네 군을 독려하며 “전쟁이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τῶν ἐν τοῖς πολέμοις παραλόγων),” “우리들 편에 있을 수 있는 행운을 희망

²⁴⁸ Cf. “여러분들은 다루기 어려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χαλεπαὶ γὰρ αἱ ὑμέτεραι φύσεις ἄρξαι, 7.14.2),” “그는 아테네인들의 본성을 잘 아는 만큼(αὐτός γε ἐπιστάμενος τὰς Ἀθηναίων φύσεις, 7.48.4).”

하면서(τὸ τῆς τύχης κἂν μεθ' ἡμῶν ἐλπίσαντες)”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7.61.1). 그의 이 말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앞둔 아테네인들에게 행한 페리클레스의 첫 번째 연설과 어휘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에게 전쟁을 하면 그들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우리가 승리해 내리라는 희망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πολλὰ δὲ καὶ ἄλλα ἔχω ἐς ἐλπίδα τοῦ περιέσεσθαι 1.144.1).” 그리고 상황은 언제든 뒤바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의 상황은 인간의 생각만큼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예측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습관적으로 운을 탓하곤 합니다(δὲ ὅπερ καὶ τὴν τύχην, ὅσα ἂν παρὰ λόγον ξυμβῇ, εἰώθαμεν αἰτιᾶσθαι).”(1.140.1) 투키디데스는 의도적으로 이들의 말을 유사하게 만들면서 이 두 인물을 대조시킨다. 과연 니키아스 자신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니키아스 자신이야말로 가장 큰 절망과 비관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반면 니키아스가 운(τύχη)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²⁴⁹ 그들은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를 사용한다. “니키아스는 운을 그의 가장 큰 희망으로 삼았고, 페리클레스에게 운은 전쟁에서의 예측하기 힘든 위험”이다. 투키디데스는 니키아스가 “아직 패배를 당하지 않아 존경받는 동안 자신의 행운을 보전하고, ... 한 번도 국가에 실패를 안긴 적이 없는 인물로 알려지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위험을 피하고, 자신을 되도록 운에 적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서술했었다(5.16.1).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운에 자신을 맡길 수 밖에 없다.

²⁴⁹ 운(τύχη)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4권의 펠로스 사건이다. 여기서 이 운이 아테네를 승리로 이끌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투키디데스는 그것을 “상황이 완전히 바뀐”것이라 설명한다(4.12.3). 그리고 이렇게 뒤바뀐 사태는 바로 해전에서의 역할 전환으로 이어진다. “이번 해전에서는 양쪽의 통상적인 역할이 뒤바뀌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라케다이모인들은 ... 물에서 해전을 벌였고, 승승장구하는 아테네인들은 ...함선 위에서 지상전을 벌였다(4.14.3).”

그리고 그 운은 전적으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다.²⁵⁰ 니키아스가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군사들에게 전한 희망의 말은 전적으로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인 반면, 페리클레스의 승리에 대한 확신은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는, 논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¹ 페리클레스는 “운보다는 지혜로, 힘보다는 용기로(γνώμη τε πλέονι ἢ τύχη καὶ τόλμη μείζονι ἢ δυνάμει)” 선조들이 페르시아와 대적해 이겼고, 이제 아테네도 그렇게 적들을 막아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니키아스의 충고는 실제(ἔργον)가 없는 말로만 남아 있다.

투퀴디데스는 이 연설을 마친 니키아스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바로 이어 보여준다. “지금 상황에 충격을 받은니키아스는” 그렇게 연설을 마치고 나서도, 무언가 부족하다 여겨서, “그 밖에도 그는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인상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경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할 법한 것은 뭐든지 했다(7.69.2).” 투퀴디데스가 간접화법로 전하는 그의 연설은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추모연설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는 명성과 선조들의

²⁵⁰ 펠로스 전투에서 스파르타 사절은 아테네가 현재 누리고 있는 행운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희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onford는 이에 대해 “튀케라고 불리는 행위자가 개입하면 성공으로 인해 오만해진 자가 그 행운을 누릴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Conford(1907), 95). 오홍식은 펠로스의 이런 구절과 이에 대한 콘포드의 설명을 근거로 하여, 행운을 유지하려고 하는 니키아스의 태도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아테네가 시켈레아를 욕심내는 것이 튀케의 징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오홍식, 65, 80-84) 분명히 니키아스가 말하는 ‘튀케’는 오만함에 대한 경계와, 신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의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퀴디데스가 니키아스의 연속된 연설들과 원정 과정 속에서 그의 생각을 제시해주는 과정을 통해 볼 때, 니키아스의 태도는 단지 그의 신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명예심과 같은 이기적인 동기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투퀴디데스의 『역사』에서의 튀케에 관한 중요 구절들은 오홍식(1995), 『투퀴디데스의 터케(τυχη)관』,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²⁵¹ 오히려, 스파르타 장군 킬립포스의 독전연설이 페리클레스의 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들이 이길 근거를 과거의 실제 행동들에서 찾고 있다.

위업, 그리고 자유를 언급하며 군사들에게 용기를 낼 것을 호소한다. 페리클레스의 연설과 같은 어휘와 같은 주제를 말하고는 있지만, 니키아스에게 이 주제들은 이 상황에 어울릴 상투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인 그들의 조국을 상기시켰다(7.69.2).” 이 말이 지금의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자신들을 침입해 들어온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 모여 있거나, 아니면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추모연설에서처럼 아테네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자리에서 들은 말이었다면, 이 말은 아테네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명분 없는 전투, 그들에게는 더없이 불리한 이 싸움을 앞두고 듣게 되는 이 말들은 그저 공허함만 남길 뿐이다.

참혹한 전투와 퇴각 과정에서 아테네 원정대의 대부분은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니키아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쉬라쿠사이인들은 니키아스가 자신들과 접촉했던 사실을 밝힐 것을 두려워해서, 코린토스인들은 부유한 니키아스가 뇌물로 당국자들을 매수해 도주해서 자신들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칠 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처형한 것이다(7.86). 투퀴디데스는 그의 죽음을 서술한 후 바로 이어 니키아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내린다.

ἥκιστα δὴ ἄξιός ὢν τῶν γε ἐπ’ ἐμοῦ Ἑλλήνων ἐς τοῦτο
δυστυχίας ἀφικέσθαι διὰ τὴν πᾶσαν ἐς ἀρετὴν νενομισμένην
ἐπιτήδευσιν.

특히 그는 우리 시대 헬라스인들 가운데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자였다. 그가 평생토록 탁월함을 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7. 86.5)

이 구절은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원정 실패에 대해서는 니키아스가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투퀴디데스의 니키아스 평가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와, 특히 그가 말하고 있는 니키아스의 ‘ἀρετή’가 무엇인지는

특히 논란거리이다. 그린(P. Green)은 니키아스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과장된 평가가 아이러니하며, 니키아스의 잘못을 반어적으로 더 부각해 준다고 본다.²⁵² 에드먼즈(L. Edmunds)는 이 평가가 니키아스 자신의 기대의 관점에서 행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²⁵³ 반면 코너(W. R. Connor)는 이것을 투퀴디데스 자신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쉬라쿠사이에서의 비극을 정리하는 휴지(pause) 기능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²⁵⁴ 한편, ἀρετή에 관해서 앳킨스(A. W. Adkins)는²⁵⁵ 니키아스가 이 시켈리아 원정에서 보여주지 못한, 폴리스 안에서 다른 이들보다 낡다른 행동이나 기여를 하는 등의 미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루드(T. Rood)는 시켈리아 원정을 반대한 니키아스가 옳았으며, 이 평가를 통해 시켈리아에서의 그의 책임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²⁵⁶ 나는 투퀴디데스가 시켈리아 원정 자체를 잘못된 일이었다고 2.65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루드(T. Rood)의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투퀴디데스는 이 원정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지도자들과 데모스, 어쩌면 아테네 전체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의도했기 때문이다.²⁵⁷

5. 소결론

투퀴디데스는 원정 자체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보다는, 그 원정을 재심 의하기 위한 토론과정에서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가 민중을 어떤 연설로

²⁵² Green, *Armada from Athens* (London, 1970), 346.

²⁵³ Edmunds(1975), 142.

²⁵⁴ Connor(1984), 205.

²⁵⁵ Adkins, "The arete of Nicias",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16 (1975).

²⁵⁶ Rood(2004), 184.

²⁵⁷ 당시 아테네에서 니키아스에 대한 평가도 독자들이 투퀴디데스의 평가를 읽기 직전까지의 인상 및 평가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니키아스는 전쟁에서 활약했던 장군들이 묻히는 묘소에 묻히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gan(1981), 351-352.

설득하는지를 독자들이 살피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세 개의 연설 (니키아스-알키비아데스-니키아스)로 구성된 논전의 구조를 통해 두 연설자의 캐릭터와 수사적 전략의 대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들 각각이 아테네인들의 생각과 잠재된 욕망을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투퀴디데스는 연설들의 내용 못지 않게 그것들에 대한 아테네 민중의 반응을 비중 있게 묘사한다. 그는 이 논전을 통해, 아테네 민중의 마음의 흥분 상태를 보여주면서, 어떤 차분하고 이성적인 설득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아울러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를 통해 당대의 정치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보여준다. 이 두 인물은 각기 페리클레스의 한 측면만을 이어받고 있다. 니키아스는 페리클레스의 신중함을, 알키비아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설득력과 추진력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투퀴디데스는 이들의 연설이 페리클레스 연설의 여러 어휘와 아이디어들을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폴리스를 위해 최선인가보다는 무엇이 자신을 위해 최선인가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고, 그들에게는 아테네 민중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그것에 정면으로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투퀴디데스는 아테네의 민중의 비이성적인 상태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을 통해서 아테네의 정치적 리더십의 쇠퇴를 보여주며, 아테네의 파국이 피할 수 없는 귀결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설(λόγος)들 속에서의 리더십의 쇠락은 투퀴디데스가 특별히 공들여서 서술한 시켈리아 원정에서 현실(ἔργον)이 되어 나타난다. 원정 과정에서 투퀴디데스가 제시해주는 니키아스의 편지와 철수과정에서의 연설의 내용과 배치는 그가 얼마나 정교하게 니키아스의 말을 그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해 넣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니키아스의 말은 어떤 행동도 만들어낼 힘이 없다. 그리고 그의 말의 무력함은 결국 시켈리아에서의 파국을 가져온다.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는 모두 페리클레스와는 달리 말로 민중을 이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 욕망에 의해, 민중에 의해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

리는 이들의 논전을 통해서, 이후 원정 과정에 대한 서사를 통해 볼 수 있다. 아테네는 결국 머리 없는 폴리스(ἀκέφαλος πόλις)가 되어버린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연설문들은 궁극적으로 투퀴디데스가 바라 본 당시 아테네의 복합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기록해 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엄청난 격변(κίνησις αὕτη μεγίστη)(1.1.1)’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서술하면서, 그 과정에서 행해졌던 말(λόγος)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취사선택해, 그것을 재구성했다. 그 모든 과정, 즉 선택과 강조, 생략과 재배치 등은 투퀴디데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세 개의 연설들에서 전쟁 직전과 초기의 아테네 민주정의 이상향을 보여주었다. 페리클레스는 말(λόγος)로 현실(ἔργο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적절하게 아테네 민중을 이끌어가고, 그 한계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연설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정의 이상과 제국주의의 현실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모순이 존재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페리클레스 자신은 이 모순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테네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또한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긴장과 모순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은 채, 아테네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면서 데모스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갔다. 그가 거듭 강조하는 힘(δύναμις) 개념의 애매성은 이를 잘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추모 연설을 통해 아테네의 이상을 아테네인들 각자에게 심어주었으나, 그의 말의 힘은 역병이라는 운(τύχη) 앞에 힘을 잃어버렸다.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추모 연설과 역병 서사의 병렬 배치와 마지막 연설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짜 넣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페리클레스를 통해 제시된, 데모스가 받아들이는 아테네의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조화되었다가 분리되는지 보여주었다. 우리는 특히 역병 서사와 페리클레스의 마지막 연설의 비극적 어조를 통해, 역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페리클레스와

그의 죽음에서 예고된, 점차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아테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뮈틸레네 반란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논전을 살펴보았다. 투퀴디데스는 이들의 연설을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대칭을 이루는 말의 경연(λόγων ἀγώ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들의 말의 경연을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의 상호 관계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삼았다. 클레온은 페리클레스가 교묘하게 매우 신중하게 균형을 유지했던 민주정과 제국주의 사이의 긴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디오도토스는 아테네가 철저히 이해관계 중심의 현실정치를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제국의 논리는 아테네인들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이용한다. 이들은 또한 각기 페리클레스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기는 했지만, 페리클레스의 연설에서 볼 수 있었던 이상화된 아테네의 모습에는 점차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둘 사이의 팽팽한 논전 속에서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의 어두운 현실이 존재함을 투퀴디데스는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테네 민중은 토론을 통해 제대로 된 결론을 이끌어낼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제국 경영은 필연적으로 강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끊임 없이 제국에 반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이 논전을 통해 아테네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국에 대한 생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투퀴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대한 사건으로 꼽은 시켈리아 원정과 관련해서는, 원정 준비를 놓고 벌어진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세 개의 연설과 원정 과정 중 니키아스의 편지와 독전 연설을 살펴보았다. 앞의 뮈틸레네 논전이 논리의 합당함에 따라 구성된 대립논변이었다면, 시켈리아 원정과 관련해서는 투퀴디데스는 두 인물의 캐릭터에 초점을 맞춰 연설을 구성했다. 이 두 인물은 각기 페리클레스의 한 측면만을 이어받고 있다. 니키아스는 페리클레스의 신중함을, 알키비아데스는 페리클레

스의 설득력과 추진력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투퀴디데스는 이들의 연설이 페리클레스 연설의 여러 어휘와 아이디어들을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어휘 대응(verbal echoes)를 통해 투퀴디데스는 분명한 목적을 이룬다. 그것은 페리클레스와 대비되는 이 두 정치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들은 페리클레스의 성격의 일부를 가지고 있고, 또 그의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들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는 각기 자신의 사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였고, 투퀴디데스가 비판처럼, 페리클레스처럼 말로 대중을 이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점에서 정반대로 했으며 οἱ δὲ ταῦτά τε πάντα ἐς τὸναντίον ἔπραξαν(2.65.7)”)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 민중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 민중의 욕망에 불을 지핀다.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투퀴디데스가 보여주고 있는 알키비아데스의 이후의 행태는 그의 연설에서 드러난 캐릭터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니키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투퀴디데스가 캐릭터화하고 있는 니키아스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였다. 아테네 민회에서의 연설 이외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니키아스의 편지와 철수과정에서의 연설의 내용과 배치는 투퀴디데스가 얼마나 정교하게 그의 말을 그의 캐릭터에 맞게 재구성해 넣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니키아스는 말은 어떤 행동(ἔργα)도 만들어낼 힘이 없다. 그리고 그의 말의 무력함은, 결국 시켈리아에서의 파국을 가져오게 되었다. 투퀴디데스가 2.65에서 비판한 ‘정반대’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는 모두 말로 민중을 이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 욕망에 의해, 민중에 의해 끌려가고 만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과정에서 투퀴디데스가 각각의 사건들에서 연설들을 통해 보여주었던 아테네의 정치지도자들이 가졌던 이념과 한계, 그들과 민중이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민주정의 이념과 제국적 현실 간의 괴리와 충돌,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쇠퇴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투퀴디데스는 아테네의 이런 측면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 그리고 아테네에 대해 어떠한 것을 의도한 것일까? 그는 이 정치 지도자들 개인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한 것인가? 학자들은 투퀴디데스의 『역사』에서 그의 정치적 입장을 파악해 보려고 애써왔다. 많은 학자들은 투퀴디데스의 민주정과 민중에 대한 비판적인 묘사를 근거로 그가 민주정에 적대적이었다고 결론 내린다. 또 어떤 학자들은 페리클레스에 대한 칭송을 들어 그가 페리클레스와 아테네 민주정을 옹호하려 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투퀴디데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연설들을 통해, 그가 냉정하게 관찰한 아테네의 현실들, 예를 들어 말과 실제 간의 분열, 그리고 폴리스 내부의 분쟁(στάσις), 그리고 아테네 리더십의 쇠락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연설문들을 통해,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서사들을 통해, 당시 아테네의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진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랐다.

투퀴디데스에게는 시켈리아 원정에서의 참패와 아테네 민주정의 쇠퇴가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제국이 되어 굴러가기 시작한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시기까지는 그래도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커져가는 아테네 데모스의 탐욕(πλεονεξία)은 결국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아테네 민주정은 점차 몸체라 할 수 있는 민중만이 그 욕망으로 부풀어 오르고 머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머리 없는 몸과도 같은, 머리 없는 폴리스(ἀκέφαλος πόλις)가 되어버렸다. 투퀴디데스는 제국 확장에 대한 데모스의 끝없는 욕망을 사실상 인간 본성에서 온다고 파악했다.

다시 투퀴디데스는 말로 돌아가보자. 그는 『역사』의 서술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ὅσοι δὲ βουλήσονται τῶν τε γενομένων τὸ σαφὲς σκοπεῖν καὶ τῶν μελλόντων ποτὲ αὖθις κατὰ τὸ ἀνθρώπινον τοιούτων καὶ παραπλησίων ἔσσεσθαι, ὠφέλιμα κρίνειν αὐτὰ ἀρκούντως ἔξει.

κτῆμά τε ἐς αἰεὶ μᾶλλον ἢ ἀγώνισμα ἐς τὸ παραχρῆμα ἀκούειν
ξύγκειται.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인간 조건에 따라**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것들을 탐구하기를** 바라는 자는 누구나, 바로 이것을 충분히 유용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한번 듣고 말 경연 출품작이 아닌, **영원히 지속될 소유물로** 이 작품은 쓰여졌다. (1.22.4)

그는 자신의 작품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될 이유가 그것이 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인간 조건에(κατὰ τὸ ἀνθρώπινον) 따라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역사』 전반에 걸쳐 강조적으로 일들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 폴리스에서 일어났던 일은 다른 폴리스에서 다시 일어나고, 정복하는 자가 정복당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반복이 말해주는 ‘인간적인 것’, ‘인간 조건’은 무엇인가? 내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3권에서는 이와 유사한 말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καὶ ἐπέπεσε πολλὰ καὶ χαλεπὰ κατὰ στάσιν ταῖς πόλεσι,
γινόμενα μὲν καὶ αἰεὶ ἐσόμενα, ἕως ἄν ἡ αὐτὴ φύσις
ἀνθρώπων ᾗ, μᾶλλον δὲ καὶ ἡσυχαιτέρα καὶ τοῖς εἶδεσι
διηλλαγμένα, ὥς ἄν ἕκασται αἱ μεταβολαὶ τῶν ξυντυχίων
ἐφιστῶνται.

이런 내란으로 헬라스 폴리스들에게 많은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은 사람의 본성이 동일한 한, 더 가혹하든 좀 더 견딜만하든, 그리고 각각의 일들이 놓이는 변화들에 따라 양상의 차이가 있어도, 일어나는 일이 생기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3.82.2)

크고 작은 고통들은 인간의 본성이 변치 않는 한 차이는 있어도 반복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의 동일함’이다. 그러나 투퀴디데스가 말하는 이 ‘κατὰ τὸ ἀνθρώπινον’는 이게 다가 아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본

성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일어나는 외적인 것들, 그들이 겪는 고통이 포함된다. 투퀴디데스는 바로 이 점을 보이려고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말을 통해 파악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우연적인 일들, 지도자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보았다. 특히 인간의 본성과 우연적인 일들을 제어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에 그는 관심을 기울였다. 이 세가지 조건이 각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위기의 시간, 특히 전쟁 상황이다. 투퀴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중요 사건들마다 이 셋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페리클레스만큼은 말의 힘을 통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조차도 인간의 본성과 우연적인 일들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려 보인다. 그 자신이 역병에 희생된 것과, 그가 민중의 변덕에 여러 차례 곤혹을 겪은 데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간신히 잠시 유지했을 뿐이다. 이후의 지도자들은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다. 그들의 로고스는 데모스의 본성을,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감정들마저도 제어하지 못한다.

투퀴디데스는 자신이 목격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대 사건을 시인 우화나, 산문작가들이 다룬 주제나, 서술방식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아테네의 5세기의 모습을 정확하게(σαφές) 하게 후대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을 알도록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문학적인 요소들을 새로 생겨난 산문의 형식과 결합시켰다.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 참여자들의 동기와 감정,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겪은 고통들을 담아내고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아테네의 모습을 그려내 보이기 위해 그는 비극과 서사시의 문학적 요소들, 그리고 수사적 장치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예술적인 작품의 완성을 위해 이런 장치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자신이 사실들을 왜곡하거나, 없는 내용을 마음대로 지어내고 있다고는 분명코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투퀴디데스는 전쟁의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전쟁 중의 아테네와 개개

인의 모습과 변화들을 연설들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였다. 그는 냉정하게 아테네를 관찰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분석하고, 결정적인 사건사건들마다 연설문들을 삽입해 넣었다. 그리고 그 연설문들로 역사의 실제 행위자인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들을 돋을새김한다. 찬란하게 빛났던 아테네는 결국 패망하고 만다. 이것은 사건의 서술만을 가지고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투퀴디데스는 연설들을 통해 아테네가 본질상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였다. 아테네를 헬라스의 학교가 되게 만든 아테네의 힘이, 곧 아테네를 파멸로 몰고간다. 아테네의 참주적 지배력이 아테네를 당대 최강국으로 만들었으나, 바로 그 지배력의 본성이 아테네에 대한 아테네에 위험을 가져온다.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인 아테네 민중과 민회에서 의사결정과정인 아테네 민주정의 쇠락을 가져온다. 민중의 끝없이 팽창하는 욕망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는 비극적인 역사적 파국을 가져온다. 투퀴디데스는 연설이라는 매개를 통해 역사의 동력인 정치가와 민중의 상호 작용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연설문들과 그 맥락과의 관계가 가진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특징들은 일어난 사건들을 단지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역사성을 넘어 보다 보편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준다. 투퀴디데스는 이를 통해 아테네의 비극적 상황을 넘어서는, 언젠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비극의 역사를 그려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 『역사』는 온 인류에게 영원히 지속될 소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1차 문헌

Thucydides

Jones, H.S. ed. (1942), *Thucydidis Historiae*, 2vols., Oxford.

Alberti, I.B. ed. (1972-2000), *Thucydidis Historiae*, 3 vols., Rome.

Romilly, J. de ed.(1953-1972), *La guerre du Péloponnèse*, 8 vols. in 5 parts, Paris.

천병희 역(2011), 『역사』, 숲.

김현 외 역(2015), 『그리스의 위대한 연설』, 민음사.

Aeschylus

Page, D. ed. (1973), *Septem Quae Supersunt Tragoedias*, Oxford.

천병희 역(2008), 『아이스퀼로스 전집』, 숲.

Alexander Numenius,

Ahn, Jaewon(2004), *Alexandri de figuris sententiarum et verborum*, ed by Ahn Jaewon (Georg-August Universität).

Aristophanes

Geldar, W. et Hall F.W. eds (1922-1967), *Aristophanis Comoediae*,. 2vols, Oxford

천병희 역(2010), 『아리스토파네스 전집』, 전 2권, 숲.

Aristotle

Kassel, R. ed. (1922), *De Arte Poetica*, Oxford.

Ross, W.D. ed. (1957), *Politica*, Oxford.

Ross, W.D. ed. (1959), *Ars Rhetorica*, Oxford.

Kenyon, F.G. ed. (1920), *Atheniensium Respublica*, Oxford.

Hett, W.S. ed. and tr.(1937), *Problems; Books 22-38. Rhetorica ad Alexandrum* (Loeb 317), Cambridge, Mass.

Dionysius Halicarnassus,
Prickett, W. K. tr. (1972), *Dionysius of Halicarnassus: On Thucydid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Usener, H. ed. and tr. (1974-1985), *The Citical Essays*, Cambridge, Mass.

Euripides
Diggle, J. ed.(1967), *Euripidi Fabulae*, 3 vols. Oxford.
천병희 역(2009), 『에우리피데스 전집』, 전2권, 숲.

Herodotus
Hude, C.(1984), *Herodoti Historiae*, C. Hude, 2 vols., Oxford.
천병희 역(2009), 『헤로도토스의 역사』, 숲.

Homerus
Monro, D.B.(1920-22), *Homeri Opera*, 2 vols., Oxford.
천병희 역(1996), 『일리아스』, 단국대학교출판부.

Pindaros
Bowra, C.M.(1935), *Carmina cum Fragmentis*, Oxford.

Plato
Duke, E.A. et al. eds. *Platonis Opera*. 5 vols., Oxford.
박종현 역(2005), 『국가』, 서광사.
이정호 역(2008), 『메넥세노스』, EJB.

Plutarchos
Perrin, B.(1916), *Lives III*, Cambridge, Mass.

Aesopos
천병희 역(2013), 『이솝 우화』, 숲.

2. 주석 및 번역

- Cameron, H. D. (2003), *Thucydides Book 1: A Students' Grammatical Commentar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arolus Hude ed. (1973), *Scholia in Thucydidem ad optimos codices collate*, Lipsiae: Teubner (Arno press repr.)
- Classen, J., and Steup, J. (1892-1922), *Thukydidēs*, vols 6-7, (Berlin: Weidmann).
- Dover, K. J. (1965), *Thucydides: Book VI*, Clarendon Press.
- Dover, K. J. (1965), *Thucydides: Book VII*, Clarendon Press.
- Gomme, A. W., Andrewes, A., and Dover, K.J. (1945-1981), *A Historical Commentary on Thucydides*, 5 vols., Oxford Universtiy Press.
[=Gomme et al, HCT]
- Hornblower, S. (1991-2008), *Commentary on Thucydides*, 3 vols., Oxford University Press. [=Hornblower, Comm.]
- Hude, C. ed. (1973), *Scholia in Thucydidem ad Optimos Codices Collata*, Arno Press. Reprint of the 1927 ed. (Teubneriana)
- Rhodes, P. J.(1988), *Thucydides, History II*, Aris & Phillips.
- ____ (1994), *Thucydides, History III*, Aris & Philips.
- ____ (1994), *A Commentary on the Aristotelian Athenaion Politeia*, Oxford.
- Rusten, J. S.(1989), *Thucydides: The Peloponnesian War, B ook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ssler, R. B. (ed.) (1996), *The Landmark Thucycides.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eloponnesian War*, Simon & Schuster.

3. 2차 문헌

- 김경현 (2005), 「헤로도토스를 위한 변명」, 『한국수사학회 월례학술발표회』, 14-27.
- ____ (2006), 「서양고대의 역사서술과 수사학」, 『한국사학사학보』 13, 77-117.
- ____ (2006), 「그리스 역사(서술)의 기원」, 『서양고전학연구』 25, 29-58.

- 김경희 (2006),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넘어 이소노미아(isonomia)로: 아테네 민주정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혼합정의 이념에 대하여」, 『한국정치학회보』 40(5), 5-25.
- 김기영 (2009)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에 나타난 전쟁관」, 『서양고전학연구』 37, 77-103.
- 김봉철 (1987), 『데마고고스 클레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 (2011), 「역사학 고전 다시 읽기: 지중해세계 최초의 역사서, 헤로도토스의 『역사』」, 『서양사론』 109, 319-40.
- 김정수 (1987), 「페리클레스 민주정하의 회의에 대하여」, 『인문과학』 57, 191-206.
- 허승일 (2009),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대출판부.
- 문혜경 (2011),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평화협정의 의미: 니키아스 평화협정과 리더십」, 『서양사론』 108, 12-44.
- ____ (2014),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이상과 남용」, 『서양사연구』 51, 5-30.
- 박성우 (2007), 「플라톤의 『메네크세노스』와 아테네 제국의 정체성, 그리고 플라톤적 정치적 삶」, 『한국정치학회보』 41 (4), 115-37.
- ____ (2008),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투키디데스 읽기”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8 (3), 7-34.
- 손경호 (2009), 「펠로폰네소스 전쟁기 페리클레스 전략에 대한 고찰」, 『서양사학연구』 21, 1-26.
- 손병석 (2009), 「페리클레스를 통해 본 지도자론: 민주정의 지도자인가, 아니면 독재자인가?」, 『서양고전학연구』 35, 27-55.
- 신철희 (2013), 「민(demos)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demokreatia)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22(2), 203-226.
- 양병우 (1972), 「제국과 민주주의」, 『역사학보』 55, 1-35.
- ____ (1973), 『아테네 민주정치사』, 서울대학교.
- 오흥식 (1995), 「투키디데스의 티케(τυχη)관(觀)」, 『서양사론』, 46 (1), 125-79.

- ____ (1995), 『투키디데스의 티케((τυχη)관(觀)』, 박사학위 논문(성균관대학교).
- ____ (1997), 「투키디데스의 히브리스-네메시스의 역사관」, 『성대사림』, 12-13, 663-84.
- ____ (2010), 「고전 다시 읽기: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서양사론』, 107, 255-77.
- 장준호 (2006),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재구성」,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 (2), 75-108.
- 조신광 (1986), 「투키디데스의 사관에 관한 한 고찰」, 『인문논총』, 16, 33-45.
- ____ (1983), 「살루스트와 투키디데스의 比較」, 『전북사학』, 7, 225-49.
- ____ (1984), 「살루스트와 투키디데스의 比較(Ⅱ)」, 『전북사학』 8, 281-327.
- 최자영 (2010), 「전쟁의 원인과 국제관계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분석 -공정적 인간성과 평화의 지향에서 보이는 현대적 의미」, 『대구사학』, 101, 133-58.
- ____ (2012), 「페르시아 왕의 개인적 오만과 아테네의 패권주의」, 『서양고대사연구』, 30, 33-66.
- 최혜영 (1995), 「투키디데스와 폴리비오스의 역사관」, 『서양고전학연구』, 9, 55-99.
- ____ (2006), 「아테네 비극의 정치적 함의와 페르시아 전쟁」, 『서양고대사연구』, 18, 105-24.
- ____ (2008),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젠더와 아테네 제국주의」, 『외국문학연구』, 29, 431-48.
- ____ (2014), 「아테네 해상제국과 신들의 경쟁」, 『지중해지역연구』, 16 (4), 105-32.
- Adkins, A.W. (1976), (1975), "The Arete of Nicias",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16, 379-392.
- ____ "Polupragmosune and" Minding One's Own Business": A Study in Greek Social and Political Values", *Classical Philology* 71, 301-327.

- Allison, J.W. (1979), "Thucydides and Polypragmosyne", *American Journal of Ancient History* 4, 10-22.
- ____ (1983), "Pericles' Policy and the Plague",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32(1), 14-23.
- ____ (1989), *Power and Preparedness in Thucydid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Andrewes, A. (1960), "The Melian Dialogue and Perikles' Last Speech",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New Series) 6, 1-10.
- ____ (1962), "The Mytilene Debate: Thucydides 3.36-49", *Phoenix* 16(2), 64-85.
- ____ (1967), *The Greeks*, Hutchinson. (『고대 그리스사』, 김경현 역, 이론과 실천, 1999.)
- ____ (1988), *Orge and Gnome in the Mytilene Debat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Andrews, J.A. (2000), "Cleon's Hidden Appeals (Thucydides 3.37-40)", *Classical Quarterly* (New Series) 50 (1), 45-62.
- ____ (2004), "Pericles on the Athenian Constitu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25 (4), 539-61.
- ____ (2009), "Athenagoras, Stasis, and Factional Rhetoric (Thucydides 6.36-40)", *Classical Philology* 104 (1), 1-12.
- Arnold, P.E. (1992), "The Persuasive Style of Debates in Direct Speech in Thucydides", *Hermes* 120(1), 44-57.
- Avery, H.C. (1973), "Themes in Thucydides' Account of the Sicilian Expedition", *Hermes* 101 (1), 1-13.
- Azoulay, V. (2014), *Pericles of Athe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dian, E. (1993), *From Plataea to Potidaea: Studies in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the Pentecontaeti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akker, E.J. (1997), "Verbal Aspect and Mimetic Description in Thucydides", in E. J. Bakker (ed.) *Grammar as Interpretation: Greek Literature in Its Linguistic Contexts*, Brill.

- ____ (2007), "Time, Tense, and Thucydides", *Classical World* 100 (2), 113-122.
- Bakker, M.de. (2007), *Speeches and Authority in Herodotus' Histories*,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eit van Amsterdam).
- Balot, R. (2004), "Courage in the Democratic Polis", *Classical Quarterly (New Series)* 54 (2), 406-423.
- Bar-Hen, E. (1975), "Les Sens Divers Du Mot Dynamis Chez Thucydide", *Scripta Classica Israelica* 2, 73-82.
- Beasley, T.H.I. (2013), *Thucydides' Oblique Self-Definitions*, unpublished Ph.D. Thesis (Yale University).
- Bloedow, E.F. (1992), "Alcibiades 'Brilliant' or 'Intelligent'?", *Historia* 42 (2), 139-157.
- ____ (2000), "The Implications of a Major Contradiction in Pericles' Career", *Hermes* 128 (3), 295-309.
- Boedeker, D.D. and K.A. Raafaub (1998), *Democracy, Empire, and the Arts in Fifth-Century Athens*, Harvard Univ Press.
- Bosworth, A.B. (2000), "The Historical Context of Thucydides' Funeral Oration",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20, 1-16.
- Bradeen, D.W. (1960), "The Popularity of the Athenian Empire", *Historia* 9, 257-269.
- Brunt, P.A. (1952), "Thucydides and Alcibiades", *Revue des Etudes Grecques* 65, 52-96.
- Cogan, M. (1981), *The Human Thing: The Speeches and Principles of Thucydides'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 (1981), "Mytilene, Plataea, and Corcyra Ideology and Policy in Thucydides, Book Three", *Phoenix* 35(1), 1-21.
- Cohen, D. (1984), "Justice, Interest, and Political Deliberation in Thucydides", *Quaderni Urbinati di Cultura Classica* 16(1), 35-60.
- Cole, T. (1990), *The Origins of Rhetoric*, Ithaca.
- Conford, F.M. (1907), *Thucydides Mythistoricus*, E. Arnold.
- Connor, W.R. (1971), *The New Politicians of Fifth-Century Athe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 (1977), "A Post Modernist Thucydides?", *Classical Journal* 72(4), 289-298.
- ____ (1984), *Thucydid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oper, G.L., III. (1979), "Alcibiades' Criticism of Nicias at Thuc. 6.18.1",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09, 29-38.
- Crane, G. (1996), *The Blinded Eye: Thucydides and the New Written Word*, Rowman & Littlefield.
- ____ (1998), *Thucydides and the Ancient Simplicity: The Limits of Political Realism*, Univ of California Press.
- Debnar, P.A. (2000), "Diodotus' Paradox and Mytilene Debate (Thucydides 3.37-49)",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NF 143(2), 161-178.
- ____ (2001), *Speaking the Same Language: Speech and Audience in Thucydides' Spartan Debat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esmond, W. (2006), "Lessons of Fear: A Reading of Thucydides", *Classical Philology* 101 (4), 359-379.
- Dewald, C. (2006), *Thucydides' War Narrative: A Structural Study*, Univ of California Press.
- Dover, K.J. (1973), *Thucydides (Greece and Rome, New Surveys in the Classics, 7)*, Clarendon Press.
- ____ (1983), "Thucydides" as History" and "as Literature"", *History and theory*, 54-63.
- Edmunds, L. (1975), *Chance and Intelligence in Thucydides*, Cambridge.
- ____ (1975), "Thucydides' Ethics as Reflected in the Description of Stasis (3.82-83)",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79, 73-92.
- Edmunds, L. and R. Martin (1977), "Thucydides 2.65.8: Eleutheros",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81, 187-193.
- Egan, K. (1978), "Thucydides, Tragedian", *The Writing of History: Literary Form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63-92.
- Ehrenberg, V. (1947), "Polypragmosyne: A Study in Greek Politics", *Journal of Hellenic Studies* 67, 46-67.
- ____ (1954), *Sophocles and Pericles*, Basil Blackwell.
- Ellis, J. R. (1979). 'Characters in the Sicilian expedition'. *Q. S.* 10, 39-69.

- Else, G.F. (1954), "Some Implications of Pericles' Funeral Speech", *Classical Journal* 49 (4), 153-156.
- Finley, J.H. (1938), "Euripides and Thucydides",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49, 23-68.
- ____ (1939), "The Origins of Thucydides' Style",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50, 35-84.
- ____ (1940), *The Unity of Thucydides' History, in Three essays on Thucydides* (Harvard Univ Press).
- ____ (1942), *Thucydide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 (1967), *Three Essays on Thucydides*, Harvard Univ Press.
- Finley, M.I. (1962), "Athenian Demagogues", *Past and Present* 23, 3-24.
- ____ (1965), "Myth, Memory, and History", *History and theory* 4 (3), 281-302.
- ____ (1968), "Thucydides the Moralist", *Aspects of Antiquity: Discoveries and Controversies*, 44-57.
- ____ (1977), *Aspects of Antiquity: Discoveries and Controversies*, Viking Press.
- Flashar, H. (1969), *Der Epitaphios Des Perikles, Seine Funktion Im Geschichtswerk Des Thukydidies*, C. Winter.
- Forde, S. (1986), "Thucydides on the Causes of Athenian Imperia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2), 433-448.
- ____ (1989), *The Ambition to Rule: Alcibiades and the Politics of Imperialism in Thucydides*, Cornell Univ Press.
- Fornara, C.W. (1988), *The Nature of History in Ancient Greece and Rome*, Univ of California Press.
- Fornara, C.W. and L.J. Samons (1991), *Athens from Cleisthenes to Peric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orrest, W.G.G. (1966), *The Emergence of Greek Democracy: The Character of Greek Politics, 800-400 BC*, Weidenfeld & Nicolson. 윌리엄 포레스트, 『그리스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 김봉철 역 (한울아카데미, 2001).

- Foster, E. (2010), *Thucydides, Pericles, and Periclean Imperi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ster, E. and D. Lateiner (2012), *Thucydides and Herodotus*, Oxford University Press.
- Fritz, K.von (1967), *Die Griechische Geschichtsschreibung: Von Den Anfaengen Bis Thukydidess*, Walter de Gruyter.
- Garrity, T.F. (1998), "Thucydides 1.22. 1: Content and Form in the Speeche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19(3), 361-384.
- Gartner, T. (2004), "The 'mytilene Debate' in Thucydides Histories", *Gymnasium* 111 (3), 225-245.
- Genette, G. (1980), *Narrative Discourse: An Essay in Method*, Cornell University Press.
- Gillis, D. (1971), "The Revolt at Mytilen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92(1), 38-47.
- Gomme, A.W. (1937), *Essays in Greek History and Literature*: 156-189, Beaufort Books.
- ____ (1951), "Four Passages in Thucydides",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71, 70-80.
- Grant, J.R. (1971), "Thucydides 2.37.1", *Phoenix* 25, 104-107.
- Green, P. (1970), *Armada from Athens*, Doubleday.
- Greenwood, E. (2015), *Thucydides and the Shaping of History*, Bloomsbury Publishing.
- Grethlein, J. (2010), *Greeks and Their Past: Poetry, Oratory and History in the Fifth Century BCE*, Cambridge.
- Gribble, D. (1998), "Narrator Interventions in Thucydides",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18, 41-67.
- ____ (2012), "Alcibiades at the Olympics: Performance, Politics and Civic Ideology", *Classical Quarterly* 622 (1), 45-71.
- Hansen, M.H. (1987), "Nomos and Psephisma in Fourth-Century Athens",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19 (4), 315-330.
- ____ (2005), *An Inventory of Archaic and Classical Poleis*, Oxford.

- ____ (2008), "Thucydides' Description of Democracy(2.37.1) and the Eu-Convention of 2003",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48, 15-26.
- Hanson, V.D., (2005), *A War Like No Other*, Random House.
- Harding, H.F. (1973), *The Speeches of Thucydides*, Coronado Press.
- Harris, E.M. (1992), "Pericles' Praise of Athenian Democracy Thucydides 2.37. 1",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94, 157-167.
- ____ (2013), "How to Address the Athenian Assembly: Rhetoric and Political Tactics in the Debate About Mytilene (Thuc. 3.37-50)", *Classical Quarterly (New Series)* 63 (1), 94-109.
- Heath, M. (1990), "Justice in Thucydides' Athenian Speeches",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39(4), 385-400.
- Hornblower, S. (1987), *Thucydides*, London.
- ____ (1995), "The Fourth-Century and Hellenistic Reception of Thucydides",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15, 47-68.
- ____ (1996), *Greek Histori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 (2004), *Thucydides and Pindar: Historical Narrative and the World of Epinikian Poetry*,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 (2006), *Herodotus' Influence in Antiqu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 (2010), *Thucydidean Theme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 (2011), *The Greek World 479-323 BC*, Routledge.
- Hudson-Williams, H.L. (1948), "Thucydides, Isocrates, and the Rhetorical Method of Composition", *Classical Quarterly* 42 (3/4), 76-81.
- Hunter, V. (1973), *Thucydides: The Artful Reporter*, Hakkart.
- ____ (1977), "The Composition of Thucydides' History": A New Answer to the Problem",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26(3), 269-294.
- ____ (1980), "Thucydides and the Uses of the Past", *Klio-Beiträge zur Alten Geschichte* 62, 191-218.
- ____ (1982), *Past and Precess in Herodotus and Thucydid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mmerwahr, H.R. (1966), *Form and Thought in Herodotus*, Scholars Press.

- ____ (1973), "Pathology of Power and the Speeches of Thucydides", in P. A. Stadter(ed.) *The Speeches in Thucydide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Jebb, R.C. (1973), "The Speeches of Thucydides", in H. F. Harding (ed.) *The Speeches of Thucydides*, Coronado Press, 323-309.
- Jong, I.J.F.d. (2004), "Herodotus", in I. J. F. D. Jong, R. Nünlist and A. M. Bowie (eds.) *Narrators, Narratees, and Narratives in Ancient Greek Literature: Studies in Ancient Greek Narrative, Vol. i*, Brill, 101-110.
- Kagan, D. (1960), "Corinthian Diplomacy after the Peace of Nicia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81(3), 291-310.
- ____ (1969), *The Outbreak of the Peloponnesian War*,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 (1974), *The Archidamian War*,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 (1975), "The Speeches in Thucydides and the Mytilene Debate", *Yale Classical Studies* 24, 71-94.
- ____ (1981), *The Peace of Nicias and the Sicilian Exped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 (1991), *The Fall of the Athenian Empire*,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 (1998), *Pericles of Athens and the Birth of Democracy*, Simon and Schuster.
- ____ (2009), *Thucydides: The Reinvention of History*, Viking Press.
(『투퀴디데스, 역사를 다시 쓰다』, 박재욱 역, 휴머니스트, 2013)
- Kagan, D. and B. Wallace (2003), *The Peloponnesian War*, Viking.
- Kallet, L. (1993), *Money, Expense, and Naval Power in Thucydides' History 1-5.24*, Univ of California Press.
- ____ (2001), *Money and the Corrosion of Power in Thucydides: The Sicilian Expedition and Its Aftermath*, Univ of California Press.
- Kennedy, G. (1959), "Focusing of Arguments in Greek Deliberative Oratory",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90, 131-138.
- ____ (1963), *The Art of Persuasion in Gree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nyan, G. C.(1941), *Antithesis in the Speeches of the Greek Historians*, Ph.D Diss.(University of Chicago).
- Kirby, J.T. (1983), "Narrative Structure and Technique in Thucydides Vi-Vii", *Classical Antiquity* 2(2), 183-211.
- Kirkwood, G.M. (1952), "Thucydides' Words for 'Caus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73 (1), 37-61.
- Kitto, H.D.F. (1966), *Poi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leve, K. (1964), "Apragmosyne and Polypragmosyne: Two Slogans in Athenian Politics", *Symbolae Osloenses* 39 (1), 83-88.
- Knight, D.W. (1970), "Thucydides and the War Strategy of Perikles", *Mnemosyne* 23(2), 150-161.
- Konishi, H. (2008), *Power and Structure in Thucydides: And Analytical Commentary*, Hakkert.
- Lallot, J., A. Rijksbaron, B. Jacquinod and M. Buijs (eds.) (2011). *The Historical Present in Thucydides: Semantics and Narrative Function = Le Present Historique Chez Thucydide: Semantique Et Fonction Narrative*, Brill.
- Lang, M.L. (2011), *Thucydidean Narrative and Discourse*, Michigan Classical Press.
- Lateiner, D. (1977), "Pathos in Thucydides", *Antichthon* 11, 42-51.
- Lauriello, C.L. (2009), "Diodotus and Thucydides", *Interpretation: A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305-326.
- Lebow, R.N. (2001), "Thucydides the Constructivi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95, 547-60.
- Lee, R.C. (2002), "Justifying Empire: Pericles, Polk, and a Dilemma of Democratic Leadership", *Polity* 34 (4), 503-531.
- Lévy, E. (1976), *Athènes Devant La Défaite De 404: Histoire D'une Crise Idéologique*, Ecole française d'Athènes.
- Lewis, D.M.e.a. (ed.) (1992).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The Fifth Century B. C.* (2nd ed.,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5).
- Liebeschuetz, W. (1968), "Thucydides and the Sicilian Expedition",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17(3), 289-306.

- Loraux, N. (1980), "Thucydide N'est Pas Un Collègue", *Quaderni di storia* 12, 55-81.
- ____ (1986), *The Invention of Athens: The Funeral Oration in the Classical C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Low, P. (2008), *The Athenian Empire*, Oxford University Press.
- Luce, T.J. (1997), *The Greek Historians*, Routledge.
- Luginbill, Robert D (1999), *Thucydides on war and national character*, Westview Press.
- Macleod, C. (1974), "Form and Meaning in the Melian Dialogue", (Reprinted in *Collected Essays*, Oxford, 1983, 52-67)
- ____ (1975), "Rhetoric and History (Thucydides 6.16-18)", *Quaderni di Storia* 2, 39-65. (Reprinted in *Collected Essays*, Oxford, 1983, 68-87).
- ____ (1978), "Reason and Necessity: Thucydides 3.9-14, 37-48", *Journal of Hellenic Studies* 98, 64-78. (Reprinted in *Collected Essays*, Oxford, 1983, 88-102)
- ____ (1979), "Thucydides on Faction",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25, 52-68. (Reprinted in *Collected Essays*, Oxford, 1983, 123-139)
- ____ (1983), *Collected Essays*, Oxford.
- ____ (1983b), "Thucydides and Tragedy", *Collected Essays*, Clarendon.
- Marinatos, N. (1980), "Nicias as a Wise Advisor and Tragic Warner in Thucydides", *Philologus* 124, 305-310.
- Marincola, J. (1989), "Thucydides 1.22.2", *Classical Quarterly* 84 (3), 216-223.
- ____ (1997), *Authority and Tradition in Greek Historiography*, Cambridge.
- ____ (1999), "Genre, Convention, and Innovation in Greco-Roman Historiography", *Mnemosyne Supplementum*, 281-324.
- ____ (2001), *Greek Histor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 (2007), "Speeches in Classical Historiography", *A companion to Greek and Roman historiography* 1, 118-132.
- ____ (2010), *A Companion to Greek and Roman Historiography*, John Wiley & Sons.

- ____ (2010), "The Rhetoric of History: Allusion, Intertextuality, and Exemplarity in Historiographical Speeches", *Stimmen der Geschichte: Funktionen von Reden in der antiken Historiographie* 284.
- Martin, T.R. (2013), *Ancient Greece: From Prehistoric to Hellenistic Times*, Yale University Press. (토마스 R. 마틴, 『고대 그리스의 역사』, 이종인 역, 가람기획, 2003)
- Mattingly, H.B. (1996), *The Athenian Empire Restored: Epigraphic and Historical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cGregor, M.F. (1956), "The Politics of the Historian Thucydides", *Phoenix* 10 (3), 93-102.
- Meiggs, R. (1975), *The Athenian Empire*, Clarendon Press.
- Meiggs, R. and D.M. Lewis (1969), *A Selection of Greek Historical Inscriptions to the End of the Fifth Century BC*, Oxford.
- Meyer, C. (1970), *Die Urkunden Im Geschichtswerk Des Thukydides*, CH Beck.
- Meyer, E. (1899), *Forschungen Zur Alten Geschichte li*, Halle.
- Momigliano, A. (1944). "Sea-power in Greek thought", *The Classical Review*, 58(1), 1-7.
- (1978), "Greek Historiography", *History and theory*, 1-28.
- ____ (1985), "History between Medicine and Rhetoric", *Annali della Scuola Normale Superiore di Pisa. Classe di Lettere e Filosofia* 15(3), 767-780.
- Monoson, S. Sara and Loriaux, Michael (1998), 'The Illusion of Power and the Disruption of Moral Norms: Thucydides' Critique of Periclean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2), 285-97.
- Morau, P. (1954), "Thucydide et La Rhétorique", *Les études classiques* 22, 3-23.
- Morgan, K.A. (ed.) (2003). *Popular Tyranny*, University of Texas Press.
- Morrison, J. (1994), "A Key Topos in Thucydides: The Comparison of Cities and Individual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525-541.

- ____ (1999), "Preface to Thucydides: Rereading the Corcyrean Conflict (1.24-55)", *Classical Antiquity* 18(1), 94-131.
- ____ (2006), *Reading Thucydide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Murray, Gilbert (1944), "Reactions to the Peloponnesian War in Greek thought and Practic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64, 1-9.
- Nardin, Terry (1994), Thucydides, On Justice, Power, and Human Nature,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Paul Woodruff, Hackett.
- Nestle, W. (1914), "Thukydides Und Die Sophistik", *Neue Jahrbucher für das klassische altertum* 33, 684-685.
- Ober, J.(1993), "Thucydides' Criticism of Democratic Knowledge", *Nomodeiktēs: Greek Studies in Honor of Martin Ostwald*, Michigan, 81-98.
- ____ (1996), *The Athenian Revolution: Essays on Ancient Greek Democracy and Political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 (2001), *Political Dissent in Democratic Athens: Intellectual Critics of Popular Ru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 (2008), *Democracy and Knowledge: Innovation and Learning in Classical Athe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 (2009), *Mass and Elite in Democratic Athens: Rhetoric, Ideology, and the Power of the Peop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ber, J. and C.W. Hedrick (1996), *Demokratia: A Conversation on Democracies, Ancient and Moder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liver, J.H. (1955), "Praise of Athenian Democracy as a Mixed Constitution",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NF 98(1), 37-40.
- Orwin, C. (1984), "The Just and the Advantageous in Thucydides: The Case of the Mytilenaian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 485-494.
- ____ (1986), "Justifying Empire: The Speech of the Athenians at Sparta and the Problem of Justice in Thucydides", *Journal of Politics* 47 (1), 72-85.
- ____ (1989), "Thucydides' Contest: Thucydidean "Methodology" in Context", *Review of Politics* 51 (3), 345-364.

- Osborne, R., S. Hornblower and M. Greenstock (2000), *The Athenian Empire*, Lactor.
- Ostwald, M. (1979), "Diodotus, Son of Eucrates",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20(1), 5-13.
- ____ (1988), *Anankē in Thucydides*, Oxford University Press.
- Page, D.L. (1953), "Thucydides' Description of the Great Plague at Athens", *The Classical Quarterly (New Series)* 3 (3-4), 97-119.
- Palmer, M. (1982), "Alcibiades and the Question of Tyranny in Thucydide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5 (1), 103-124.
- ____ (1988), "Thucydides' "History" as Political Theory", *Teaching Political Science: Politics in Perspective* 15 (3), 108-114.
- Park, S. (2008), "Thucydides on the Fate of the Democratic Empir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5 (1), 93-109.
- Parry, Adam M., (1957), *Logos and Ergon in Thucydides* (New Hampshire: Ayer)
- ____ (1969), "The Language of Thucydides' Description of the Plague",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16 (1), 106-118.
- Pearson, L. (1943), "Three Notes on the Funeral Oration of Pericle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64, 399-407.
- ____ (1952), "Prophasis and Aitia",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83, 205-223.
- Plant, I.M. (1999), "The Influence of Forensic Oratory on Thucydides' Principles of Method", *Classical Quarterly* 49 (1), 62-73.
- Pope, M. (1988), "Thucydides and Democracy",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37(3), 276-296.
- Porter, S.E. (1990), "Thucydides 1.22. 1 and Speeches in Acts: Is There a Thucydidean View?", *Novum Testamentum* 32(2), 121-142.
- Pozzi, D.C. (1983), "Thucydides II, 35-46", *Classical Journal* 78, 221-231.
- Price, J.J. (2001), *Thucydides and Internal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nn, T.J. (1964), "Thucydides and the Unpopularity of the Athenian Empire",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13(3) 257-266.

- Raaflaub, K.A. (1983), "Democracy, Oligarchy, and the Concept of the " Free Citizen" in Late Fifth-Century Athens", *Political Theory* 11(4), 517-544.
- ____ (1989), "Contemporary Perceptions of Democracy in Fifth-Century Athens", *Classica et Mediaevalia* 40, 33-70.
- ____ (1996), "Equalities and Inequalities in Athenian Democracy", *Dēmokratia: A conversation on democracies, ancient and modern*, 139-174.
- ____ (2004), *The Discovery of Freedom in Ancient Gree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aflaub, K.A., J. Ober, R. Wallace, P. Cartledge and C. Farrar (2007), *Origins of Democracy in Ancient Greece*, Univ of California Press.
- Raaflaub, K.A. and M. Toher (1993), *Between Republic and Empire: Interpretations of Augustus and His Principate*, Univ of California Press.
- Ranke, Leopold von (1874), *Sämtliche Werke* (Bd 33/34), Leipzig, 1874, S.
- Rahe, P.A. (1995), "Thucydides' Critique of Realpolitik", *Security Studies* 5 (2), 105-141.
- Rawlings III, Hunter R (2014), *The Structure of Thucydides'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engakos, A (2006), 'Thucydides' Narrative: The Epic and Herodotean Heritage', in Rengakos A. and Tsakmakis A. (eds.), *Brill's companion to Thucydides* (Brill), 279-300.
- Rengakos, Antonios and Tsakmakis, Antonis (2006), *Brill's companion to Thucydides* (Brill Academic Pub).
- Rhodes, P. J.(1985), *The Athenian Empire*, Clarendon
- (1995), "The "Acephalous" polis?" *Historia*, 44, 153-167.
- (2000). "Who Ran Democratic Athens?" in *Polis & Politics*, ed. by M.H. Hansen et al, 465-478.
- Rokeah, D. (1982), 'τὰ δέοντα περὶ τῶν αἰεὶ παρόντων Speeches in Thucydides: Factual reporting or Creative Writing', *Athenaeum*, 70.

- Romilly, Jacqueline de (1956), *Histoire et raison chez Thucydide, Les belles Lettres*.
- ____ (1958), *La crainte et l'angoisse dans le théâtre d'Eschyle* (37: Paris, Les Belles Lettres).
- ____ (1958b), *L'Utilité de l'histoire selon Thucydide* (Vandoeuvres).
- ____ (1968), *Time in Greek tragedy*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 (1973), 'Gorgias et le pouvoir de la poési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55-62.
- ____ (1975), *Problèmes de la démocratie grecque* 10, Hermann.
- ____ (1976), 'Alcibiade et le mélange entre jeunes et vieux: politique et médecine', *Wiener Studien* 10, 93-105.
- ____ (1977), 'Magic and rhetoric in ancient Greece'.
- ____ (1979), *Thucydides and Athenian Imperialism*, trans. P. Thody, Arono Press.
- ____ (1988), "Les Grands Sophistes Dans L'athènes De Périclès".
- ____ (1990), *La construction de la vérité chez Thucydide*, Julliard.
- ____ (1991), *The rise and fall of states according to greek authors* (11: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____ (1992), *Pourquoi la Grèce?* (Editions de Fallois). (자클린 드 로미이, 『왜 그리스인가?』 이명훈 역, 후마니타스, 2010)
- ____ (1992), *The great sophists in Periclean Athens*, Clarendon Press Oxford, originally published in *Les grands sophistes dans l'Athènes de Périclès*, Editions de Fallois.
- ____ (2012) *The Mind of Thucydides*, tr. by H. R. Rawlings III., Cornell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Histoire et raison chez Thucydide*.
- Rood, Tim (2004), *Thucydides: Narrative and Explanation: Narrative and Expla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Rubincam, C. (1991), Casualty Figures in the Battle Descriptions of Thucydide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32(2), 121-142.

- Rusten, J.S. "Kinêsis in Thucydides' Preface", *Kinesis: Essays for Donald Lateiner on the ancient depiction of gesture, motion, and emotion*, Ann Arbor.
- ____ (1985), "Two Lives or Three? Pericles on the Athenian Character (Thucydides 2.40. 1-2)", *Classical Quarterly* 35(1), 14-19.
- ____ (1986), "Structure, Style, and Sense in Interpreting Thucydides: The Soldier's Choice (Thuc. 2.42. 4)",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90, 49-76.
- ____ (1989), *The Peloponnesian War: Book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 (2006), "Thucydides and Comedy", in A. Rengakos et al. (eds.) *Brill's Companion to Thucydides*, 547-58.
- ____ (2009), *Thucydides*, OUP Oxford.
- Rutherford, R.B. (2012), "Structure and Meaning in Epic and Historiography", in E. FOSTER AND D. LATEINER (eds.) *Thucydides and Herodotus*: 13-38.
- Saxonhouse, A.W. (1993), "Athenian Democracy: Modern Mythmakers and Ancient Theorists",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6 (3), 486-490.
- Scanlon, T.F. (1987), "Thucydides and Tyranny", *Classical Antiquity* 6(2), 286-301.
- Schmitz, T.A. (2010), "The Mitylene Debate in Thucydides", *Stimmen der Geschichte: Funktionen von Reden in der antiken Historiographie* 284, 45.
- Schumpeter, J.A. (1960),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New York : Meridian Books.
- Schwartz, E. (1919), *Das Geschichtswerk Des Thukydides*, F. Cohen.
- Sealey, R. (1976), *A History of the Greek City States, Ca. 700-338 Bc*, Univ of California Press.
- Sicking, C.M.J. (1995), "The Genral Purport of Pericles' Funeral Oration and Last Speech", *Hermes* 123 (4), 404-425.
- Solmsen, F. (1971), "Thucydides' Treatment of Words and Concepts", *Hermes* 99(4), 385-408.

- Spence, I. (1995), "Thucydides, Woodhead, and Kleon", *Mnemosyne* 4th Series 48(4), 411-437.
- Stadter, P.A. (1989), *A Commentary on Plutarch's Pericle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Stahl, H.-P. (1973), "Speeches and the Course of Events in Books Six and Seven of Thucydides", in P. A. STADTER (ed.) *The Speeches in Thucydides: A Collection of Original Studies with a Bibliograph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60-77.
- ____ (2003), *Thucydides: Man's Place in History*, Classical Press of Wales. (originally published in *Thukydides: Die Stellung Des Menschen Im Geschichtlichen Prozess*, Beck, 1966).
- Stawell, F.M. (1908), "Pericles and Cleon in Thucydides", *Classical Quarterly* 2 (1), 41-46.
- Ste Croix, G.E.M.d. (1954), "The Character of the Athenian Empire", *Historia* 3, 1-41.
- Ste Croix, G.E.M.d. (1972), *The Origins of the Peloponnesian War*, Cornell University Press.
- Stork, Peter, *Index of Verb Forms in Thucydides*, John Benjamins Pub Co.
- Strasburger, H. (2009), 'Thucydides and the Political Self-Portrait of the Ahteninas', in J. S. Rusten (ed.), *Thucydides*, Oxford University Press, 191-219.
- Taylor, M. (2010), *Thucydides, Pericles, and the Idea of Athens in the Peloponnesian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as, R. (1989), *Oral and Written Record in Classical Ahte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 (1992), *Literacy and Orality in Ancient Gree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mpkins, D.P. (1972), "Stylistic Characteriztion in Thucydides: Nicias and Alcibiades", *Yale Classical Studies* 22, 181-214.
- ____ (2013), 'The Language of Pericles', in Antonis Tsamakidis (ed.), *Thucydides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Walter de Gruyter, 447-464.

- Tsakmakis, A. and M. Tamiolaki (2013), *Thucydides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Walter de Gruyter.
- Ullman, B.L. (1942), History and Tragedy,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 Ullrich, F.W.(1968), *Die Entstehung des thukydideischen Geschichtswerks*,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8. Originally published as part of *Beiträge zur Erklärung des Thukydides*(1846)
- Viggiano, G. (2005), *Unreported Speeches and Selection in Thucydides*, unpublished Ph.D Thesis (Yale University).
- Vlastos, G. (1973), "Isonomia Politike", *Platonic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64-203.
- Vogt, J. (2009), "The Portrait of Pericles in Thucydides", in J. S. RUSTEN (ed.) *Thucydides*, Oxford University Press.
- Walbank, F.W. (1955), "Tragic History: A Reconsideration",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2 (1), 4-14.
- ____ (1960), "History and Tragedy",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9(2), 216-234.
- ____ (1965), "Speeches in Greek Historians", *Selected Papers*, Blackwell.
- Walcot, P. (1973), "The Funeral Oration, a Study in Values", *Greece and Rome* series 2, 20, 111-121.
- Walker, A.D. (1993), "Enargei and the Spectator in Greek Historiography",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23, 353-377.
- Wallace, W.P. (1964), "Thucydides", *Phoenix* 18 (4), 251-261.
- Wassermann, F.M. (1956), "Post-Periclean Democracy in Action: The Mytilenean Debate (Thuc. iii 37-48)",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87, 27-41.
- Welch, D.A. (2003), "Wh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sts Should Stop Reading Thucydid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9 (3), 301-319.
- West, W.C., III (1973), "The Speeches in Thucydides: A Description and Listing", in P. A. STADTER (ed.) *The Speeches in Thucydide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Westlake, H. D. (1958), 'Thucydides 2.65.11.', *The Classical Quarterly*, New Series 8 (2), 102-110.
- (1968), *Individuals in Thucydid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t, B.X.de (1963), "Periclean Imperial Policy and the Mytilenean Debte", *Acta Classica* 6, 106-124.
- ____ (1969), "The So-Called Defensive Policy of Pericles", *Acta Classica* 12, 103-119.
- Westlake, H.D. (1968), *Individuals in Thucydid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 (1969), "Thucydides 2.65.11", *Essays on the Greek Historians and Greek History*, Barnes and Noble.
- White, H.V. (1973),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ickersham, J.M. (1994), *Hegemony and Greek Historian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Wilson, John (1982), 'What does Thucydides claim for his speeches?', *Phoenix*, 36(2), 95-103.
- Winnington-Ingram, R. P. (1965), TA DEONTA EIPEIN: Cleon and Diodoto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12 (1), 70-82.
- Winton, R. (1981), "'Thucydides 1.97.2: The 'Arche of the Athenians' and the 'Athenian Empire'", *Museum Helveticum* 38, 147-152.
- ____ (2004), 'Thucydides 2, 37, 1: Pericles on Athenian Democracy',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Neue Folge, 147. Bd, H. 1, 26-34.
- Woodhead, A. G. (1960), 'Thucydides' Portrait of Cleon', *Mnemosyne*, Fourth Series, Vol. 13, Fasc. 4, 289-317.
- Woodman, A.J. (1988), *Rhetoric in Classical Historiography: Four Studies*, Areopagitica Press.
- Woodruff, P. (1993), *On Justice, Power, and Human Nature: The Essence of Thucydides'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Hackett.

- ____ (2005), *First Democracy: The Challenge of an Ancient Idea*, Oxford. (폴 우드러프, 『최초의 민주주의: 오래된 이상과 도전』, 이윤철 역, 돌베개, 2012).
- Worthington, I. (Ed.) (1994). *Persuasion: Greek Rhetoric in Action*. Routledge.
- Yunis, Harvey (1991), 'How Do the People Decide? Thucydides on Periclean Rhetoric and Civic Instruction',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12(2), 179-200.
- ____ (1996), *Taming Democracy: Models of Political Rhetoric in Classical Athens*,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 (1998), "The Constraints of Democracy and the Rise of the Art of Rhetoric", in *Democracy, Empire, and the Arts in Fifth-Century Athens* eds. by K. Raafalau et al, Harvard, 223-40.
- ____ (2002), "Narrative, Rhetoric, and Ethical Instruction in Thucydides", *Papers on rhetoric IV (Università degli studi di Bologna. Dipartimento di filologia classica e medioevale. Papers on rhetoric VI)*, ed. L. Calboli Montefusco, 275-86.
- ____ (2003), *Written Texts and the Rise of Literate Culture in Ancient Gree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gorin, Perez (2009), *Thucydides: an Introduction for the Common Rea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ali, Vasiliki (2015), *The Shape of Herodotean Rhetoric: A Study of the Speeches in Herodotus' Histories with Special Attention to book 5-9*, Brill.
- Ziolkowski, John E. (1981), *Thucydides and the Tradition of Funeral Speeches at Athens*, Ayer Co Pub.
- Zumbrunnen, John (2002), "Democratic Politics and the 'Character' of the City in Thucydides",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23 (4), 565-89.

Abstract

A Study of the Speeches in Thucydides' *Historiae*

Jang, Sieu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Western Class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plores some of the speeches in Thucydides' *History* as the crucial key to understanding his views on the ideas and visions of the Athenian Leaders;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of Athenian democracy.

The following speeches are discussed in detail; the three Speeches of Pericles (432-430 bce), which were held just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Peloponnesian War, the Mytilenean debate between Cleon and Diodotus(427 bce), and the three speeches of Nicias and Alcibiades on Sicilian Expedition(415 bce).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rhetorical strategies of the speakers, the verbal echoes between the speeches, and what the speeches revea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thenian democracy and imperialism; and the decline in political leadership in Athens.

Pericles' three speeches appear ideal and optimistic on the surface, but there are tension and contradiction between the ideal of democracy and the reality of imperialism underlying them. Pericles emphasizes only the bright side of Athens, inspiring the pride of Athenians and leading them in the direction which he wants. However, the ambiguity of the meaning of *dynamis* he repeatedly underlines reveals it. The

narrative of the Great Plague follows the ideal Funeral Speeches. By this narrative order, Thucydides reveals the fragility of the balance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Athens, which Pericles maximally idealizes and are fully accepted by *dēmos*. Also through the narrative of the Great Plague and the tragic tone of last Speech, Thucydides intends to lead the reader to see the beginning of the necessary decline of Athens.

Thucydides presents the debate by Cleon and Diodotus on the Mytilenean Case in a symmetric *logōn agōn*. Thucydides makes this debate as a discussion about the interrelation between Athenian democracy and its imperialism. Cleon bluntly accepts the tension between Athenian democracy and its imperialism, of which Pericles is almost intentionally silent. On the other hand, Diodotus insists that Athens should do as a stakeholder based on *realpolitik*. The logic behind the 'supremacy' which they set out, is not intended to control the desire of the demos, but only to take advantage of it. Through the highly charged debate between them, Thucydides reveals indirectly but effectively the grim reality of Athenian Democracy and its Imperialism.

The three Speeches of Nicias and Alcibiades are held before the Sicilian Expedition. Thucydides presents them in focusing on the characters of two. Using the verbal echoes, he brings the two political leaders who had limited capability compared to Pericles. The content and the arrangement of Nicias' letter and the speeches he delivered in the course of retreat show clearly how Thucydides composed elaborately the *logos* of Nicias to be consistent with his character. The lack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thenian political leaders demonstrates that Athens has become '*akephalos polis*'

Thucydides continually reveals the interplay of the political leaders and *dēmos* by the medium of the speeches. These speeches portray the catastrophic change of Athenian democracy and its imperialism. The literary and rhetorical features of the speeches and the contexts give the contingent and temporarily events the philosophical and universal dimension.

Keywords : Greek historiography and Rhetoric, Athenian Democracy, and Imperialism, *symbolleukikos logos*, *archē*, *dēmos*, *logōn agōn*.

Student Number : 2005-30047